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6년 2월

목 차

제 1편. 조사개요	1
I. 조사 목적	3
II. 조사 연혁	3
III. 조사내용 및 범위	4
IV. 주요용어 및 정의	6
V. 조사 체계	6
VI. 표본설계	7
VII. 자료수집	9
VIII. 자료입력 및 처리	9
IX. 응답자 특성	11
 제 2편. 주요결과 요약	 13
I. 학생 대상 조사결과	15
1. 사이버폭력 경험일반	15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16
3.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17
4.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18
5.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19
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20
7.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21
8.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22
9. 환경,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23
10.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24
II. 성인 대상 조사결과	25
1.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25
2. 사이버폭력 가해 유형	26
3.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27
4. 사이버폭력 피해 특성	28
5.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30
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31
7. 환경, 요인 사이버폭력 경험	33
8.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34

목 차

Ⅲ. 교사·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35
1. 교사 인식	35
(1) 교내 사이버폭력 정책	35
(2)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대응	36
2. 학부모 인식	37
(1) 자녀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조치	37
(2) 자녀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조치	38
 제 3편. 학생대상 조사결과	 39
제1장 사이버폭력 경험	41
제1절 사이버폭력 경험 및 유형	41
1. 일반적 현황	41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42
3.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43
4. 신종 사이버폭력 경험 및 유형	44
제2절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46
1. 일반적 현황	46
2. 목격이후 대응	47
3. 목격이후 미대응 이유	48
제3절 사이버폭력 신고 및 처벌 인지	49
1. 일반적 현황	49
2. 성별·학년별 사이버폭력 기관 및 처벌 인지	50
 제2장 사이버폭력 특성	 51
제1절 일반적 특성	51
1.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51
2. 사이버폭력 피해 특성	53
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55
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56
5.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58
6.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59
7. 사이버폭력 이후 주변인지	61

목 차

제2절 사이버폭력 유형별 특성	62
1.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대상	62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이유	63
3.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수단	64
4.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방식	65
5.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이후 심리	66
6.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주변인지	67
7.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대상	68
8.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이후 대응	69
9.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수단	71
10.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방식	72
11.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이후 심리	73
12.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주변인지	74
제3장 사이버폭력 원인	75
제1절 인터넷 이용특성별 사이버폭력 경험	75
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75
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76
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78
제2절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80
1.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80
2. 환경요인별 신종 사이버폭력 경험	82
제3절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상관성	84
제 4편. 성인대상 조사결과	85
제1장 사이버폭력 경험	87
제1절 사이버폭력 경험 및 유형	87
1. 일반적 현황	87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88
3.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90
제2절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92
1. 일반적 현황	92
2. 목격이후 대응	93
3. 목격이후 미대응 이유	93

목 차

제3절 사이버폭력 신고 및 처벌 인지	94
1. 일반적 현황	94
제2장 사이버폭력 특성	95
제1절 일반적 특성	95
1.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95
2. 사이버폭력 피해 특성	97
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99
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100
5.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102
6.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105
7. 사이버폭력 주변인지	108
제2절 사이버폭력 유형별 특성	109
1.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대상	109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110
3.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수단	111
4.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방식	112
5.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이후 심리	113
6.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주변인지	114
7.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대상(가해자)	115
8.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이후 대응	116
9.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수단	118
10.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방식	119
11. 사이버폭력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심리	120
12.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주변인지	121
제3장 사이버폭력 원인	122
제1절 인터넷 이용특성별 사이버폭력 경험	122
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122
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123
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125
제2절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	127
제3절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순환성	129

목 차

제 5편. 교사대상 조사결과	131
제1장 인터넷 이용 인식과 경험	133
제1절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133
1. 일반적 현황	133
2. 학년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134
제2절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135
제3절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136
1. 일반적 현황	136
2. 학년별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137
제2장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38
제1절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현황	138
1. 일반적 현황	138
2. 학년별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139
제2절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대응	140
제3절 교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	141
제4절 온·오프라인 폭력 대응경험	142
1. 일반적 현황	142
2. 학년별 온·프라인 폭력 대응경험	143
제3장 학생문제 인식 및 대응	144
제1절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인식	144
제2절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대응	145
1. 일반적 현황	145
2. 학년별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대응	146
제3절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인식	147
1. 사이버폭력 대응교육을 받은 경험	147
2.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우선순위	148
3. 사이버폭력 보호기관의 중요성	149

목 차

제 6편. 학부모대상 조사결과	151
제1장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과 교류 경험	153
제1절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153
1. 일반적 현황	153
2. 학년별 자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	154
제2절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155
제3절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경험	156
 제2장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57
제1절 자녀 학교문제에 대한 관심	157
제2절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	158
제3절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	159
제4절 부모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유형)	160
1. 예방대책의 유형	160
2.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의 효과성	161
 제3장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162
제1절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경험 및 필요	162
제2절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우선(대상)	163
제3절 사이버폭력 보호기관의 중요성	164
 [부록 1] 설문지	 165

그림 목 차

제 2편. 주요결과 요약 13

I. 학생 대상 조사결과 15

[그림 1]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	15
[그림 2]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16
[그림 3]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복수응답, %)	16
[그림 4] 사이버폭력 가해 대상 (%)	17
[그림 5]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	17
[그림 6]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18
[그림 7]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18
[그림 8]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18
[그림 9]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19
[그림 10]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19
[그림 11]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	19
[그림 12]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19
[그림 1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19
[그림 1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20
[그림 15]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20
[그림 1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20
[그림 17]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21
[그림 18]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21
[그림 19]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	21
[그림 20]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21
[그림 21]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21
[그림 22]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22
[그림 23]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22
[그림 24]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22
[그림 25]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23
[그림 26]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23
[그림 27]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24

그림 목 차

Ⅱ. 성인 대상 조사결과 25

[그림 28]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25
[그림 29]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26
[그림 30]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26
[그림 31]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27
[그림 32]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27
[그림 33]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29
[그림 34]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29
[그림 35]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29
[그림 36]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30
[그림 37]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30
[그림 38]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	30
[그림 39]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30
[그림 40]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30
[그림 41]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32
[그림 42]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32
[그림 43]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32
[그림 44]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33
[그림 45]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33
[그림 46]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34

Ⅲ. 교사·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35

[그림 47] 교내 사이버정책 여부 (%)	35
[그림 48]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36
[그림 49] 자녀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37
[그림 50] 자녀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38

그림 목 차

제 3편. 학생대상 조사결과 39

제1장 사이버폭력 경험 41

제1절 사이버폭력 경험 및 유형 41

[그림 3-1-1]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41
[그림 3-1-2]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42
[그림 3-1-3]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복수응답, %)	42
[그림 3-1-4]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43
[그림 3-1-5]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복수응답, %)	43
[그림 3-1-6] 성별에 따른 학생의 신중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44
[그림 3-1-7] 학년에 따른 학생의 신중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45

제2절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46

[그림 3-1-8] 학생의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	46
[그림 3-1-9]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대응 (복수응답, %)	47
[그림 3-1-10]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대응 (%)	48

제3절 사이버폭력 신고 및 처벌 인지 49

[그림 3-1-11] 사이버폭력 신고 및 처벌 인지 (%)	49
[그림 3-1-12] 성별·학년별 사이버폭력 신고기관 인지 (%)	50
[그림 3-1-13] 성별·학년별 사이버폭력 법적처벌 인지 (%)	50

제2장 사이버폭력 특성 51

제1절 일반적 특성 5

[그림 3-2-1] 사이버폭력 가해 대상 (복수응답, %)	51
[그림 3-2-2]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복수응답, %)	52
[그림 3-2-3] 사이버폭력 가해수단과 가해방식 (복수응답, %)	52
[그림 3-2-4]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복수응답, %)	52
[그림 3-2-5]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복수응답, %)	53
[그림 3-2-6]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54
[그림 3-2-7]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복수응답, %)	54
[그림 3-2-8]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54
[그림 3-2-9]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복수응답, %)	55
[그림 3-2-10]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복수응답, %)	55
[그림 3-2-11]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복수응답, %)	55
[그림 3-2-12]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55
[그림 3-2-1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55
[그림 3-2-1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복수응답, %)	56
[그림 3-2-15]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57

그림 목 차

[그림 3-2-1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복수응답, %)	57
[그림 3-2-17]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57
[그림 3-2-18]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복수응답, %)	58
[그림 3-2-19]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복수응답, %)	58
[그림 3-2-20]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복수응답, %)	58
[그림 3-2-21]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58
[그림 3-2-22]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58
[그림 3-2-23]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복수응답, %)	59
[그림 3-2-24]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60
[그림 3-2-25]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복수응답, %)	60
[그림 3-2-26]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60
[그림 3-2-27]	사이버폭력 이후 주변인지 (복수응답, %)	61
제2절	사이버폭력 유형별 특성	62
[그림 3-2-28]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복수응답, %)	62
[그림 3-2-29]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복수응답, N=526, %)	63
[그림 3-2-30]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수단 (복수응답, %)	64
[그림 3-2-31]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복수응답, %)	65
[그림 3-2-3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66
[그림 3-2-33]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사실 주변인지 (%)	67
[그림 3-2-34]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복수응답, %)	68
[그림 3-2-35]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69
[그림 3-2-36]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목격 이후 대응 (복수응답, %)	70
[그림 3-2-37]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 (복수응답, %)	71
[그림 3-2-38]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방식 (%)	72
[그림 3-2-39]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73
[그림 3-2-40]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주변인지 (N=517, %)	74
제3장	사이버폭력 원인	75
제1절	인터넷 이용특성별 사이버폭력 경험	75
[그림 3-3-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75
[그림 3-3-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76
[그림 3-3-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78
제2절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80
[그림 3-3-4]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80
[그림 3-3-5]	환경요인별 신중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82
제3절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상관성	84
[그림 3-3-6]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84

그림 목 차

제 4편. 성인대상 조사결과 85

제1장 사이버폭력 경험 87

제1절 사이버폭력 경험 및 유형 87

[그림 4-1-1]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87
[그림 4-1-2]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88
[그림 4-1-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복수응답, %)	89
[그림 4-1-4]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복수응답, %)	89
[그림 4-1-5]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90
[그림 4-1-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복수응답, %)	91
[그림 4-1-7]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복수응답, %)	91

제2절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92

[그림 4-1-8] 성인의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	92
[그림 4-1-9]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대응 (복수응답, %)	93
[그림 4-1-10]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미대응 이유 (복수응답, %)	93

제3절 사이버폭력 신고 및 처벌 인지 94

[그림 4-1-11] 사이버폭력 신고기관 인지여부	94
[그림 4-1-12] 사이버폭력 법적처벌 인지여부	94

제2장 사이버폭력 특성 95

제1절 일반적 특성 95

[그림 4-2-1]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95
[그림 4-2-2]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96
[그림 4-2-3] 사이버폭력 가해수단과 가해방식 (%)	96
[그림 4-2-4]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96
[그림 4-2-5]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97
[그림 4-2-6]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98
[그림 4-2-7]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	98
[그림 4-2-8]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98
[그림 4-2-9]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99
[그림 4-2-10]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99
[그림 4-2-11]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	99
[그림 4-2-12]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99
[그림 4-2-1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99
[그림 4-2-1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100
[그림 4-2-15]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101

그림 목 차

[그림 4-2-1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	101
[그림 4-2-17]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101
[그림 4-2-18]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복수응답, %)	103
[그림 4-2-19]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복수응답, %)	103
[그림 4-2-20]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복수응답, %)	103
[그림 4-2-21]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104
[그림 4-2-22]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104
[그림 4-2-23]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가해자) (복수응답, %)	106
[그림 4-2-24]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106
[그림 4-2-25]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 (복수응답, %)	106
[그림 4-2-26]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방식 (복수응답, %)	107
[그림 4-2-27]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107
[그림 4-2-28]	사이버폭력 이후 주변인지 (복수응답, %)	108
제2절	사이버폭력 유형별 특성	109
[그림 4-2-29]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대상 (복수응답, %)	109
[그림 4-2-30]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이유 (복수응답, %)	110
[그림 4-2-31]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수단 (복수응답, %)	111
[그림 4-2-3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112
[그림 4-2-33]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113
[그림 4-2-34]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사실 주변인지 (복수응답, %)	114
[그림 4-2-35]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가해자) (복수응답, %)	115
[그림 4-2-36]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116
[그림 4-2-37]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목격 이후 대응 (복수응답, %)	117
[그림 4-2-38]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수단 (복수응답, %)	118
[그림 4-2-39]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방식 (%)	119
[그림 4-2-40]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120
[그림 4-2-41]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주변인지 (복수응답, %)	121
제3장	사이버폭력 원인	122
제1절	인터넷 이용특성별 사이버폭력 경험	122
[그림 4-3-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122
[그림 4-3-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123
[그림 4-3-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125
제2절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	127
[그림 4-3-4]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127
제3절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순환성	129
[그림 4-3-5]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129

그림 목 차

제 5편. 교사대상 조사결과	131
제1장 인터넷 이용 인식과 경험	133
제1절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133
[그림 5-1-1]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n=250, %)	133
[그림 5-1-2] 학년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	134
제2절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135
[그림 5-1-3]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135
제3절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136
[그림 5-1-4]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n=250, %)	136
[그림 5-1-5] 학년별에 따른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N=250, %)	137
제2장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38
제1절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현황	138
[그림 5-2-1]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현황 (N=250, %)	138
[그림 5-2-2] 학년에 따른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N=250, %)	139
제2절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대응	140
[그림 5-2-3]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140
제3절 교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	141
[그림 5-2-4] 교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여부 (%)	141
제4절 온·오프라인 폭력 대응경험	142
[그림 5-2-5] 온·오프라인 폭력 대응경험 (N=250, %)	142
[그림 5-2-6] 학년별 온·오프라인 폭력 대응경험 (N=250, %)	143
제3장 학생문제 인식 및 대응	144
제1절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인식	144
[그림 5-3-1]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인식 (%)	144
제2절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대응	145
[그림 5-3-2]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대응 (N=250, %)	145
[그림 5-3-3] 학년에 따른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대응 (N=250, %)	146
제3절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인식	147
[그림 5-3-4]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경험과 인식 (%)	147
[그림 5-3-5]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우선순위 (1+2+3순위, N=250, %)	148
[그림 5-3-6] 사이버폭력 보호기관의 중요성 (%)	149

그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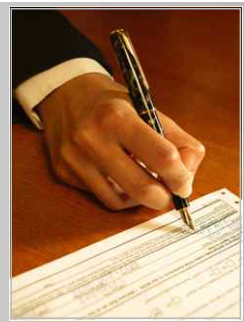
제 6편. 학부모대상 조사결과	151
제1장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과 교류 경험	153
제1절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153
[그림 6-1-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n=250, %)	153
[그림 6-1-2] 학년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	154
제2절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155
[그림 6-1-3]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155
제3절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경험	156
[그림 6-1-4]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경험 (%)	156
제2장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157
제1절 자녀 학교문제에 대한 관심	157
[그림 6-2-1] 자녀 학교문제에 대한 관심 (%)	157
제2절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	158
[그림 6-2-2] 자녀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158
제3절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	159
[그림 6-2-3] 자녀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159
제4절 부모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유형)	160
[그림 6-2-4] 부모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책 (%)	160
[그림 6-2-5] 자녀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의 효과성 인식 (%)	161
제3장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162
제1절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경험 및 필요	162
[그림 6-3-1]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경험 및 필요 (%)	162
제2절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우선(대상)	163
[그림 6-3-2]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우선순위 (1+2+3순위, n=250, %)	163
제3절 사이버폭력 보호기관의 중요성	164
[그림 6-3-3] 사이버폭력 보호기관의 중요성 (%)	164

표 목 차

제 3편. 학생대상 조사결과	39
제3장 사이버폭력 원인	75
제1절 인터넷 이용특성별 사이버폭력 경험	75
[표 3-3-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75
[표 3-3-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77
[표 3-3-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79
제2절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80
[표 3-3-4]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81
[표 3-3-5] 환경요인별 신종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83
 제 4편. 성인대상 조사결과	 85
제3장 사이버폭력 원인	122
제1절 인터넷 이용특성별 사이버폭력 경험	122
[표 4-3-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122
[표 4-3-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124
[표 4-3-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126
제2절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	127
[표 4-3-4]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128

제 1편

조사개요



I. 조사 목적

-  국내 사이버폭력의 가해, 피해, 목격 현황 파악
-  사이버폭력 발생의 환경요인 파악
-  사이버폭력 경험과 환경요인 간 관련성 도출
-  교사 및 학부모의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파악

II. 조사 연혁

2013년 10월 30일~11월 30일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실시

- 초중고생 1,500명(학년별 각 500명), 성인 500명, 초중고 교사 250명, 초중고생 학부모 250명 대상 조사
- 학생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통계 기반 유의할당 및 층화비례 후 초등학생은 개별 면접조사, 중고등학생은 온라인조사
- 성인은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 이용자 수 기반 층화비례 후 온라인조사
- 교사 및 학부모 모두 온라인조사

2014년 11월 10일~12월 5일

표본규모 확대 및 조사방법 변경

- 초중고생 3,000명(학년별 각 1,000명), 성인 1,500명으로 표본 규모 확대
- 학생 및 교사 대상 우편조사로 변경
- 학생 및 교사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통계 기반 유의할당 및 층화비례 후 학교목록에서 Kn번째 학교를 계통추출하여, 선택된 학교의 1개 학급 전원 및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2015년 10월 22일~12월 15일

표본규모 유지, 조사방법 변경

- 학부모 대상 우편조사로 변경 및 응답 학생의 학부모 매칭하여 조사 실시
- 학생 및 교사는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통계 기반 유의할당 및 층화비례 후 학교목록에서 Kn번째 학교를 계통추출하여, 선택된 학교의 1개 학급 전원 및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Ⅲ. 조사내용 및 범위

● 학생 및 성인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 성별 ▪ 학교지역(학생) ▪ 학년(학생) ▪ 연령(성인) ▪ 거주지역(성인) ▪ 학력(성인) ▪ 직업(성인) ▪ 월평균 가구소득(성인)
인터넷 이용	▪ 인터넷 이용시간(평일, 주말/공휴일) ▪ 인터넷 이용 목적별 이용시간 ▪ 인터넷 이용 서비스별 이용빈도 ▪ 인터넷 게시물 댓글 경험 ▪ 인터넷 교육 경험 ▪ 사이버폭력 기관 및 처벌 인지
사이버폭력 가해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사이버폭력 가해 후 주변인지 ▪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피해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 사이버폭력 피해대상(가해자) ▪ 사이버폭력 피해방식 ▪ 사이버폭력 피해 후 주변인지 ▪ 사이버폭력 피해수단 ▪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응 ▪ 사이버폭력 피해 후 미대응 이유 ▪ 사이버폭력 피해 후 심리
사이버폭력 목격	▪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 사이버폭력 목격 후 대응 ▪ 사이버폭력 목격 후 미대응 이유
환경요인	▪ 개인요인(삶 만족도, 스트레스, 우울·불안) ▪ 가족환경(부모 대화, 가족 애착도) ▪ 학교(사회) 환경(학교만족, 교우만족 등) ▪ 사회환경(사회관심도, 오프라인 취미생활) ▪ 온라인환경(폭력게임 노출) ▪ 사이버폭력 피해 잠재성

● 교사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 성별 ▪ 연령 ▪ 재직 학년
인터넷 이용	▪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인지 ▪ 학생들과의 온라인 교류
사이버폭력 관련	▪ 온라인폭력, 오프라인 폭력 관련 대화 및 상담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필요 대상 ▪ 학교 내 사이버폭력 관련 문제 ▪ 학교 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 ▪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시 대응 ▪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에 대한 인식 ▪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에 대한 교육, 상담, 권고, 조언 ▪ 사이버폭력 관련 기관의 역할 중요도

● 학부모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 학부모 성별 ▪ 학부모 연령 ▪ 첫째 자녀 학년
인터넷 이용	▪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 자녀의 인터넷 이용 인지 ▪ 자녀의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경험
사이버폭력 관련	▪ 온라인폭력, 오프라인 폭력 관련 대화 및 상담 ▪ 자녀의 온라인, 오프라인 폭력에 대한 걱정 ▪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 ▪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 ▪ 사이버폭력 관련 자녀의 대응 ▪ 사이버폭력 관련 교육 도움정도 ▪ 사이버폭력 외 자녀문제에 대한 인식 ▪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에 대한 교육, 상담, 권고, 조언 ▪ 사이버폭력 관련 기관의 역할 중요도

IV. 주요용어 및 정의

사이버폭력 정의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

사이버폭력 유형

- **사이버 언어폭력 :**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 **사이버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위
- **사이버 성폭력 :**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
- **신상정보 유출 :**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리는 행위
- **사이버 따돌림 :**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V. 조사체계

조사대상별 개요

구 분	학 생	성 인	교 사	학부모
조사인원	3,000명	1,500명	250명	250명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년별 각 1,000명)	20대 ~ 50대	현직 초·중고 교사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조사방법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우편조사	우편조사
조사기간	2015. 10. 22. ~ 2015. 11. 13. (4주)			

조사주기

➤ 연 1회

주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VI. 표본설계

01 학생

목표 모집단	➢ 국내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
조사 모집단	➢ 국내 재학중인 초(4~6학년)·중·고등학생
표집 틀	➢ 한국 교육개발원 초·중·고등학교 통계(학생 및 학교 통계 이용)
표본 할당	➢ 유의 할당, 다단층화 및 계통추출 - 초(4~6학년)·중(1~3학년)·고등학생(1~3학년) 총 3,000명 - 각 학년별 1,000명씩 유의할당 - 초·중·고등학생 지역·학년·성별로 다단층화 - 학년별, 지역별 학교 층화 후 학교 목록에서 Kn번째 학교 계통추출
층화 변수	➢ 성(2개): 남학생, 여학생 ➢ 학년(3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지역(16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추출 방법	➢ 각 지역별로 할당된 학생 표본수를 기준으로 학교 수를 추출 ➢ 각 지역별로 할당된 학교 수만큼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 ➢ 선정된 학교는 순차적으로 학년을 부여하여 지정된 학년의 1개 학급 전원 조사 ➢ 선정된 학교가 응답을 거절하거나, 미수집시 인접한 비슷한 성격의 학교로 대체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pm 1.79\%$ p

02 성인

목표 모집단	➢ 국내거주 만 19~59세 성인 남녀
조사 모집단	➢ 조사기관의 패널 만 19~59세 성인 남녀
표집 틀	➢ 조사 기관 보유 온라인 패널
표본 할당	➢ 다단층화 비례할당 - 만 19~59세 인터넷 이용자 총 1,500명 - 「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인터넷 이용 통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성X연령별 인터넷 이용자 수에 따른 비례할당
층화 변수	➢ 성(2개): 남성, 여성 ➢ 연령(4개): 만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 지역(16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추출 방법	➢ 패널을 층화 변수에 따라 분류한 후 각 층별로 할당된 표본 수를 기반으로 임의 추출 ➢ 추출된 패널이 응답을 하지 않거나 조사대상이 아니면, 추출에서 제외된 조사 패널을 대상으로 대체표본 추출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pm 2.53\%$ p

03 교사

목표 모집단	➢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조사 모집단	➢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표집 틀	➢ 한국 교육개발원 초·중·고등학교 통계(교사 및 학교 통계 이용)
표본 할당	➢ 다단층화 및 계통추출 - 초·중·고등학교 재직 교사 중 250명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지역·성별·학년별 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층화 변수	➢ 성(2개): 남성, 여성 ➢ 학년(3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지역(16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추출 방법	➢ 각 지역별로 할당된 교사 표본수를 기준으로 학교 수를 추출 ➢ 각 지역별로 할당된 학교 수만큼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 ➢ 선정된 학교는 순차적으로 학년을 부여하여 지정된 학년의 교사 조사 ➢ 선정된 학교가 응답을 거절하거나, 미수집시 인접한 비슷한 성격의 학교로 대체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pm 6.20\%$ p

04 학부모

목표 모집단	➢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조사 모집단	➢ 조사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표집 틀	➢ 한국 교육개발원 초·중·고등학교 통계(학생 및 학교 통계 이용)
표본 할당	➢ 다단층화 계통추출 -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 중 250명 -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지역·성별·학년별 분포에 따른 비례할당
층화 변수	➢ 성(2개): 남성, 여성 ➢ 첫째 자녀 학년(3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지역(16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추출 방법	➢ 각 지역별로 할당된 교사 표본수를 기준으로 학교 수를 추출 ➢ 각 지역별로 할당된 학교 수만큼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 ➢ 선정된 학교는 순차적으로 학년을 부여하여 지정된 학년의 학부모 조사 ➢ 선정된 학교가 응답을 거절하거나, 미수집시 인접한 비슷한 성격의 학교로 대체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pm 6.20\%$ p

VII.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

➤ 2015. 10. 22. ~ 2015. 11. 13.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초·중·고등학생: 우편조사
- 성인: 온라인조사
- 교사: 우편조사
- 학부모: 우편조사

자료수집 절차

- 우편조사 :
학교 리스트 추출 → 조사 대상 학교 선정 및 사전 전화 안내
→ 선정된 학교로 공문, 설문 및 설문 안내서 발송 → 설문 수거 및 집계
→ 최종 자료 검증
- 온라인조사 :
온라인 설문 제작 → 온라인 설문 로직 점검 및 최종 확정
→ 패널 대상 온라인 설문 발송 → 최종 자료 검증

VIII. 자료입력 및 처리

1) 자료 검증 및 대체

● 우편조사 자료검증

- 회수된 우편설문은 검증 감독원이 100% 응답 검사하여, 불성실 응답 설문은 제외
- 1차 검증을 통과한 설문지는 에디팅 및 입력 과정에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2차 검증
- 입력된 자료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내검 프로그램에 의해 3차 검증
- 검증 단계별로 불합격된 설문은 폐기

● 온라인조사 자료검증

- 조사기관의 패널유지 및 조사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패널관리 정책을 활용하여 응답자 조사품질 확보
- 조사기관의 온라인 웹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문항간 논리성, 무응답, 응답오류 등을 사전 통제
- 응답시간 검증을 통해 불성실 응답 자료 제거

● 분석과정의 자료검증

- 응답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수집된 자료에 대한 문항간 논리성 검증
- 검증결과 불합격된 자료 폐기

2) 자료 입력 및 분석

● 우편조사 자료입력

-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 전산입력

● 온라인조사 자료입력

- 온라인 웹 설문을 활용한 조사는 별도의 자료입력 과정 없음

● 자료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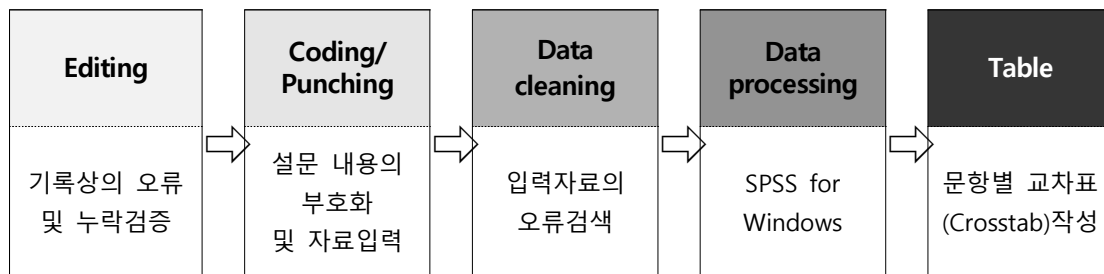
- 다단계 검증과정에서 최종 합격된 자료를 SPSS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를 이용해 전산처리

● 분석방법

- 열(Row)에 따라 모든 백분율(%)을 산출
- 복수응답은 카테고리의 사례수를 전체 사례수에 근거하여 백분율 산출
- 자료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교차분석

● 자료해석상의 유의점

- 표본조사는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함



IX. 응답자 특성

01 학생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3,000	100.0
학년	초등학교	1,000	33.3
	중학교	1,000	33.3
	고등학교	1,000	33.3
성별	남학생	1,478	49.3
	여학생	1,522	50.7
학교별 성별	초등학교 남학생	468	15.6
	초등학교 여학생	532	17.7
	중학교 남학생	462	15.4
	중학교 여학생	538	17.9
	고등학교 남학생	548	18.3
	고등학교 여학생	452	15.1
지역	서울	352	11.7
	부산	187	6.2
	대구	171	5.7
	인천	180	6.0
	광주	147	4.9
	대전	147	4.9
	울산	135	4.5
	경기	452	15.1
	강원	141	4.7
	충북	143	4.8
	충남	161	5.4
	전북	158	5.3
	전남	151	5.0
	경북	166	5.5
	경남	197	6.6

02 교사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250	100.0
재직 학년	초등학교	82	32.8
	중학교	85	34.0
	고등학교	83	33.2
성별	남성	133	53.2
	여성	117	46.8
연령	20대	18	7.2
	30대	124	49.6
	40대	91	36.4
	50대	17	6.8

03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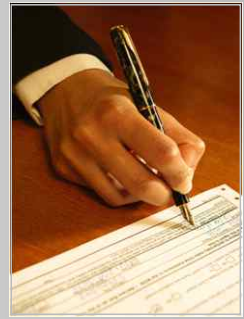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1,500	100.0
성별	남성	750	50.0
	여성	750	50.0
연령	20대	376	25.1
	30대	376	25.1
	40대	374	24.9
	50대	374	24.9
직업	전문/관리직	202	13.5
	사무직	681	45.4
	서비스/판매직	127	8.5
	생산관리직	51	3.4
	학생	159	10.6
	전업주부	185	12.3
	무직	67	4.5
	기타	28	1.9
지역	서울	542	36.1
	부산	140	9.3
	대구	78	5.2
	인천	97	6.5
	광주	40	2.7
	대전	50	3.3
	울산	27	1.8
	경기	273	18.2
	강원	29	1.9
	충북	28	1.9
	충남	33	2.2
	전북	31	2.1
	전남	32	2.1
	경북	36	2.4
	경남	52	3.5
	제주	12	0.8

04 학부모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250	100.0
성별	남성	45	18.0
	여성	205	82.0
첫째 자녀 학년	초등학교	60	24.0
	중학교	77	30.8
	고등학교	113	45.2
연령	30대	38	15.2
	40대	188	75.2
	50대	22	8.8
	응답거부	2	0.8

제 2편

주요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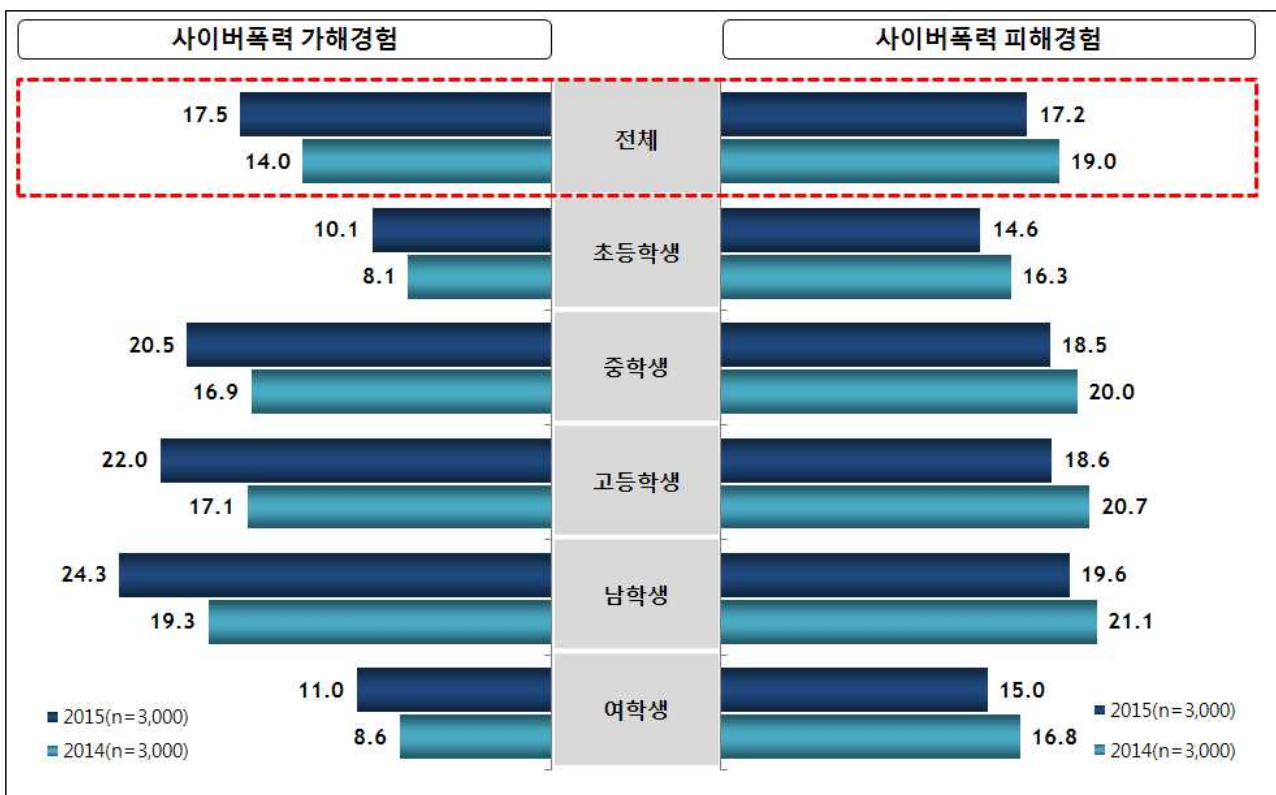
I. 학생 대상 조사결과

1. 사이버폭력 경험일반

◆ 최근 1년간 초·중·고 학생 17.2%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17.5%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최근 1년간 초·중·고 학생 17.2%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17.5%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2014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피해경험은 1.8%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4년에 대비 모든 학년과 성별에 걸쳐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증가하였으나, 피해경험은 모든 학년과 성별에 걸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높을수록, 여학생 대비 남학생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의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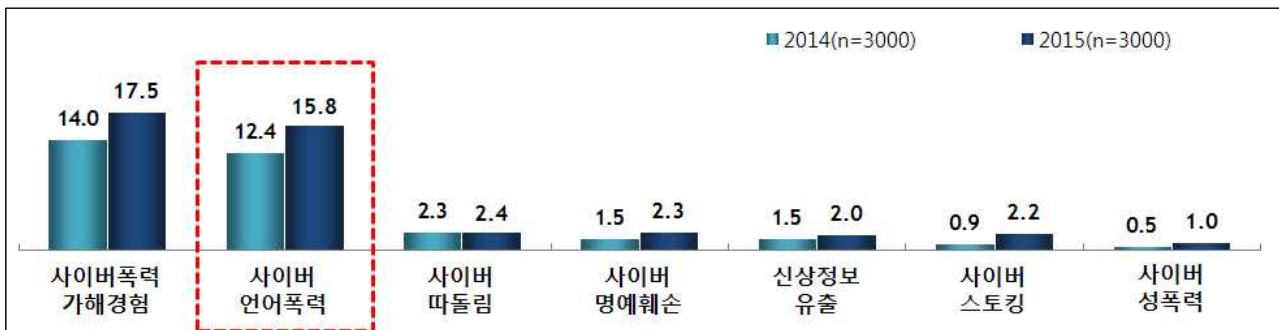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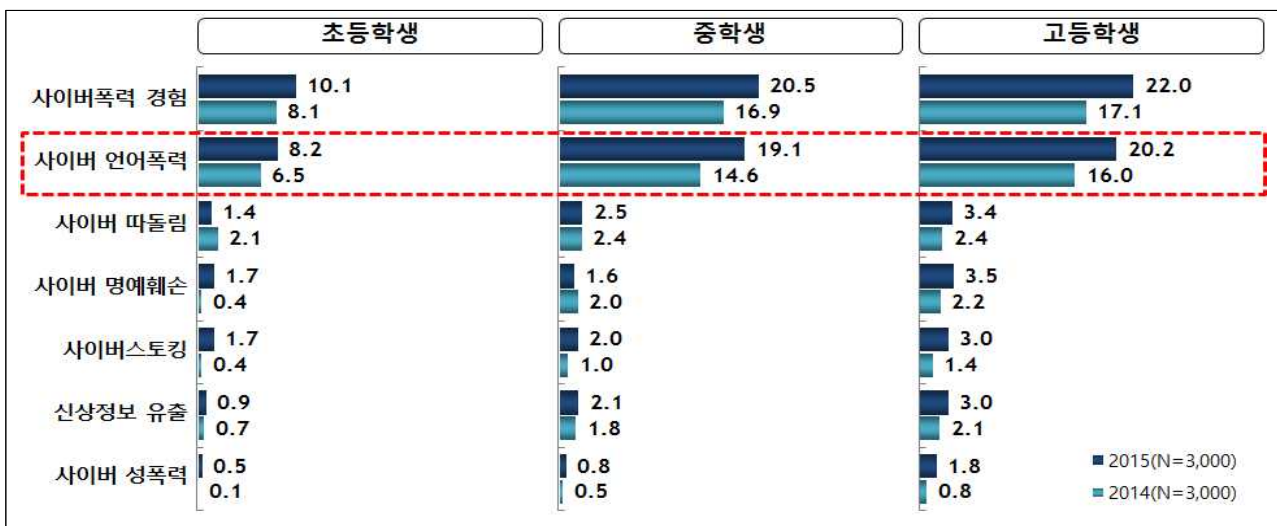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이 대부분이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

-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언어폭력'이 가해경험이 대부분이며, 2014년 대비 3.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도 2~3% 이내로 미미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은 주로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경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 등도 미미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년별로 고등학생은 '사이버 언어폭력'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역시 '사이버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그림 3]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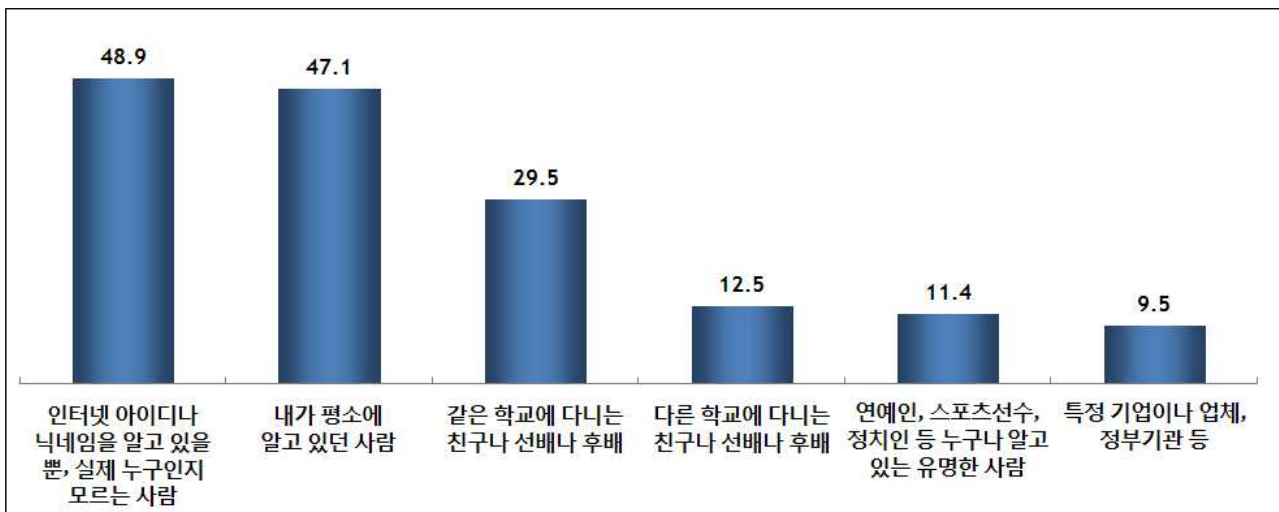


3.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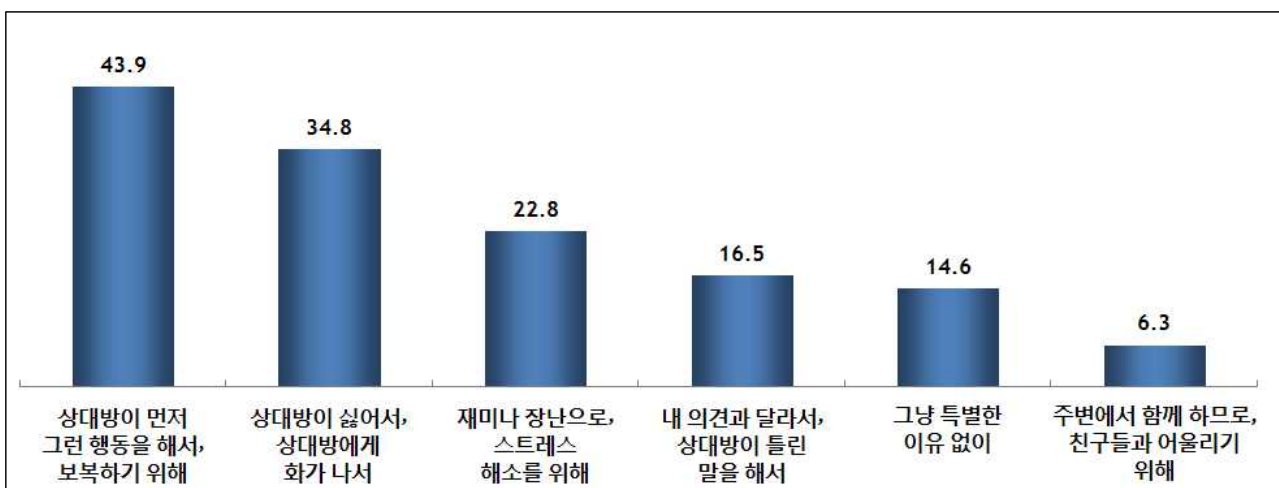
◆ 학생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나 평소에 알던 사람에게 상대방 행동에 보복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을 가했다고 응답

-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주된 가해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를 주된 이유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사이버폭력 가해 대상 (%)



[그림 5]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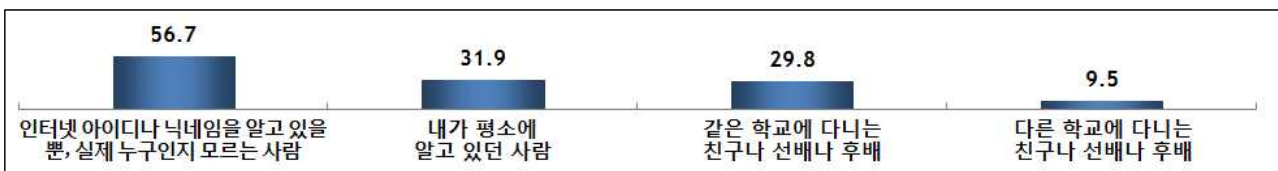


4.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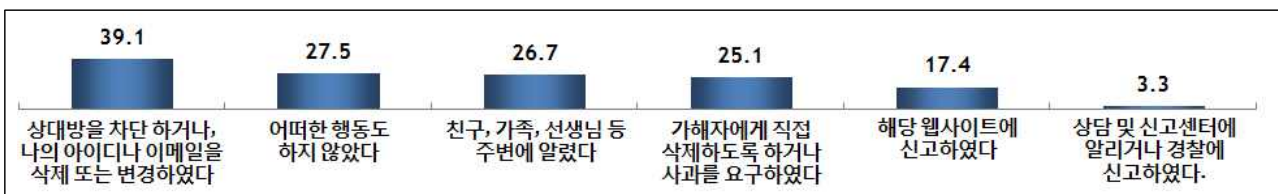
◆ 학생들은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복수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고 응답

-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피해경험은 31.9%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학생들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또한 높게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었다' 등의 심리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조사 결과 기준으로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 이후 '보복', '우울·스트레스' 등 부정적 감정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응 등'의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상대방의 차단' 등 소극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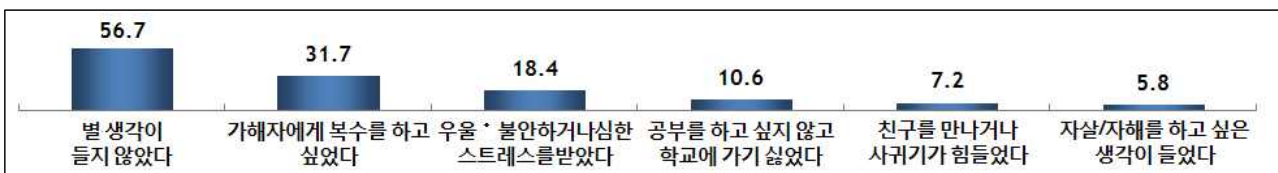
[그림 6]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그림 7]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그림 8]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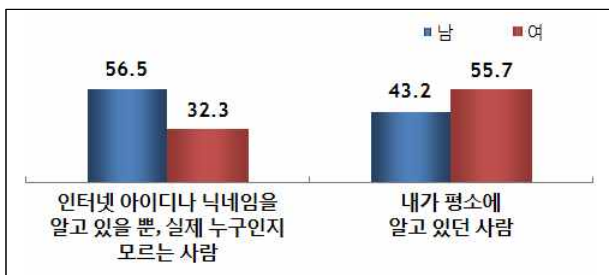


5.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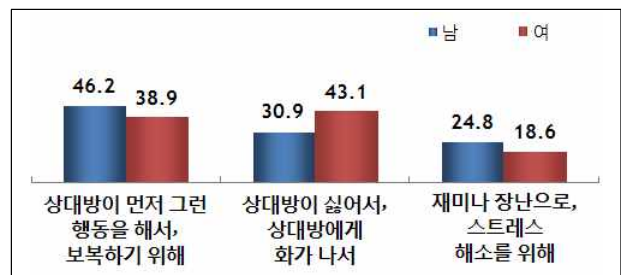
◆ 남학생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즉흥적으로 사이버폭력 비중이 높고, 여학생은 기존 관계를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비중이 높음

- 사이버폭력의 가해대상으로 남학생은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여학생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을 주요 가해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해수단으로 남학생은 '온라인 게임', 여학생은 '채팅·메신저', 'SNS'를 주요 가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방식에 대해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과 함께 했다'의 집단적인 사이버폭력 가해 비율은 남학생 대비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해 이후 심리로 여학생은 가해 후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등 남학생 대비 여학생이 가해 후 죄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은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와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가해경험이 남학생 대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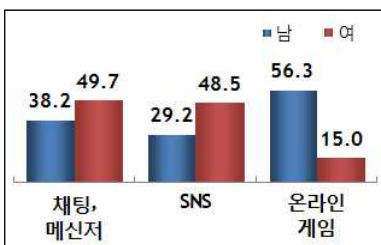
[그림 9]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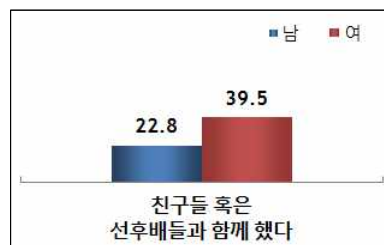
[그림 10]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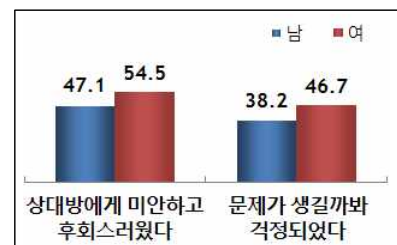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



[그림 12]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그림 1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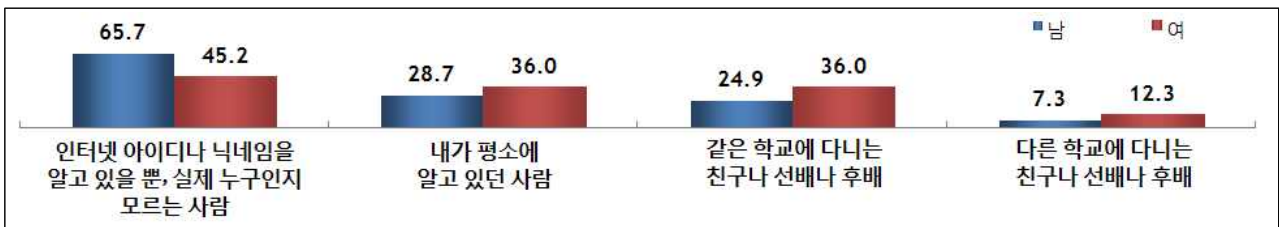


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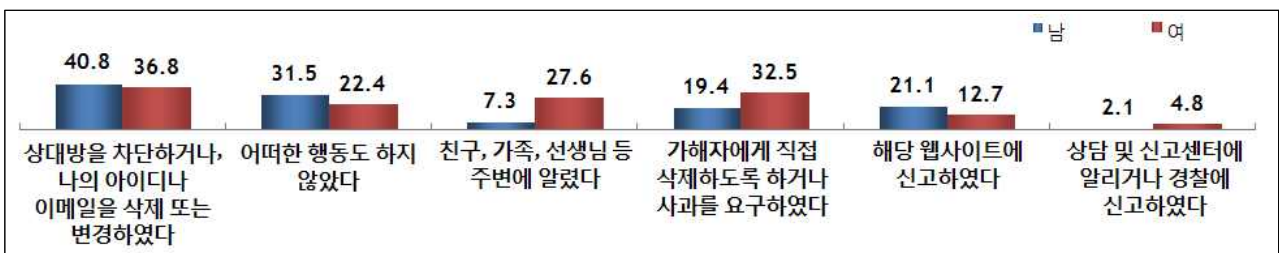
◆ 남학생은 주로 '온라인상의 대응'이 활발한 특징 등을 보이며, 여학생은 '오프라인상 대응'이 활발한 특징 등을 보임

- 남학생은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여학생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학생은 피해 이후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 등의 온라인상 대응을 하는 특징을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등 오프라인상의 대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학생은 피해 이후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었다' 등 심리적 문제를 남학생 대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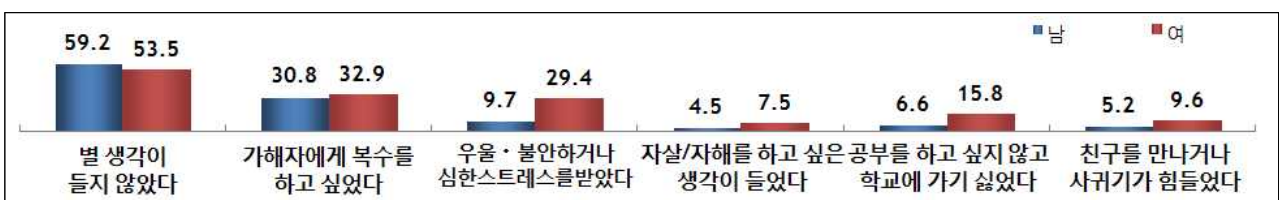
[그림 1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그림 15]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그림 1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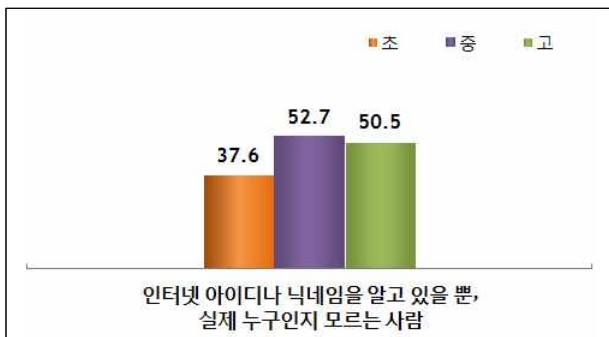


7.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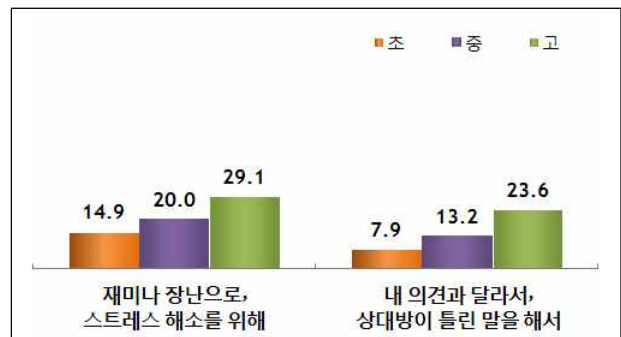
◆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가해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죄의식'도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

- 중·고등학생들은 사이버폭력의 가해대상으로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가해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고등학생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수단으로 '온라인 게임', 초등학생은 '채팅·메신저'를 주된 가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해방식은 고등학생에서 '혼자서 했다'의 단독적인 가해 비율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심리에 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위를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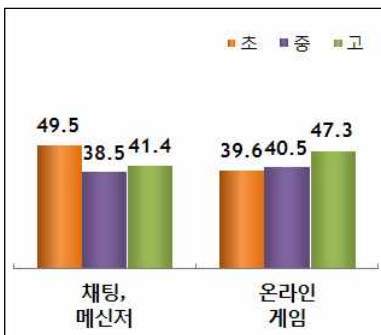
[그림 17]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그림 18]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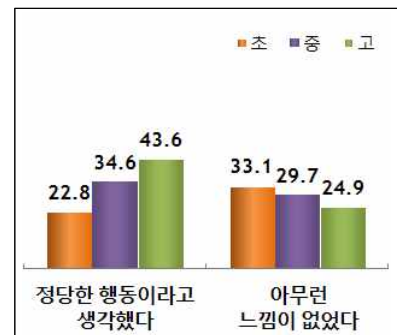
[그림 19]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



[그림 20]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그림 21]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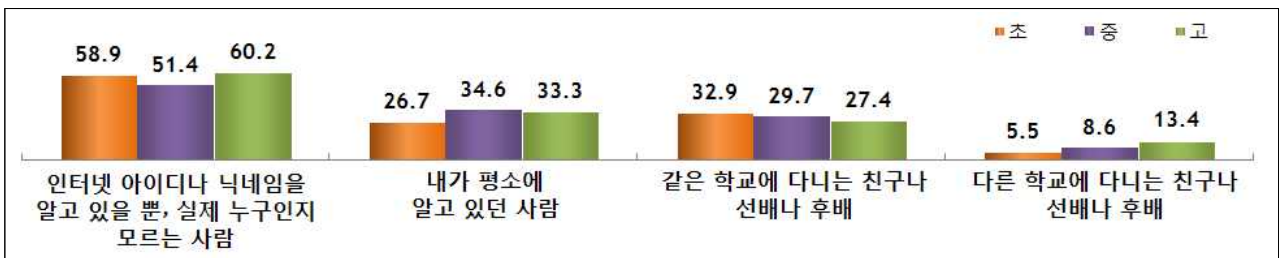


8.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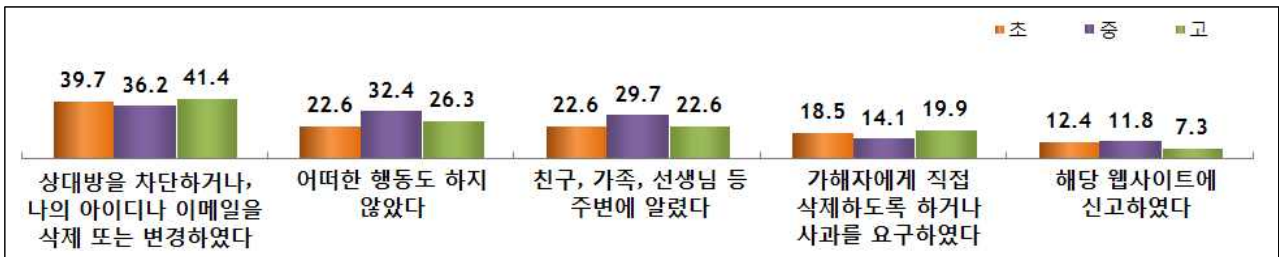
◆ 학년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주로 '익명형 피해'를 주로 당했고, 학년이 낮아질 수록 '집단적인 피해'가 많아지는 특징을 보임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이후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의 피해 이후 심리에 대해 모든 학년에서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심리적 문제 중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는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그림 23]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그림 24]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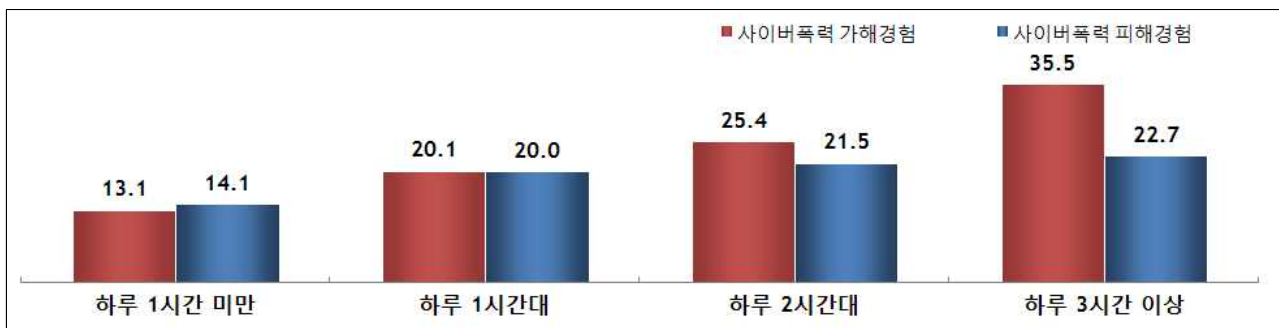


9. 환경, 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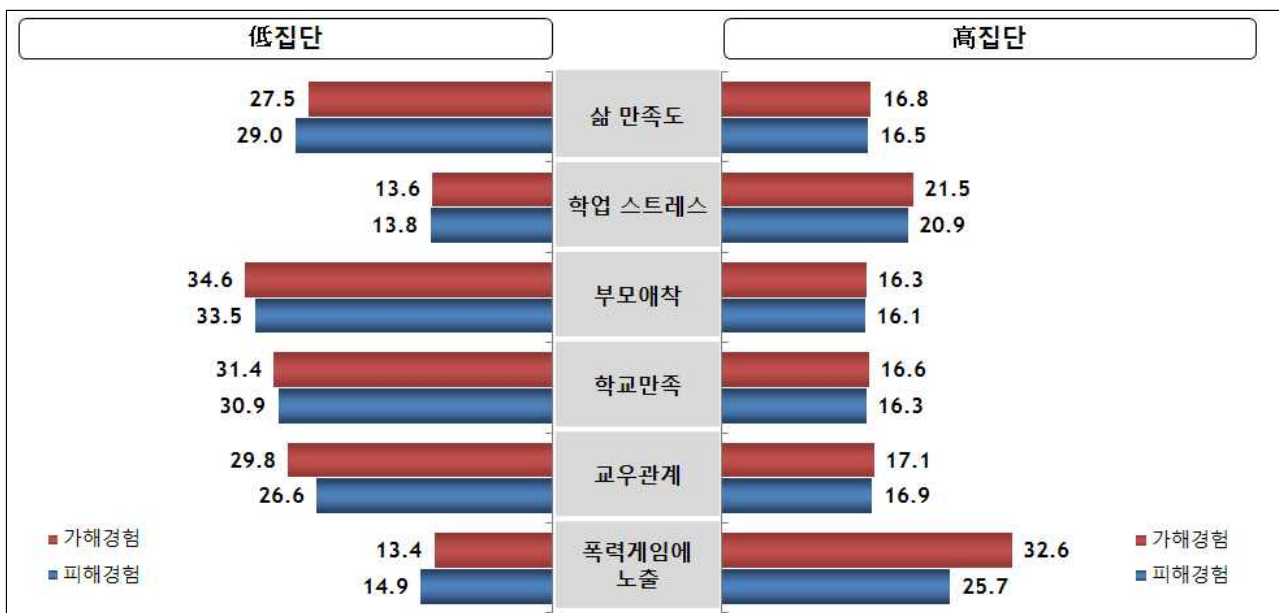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많고,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 학생들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와 가해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 중에서 삶 만족도, 부모애착, 학교만족, 교우관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스트레스, 폭력게임에 노출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그림 26]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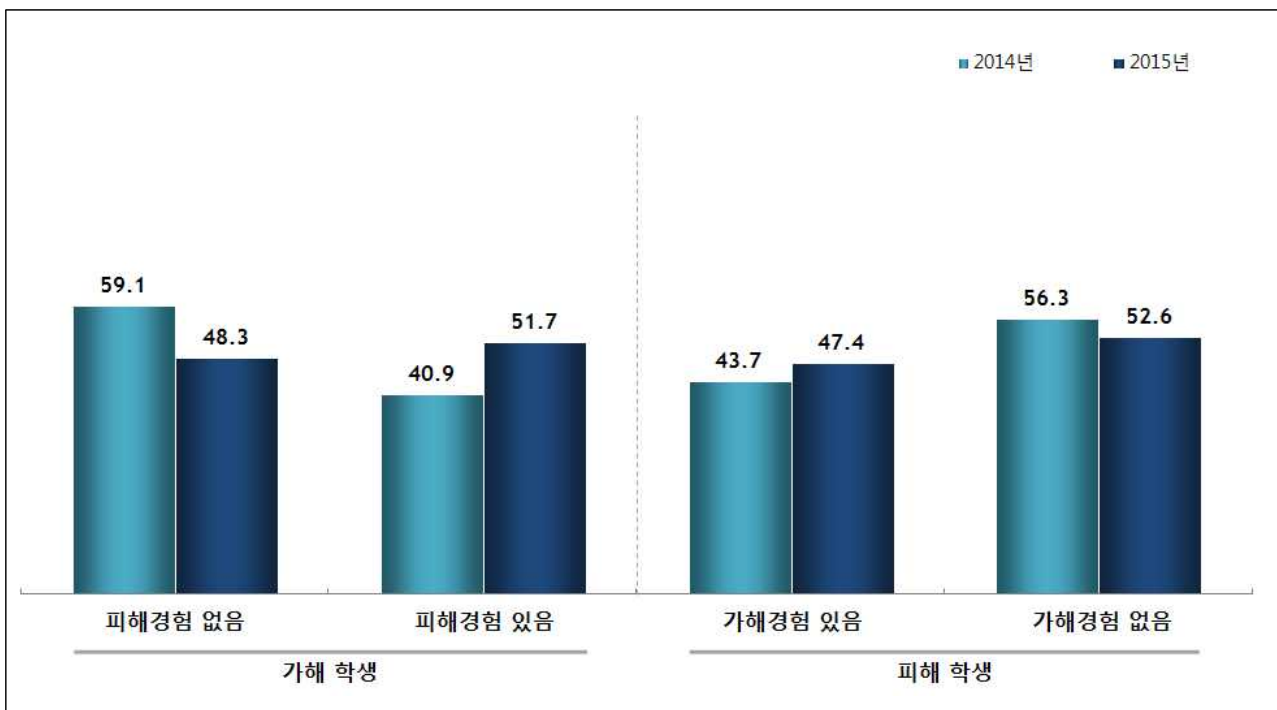


10.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간에는 상관성이 존재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51.7%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47.4%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비율은 10.8%p 증가했고,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역시 3.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7]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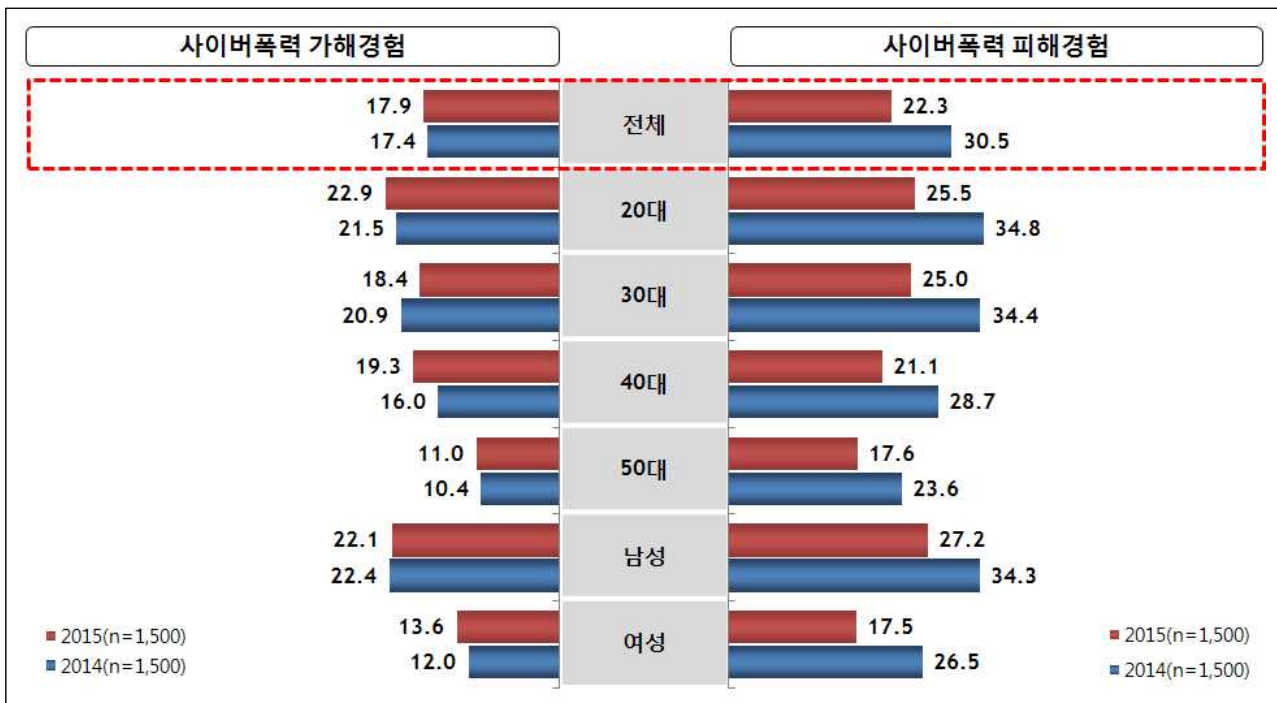
Ⅱ. 성인 대상 조사결과

1.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 최근 1년간 성인 22.3%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17.9%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성인들은 17.9%가 최근 1년 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2.3%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2014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피해경험은 8.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4년 대비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 있어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증가하였지만 피해경험은 모든 연령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및 가해 경험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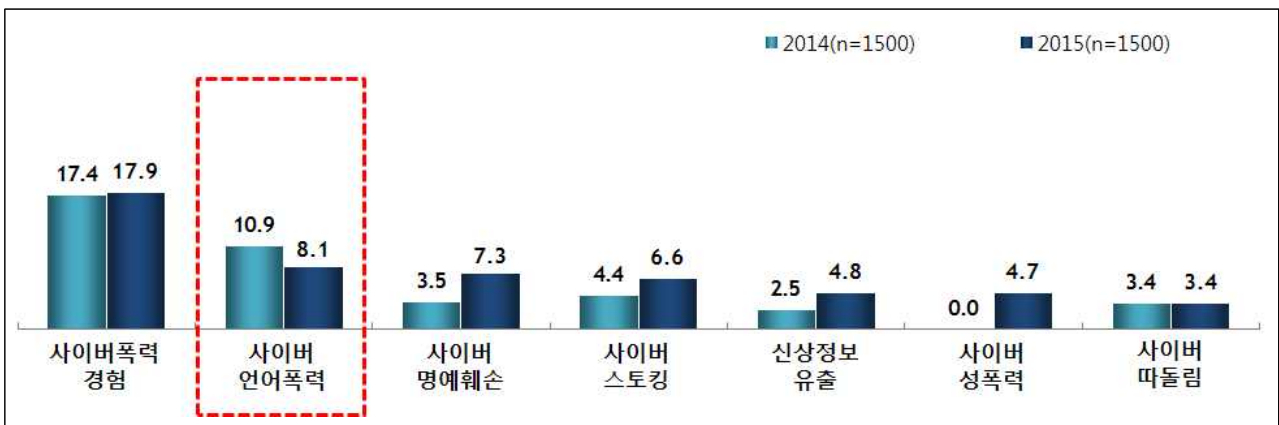


2. 사이버폭력 가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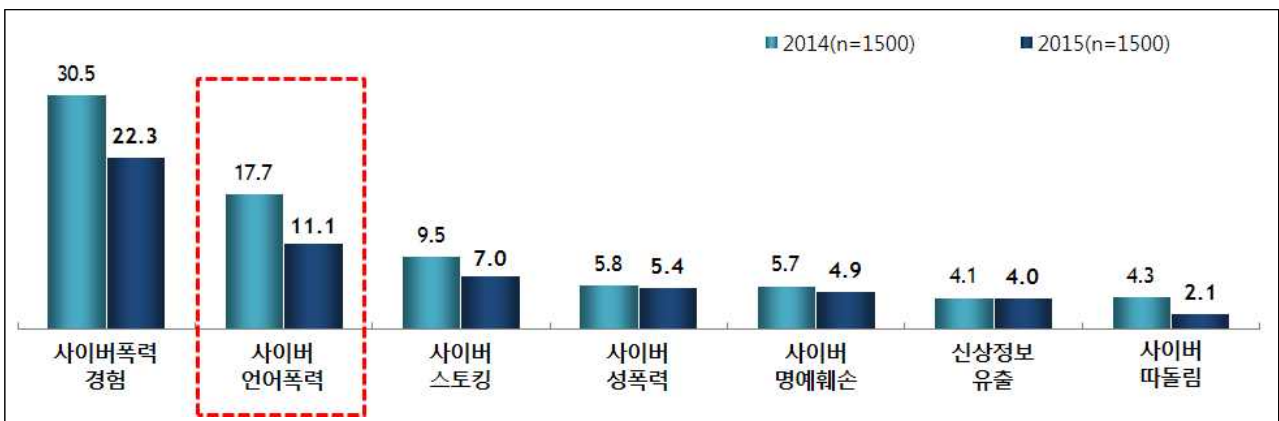
◆ 성인들은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중 '사이버 언어폭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해행위 증가

-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중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은 2014년 대비 2.7%p 감소하였으나,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가해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모든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그림 30]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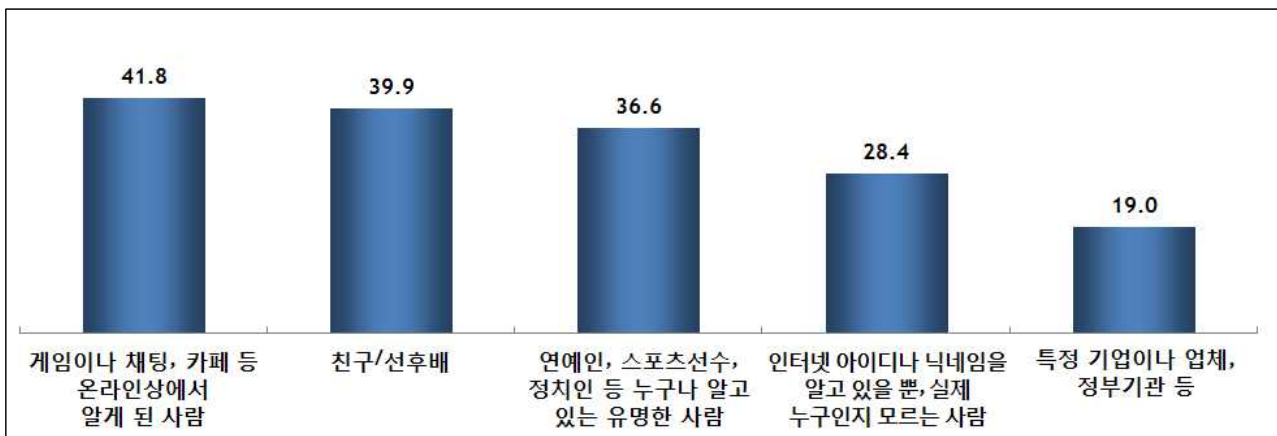


3.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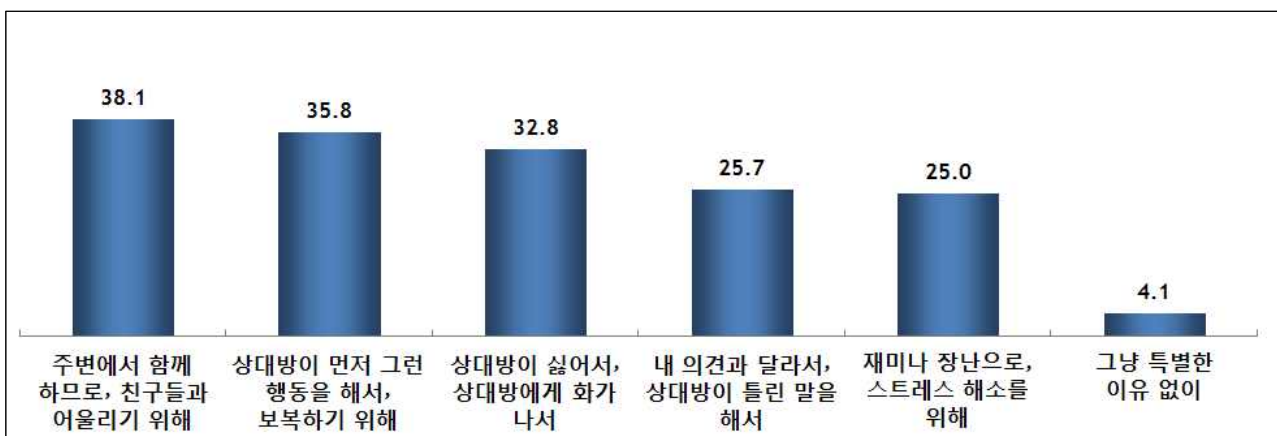
◆ 주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가해하는 것으로 조사

- 성인들은 주로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친구/선·후배'를 주된 가해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에 대해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를 주된 이유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그림 32]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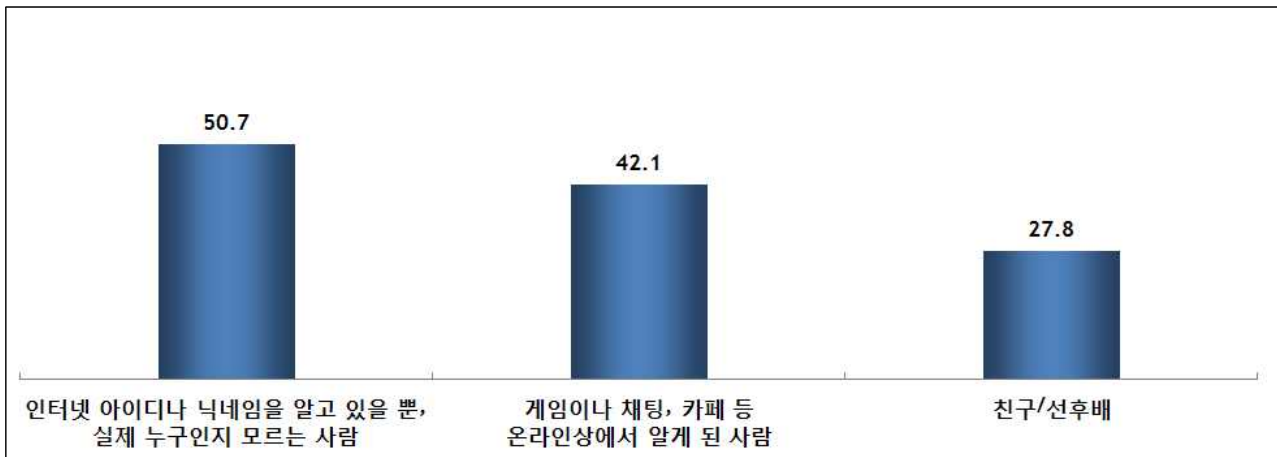


4. 사이버폭력 피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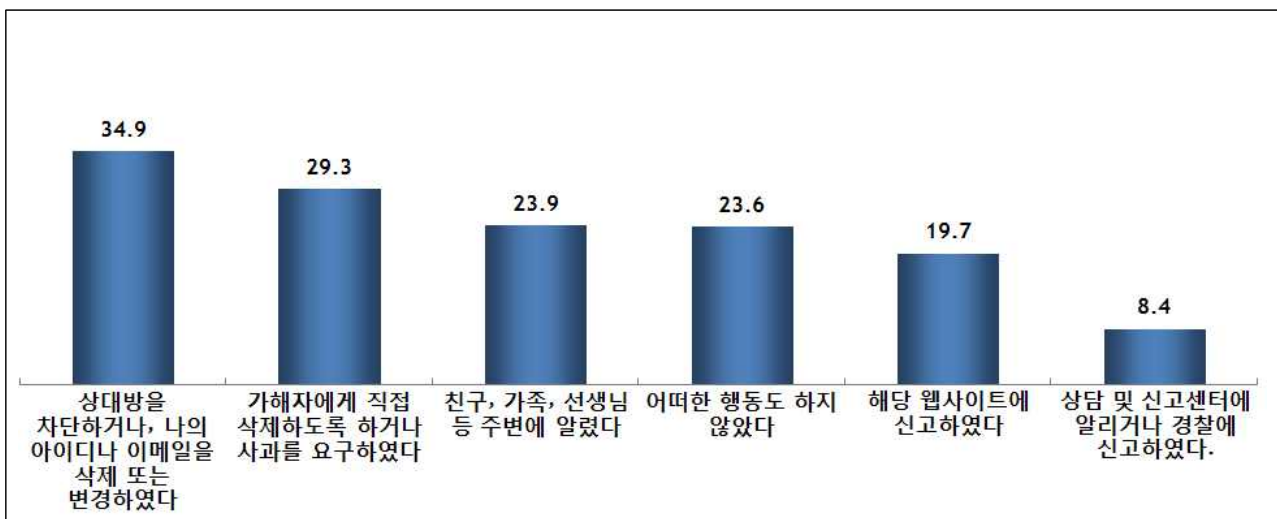
◆ 피해 시 주로 '상대방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며, '상대방에 대한 복수 충동' 등을 느낀다고 응답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 '친구나 선·후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피해 이후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또한 높게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교·직장·가사 등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 등의 심리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성인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주로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이후 '보복', '우울·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부정적 감정의 발생이 학생 대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은 '웹사이트 또는 경찰 등 신고' 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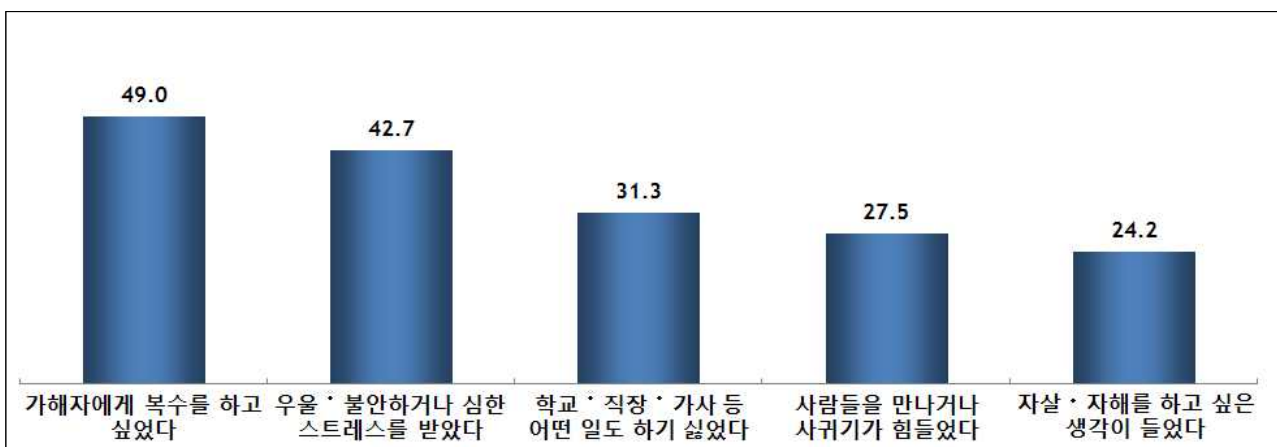
[그림 33]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그림 34]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그림 35]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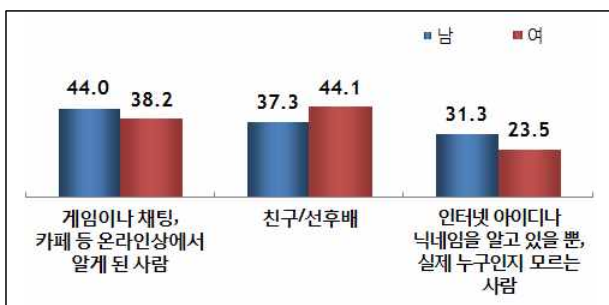


5.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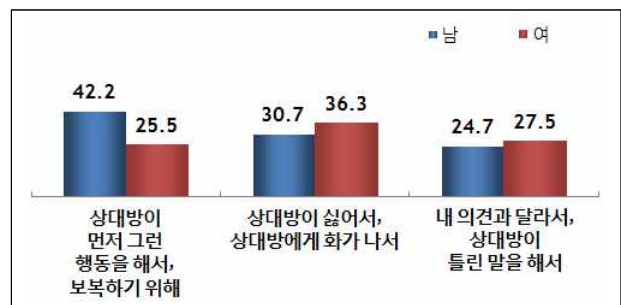
◆ 남성은 가해에 있어 '익명형 가해' 성향을 보이며 여성은 '관계형 가해' 성향을 보임

- 사이버폭력의 가해대상으로 남성은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여성은 '친구나 선·후배'를 가해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해수단으로 남성은 'SNS', 여성은 '채팅·메신저'를 주요 가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방식에 대해 '사람들과 함께 했다'의 집단적인 사이버폭력 가해 비율은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심리로 여성은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등 남성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 후 죄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성은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와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가해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대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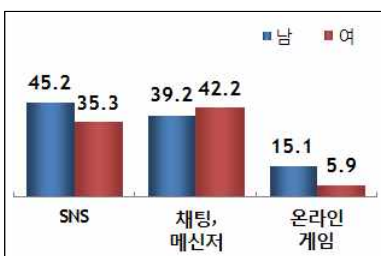
[그림 36]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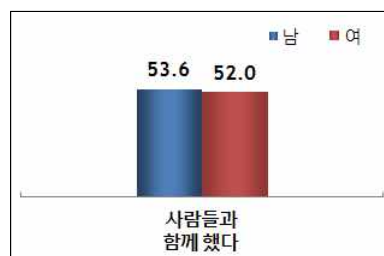
[그림 37]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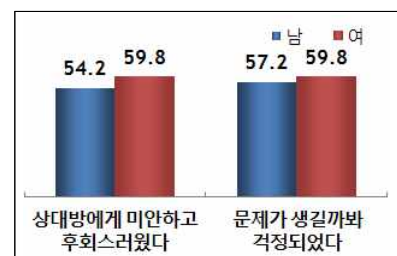
[그림 38]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



[그림 39]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그림 40]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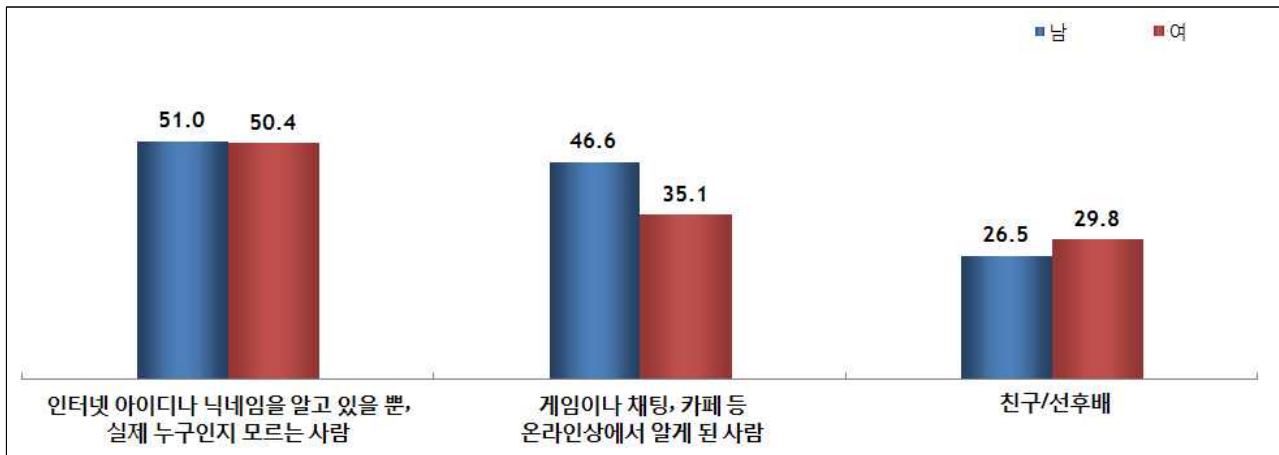


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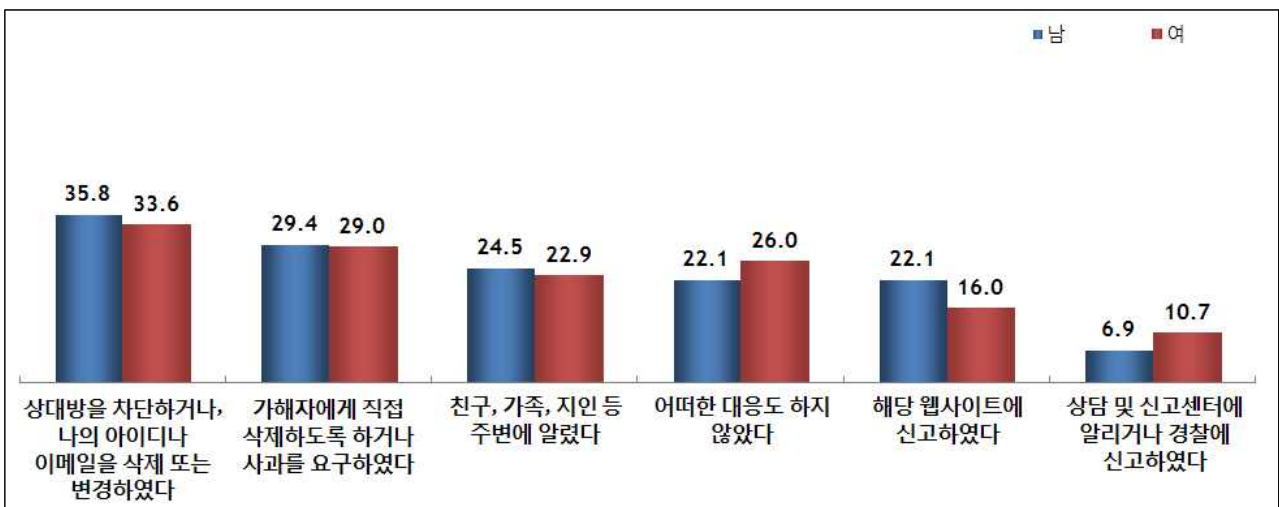
◆ 남성 여성 모두 '익명형 피해' 성향을 보이며 함께 '온라인상의 대응' 특징 등을 보임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남성과 여성 모두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성은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와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등 온라인상 대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은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등 오프라인을 통한 대응이 높게 조사되었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여성이 남성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여성은 특히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등 남성 대비 심리적 문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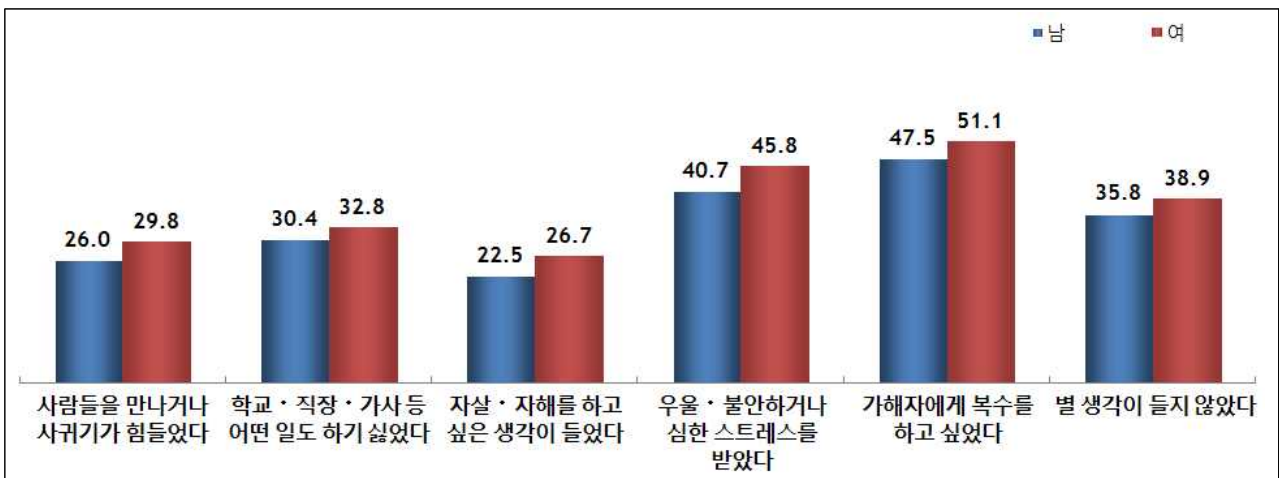
[그림 41]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그림 42]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그림 43]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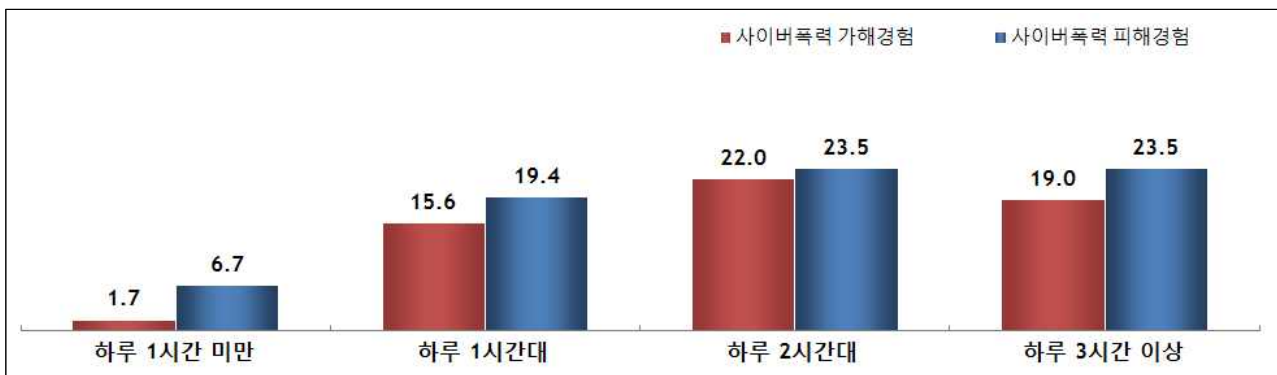


7. 환경, 요인 사이버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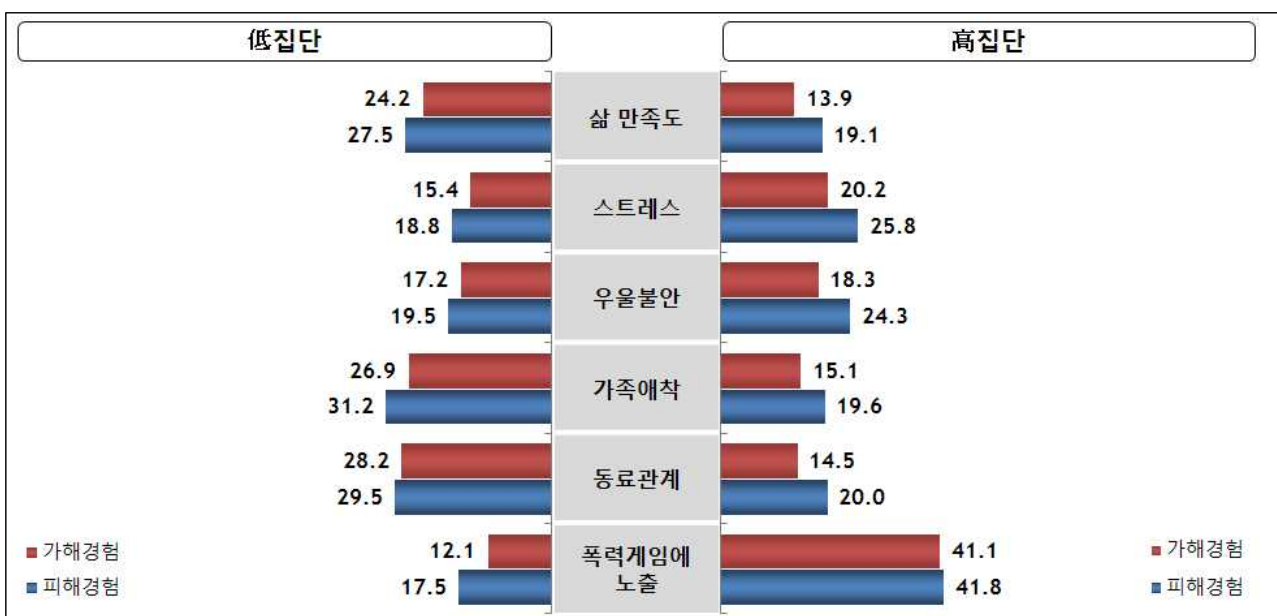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학교폭력의 고집단에서 사이버폭력 경험 증가

- 성인 역시 학생과 유사하게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와 가해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인들 중 스트레스, 우울·불안, 폭력게임 노출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집단은 삶 만족도, 가족애착, 동료관계 부분에서 높은 집단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그림 45]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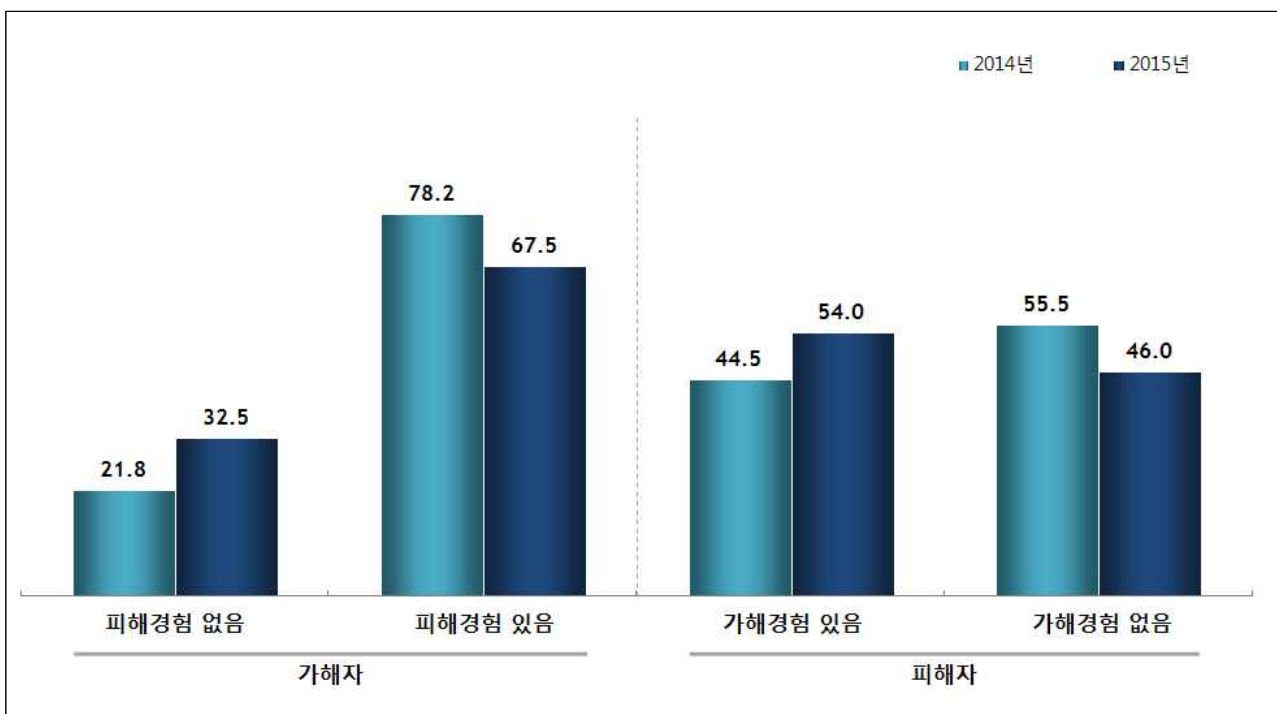


8.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간에는 상관성이 존재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성인들 중 67.5%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성인들 중 54.0%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피해경험은 10.7%p 감소했으나, 피해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9.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Ⅲ. 교사·학부모 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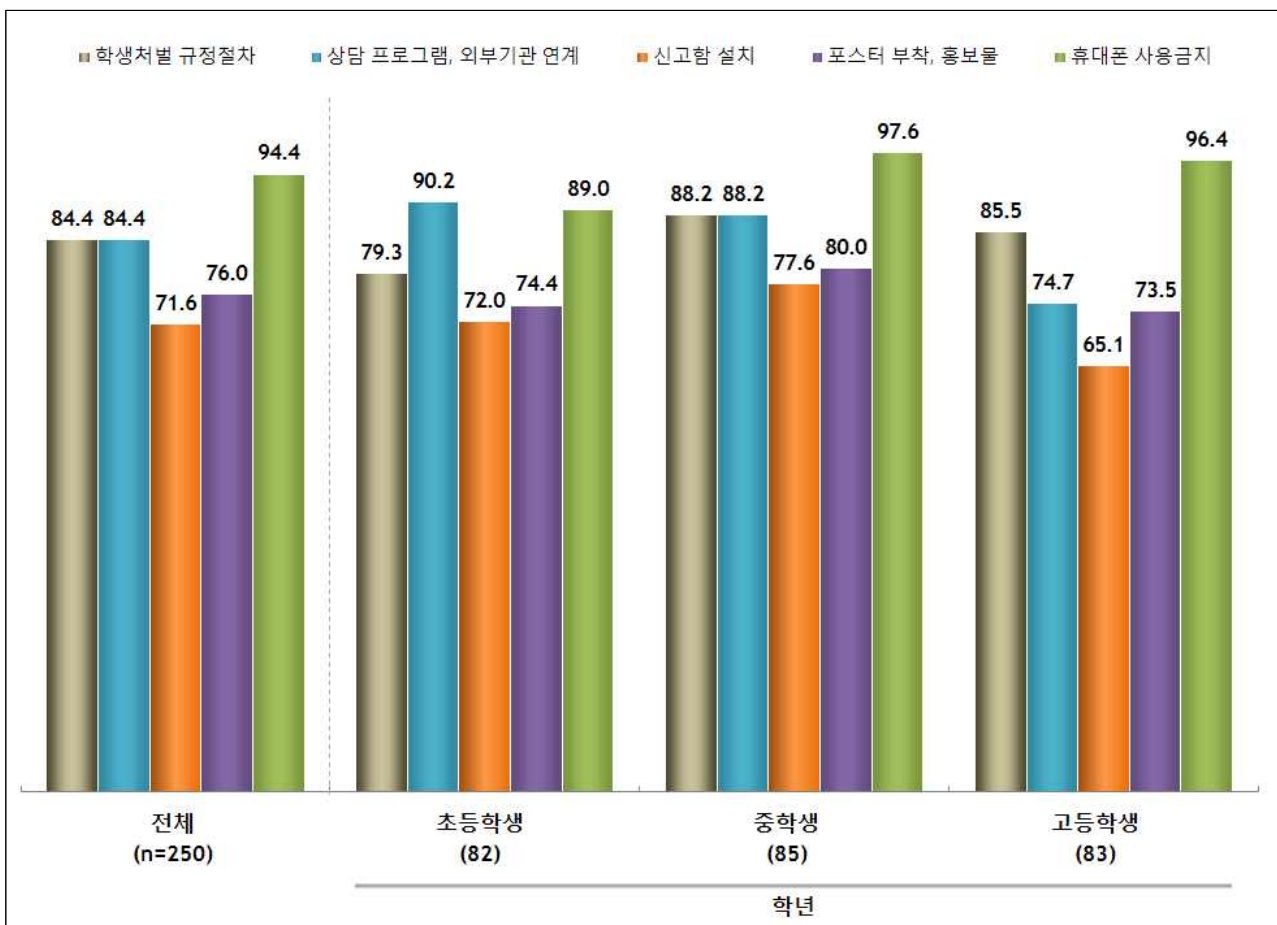
1. 교사 인식

(1) 교내 사이버폭력 정책

◆ 교사 중 71% 이상이 교내 사이버정책을 시행중이라고 응답

- 교사들 71% 이상이 교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처벌규정 절차', '상담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 연계' 순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7] 교내 사이버정책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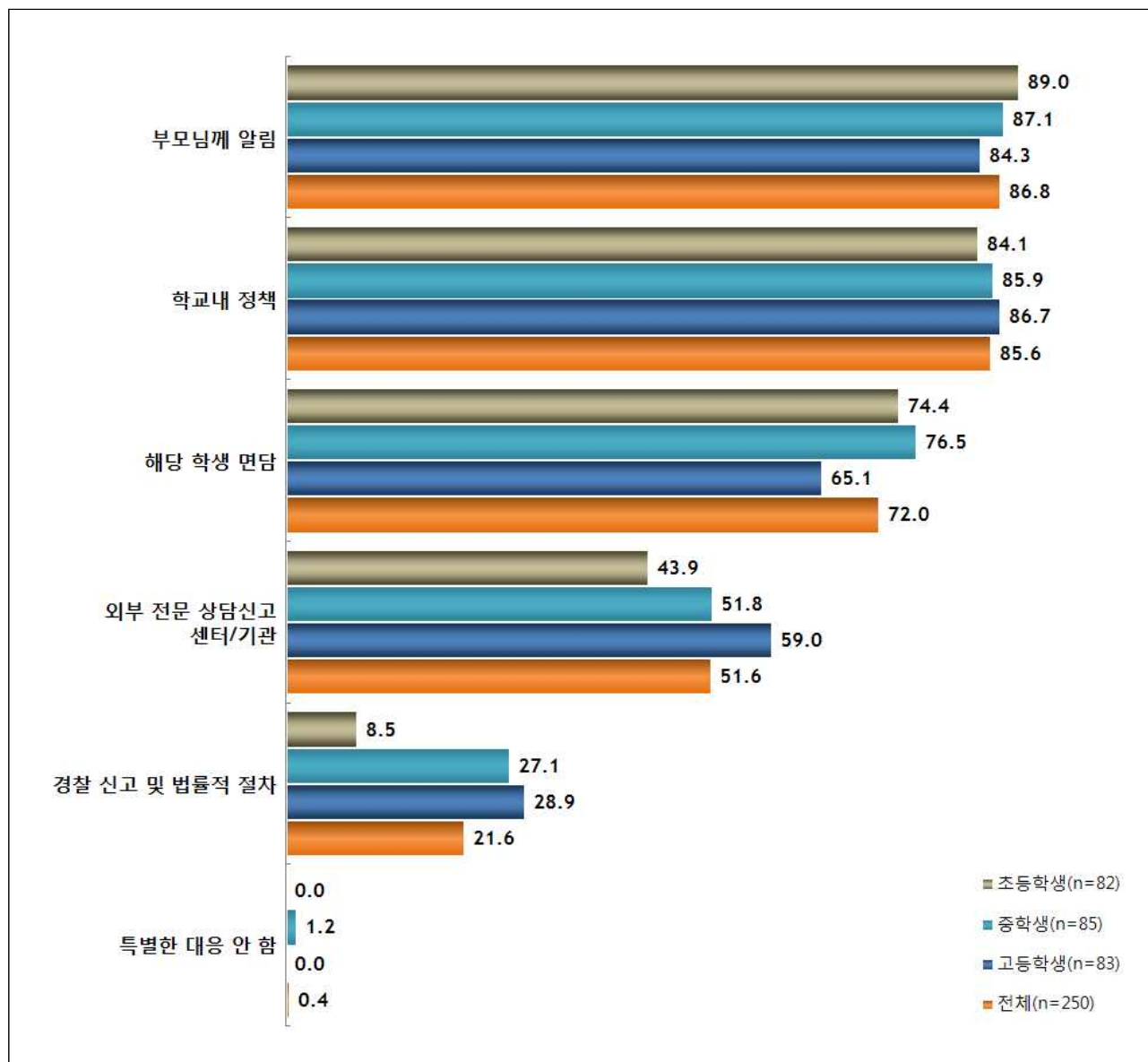


(2)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대응

◆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시 교사들은 '부모님께 알림'과 '학교내 정책'등 방법을 활용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

- 학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대응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는 '부모님께 알림'으로써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에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내 정책'의 절차에 따라서 가해 및 피해를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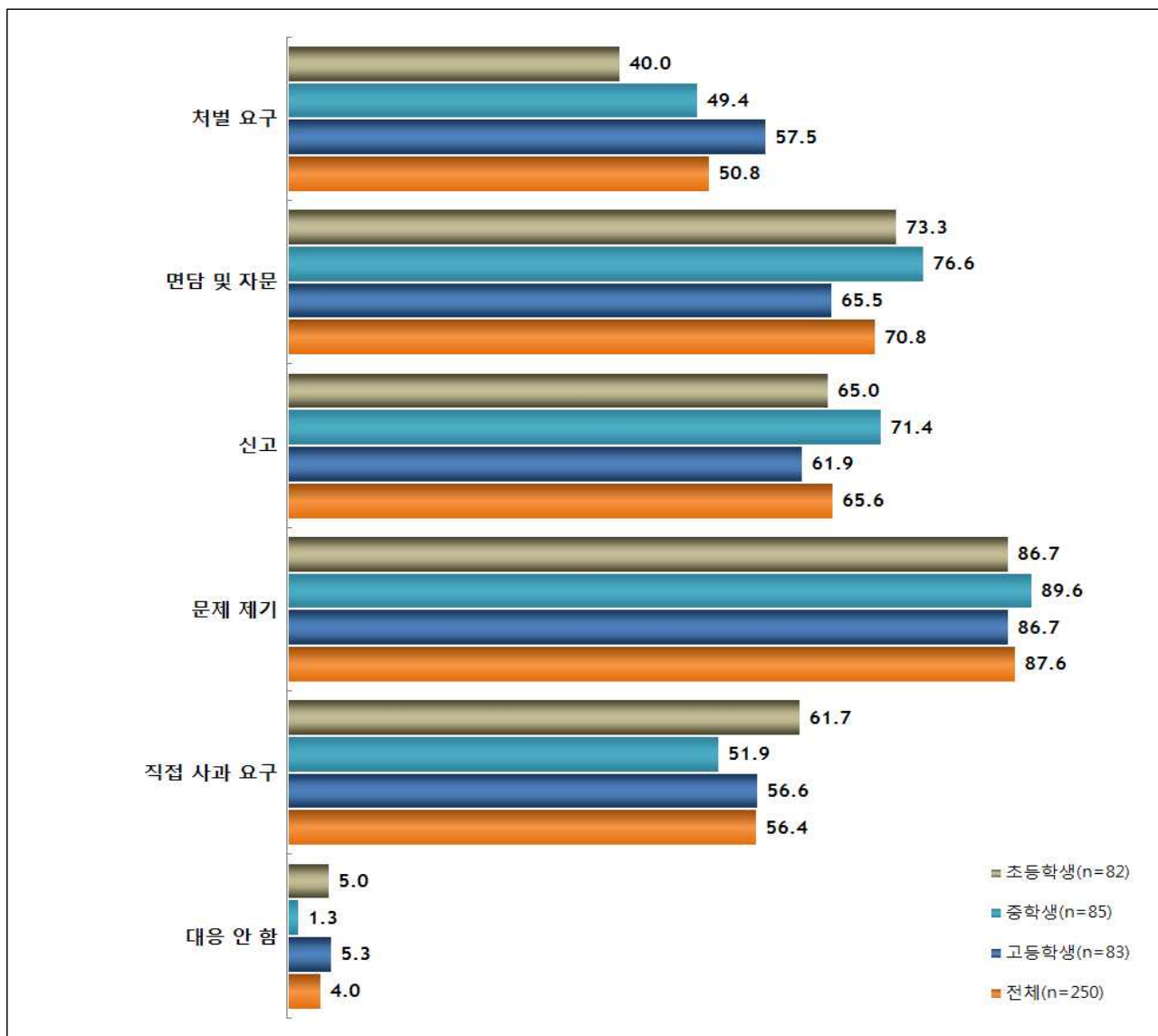
2. 학부모 인식

(1) 자녀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조치

◆ 자녀 피해시 학부모들은 '학교측이나 담당교사를 통한 조치'를 가장 우선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시 '학교측이나 담당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자녀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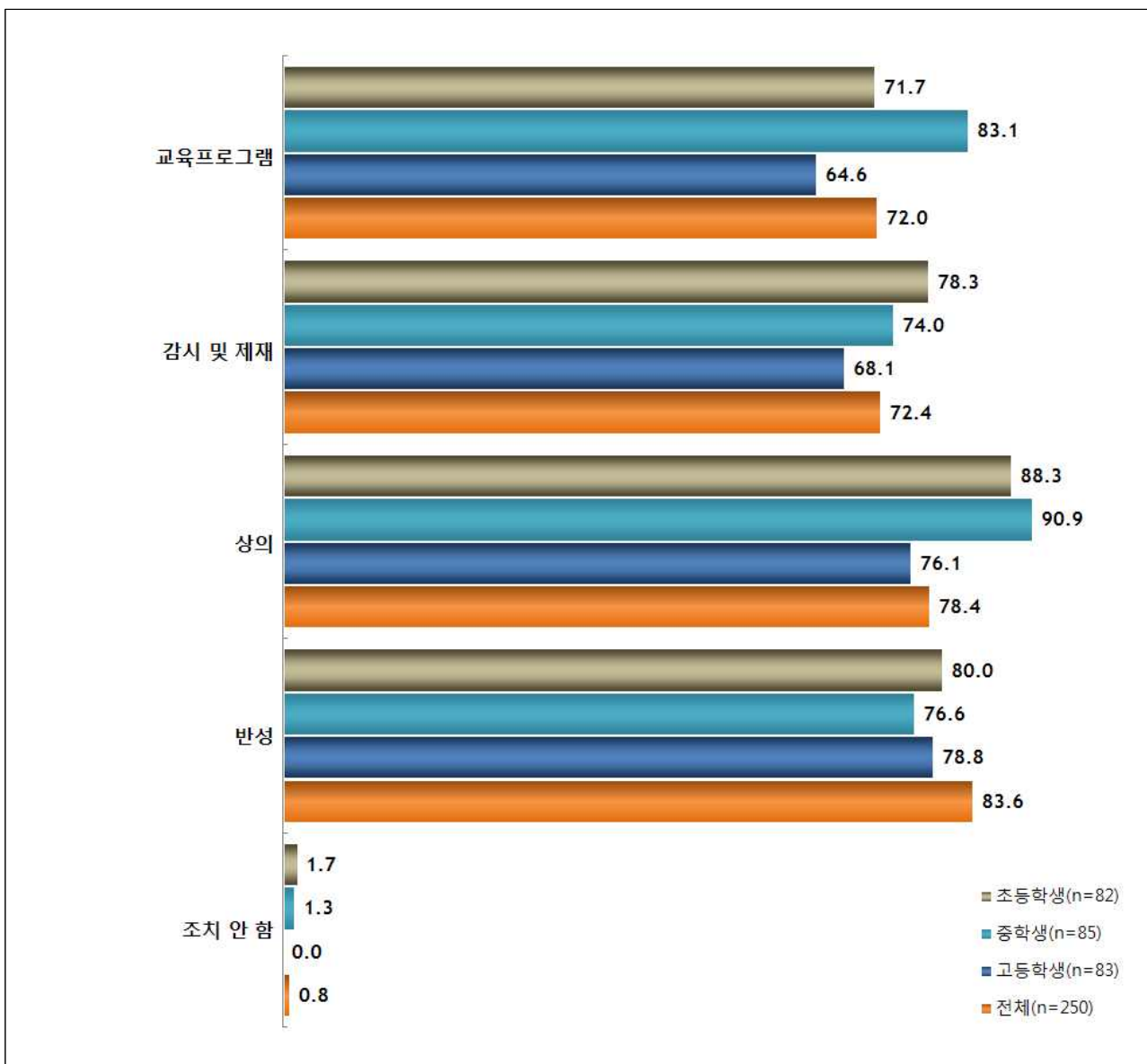


(2) 자녀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조치

◆ 학부모들은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행할 경우 '학교측이나 담당교사와 상의'와 '혼내거나 타이르는 방식'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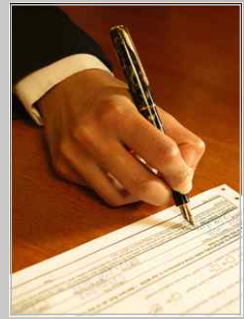
-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시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이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학부모는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0] 자녀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제 3편

학생대상 조사결과



제1장 사이버폭력 경험

제1절 사이버폭력 경험 및 유형

1. 일반적 현황

- 2015년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17.2%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었으며, 17.5%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2014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피해경험은 1.8%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모든 학년과 성별에 있어서 2014년에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증가하였으나, 피해경험은 모든 학년과 성별에 있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높을수록(초 < 중 < 고), 여학생 대비 남학생의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초등학생(10.1%), 중학생(20.5%), 고등학생(22.0%) 순이었고, 피해경험은 초등학생(14.6%), 중학생(18.5%), 고등학생(18.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사이버폭력 경험은 남학생이 각각 24.3%(가해), 19.6%(피해)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11.0%(가해), 15.0%(피해)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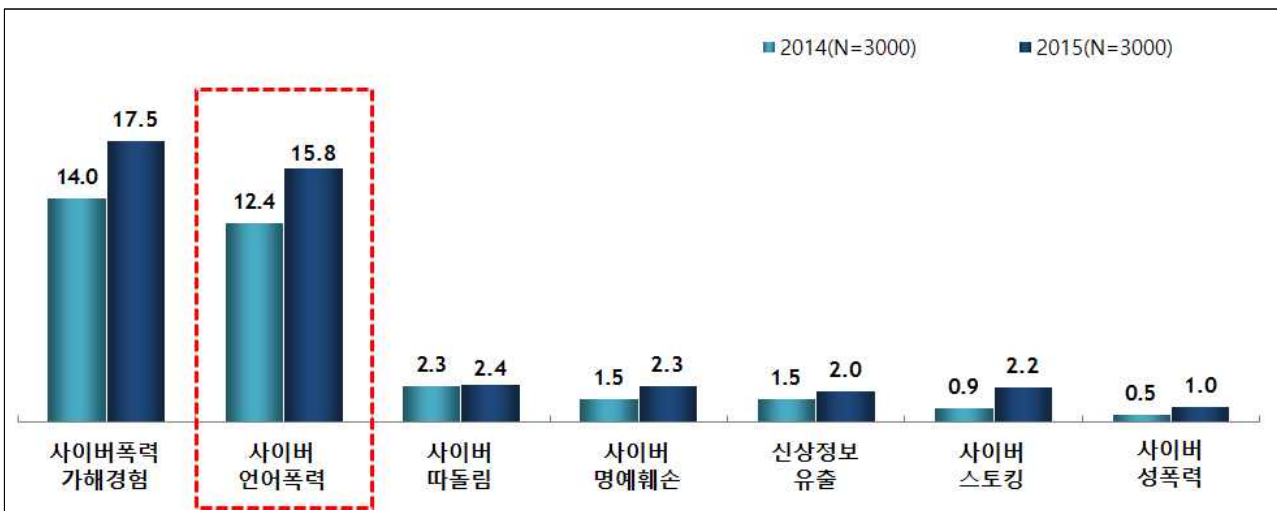
[그림 3-1-1]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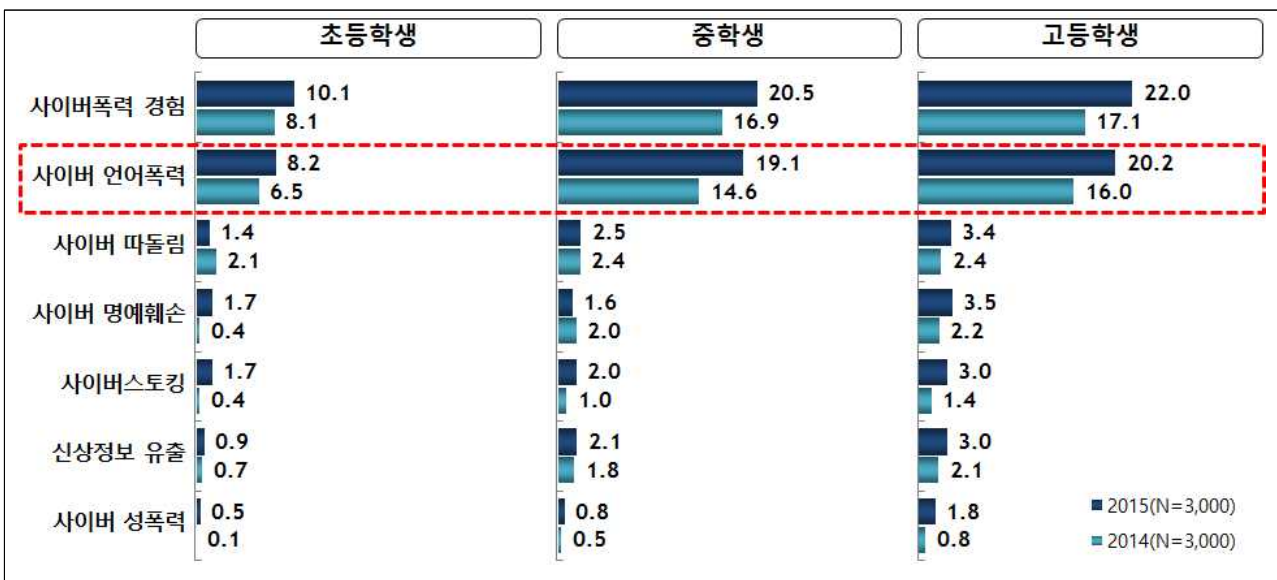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 2015년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이 대부분이며, 2014년 대비 3.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도 2~3% 이내로 미미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년별로 고등학생은 '사이버 언어폭력'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역시 '사이버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는 2014년 대비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2]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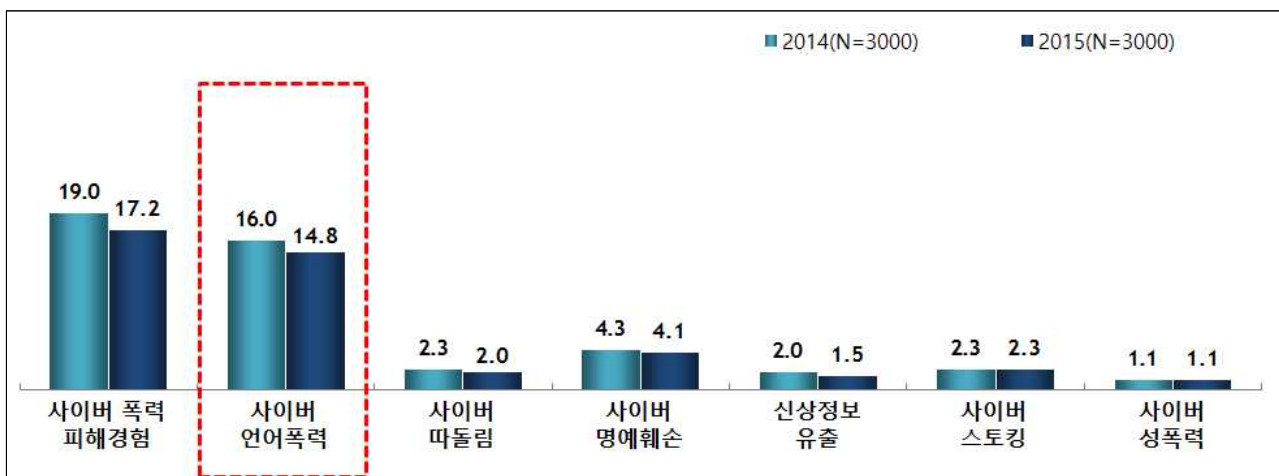
[그림 3-1-3]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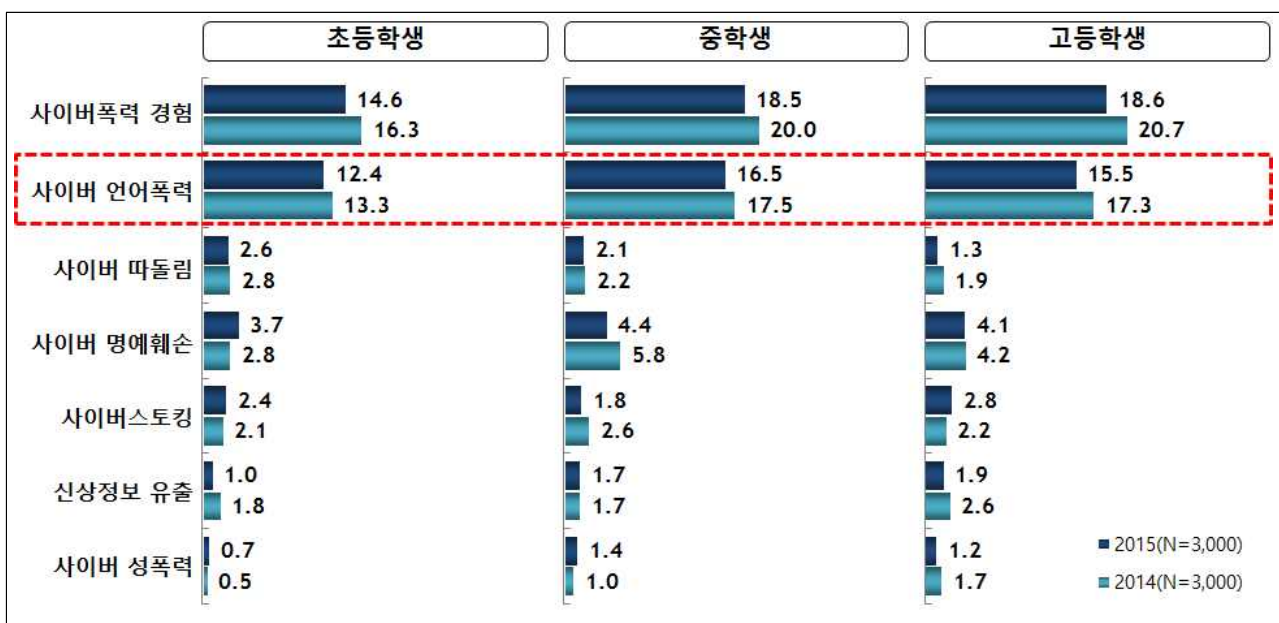
3.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 2015년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이 대부분이나, 2014년 대비 1.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도 1~4% 이내로 미미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년별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경험은 고등학생(15.5%), 중학생(16.5%), 초등학생(12.4%) 순으로 중고등학생의 피해경험이 초등학생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대비 초등학생(▼1.1%p), 중학생(▼1.0%p), 고등학생(▼1.8%p)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4]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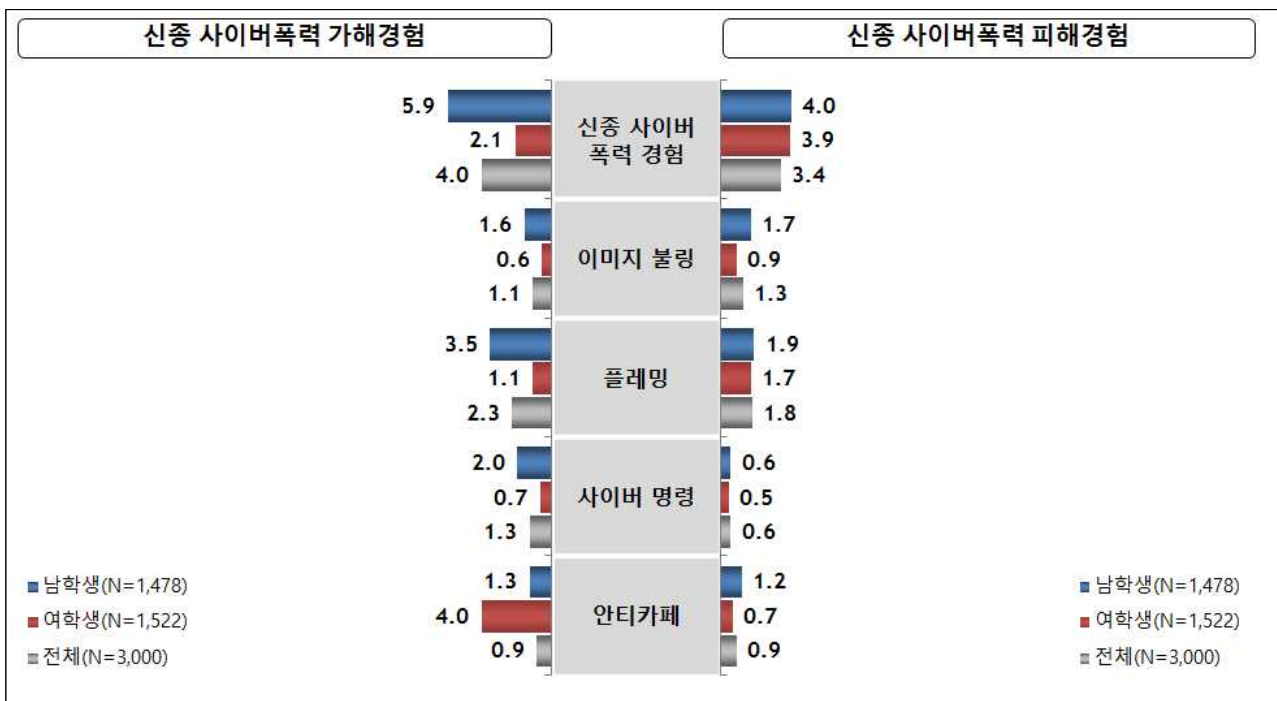
[그림 3-1-5]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복수응답, %)



4. 신중 사이버폭력 경험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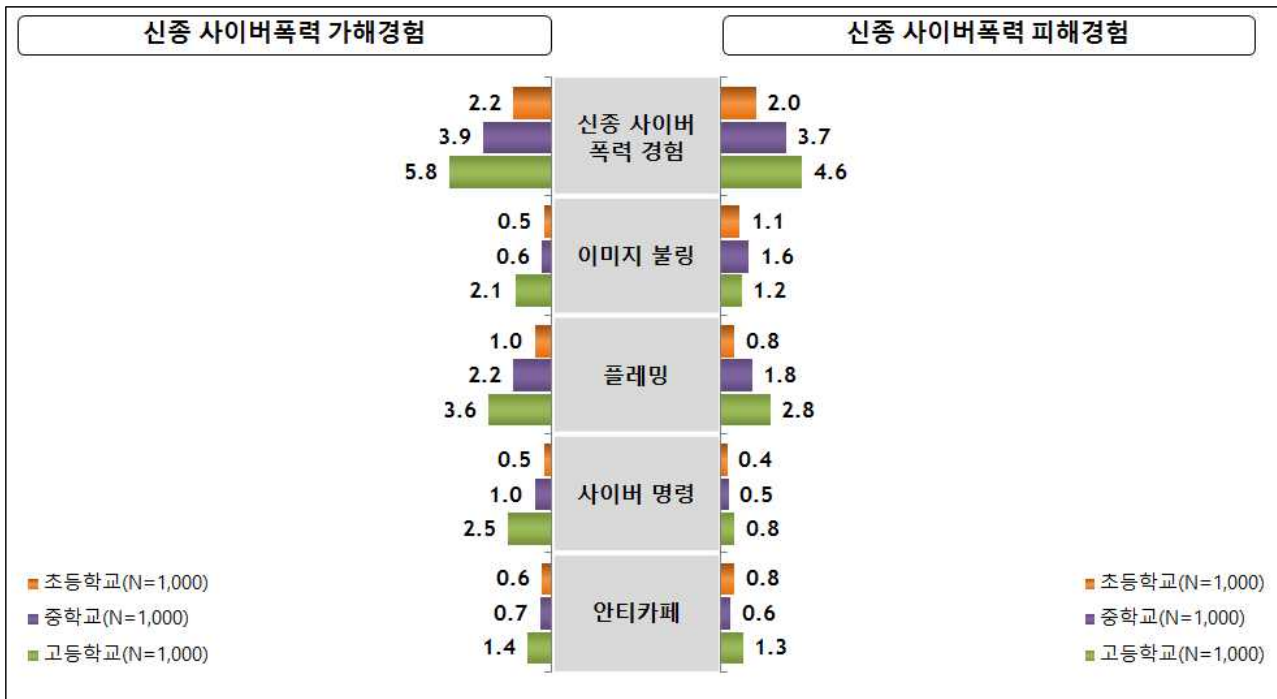
- 2015년 조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4.0%**가 다른 사람에게 신중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4%**가 최근 1년 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중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플레밍'이 가해경험 2.3%, 피해경험 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은 '사이버 명령'(1.3%), '이미지 불링'(1.1%), '안티 카페'(0.9%) 순이었고, 피해경험은 '이미지 불링'(1.3%), '안티 카페'(0.9%), '사이버 명령'(0.6%) 순으로 조사되었다.
- 성별 신중 사이버폭력 경험의 경우 남학생이 가해경험 5.9%, 피해경험 4.0%로 여학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년별 신중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초등학생 2.2%, 중학생 3.9%, 고등학생 5.8% 순이었고, 피해경험은 초등학생 2.0%, 중학생 3.7%, 고등학생 4.6% 순으로 기존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마찬가지로 신중 사이버폭력 경험도 학년이 높을수록 신중 사이버폭력 경험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6] 성별에 따른 학생의 신중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1-7] 학년에 따른 학생의 신중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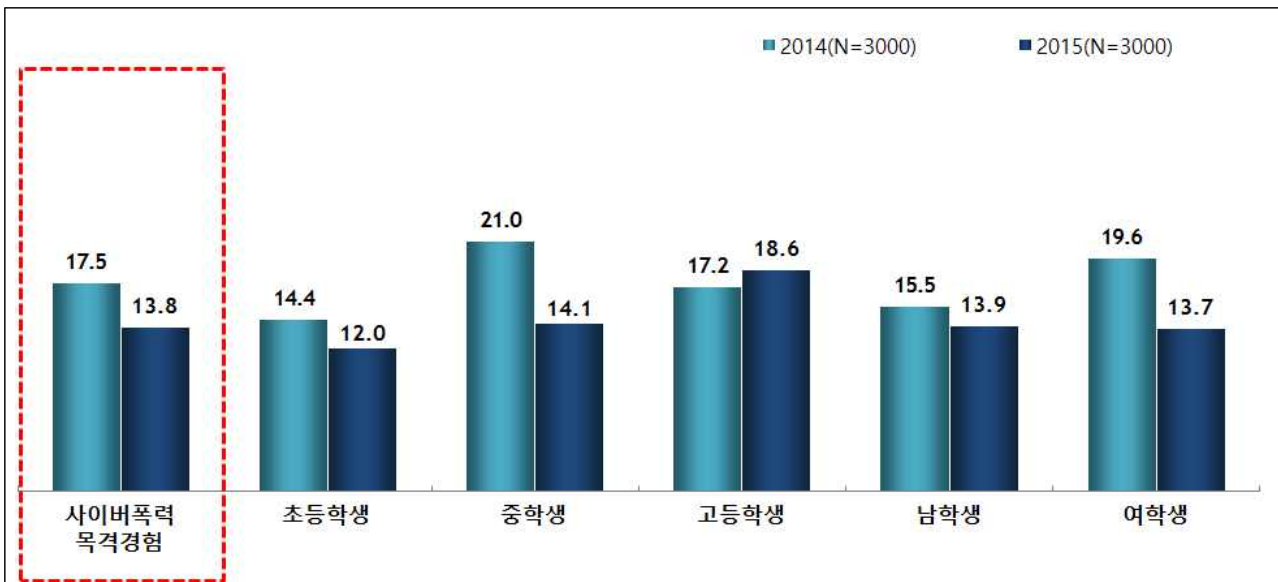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제2절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1. 일반적 현황

- 초·중·고 학생 13.8%가 2015년 조사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나 주변 사람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으며, 2014년 대비 3.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목격경험은 2014년 대비 초등학생(▼2.4%p)과 중학생(▼6.9%p) 모두 감소하였으나, 고등학생(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1.6%p)과 여학생(▼5.9%p) 역시 모두 목격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년별 사이버폭력 목격경험은 초등학생(12.0%), 중학생 (14.1%), 고등학생(18.6%) 순으로 학년이 높을수록(초 < 중 < 고) 사이버폭력 목격경험이 높았고, 성별 사이버폭력 목격경험은 남학생 13.9%, 여학생 13.7%로 성별에 따른 목격경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학생의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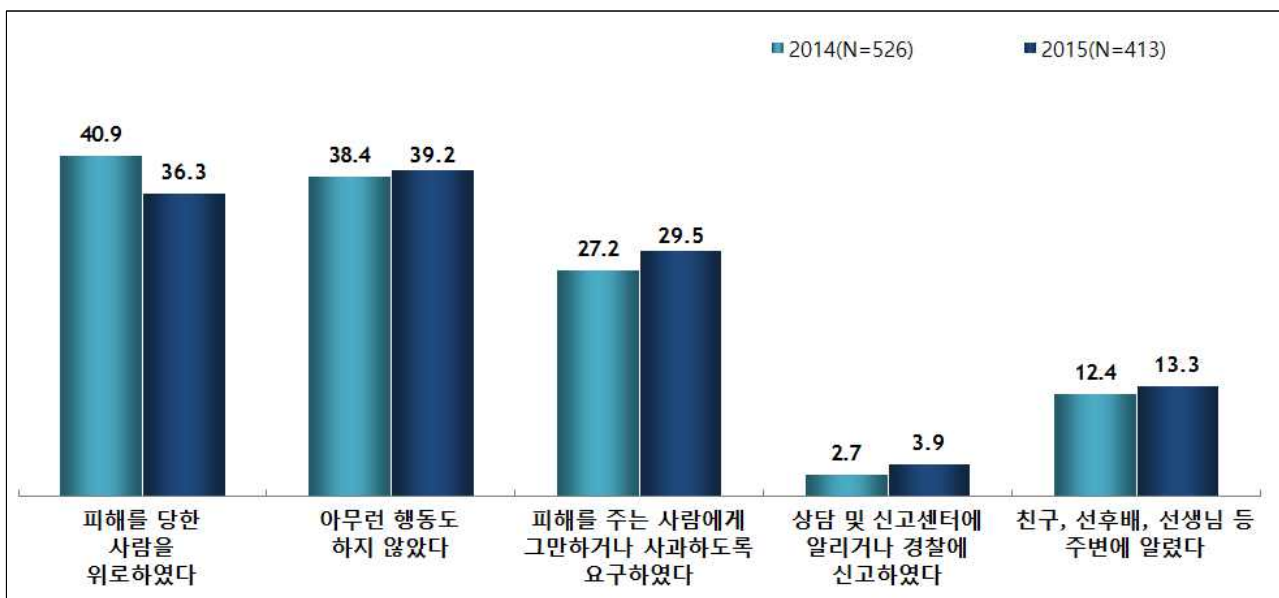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2. 목격이후 대응

- 2015년 조사에서 사이버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36.3%),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29.5%),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13.3%),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3.9%) 순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39.2%로 전년(38.4%)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대응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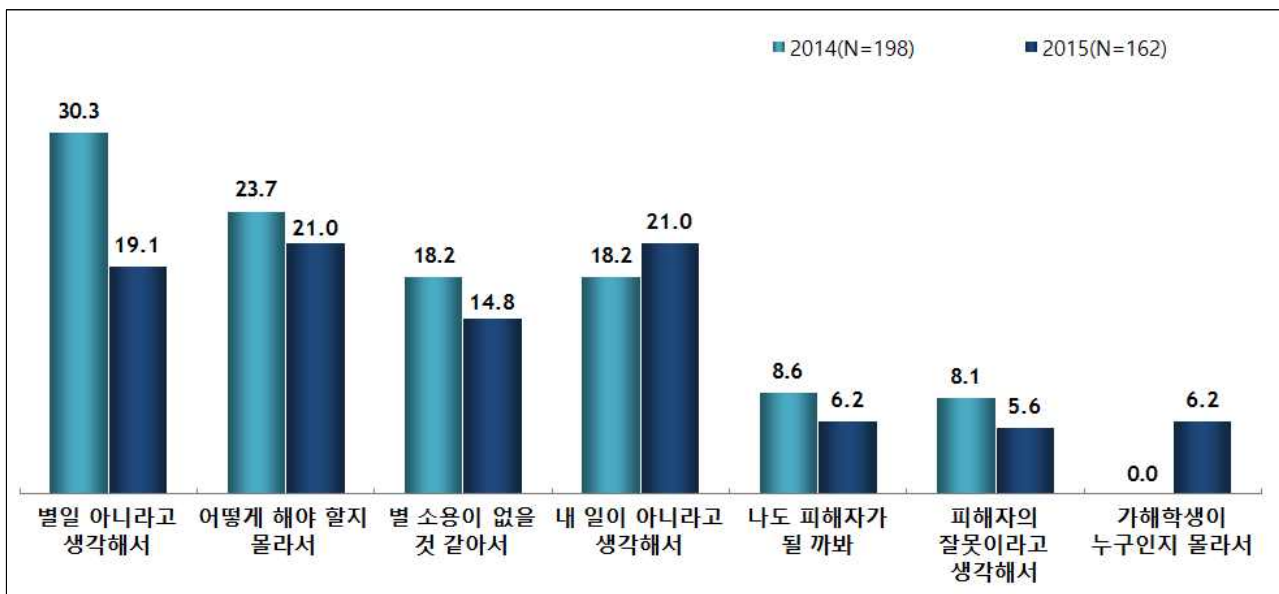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3. 목격이후 미대응 이유

- 다른 사람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1.0%)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1.0%)가 목격이후 대응하지 않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19.1%), '별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4.8%),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6.2%),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몰라서'(6.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0]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대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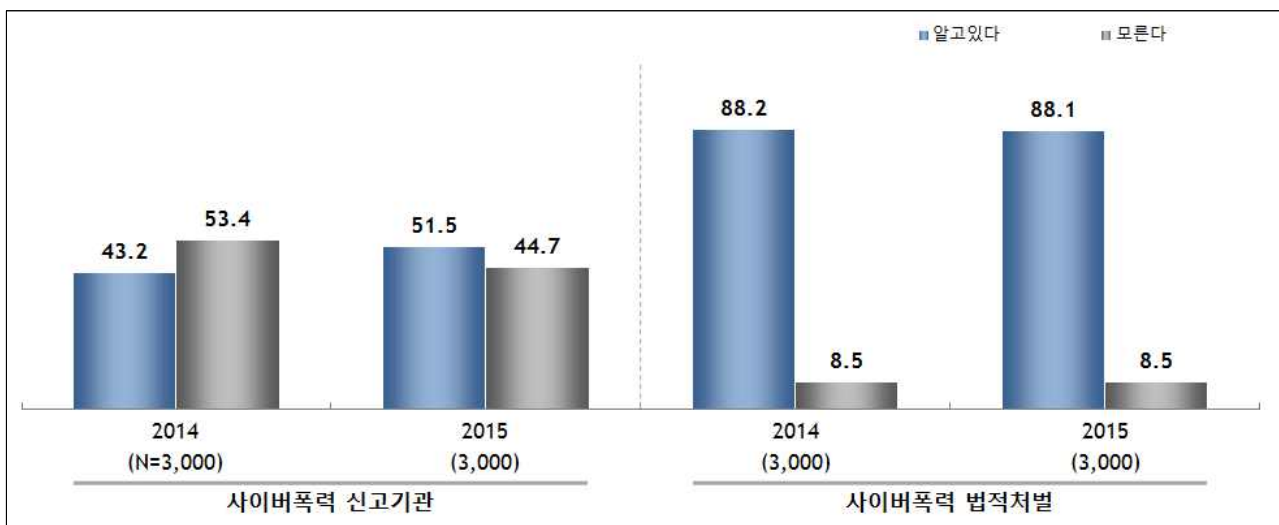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제3절 사이버폭력 신고 및 처벌 인지

1. 일반적 현황

- 2015년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51.5%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사이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생들의 88.1%는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의 신고기관 인지정도는 2014년에 비해 8.3%p 증가하였고, 법적처벌에 대한 인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11] 사이버폭력 신고 및 처벌 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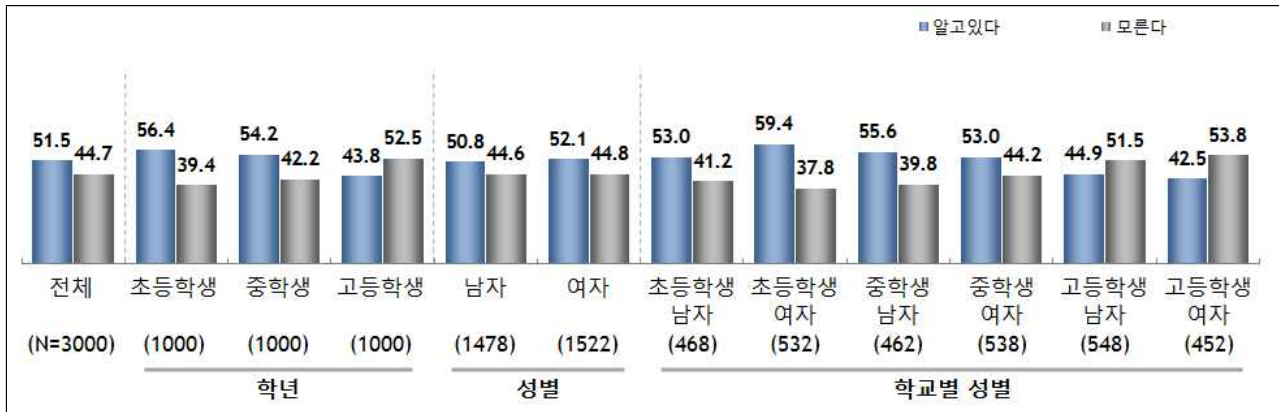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2. 성별 · 학년별 사이버폭력 기관 및 처벌 인지

-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기관 인지는 여학생(52.1%)이 남학생(50.8%) 대비 높았고, 초등학생(56.4%), 중학생(54.2%), 고등학생(43.8%)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사이버폭력 신고기관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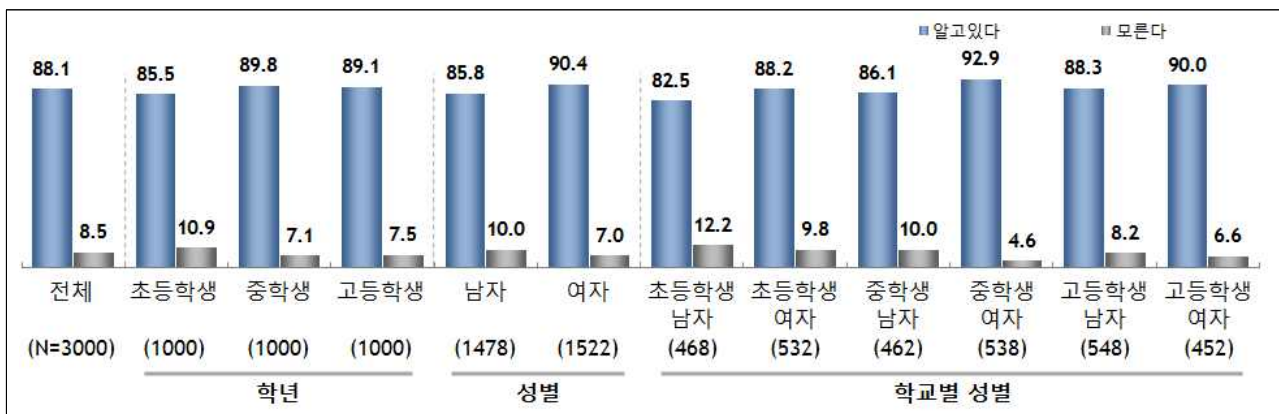
[그림 3-1-12] 성별 · 학년별 사이버폭력 신고기관 인지 (%)



※ 모름/무응답 제외

-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처벌 인지는 여학생(90.4%)이 남학생(85.8%)에 비해 높았고, 중학생(89.8%)이 고등학생(89.1%), 초등학생(8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13] 성별 · 학년별 사이버폭력 법적처벌 인지 (%)



※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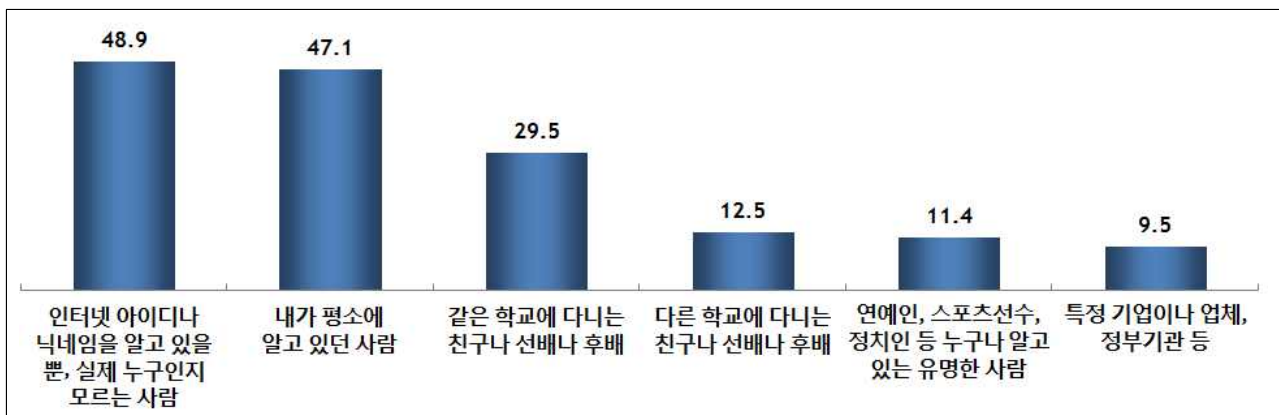
제2장 사이버폭력 특성

제1절 일반적 특성

1.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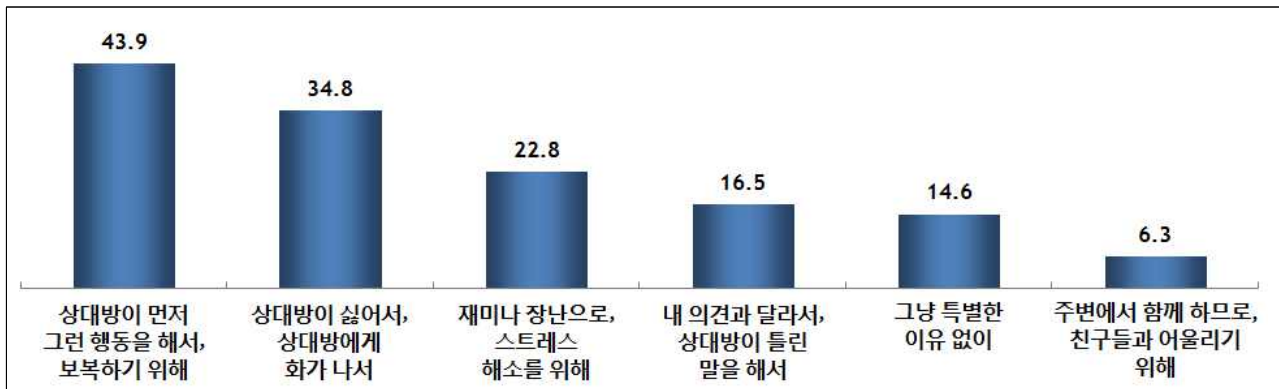
-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48.9%)과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47.1%)들을 주된 가해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43.9%)를 주된 이유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34.8%)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의 가해수단으로 '온라인게임(43.2%)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채팅/메신저'(41.8%), 'SNS'(35.4%), '커뮤니티'(7.8%), '이메일/문자 메시지'(6.8%), '개인홈페이지'(4.6%) 순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의 가해방식은 '혼자서 했다'는 개인적인 가해방식이 69.4%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집단적인 가해방식(28.1%) 대비 높게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49.4%), 가해이후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다'(40.9%)와 같이 죄책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36.1%),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33.1%), '흥미롭고 재미있었다'(18.8%) 등 자신의 가해행동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1] 사이버폭력 가해 대상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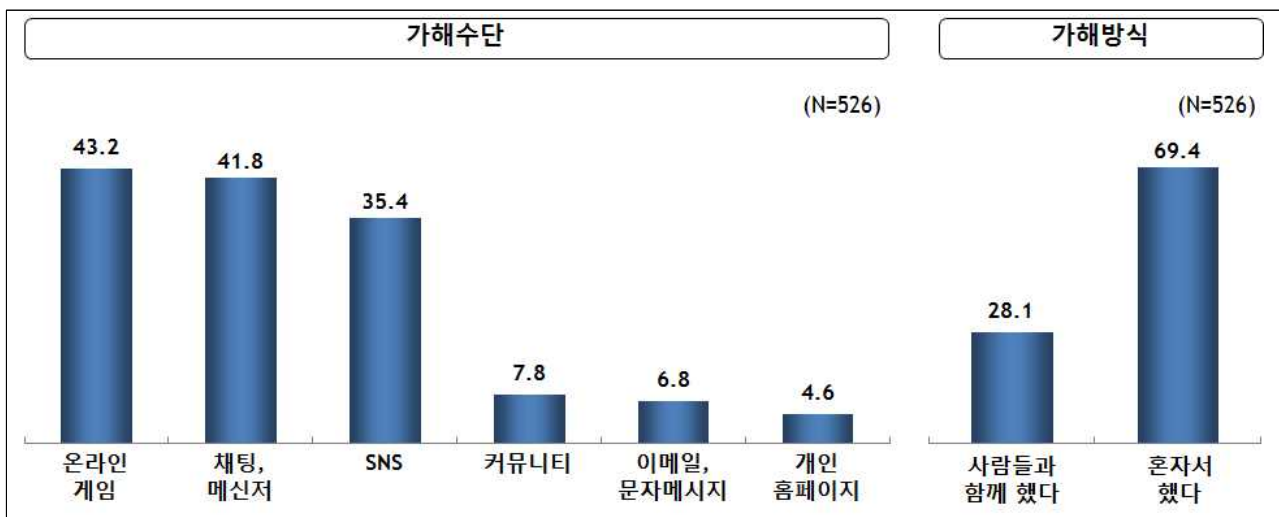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2]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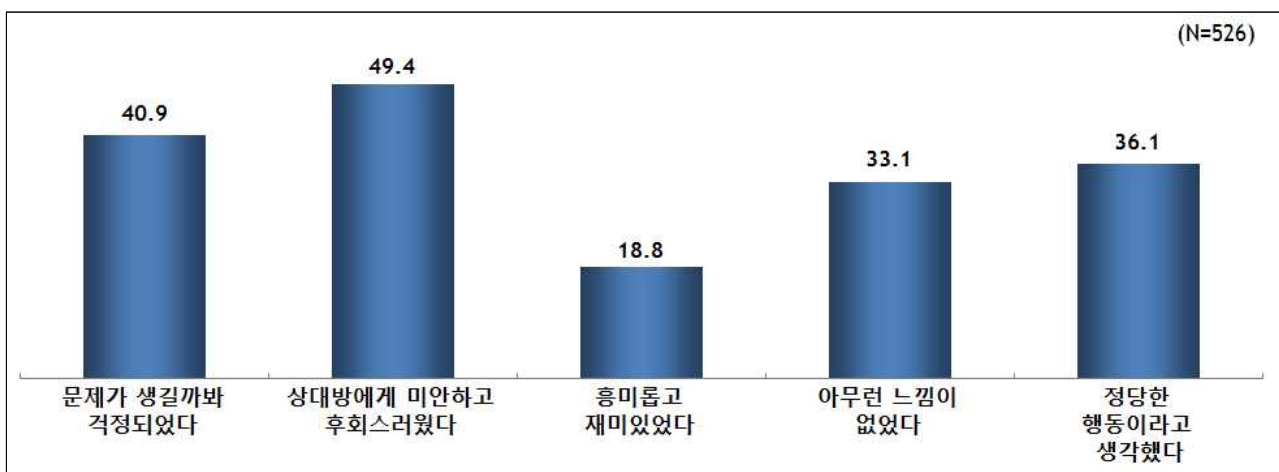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3] 사이버폭력 가해수단과 가해방식 (복수응답, %)



※ 기타,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4]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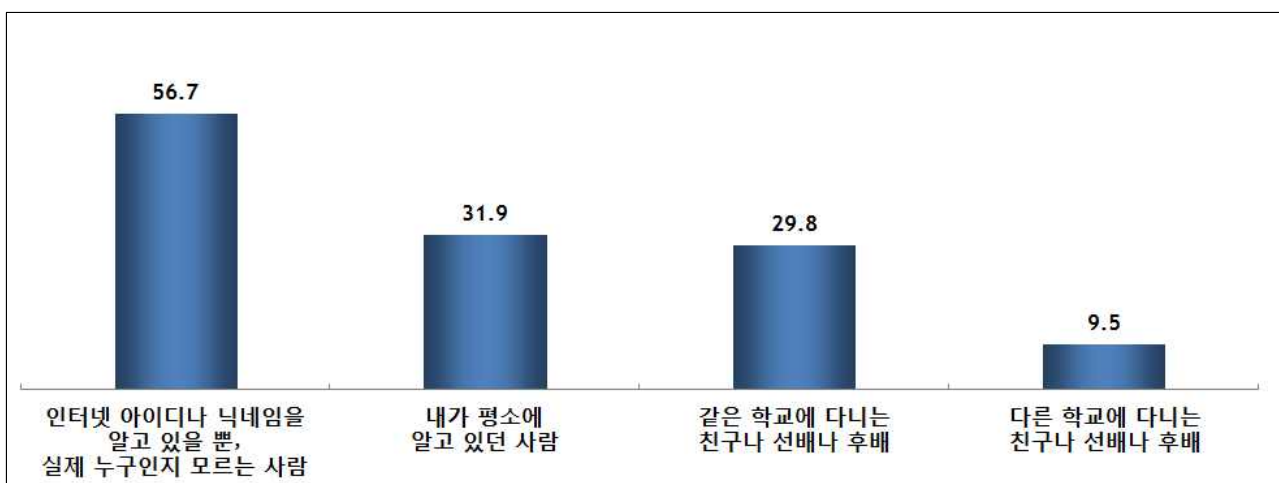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2. 사이버폭력 피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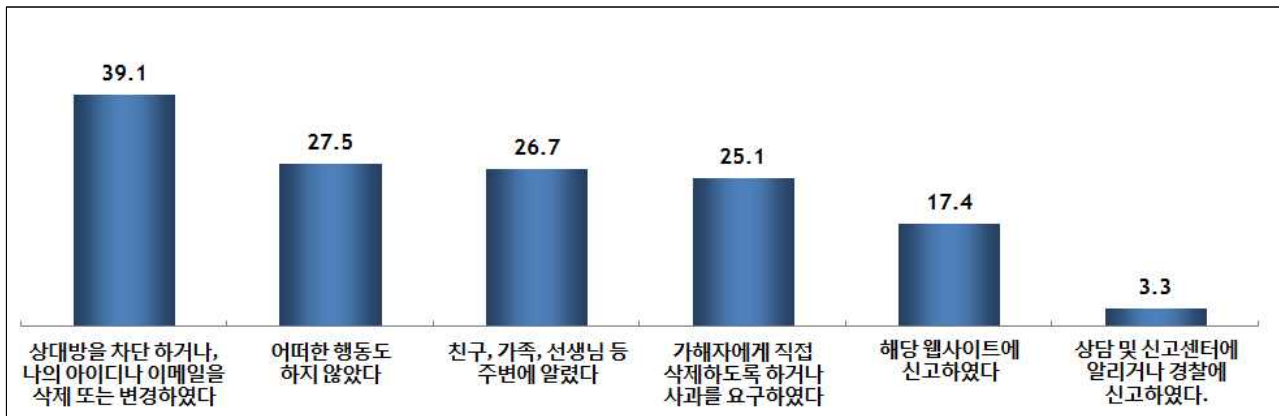
-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56.7%)으로부터의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피해경험은 31.9%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학생들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39.1%)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27.5%) 또한 높게 나타났다.
- 학생들이 사이버폭력 피해수단으로 '온라인게임'(39.8%)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채팅/메신저'(37.3%), 'SNS'(32.3%), '이메일/문자메시지'(5.4%), '커뮤니티'(5.0%), '개인 홈페이지'(4.3%) 순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를 당한 방식은 '한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72.1%)와 같이 개인적인 피해방식이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24.0%)는 집단적인 피해방식 대비 높게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31.7%),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18.4%),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었다'(10.6%) 등의 심리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 조사 결과 기준으로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이후 '보복', '우울·스트레스' 등 부정적 감정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응 등'의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상대방의 차단' 등 소극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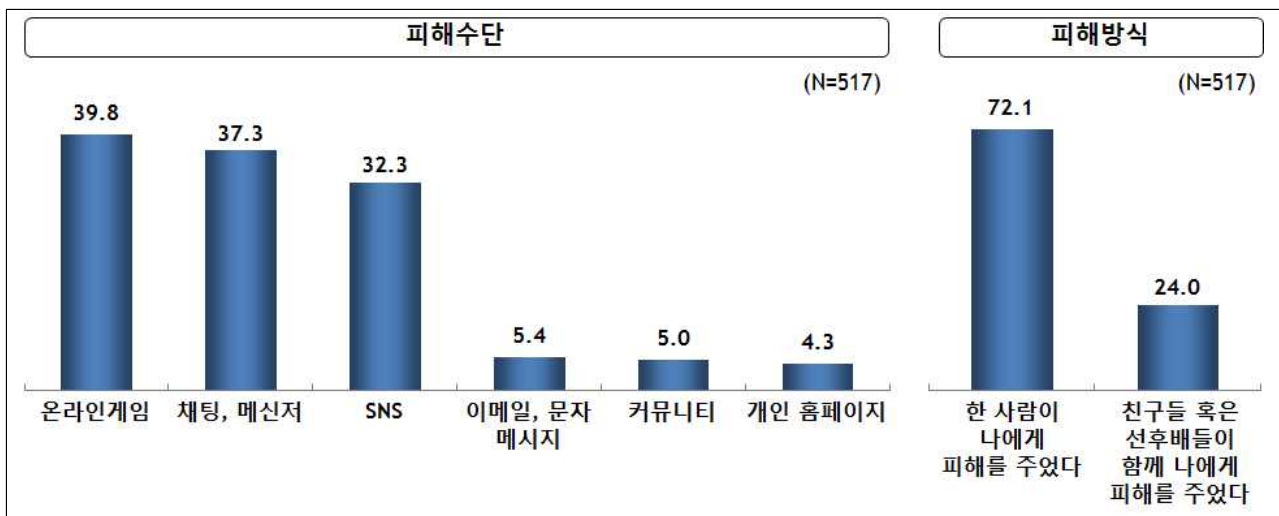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6]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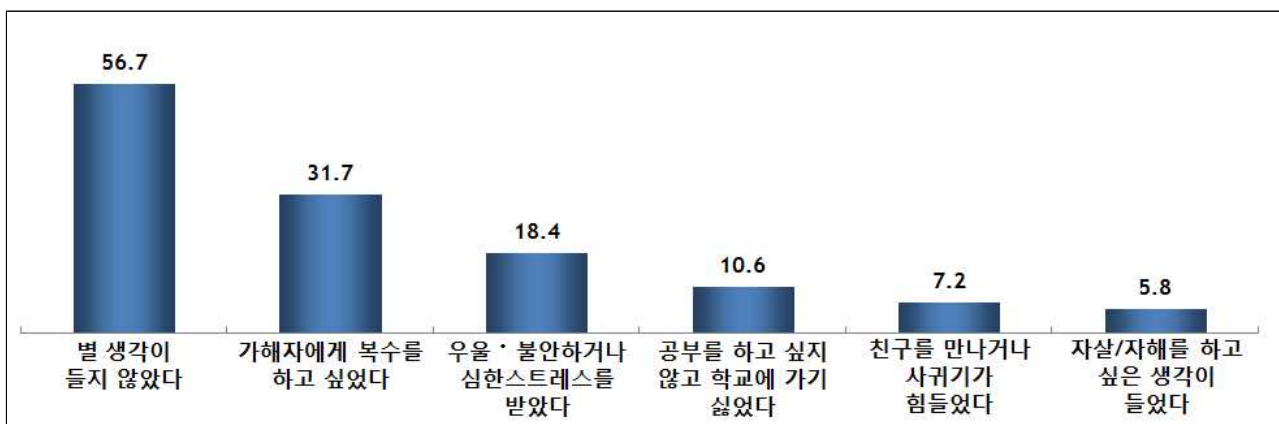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7]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복수응답, %)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8]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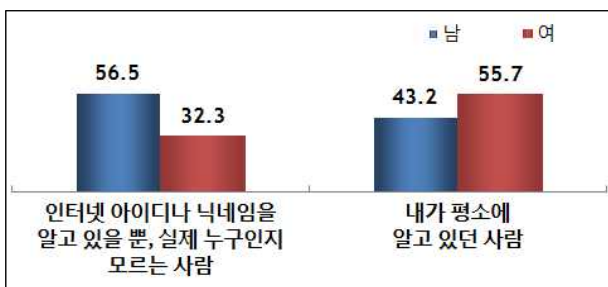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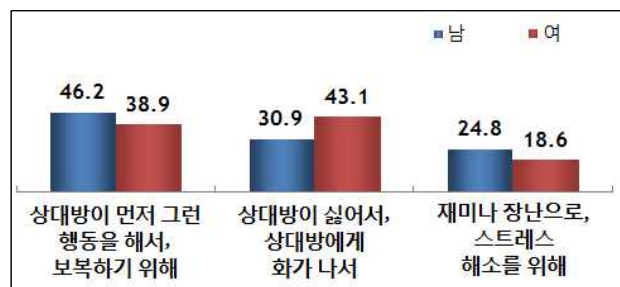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의 가해대상으로 남학생은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56.5%)에게, 여학생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55.7%)을 주요 가해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해수단으로 남학생은 '온라인 게임'(56.3%), 여학생은 '채팅·메신저'(49.7%), 'SNS'(48.5%)를 주요 가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방식에 대해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과 함께 했다'의 집단적인 사이버폭력 가해 비율은 남학생(22.8%) 대비 여학생(39.5%)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해이후 심리로 여학생은 가해 후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54.5%)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46.7%) 등 남학생 대비 여학생이 가해 후 죄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은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46.2%)와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24.8%)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여학생 대비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43.1%) 가해경험이 남학생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9]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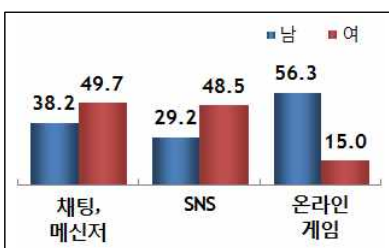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10]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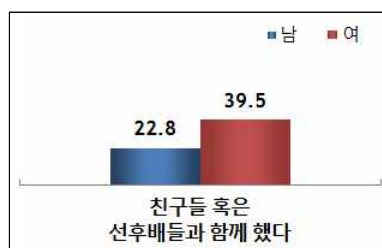


[그림 3-2-11]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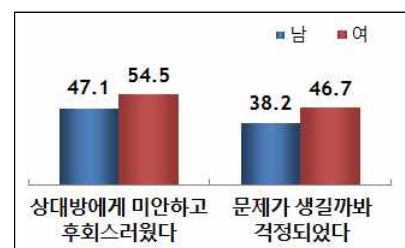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12]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그림 3-2-1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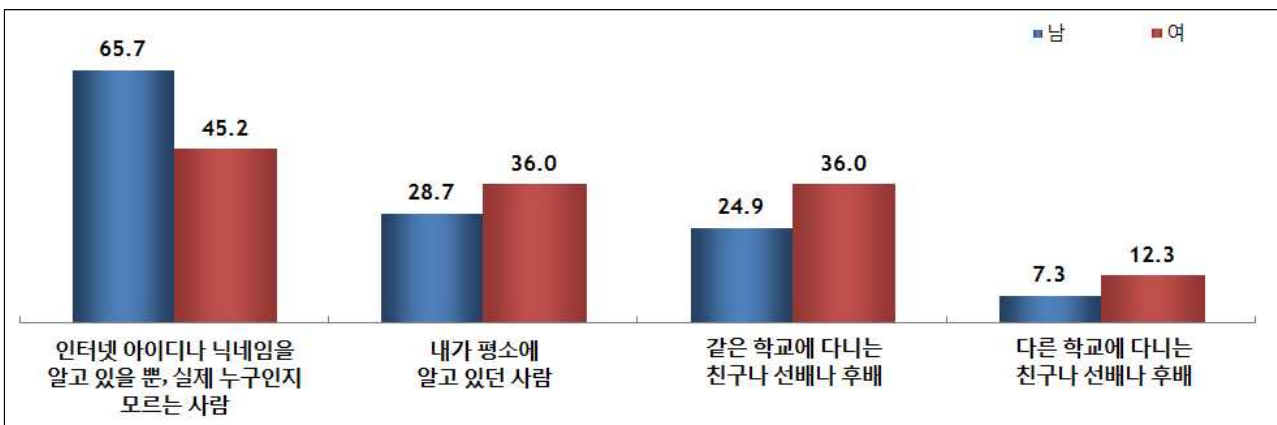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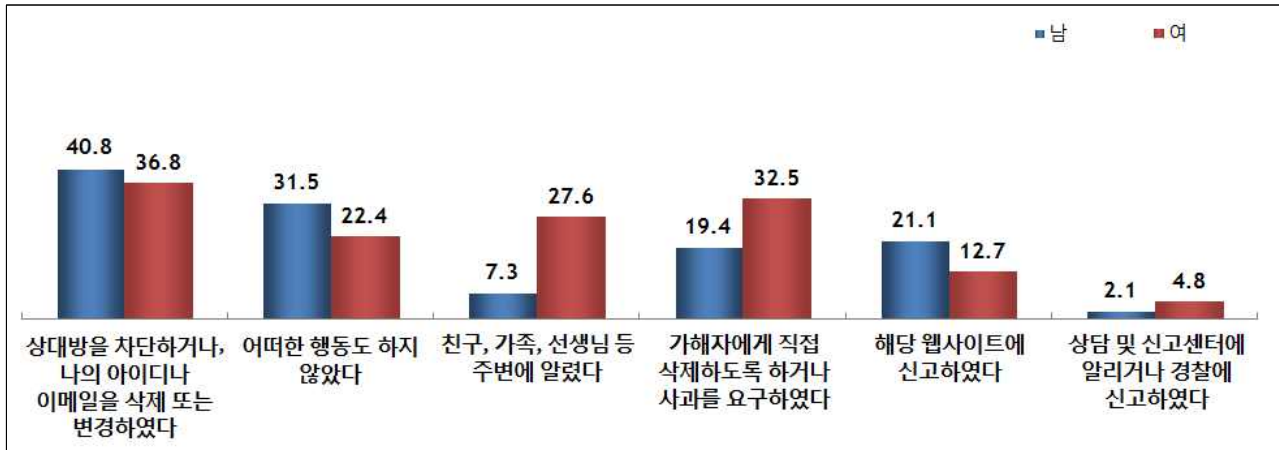
- 남학생은 여학생 대비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남 65.7% > 여 45.2%)으로부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 대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선배나 후배'(남 24.9% < 여 36.0%)에게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은 피해이후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40.8%),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21.1%) 등의 온라인상 대응을 하는 특징을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32.5%),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27.6%) 등 오프라인상의 대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은 '온라인게임'(59.9%)와 '채팅, 메신저'(30.1%)가 피해수단으로 이용된 점이 두드러졌고, 여학생은 'SNS'(49.6%)와 '채팅, 메신저'(46.5%)가 피해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해를 당한 방식은 남학생의 경우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남학생 76.8% > 여학생 66.2%)와 같은 개인적인 피해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남학생 20.1% < 여학생 28.9%)와 같이 집단적인 피해방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학생은 피해이후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29.4%),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었다'(15.8%) 등 심리적 문제를 남학생 대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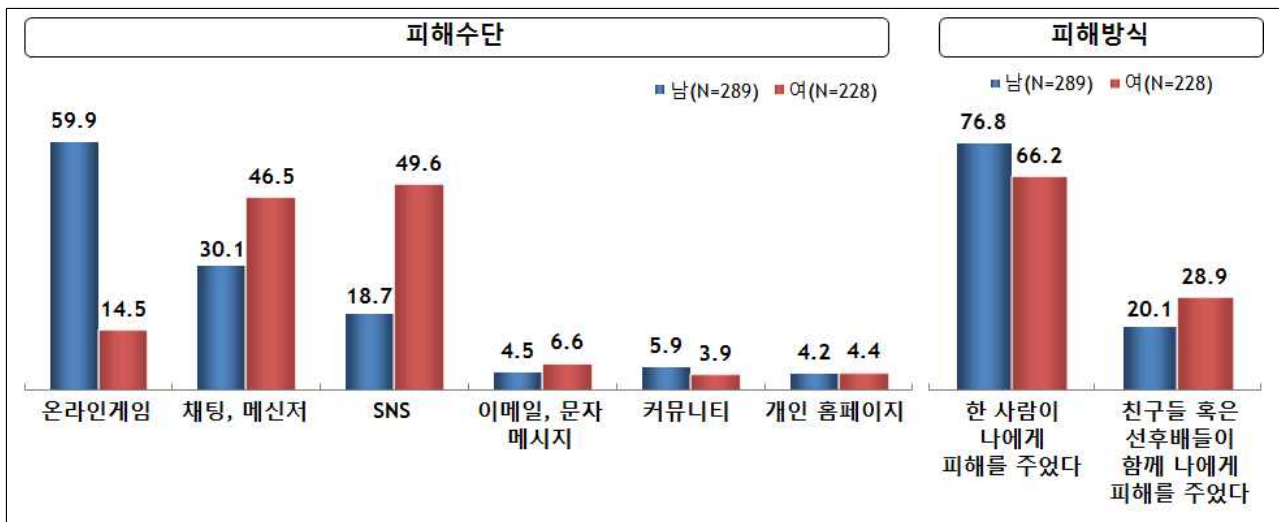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15]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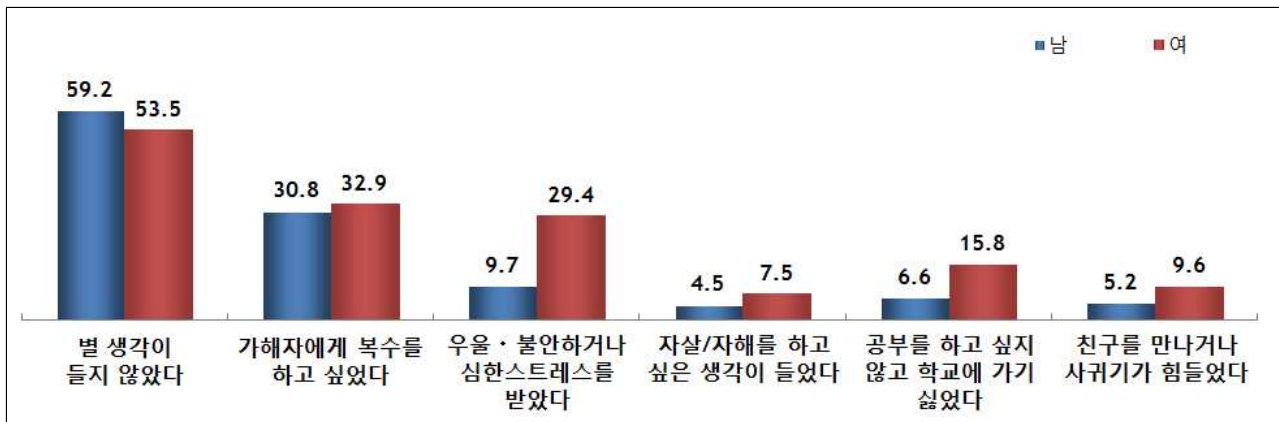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1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복수응답, %)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17]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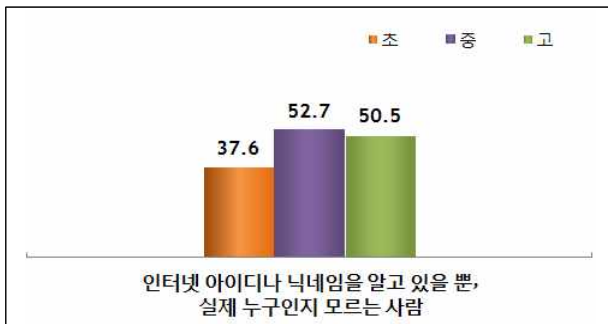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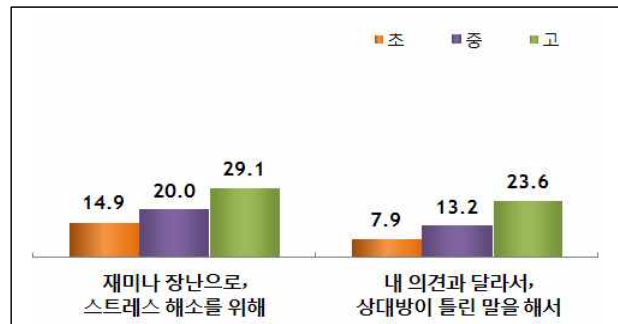
5.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 중·고등학생들은 사이버폭력의 가해대상으로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중 52.7%, 고 50.5%)을 가해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고등학생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수단으로 '온라인 게임'(중 40.5%, 고 47.3%), 초등학생은 '채팅·메신저'(49.5%)를 주된 가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해방식은 고등학생에서 '혼자서 했다'(74.2%)의 단독적인 가해 비율이 초등학생(71.2%)과 중학생(70.8%) 대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에 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위를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초 22.8% < 중 34.6% < 고 43.6%)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초 33.1% > 중 29.7% > 고 24.9%)고 응답한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18]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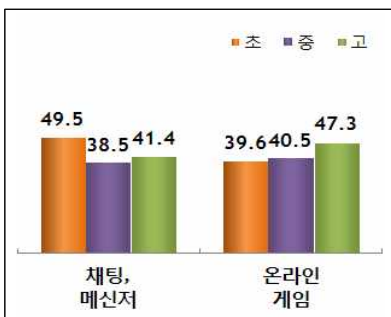


[그림 3-2-19]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복수응답, %)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20]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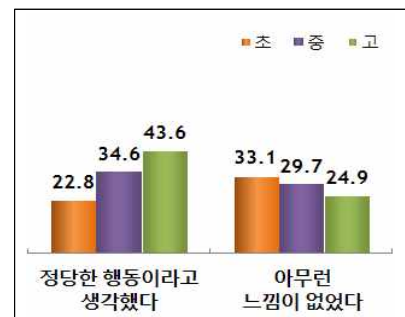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21]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그림 3-2-22] 학년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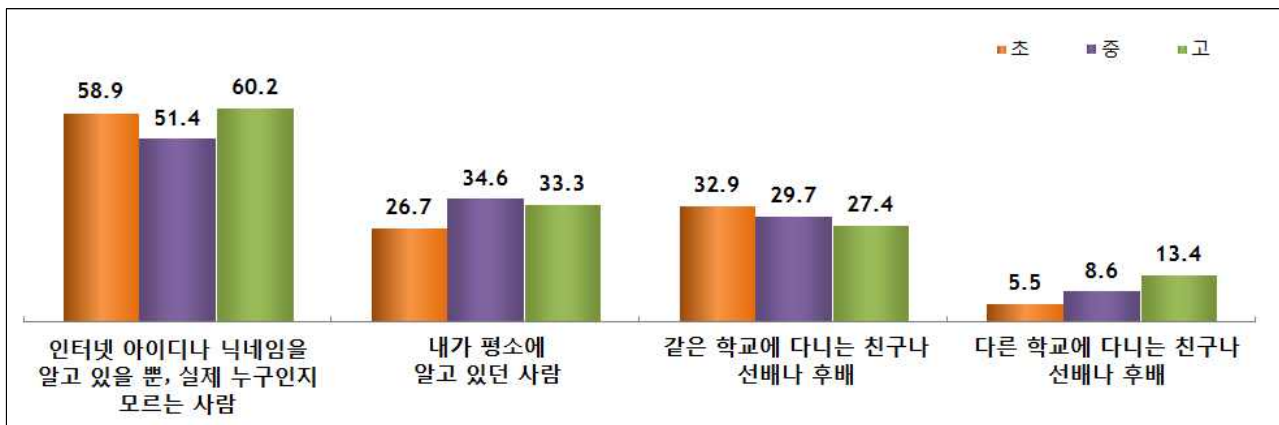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6.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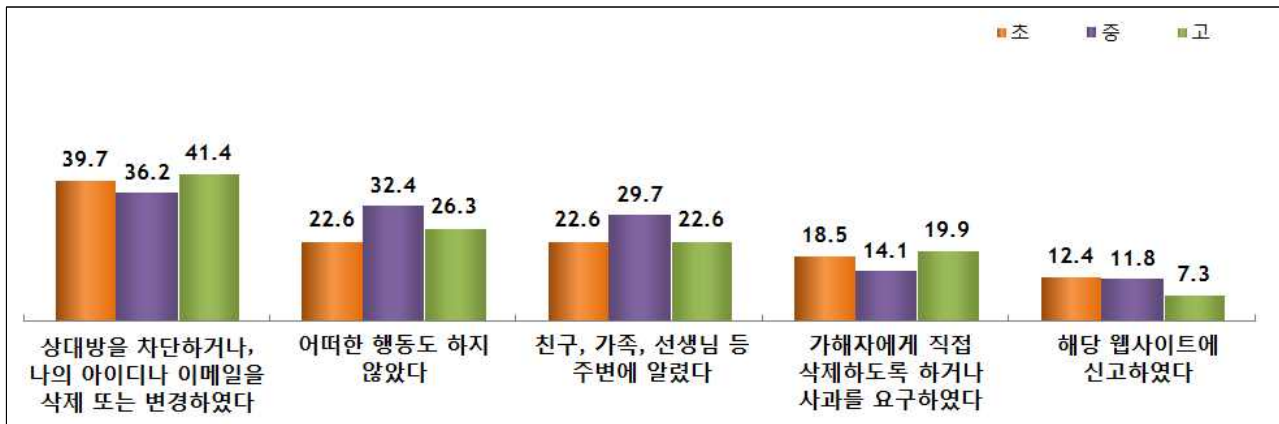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초 58.9%, 중 51.4%, 고 60.2%)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이후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초 39.7%, 중 36.2%, 고 41.4%)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수단으로는 '채팅, 메신저'가 이용되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초 43.2% > 중 41.6% > 고 2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하여 '온라인게임'(50.0%)이 피해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개인적인 피해방식은 (초 71.2%, 중 70.8%, 고 74.2%)로 나타났으며,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집단적인 피해방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초 27.4% > 중 25.9% > 고 19.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의 피해이후 심리에 대해 모든 학년에서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초 56.7%, 중 51.4%, 고 57.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심리적 문제 중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초 31.7%, 중 34.2%, 고 31.9%)는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23]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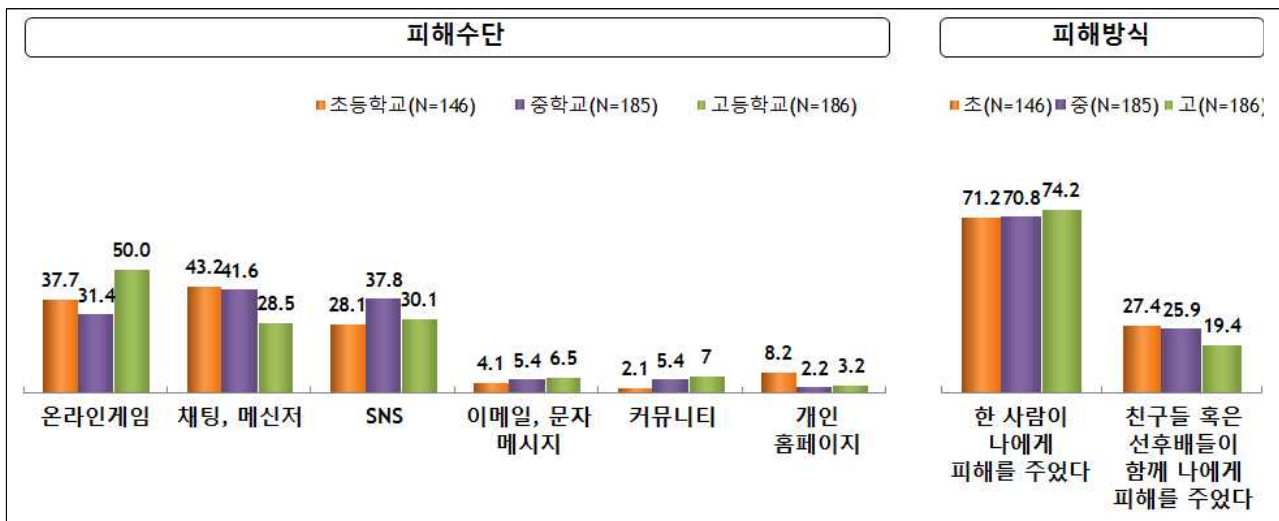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24]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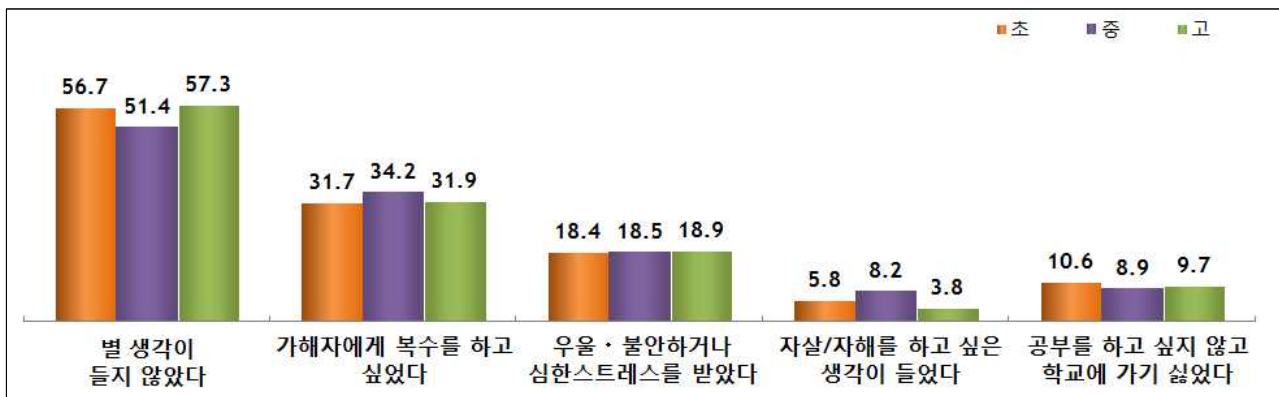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25]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복수응답, %)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3-2-26] 학년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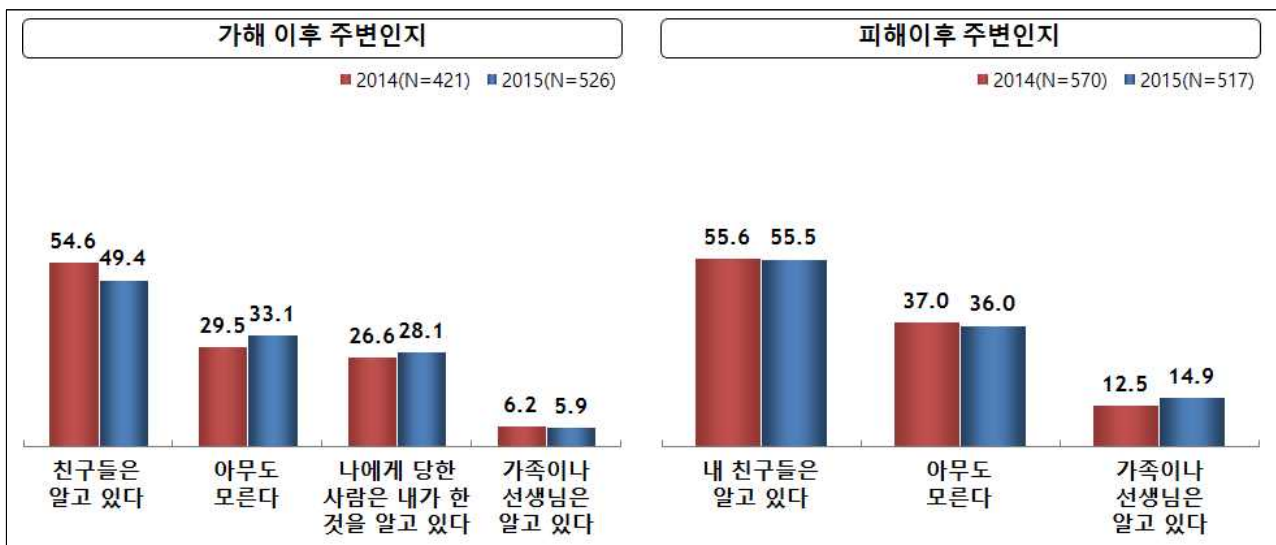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7. 사이버폭력 이후 주변인지

- 2015년 조사에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해사실에 대해서 '친구들은 알고 있다'(49.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무도 모른다'(33.1%), '나에게 당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28.1%), '가족이나 선생님은 알고 있다'(5.9%)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해사실 주변인지는 '친구들은 알고 있다'(55.5%), '아무도 모른다'(36.0%), '가족이나 선생님은 알고 있다'(1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2014년 대비 가해사실에 대해 주변에서 모르는 비율은 3.6%p 증가하였고, 피해사실을 주변에서 모르는 비율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27] 사이버폭력 이후 주변인지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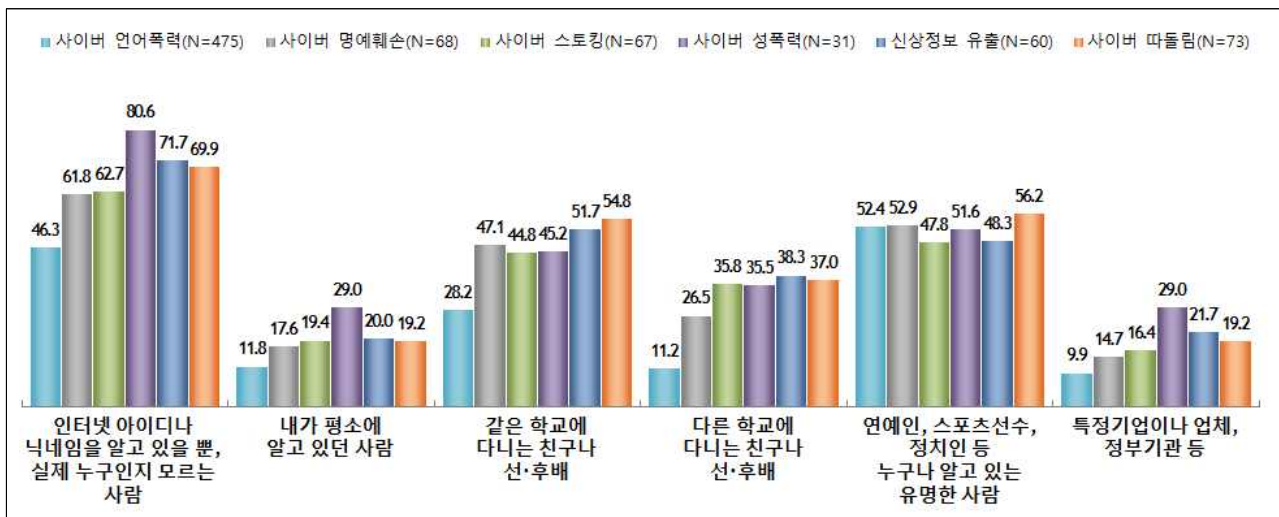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제2절 사이버폭력 유형별 특성

1.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대상

- 사이버 언어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버폭력의 가해유형들의 경우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성폭력(80.6%)과 신상정보 유출(71.7%)은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52.4%)에게 가장 많이 사이버폭력을 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8]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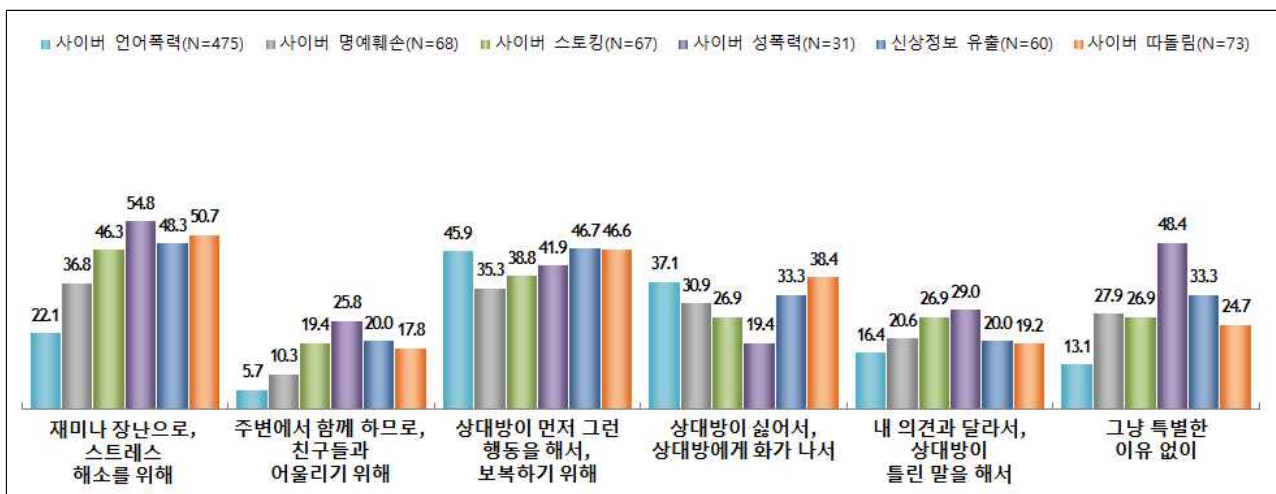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이유

- 사이버폭력의 가해이유 중에서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는 대부분의 사이버폭력 가해유형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해이유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가 45.9%로 가장 높았고,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가해한 경우는 '사이버 성폭력'(54.8%), '사이버 따돌림' (50.7%), '신상정보 유출'(48.3%), '사이버 스토킹'(46.3%), '사이버 명예훼손(36.8%)'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명예훼손'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외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역시 35.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29]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복수응답, N=5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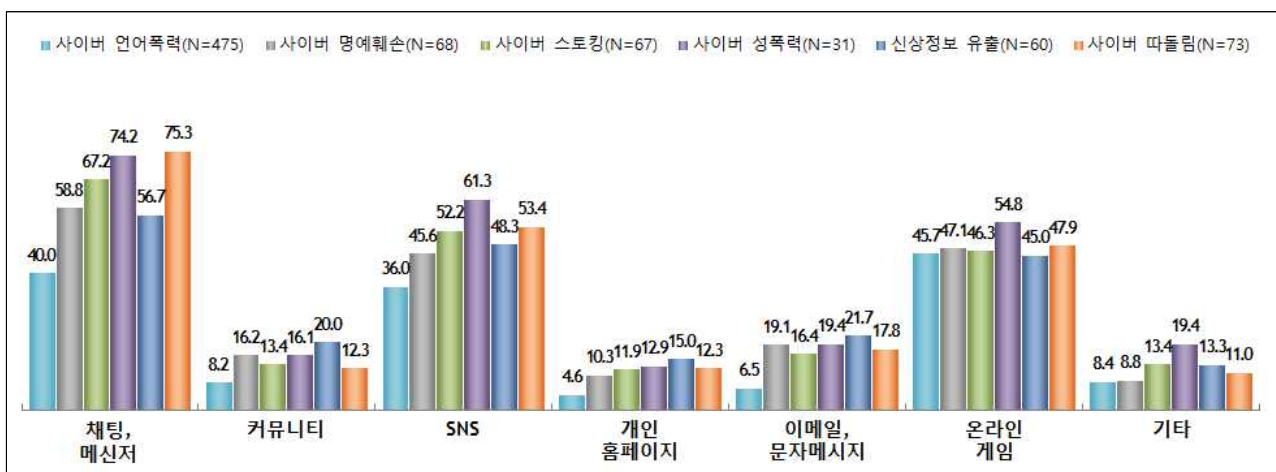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3.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수단

- 가해유형에 상관없이 가장 빈번하게 가해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온라인게임', '채팅, 메신저', 'SNS'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유형별 살펴보면 사이버 언어폭력은 '온라인게임'(45.7%)과 '채팅, 메신저'(40.0%)에서 주된 가해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사이버 명예훼손(58.8%), 사이버 스토킹(67.2%), 사이버 성폭력(74.2%), 신상정보유출(56.7%), 사이버 따돌림(75.3%)은 '채팅, 메신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30]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수단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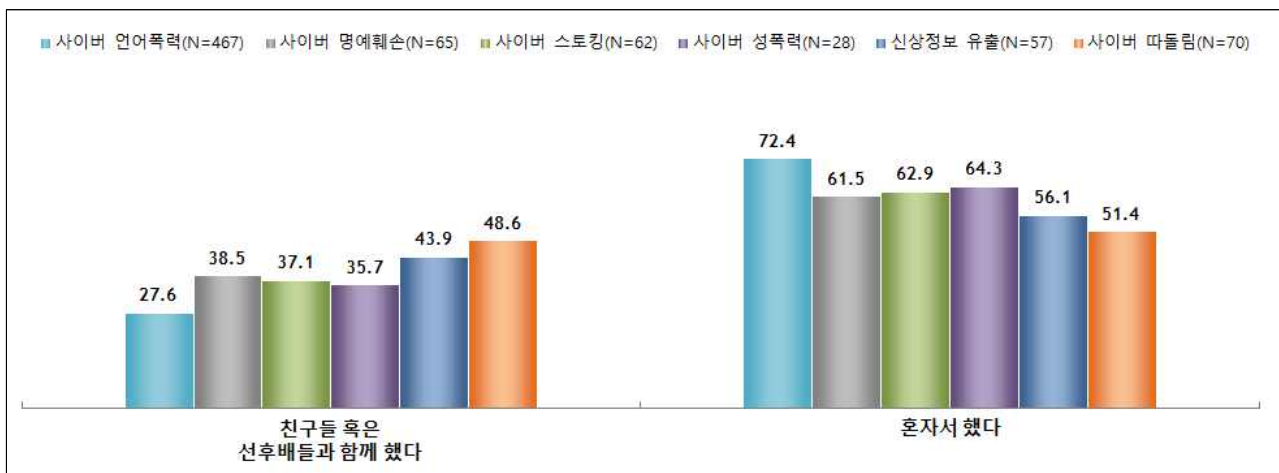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4.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방식

- 사이버폭력 가해방식은 모든 가해유형에서 혼자서 하는 경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72.4%), 사이버 성폭력(64.3%), 사이버 스토킹(62.9%), 사이버 명예훼손(61.5%), 신상정보 유출(56.1%), 사이버 따돌림(51.4%)로 나타났다.
- 한편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과 함께'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신상정보유출(43.9%)과 사이버 따돌림(48.6%)이 다른 가해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31]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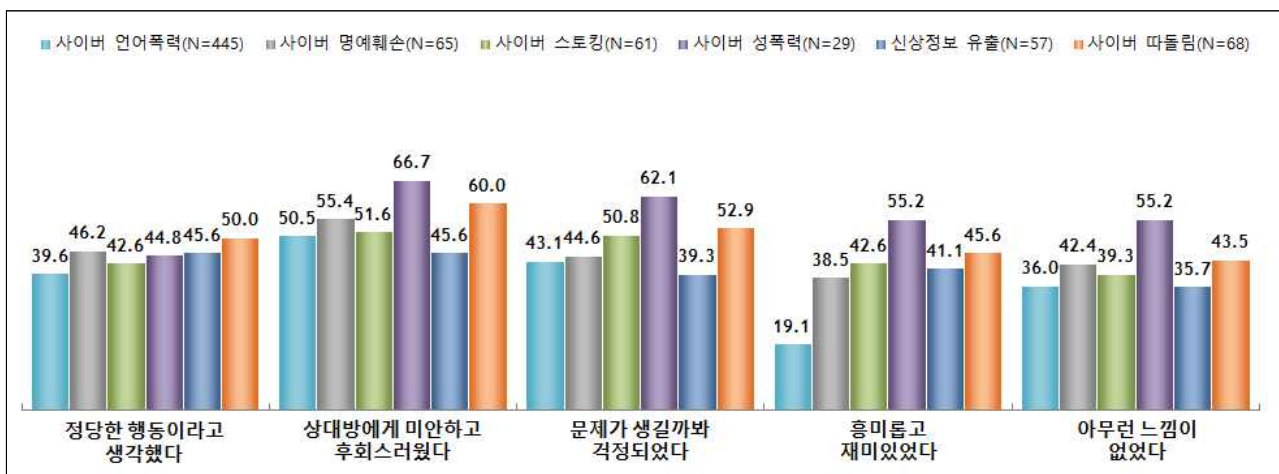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5.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이후 심리

- 사이버폭력 모든 가해유형에서 '상대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해이후 심리는 '상대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50.5%),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43.1%)로 높게 나타난 반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19.1%)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 특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는 응답은 사이버 성폭력(55.2%), 사이버 따돌림(45.6%), 사이버 스토킹(42.6%), 신상정보 유출(41.1%)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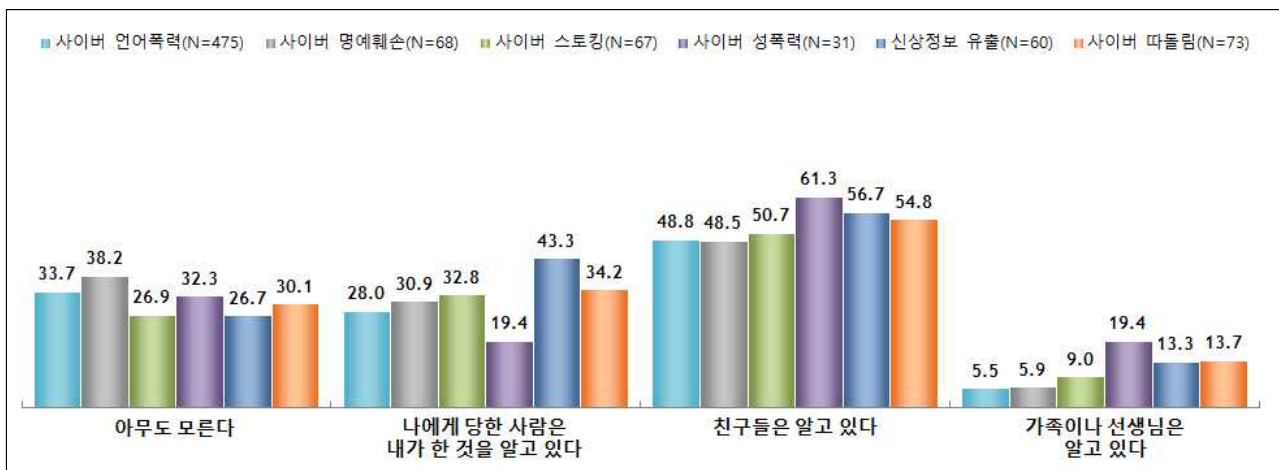
[그림 3-2-3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6.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주변인지

-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주변인지는 모든 가해유형에 대해 '친구들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해유형별 주변인지가 가장 높은 유형은 사이버 성폭력(61.3%)으로 나타났으며, 신상정보 유출(56.7%), 사이버 따돌림(54.8%), 사이버 스토킹(50.7%), 사이버 언어폭력(48.8%), 사이버 명예훼손(48.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3]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사실 주변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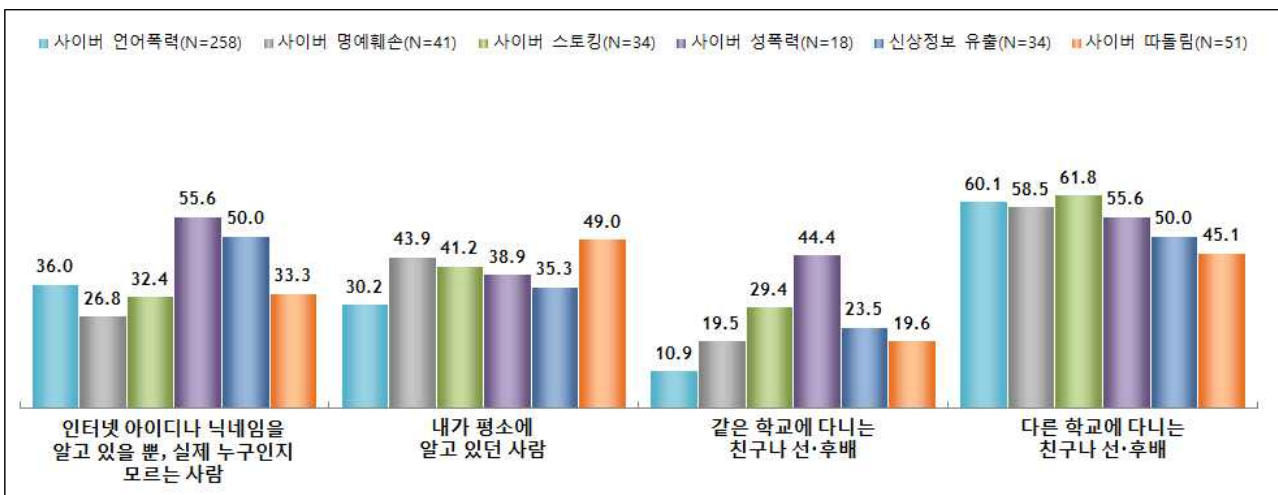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7.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대상

- 대부분의 사이버폭력 피해유형에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 성폭력(55.6%)과 신상정보 유출(50.0%)의 경우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43.9%)과 사이버 스토킹(41.2%)의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34]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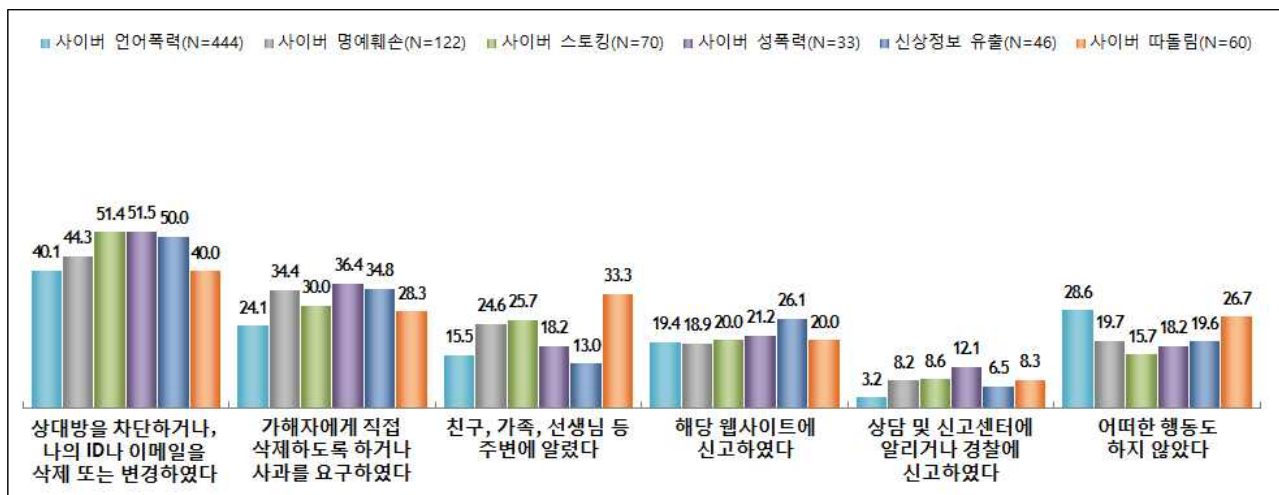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8.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이후 대응

- 모든 유형의 사이버폭력 피해유형에 대해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나 이메일을 삭제, 변경하였다'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이후 대응 중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사이버 성폭력(36.4%), 신상정보 유출(34.8%), 사이버 명예훼손(34.4%), 사이버 스토킹(30.0%)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 따돌림은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33.3%)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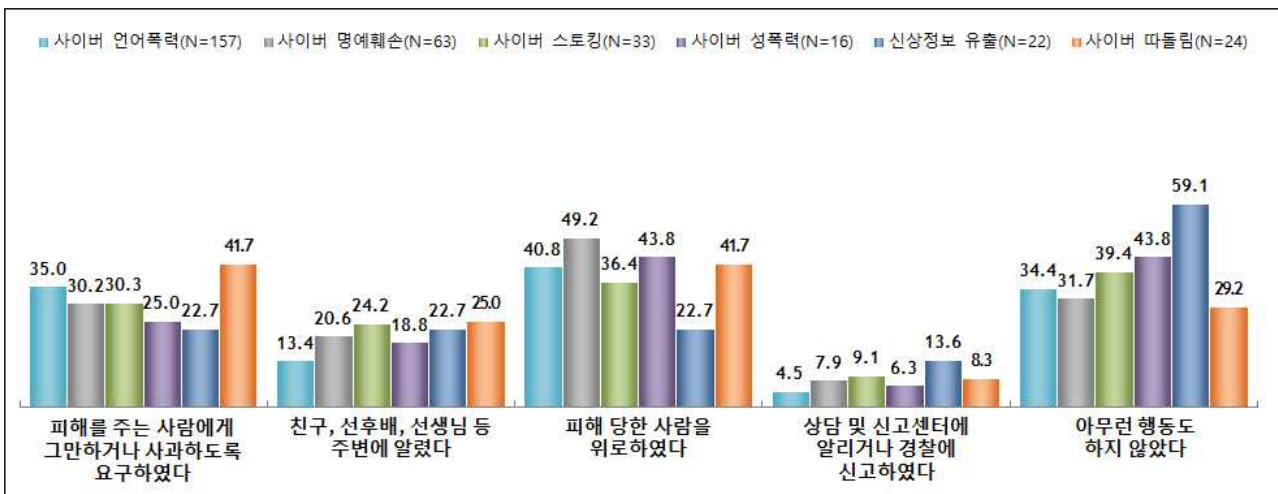
[그림 3-2-35]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 모름/무응답 제외

- 신상정보 유출과 사이버 스토킹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의 대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목격이후 대응 중에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이버 따돌림(41.7%)에서 높게 나타났고,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는 사이버 따돌림(25.0%)과 사이버 스토킹(24.2%)에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신상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59.1%),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대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6]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목격 이후 대응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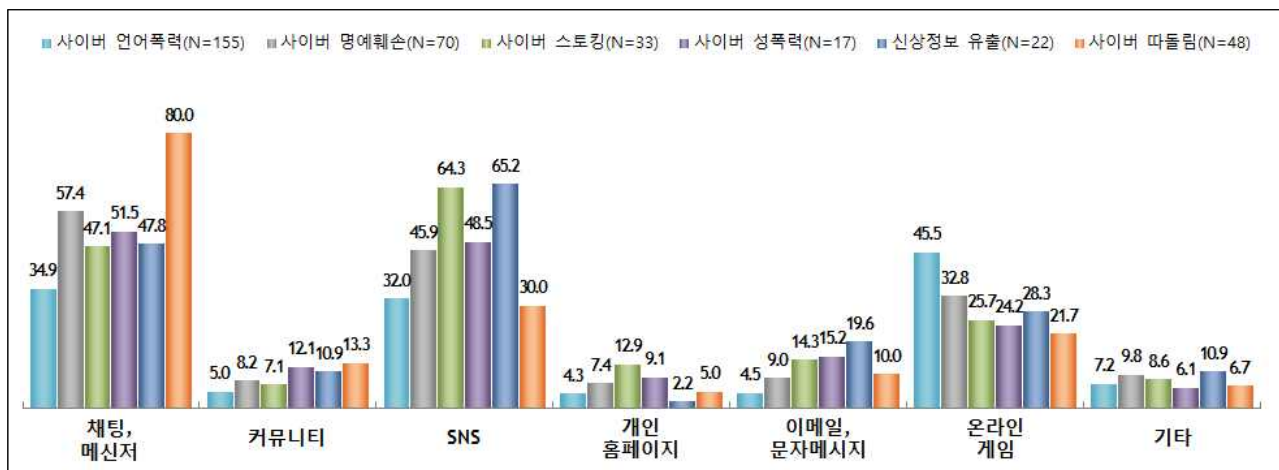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9.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수단

- 사이버폭력 유형별 살펴보면 사이버 언어폭력은 '온라인게임'(45.5%)이 주된 가해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사이버 명예훼손(57.4%), 사이버 성폭력(51.5%), 사이버 따돌림(80.0%)은 '채팅, 메신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 밖에도 사이버 스토킹(64.3%)과 신상정보 유출(65.2%)은 'SNS'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37]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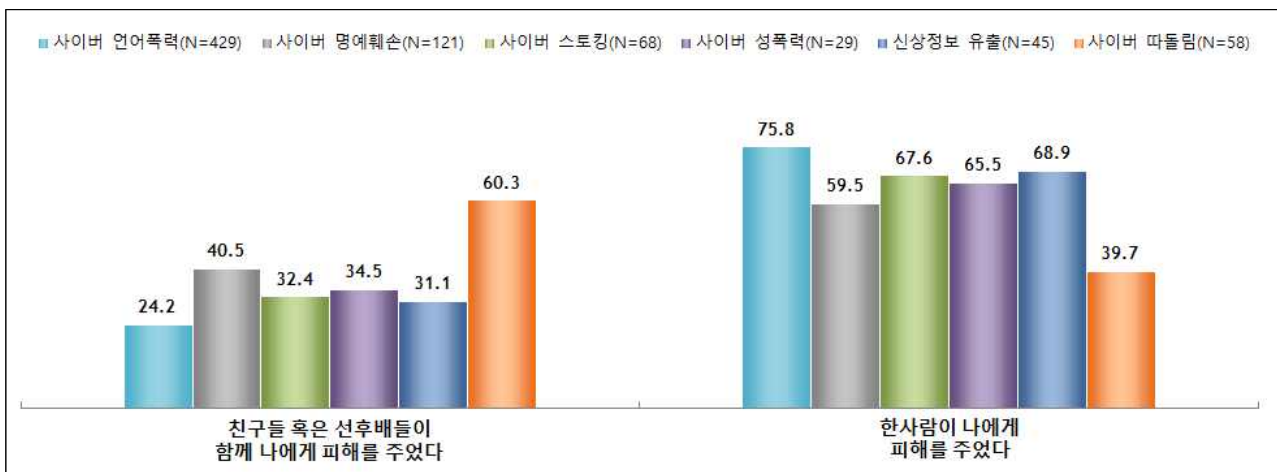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10.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방식

- 사이버 언어폭력(75.8%), 사이버 스토킹(67.6%), 사이버 성폭력(65.5%), 신상정보 유출(68.9%) 등 사이버폭력의 피해유형들은 주로 한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많았고, 사이버 명예훼손(40.5%), 사이버 따돌림(60.3%)은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과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8]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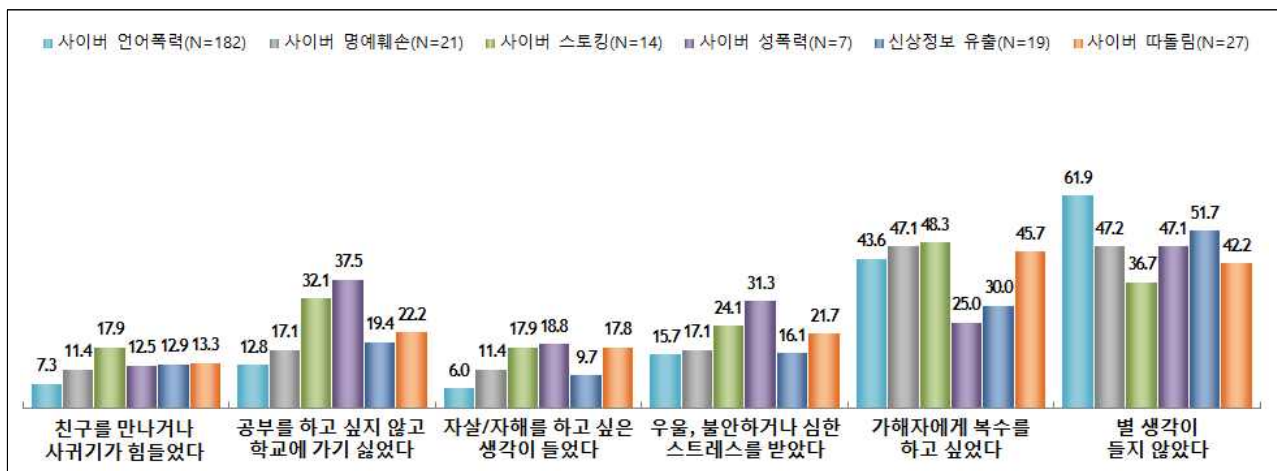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11.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이후 심리

- 대부분의 사이버폭력 피해유형에 대해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는 피해이후 심리는 사이버 언어폭력(43.6%), 사이버 명예훼손(47.1%), 사이버 스토킹(48.3%)에서 높게 나타났고, '우울, 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피해이후 심리는 사이버 성폭력(31.3%), 사이버 스토킹(24.1%)에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친구를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는 피해이후 심리는 사이버 스토킹(17.9%), 사이버 따돌림(13.3%), 신상정보 유출(12.9%), 사이버 성폭력(12.5%) 순으로 높았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었다'는 피해이후 심리도 사이버 성폭력(37.5%), 사이버 스토킹(32.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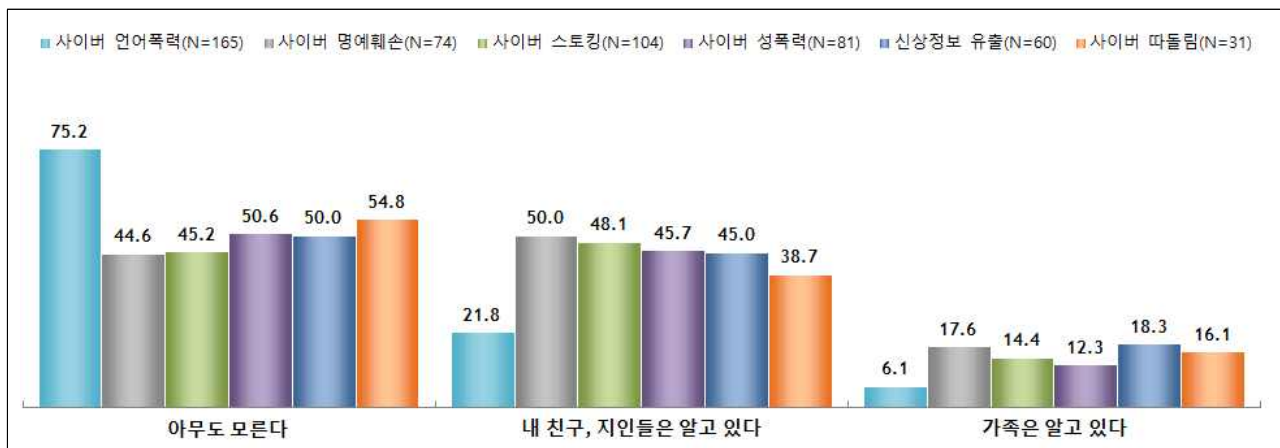
[그림 3-2-39]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12.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주변인지

-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와 같이 주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유형으로는 사이버 언어폭력(75.2%), 사이버 따돌림(54.8%), 사이버 성폭력(50.6%), 신상정보 유출(50.0%)인 것으로 나타났고, '내 친구, 지인들은 알고 있다'와 같이 주변에서 사이버폭력 피해를 인지하는 피해유형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50.0%), 사이버 스토킹(48.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40]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주변인지 (N=517, %)



※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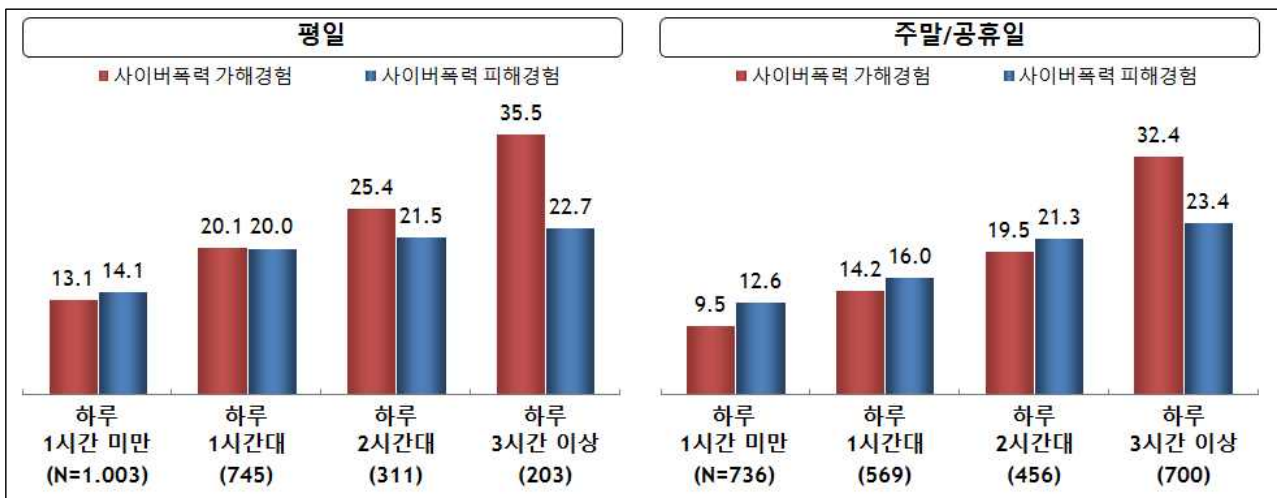
제3장 사이버폭력 원인

제1절 인터넷 이용특성별 사이버폭력 경험

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2015년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 사이버폭력 경험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평일을 기준으로 인터넷을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13.1%)과 피해경험(14.1%)이 가장 낮았던 반면에 '하루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의 가해경험(35.5%)와 피해경험(2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표 3-3-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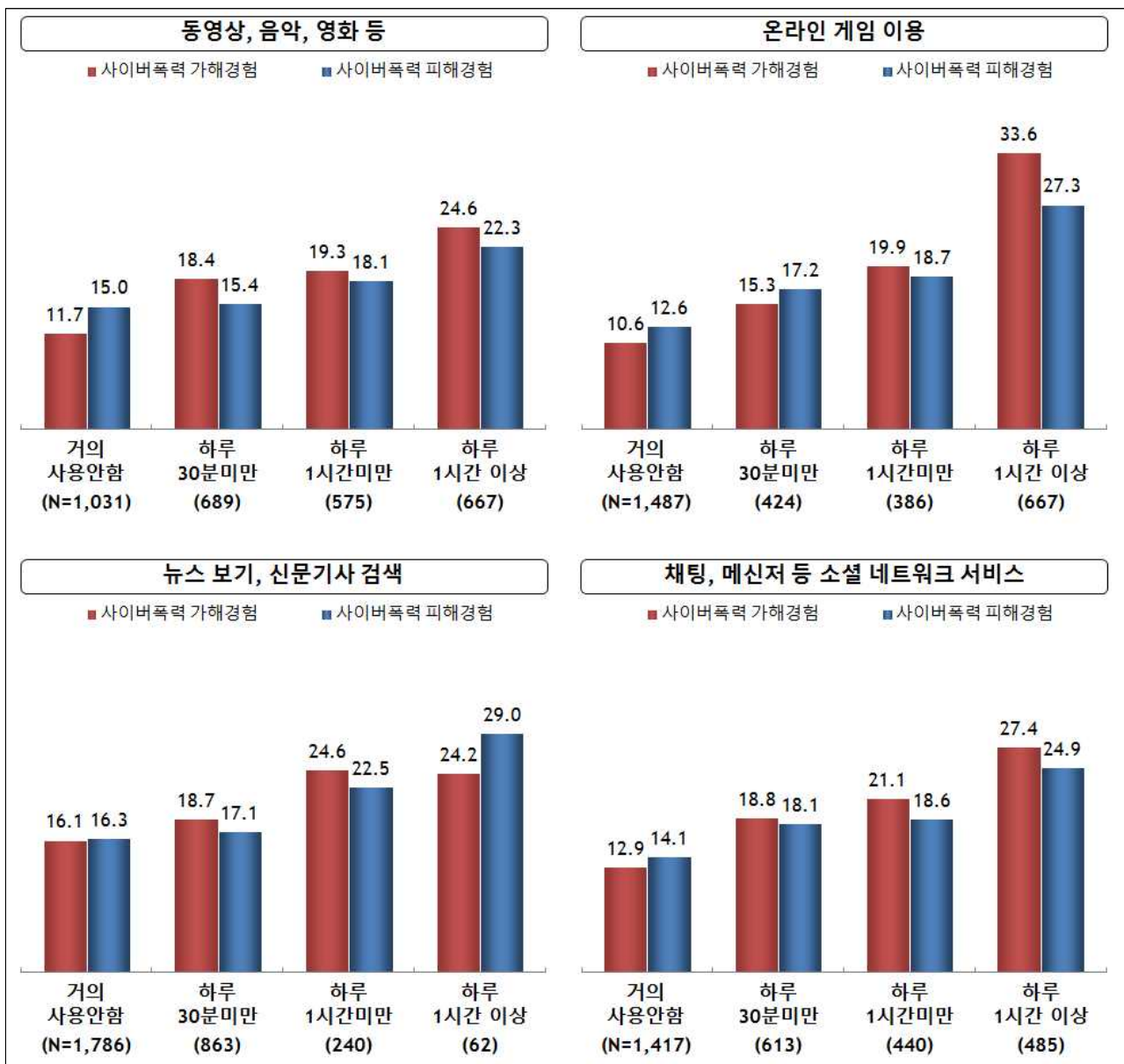
구 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인터넷 이용시간 (평일)	하루 1시간 미만	958(86.9)	145(13.1)	69.5*** (df=3)	948(85.9)	155(14.1)	19.397*** (df=3)
	하루 1시간대	595(79.9)	150(20.1)		596(80.0)	149(20.0)	
	하루 2시간대	232(74.6)	79(25.4)		244(78.5)	67(21.5)	
	하루 3시간 이상	131(64.5)	72(35.5)		157(77.3)	46(22.7)	
	전 체	1916(81.1)	446(18.9)		1945(82.3)	417(17.7)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공휴일)	하루 1시간 미만	666(90.5)	70(9.5)	133.6*** (df=3)	643(87.4)	93(12.6)	33.05*** (df=3)
	하루 1시간대	488(85.8)	81(14.2)		478(84.0)	91(16.0)	
	하루 2시간대	367(80.5)	89(19.5)		359(78.7)	97(21.3)	
	하루 3시간 이상	473(67.6)	227(32.4)		536(76.6)	164(23.4)	
	전 체	1994(81.0)	467(19.0)		2016(81.9)	445(18.1)	

** p<.01, *** p<.001

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은 '동영상, 음악, 영화 등', '온라인 게임',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쇼핑 등'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목적에서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온라인 게임'과 '채팅,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긴 학생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표 3-3-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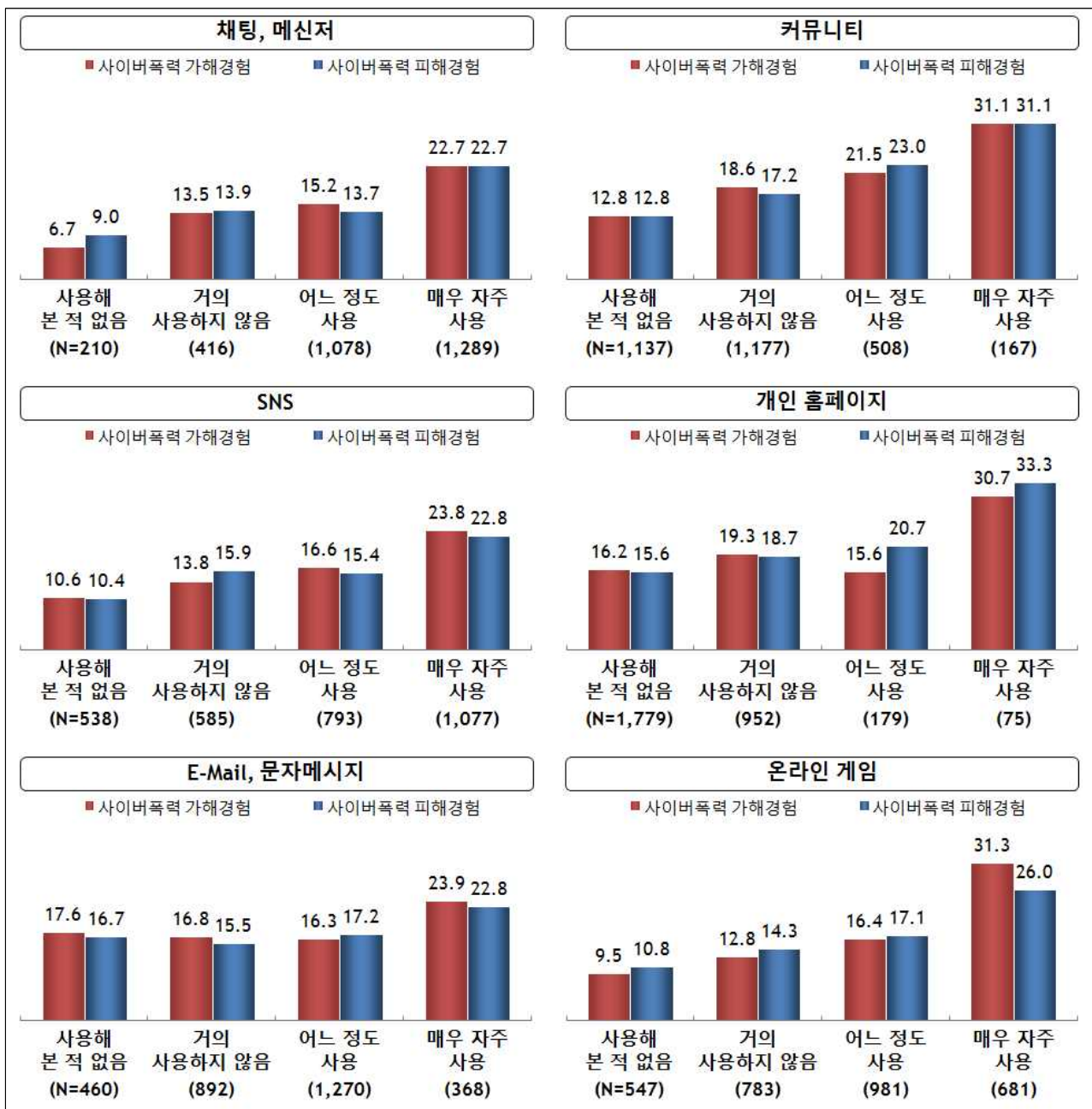
구 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동영상, 음악, 영화 등	거의 사용안함	910(88.3)	121(11.7)	48.25*** (df=3)	876(85.0)	155(15.0)	17.50*** (df=3)
	하루 30분 미만	562(81.6)	127(18.4)		583(84.6)	106(15.4)	
	하루 1시간 미만	464(80.7)	111(19.3)		471(81.9)	104(18.1)	
	하루 1시간 이상	503(75.4)	164(24.6)		518(77.7)	149(22.3)	
	전 체	2,439(82.3)	523(17.7)		2448(82.6)	514(17.4)	
온라인 게임 이용	거의 사용안함	1,330(89.4)	157(10.6)	170.96*** (df=3)	1300(87.4)	187(12.6)	70.05*** (df=3)
	하루 30분 미만	359(84.7)	65(15.3)		351(82.8)	73(17.2)	
	하루 1시간 미만	309(80.1)	77(19.9)		314(81.3)	72(18.7)	
	하루 1시간 이상	443(66.4)	224(33.6)		485(72.7)	182(27.3)	
	전 체	2,441(82.4)	523(17.6)		2450(82.7)	514(17.3)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거의 사용안함	1,499(83.9)	287(16.1)	13.41** (df=3)	1494(83.7)	292(16.3)	11.61*** (df=3)
	하루 30분 미만	702(81.3)	161(18.7)		715(82.9)	148(17.1)	
	하루 1시간 미만	181(75.4)	59(24.6)		186(77.5)	54(22.5)	
	하루 1시간 이상	47(75.8)	15(24.2)		44(71.0)	18(29.0)	
	전 체	2,429(82.3)	522(17.7)		2439(82.6)	512(17.4)	
채팅, 메신저 등	거의 사용안함	1,234(87.1)	183(12.9)	57.70*** (df=3)	1217(85.9)	200(14.1)	30.56*** (df=3)
	하루 30분 미만	498(81.2)	115(18.8)		502(81.9)	111(18.1)	
	하루 1시간 미만	347(78.9)	93(21.1)		358(81.4)	82(18.6)	
	하루 1시간 이상	352(72.6)	133(27.4)		364(75.1)	121(24.9)	
	전 체	2431(82.3)	524(17.7)		2441(82.6)	514(17.4)	
온라인 쇼핑 등	거의 사용안함	1,878(84.9)	335(15.1)	38.90*** (df=3)	1858(84.0)	355(16.0)	18.00*** (df=3)
	하루 30분 미만	345(74.0)	121(26.0)		375(80.5)	91(19.5)	
	하루 1시간 미만	150(76.9)	45(23.1)		156(80.0)	39(20.0)	
	하루 1시간 이상	66(75.0)	22(25.0)		60(68.2)	28(31.8)	
	전 체	2439(82.3)	523(17.7)		2449(82.7)	513(17.3)	

** p<.01, *** p<.001

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인터넷 이용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일수록 사이버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커뮤니티'와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매우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표 3-3-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구 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채팅, 메신저	사용해 본 적 없음	196(93.3)	14(6.7)	49.20*** (df=3)	191(91.0)	19(9.0)	48.75***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360(86.5)	56(13.5)		358(86.1)	58(13.9)	
	어느 정도 사용	914(84.8)	164(15.2)		930(86.3)	148(13.7)	
	매우 자주 사용	997(77.3)	292(22.7)		997(77.3)	292(22.7)	
	전 체	2,467(82.4)	526(17.6)		2,476(82.7)	517(17.3)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사용해 본 적 없음	992(87.2)	145(12.8)	45.62*** (df=3)	992(87.2)	145(12.8)	50.54***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958(81.4)	219(18.6)		975(82.8)	202(17.2)	
	어느 정도 사용	399(78.5)	109(21.5)		391(77.0)	117(23.0)	
	매우 자주 사용	115(68.9)	52(31.1)		115(68.9)	52(31.1)	
	전 체	2,464(82.4)	525(17.6)		2,473(82.7)	516(17.3)	
SNS	사용해 본 적 없음	481(89.4)	57(10.6)	52.71*** (df=3)	482(89.6)	56(10.4)	43.86***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504(86.2)	81(13.8)		492(84.1)	93(15.9)	
	어느 정도 사용	661(83.4)	132(16.6)		671(84.6)	122(15.4)	
	매우 자주 사용	821(76.2)	256(23.8)		831(77.2)	246(22.8)	
	전 체	2,467(82.4)	526(17.6)		2,476(82.7)	517(17.3)	
개인 홈페이지	사용해 본 적 없음	1,490(83.8)	289(16.2)	13.53** (df=3)	1,502(84.4)	277(15.6)	19.89***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504(80.7)	184(19.3)		774(81.3)	178(18.7)	
	어느 정도 사용	151(84.4)	28(15.6)		142(79.3)	37(20.7)	
	매우 자주 사용	52(69.3)	23(30.7)		50(66.7)	25(33.3)	
	전 체	2,461(82.4)	524(17.6)		2,468(82.7)	517(17.3)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용해 본 적 없음	379(82.4)	81(17.6)	11.97** (df=3)	383(83.3)	77(16.7)	10.06*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742(83.2)	150(16.8)		754(84.5)	138(15.5)	
	어느 정도 사용	1,063(83.7)	207(16.3)		1,052(82.8)	218(17.2)	
	매우 자주 사용	280(76.1)	88(23.9)		284(77.2)	84(22.8)	
	전 체	2,464(82.4)	526(17.6)		2,473(82.7)	517(17.3)	
온라인 게임	사용해 본 적 없음	495(90.5)	52(9.5)	126.20*** (df=3)	488(89.2)	59(10.8)	57.24***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683(87.2)	100(12.8)		671(85.7)	112(14.3)	
	어느 정도 사용	820(83.6)	161(16.4)		813(82.9)	168(17.1)	
	매우 자주 사용	468(68.7)	213(31.3)		504(74.0)	177(26.0)	
	전 체	2,466(82.4)	526(17.6)		2,476(82.8)	516(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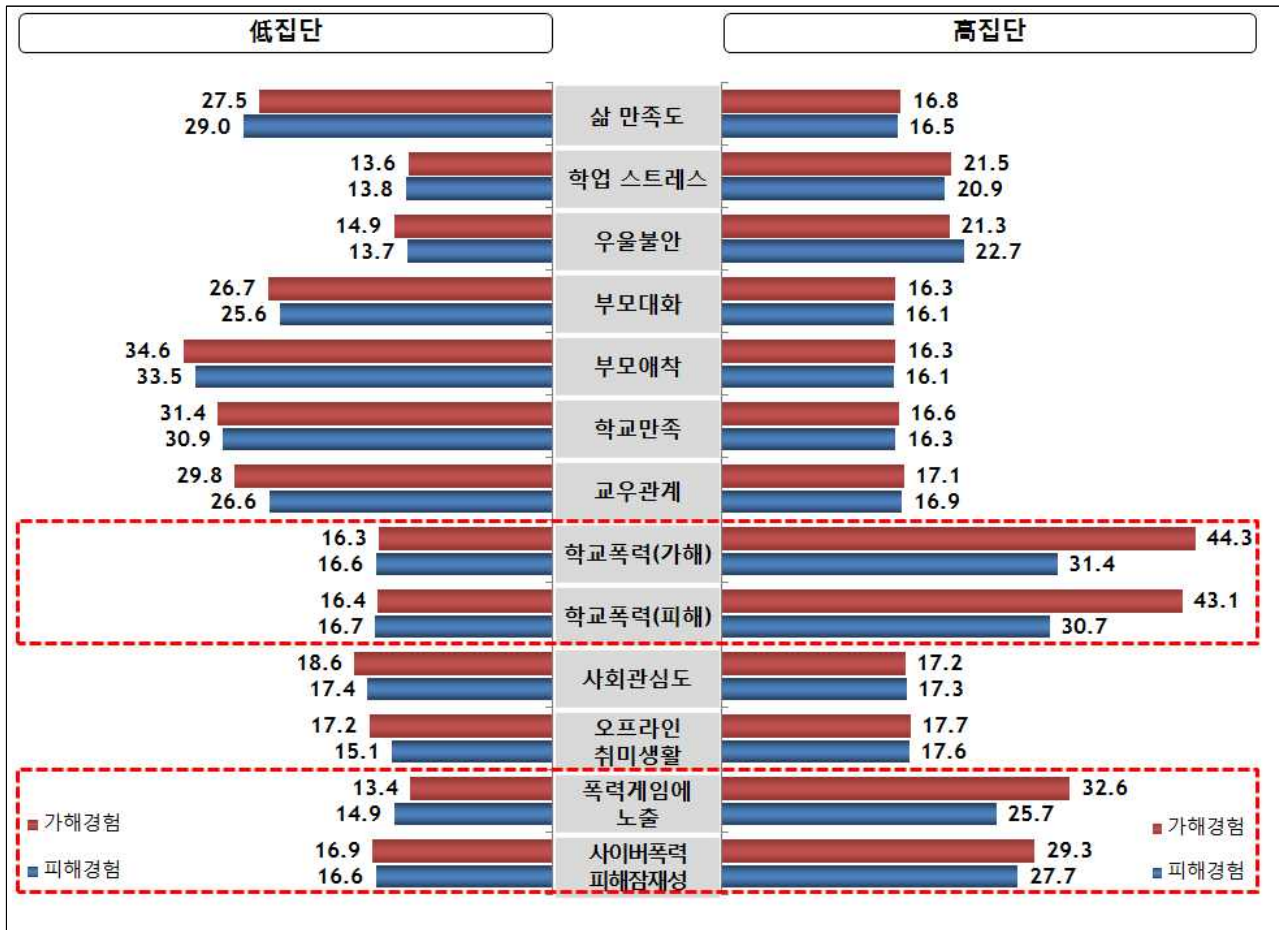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제2절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1.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경험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은 학생들의 환경요인(개인, 가족, 학교, 사회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 만족도, 부모대화, 부모애착, 학교만족, 교우관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스트레스, 우울·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 사이버폭력 피해 잠재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표 3-3-4]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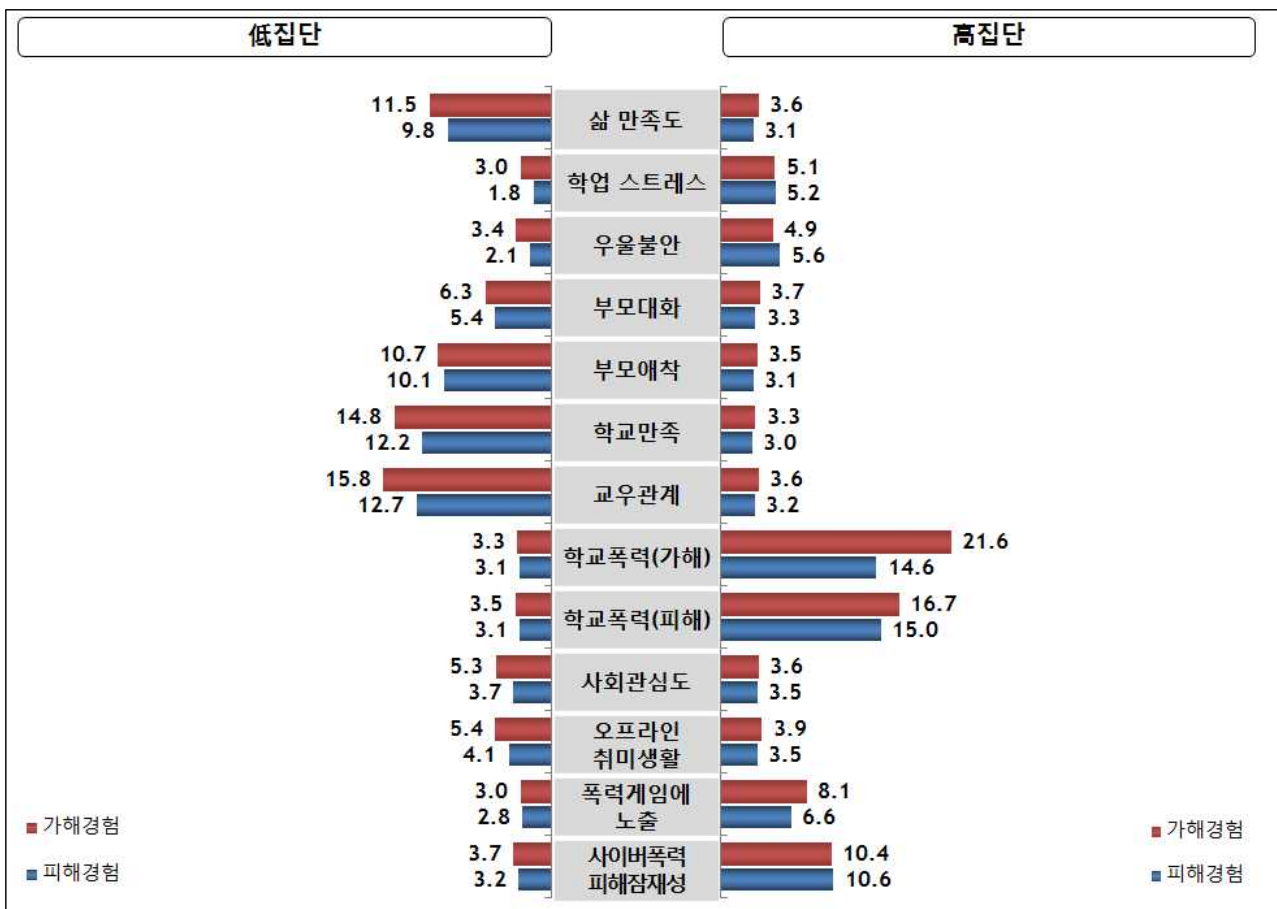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χ^2	피해 χ^2
삶 만족도	저집단	193	27.5	29.0	14.14 ^{***} (df=1)	19.91 ^{***} (df=1)
	고집단	2747	16.8	16.5		
학업 스트레스	저집단	1517	13.6	13.8	31.67 ^{***} (df=1)	25.58 ^{***} (df=1)
	고집단	1416	21.5	20.9		
우울불안	저집단	1767	14.9	13.7	19.99 ^{***} (df=1)	39.53 ^{***} (df=1)
	고집단	1160	21.3	22.7		
부모대화	저집단	348	26.7	25.6	23.04 ^{***} (df=1)	19.09 ^{***} (df=1)
	고집단	2577	16.3	16.1		
부모애착	저집단	188	34.6	33.5	40.51 ^{***} (df=1)	37.30 ^{***} (df=1)
	고집단	2742	16.3	16.1		
학교만족	저집단	204	31.4	30.9	28.71 ^{***} (df=1)	28.33 ^{***} (df=1)
	고집단	2752	16.6	16.3		
교우관계	저집단	124	29.8	26.6	13.28 ^{***} (df=1)	7.79 ^{***} (df=1)
	고집단	2825	17.1	16.9		
학교폭력(가해)	저집단	2809	16.3	16.6	71.89 ^{**} (df=1)	20.40 ^{***} (df=1)
	고집단	140	44.3	31.4		
학교폭력(피해)	저집단	2809	16.4	16.7	63.85 ^{***} (df=1)	17.88 ^{***} (df=1)
	고집단	137	43.1	30.7		
사회관심도	저집단	900	18.6	17.4	0.77 (df=1)	0.01 (df=1)
	고집단	2050	17.2	17.3		
오프라인 취미생활	저집단	436	17.2	15.1	0.06 (df=1)	1.64 (df=1)
	고집단	2516	17.7	17.6		
폭력게임에 노출	저집단	2296	13.4	14.9	129.20 ^{***} (df=1)	41.46 ^{***} (df=1)
	고집단	654	32.6	25.7		
사이버폭력 피해 잠재성	저집단	2764	16.9	16.6	18.61 ^{***} (df=1)	15.02 ^{***} (df=1)
	고집단	188	29.3	27.7		

** p<.01, *** p<.001

2. 환경요인별 신중 사이버폭력 경험

- 학생들의 신중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은 학생들의 환경요인(개인, 가족, 학교, 사회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 만족도, 부모대화, 부모애착, 학교만족, 교우관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하여 신중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스트레스, 우울·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신중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 사이버폭력 피해 잠재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신중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 환경요인별 신중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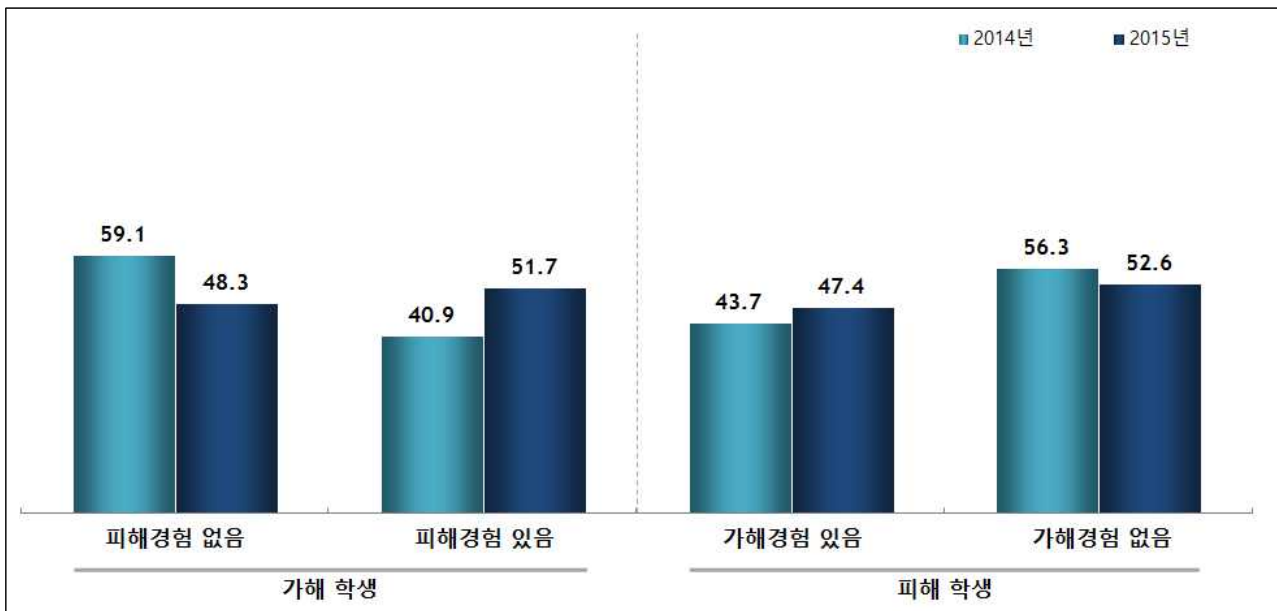
[표 3-3-5] 환경요인별 신종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구분		사례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χ^2	피해 χ^2
삶 만족도	저집단	183	11.5	9.8	27.73*** (df=1)	22.38*** (df=1)
	고집단	2650	3.6	3.1		
학업 스트레스	저집단	1460	3.0	1.8	8.35** (df=1)	23.64*** (df=1)
	고집단	1366	5.1	5.2		
우울불안	저집단	1697	3.4	2.1	4.03* (df=1)	25.35*** (df=1)
	고집단	1123	4.9	5.6		
부모대화	저집단	335	6.3	5.4	5.08* (df=1)	3.88* (df=1)
	고집단	2483	3.7	3.3		
부모애착	저집단	179	10.7	10.1	22.23*** (df=1)	23.73*** (df=1)
	고집단	2644	3.5	3.1		
학교만족	저집단	189	14.8	12.2	60.59*** (df=1)	43.10*** (df=1)
	고집단	2654	3.3	3.0		
교우관계	저집단	118	15.8	12.7	43.26*** (df=1)	29.52*** (df=1)
	고집단	2719	3.6	3.2		
학교폭력(가해)	저집단	2706	3.3	3.1	108.72*** (df=1)	47.71*** (df=1)
	고집단	130	21.6	14.6		
학교폭력(피해)	저집단	2709	3.5	3.1	55.50*** (df=1)	48.75*** (df=1)
	고집단	127	16.7	15.0		
사회관심도	저집단	855	5.3	3.7	4.02* (df=1)	0.08
	고집단	1982	3.6	3.5		
오프라인 취미생활	저집단	412	5.4	4.1	2.15	0.40
	고집단	2427	3.9	3.5		
폭력게임에 노출	저집단	2215	3.0	2.8	31.83*** (df=1)	20.64*** (df=1)
	고집단	622	8.1	6.6		
사이버폭력 피해 잠재성	저집단	2659	3.7	3.2	19.54*** (df=1)	26.38*** (df=1)
	고집단	180	10.4	10.6		

제3절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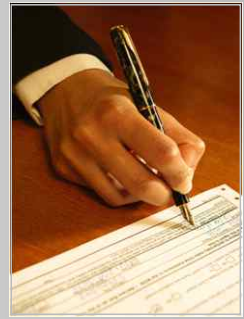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51.7%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47.4%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비율은 10.8%p 증가했고,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역시 3.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6]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제 4편

성인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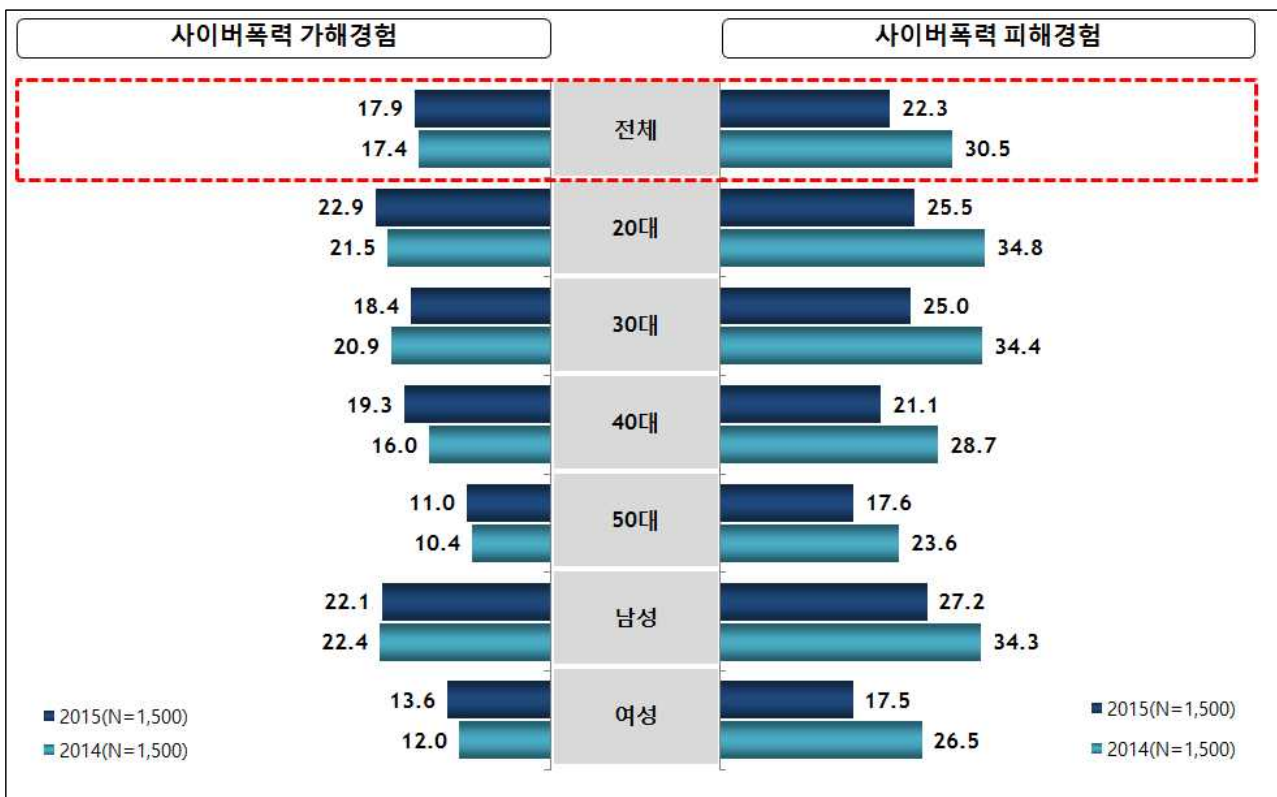
제1장 사이버폭력 경험

제1절 사이버폭력 경험 및 유형

1. 일반적 현황

- 성인들은 17.9%가 최근 1년 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2.3%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2014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피해경험은 8.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4년 대비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 있어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증가하였지만 피해경험은 모든 연령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및 가해 경험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남성이 가해와 피해경험 모두에서 각각 22.1%(가해), 27.2%(피해)로 여성 13.6%(가해), 17.5%(피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가해경험은 20대가 22.9%, 40대 19.3%, 30대 18.4%, 50대 이상 11.0% 순이었고, 피해경험은 20대가 25.5%, 30대 25.0%, 40대 21.1%, 50대 이상 17.6%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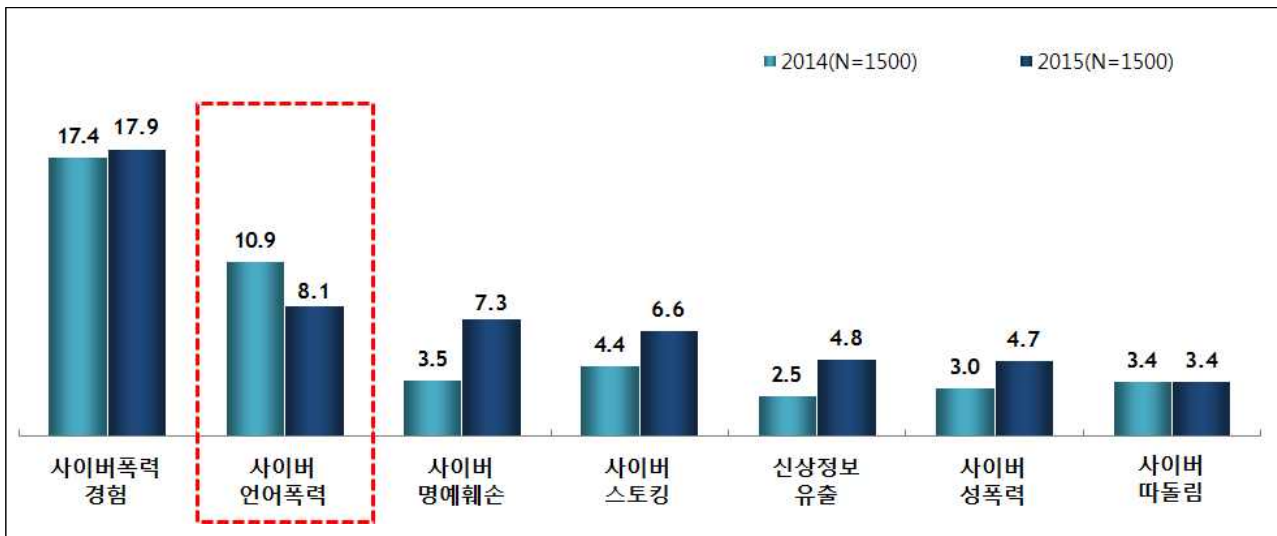
[그림 4-1-1]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 일반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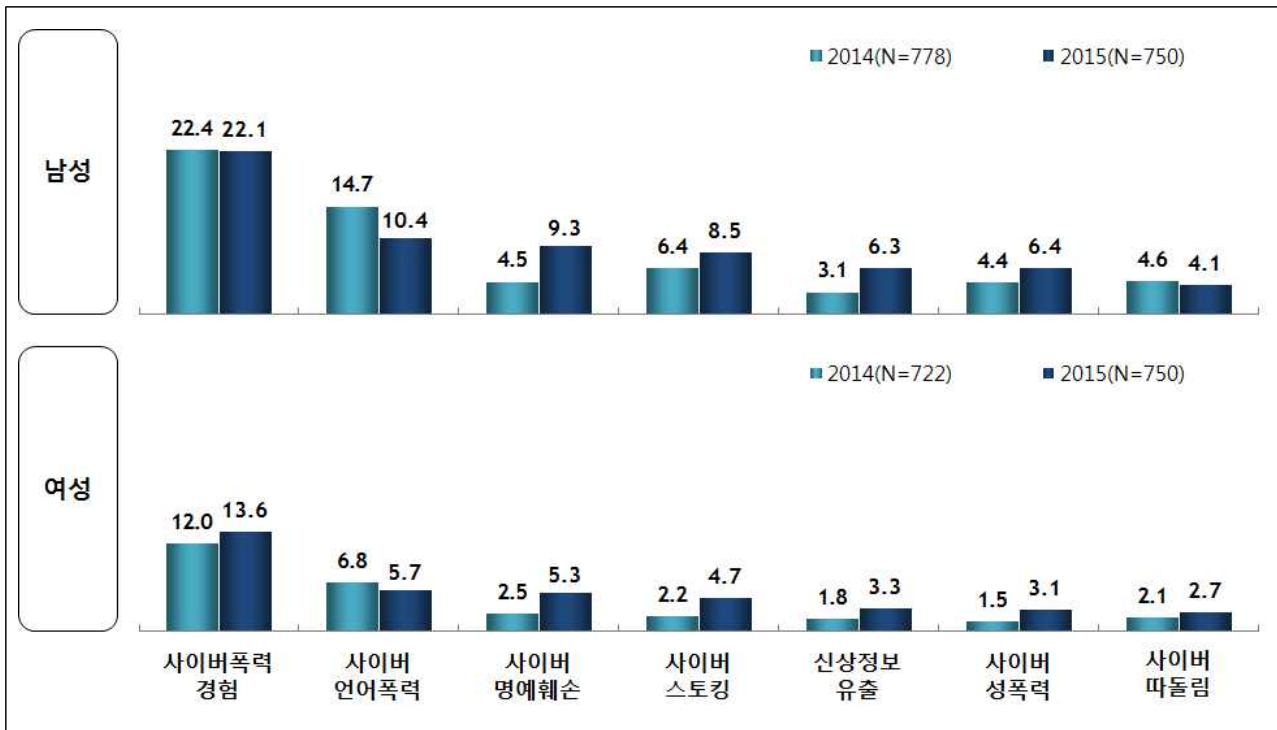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 최근 1년간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8.1%)이 가장 많았고, '사이버 언어폭력'은 2014년 대비 2.8%p 감소하였으나, '사이버 명예훼손'(▲3.8%p), '사이버 스토킹'(▲2.2%p)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가해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모든 유형의 사이버폭력에 대해 남성의 가해경험이 여성의 가해경험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사이버 언어폭력'(10.4%), '사이버 명예훼손'(9.3%), '사이버 스토킹'(8.5%), '사이버 성폭력'(6.4%), '신상정보 유출'(6.3%)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사이버 언어폭력'(5.7%), '사이버 명예훼손'(5.3%), '사이버 스토킹'(4.7%), '신상정보 유출'(3.3%), '사이버 성폭력'(3.1%) 순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별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경험은 40대(9.6%), 20대(9.0%), 30대(7.4%), 50대이상(6.1%) 순으로 20대와 40대의 가해경험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대비 20대(▼5.6%p), 30대(▼5.8%p), 40대(▲0.7%p), 50대이상(▼0.3%p) 20대와 30대는 감소하였고, 40대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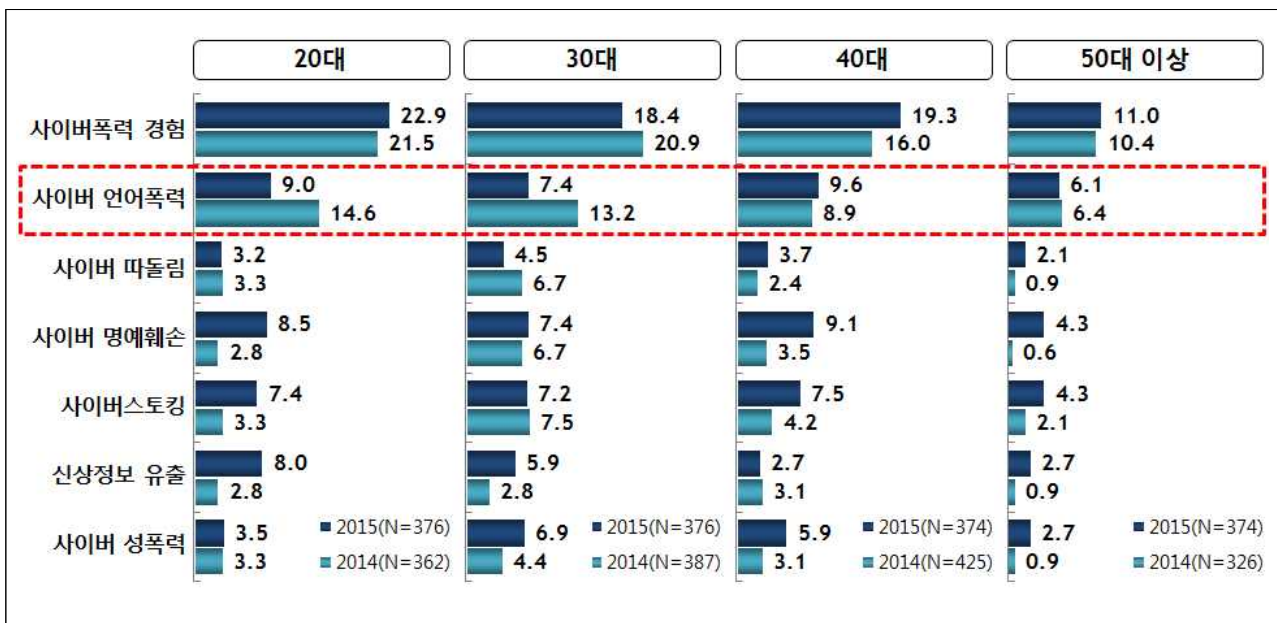
[그림 4-1-2]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그림 4-1-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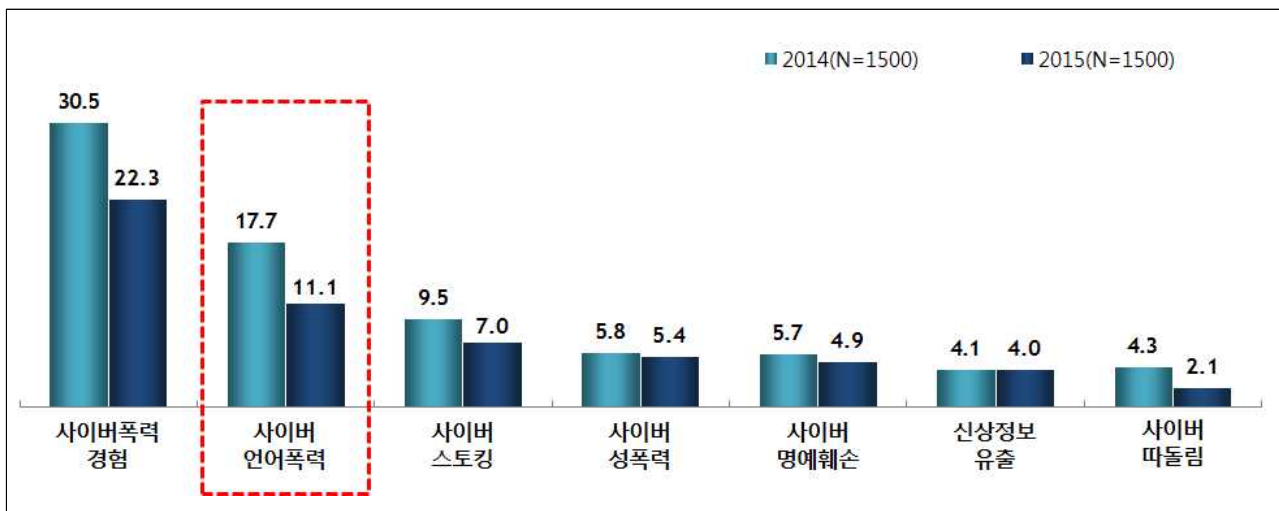
[그림 4-1-4]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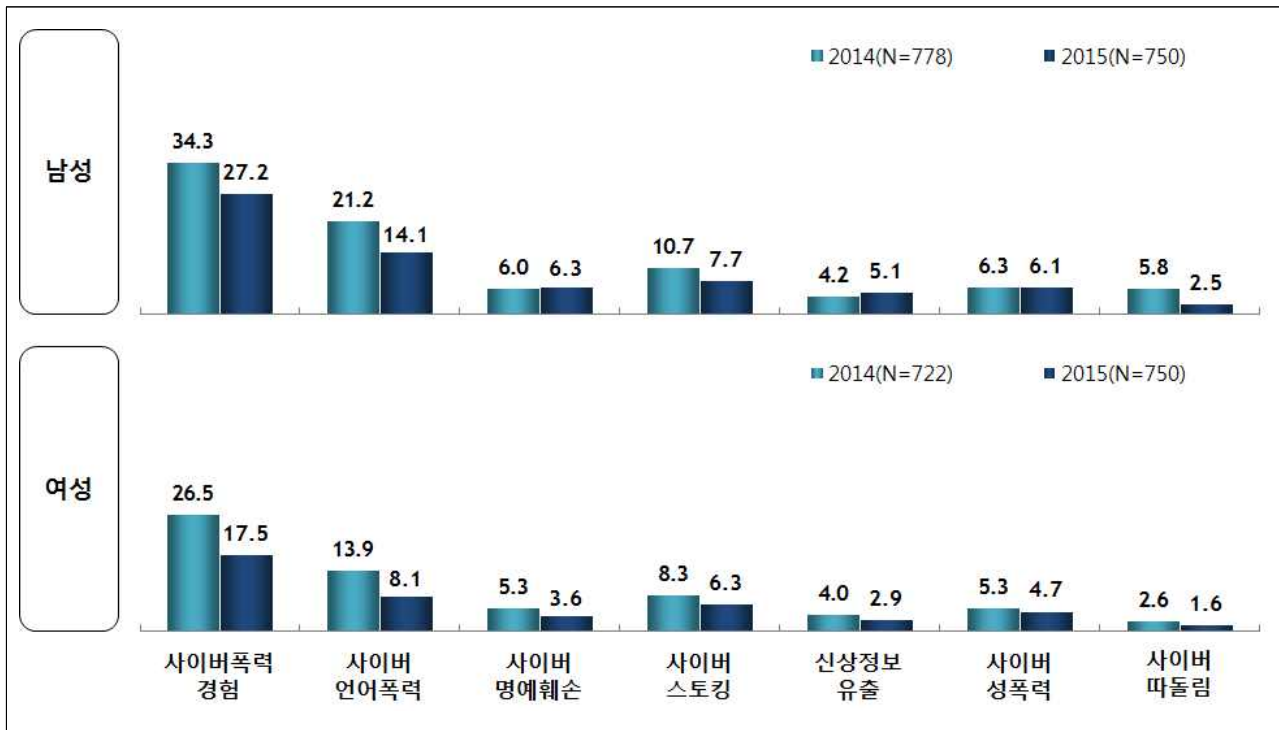
3.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 피해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11.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버 스토킹'(7.0%), '사이버 성폭력'(5.4%) 순으로 조사되었고, '사이버 언어폭력'이 2014년 대비 6.6%p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유형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모든 유형의 사이버폭력에 대해 남성의 피해경험이 여성의 피해경험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사이버 언어폭력'(14.1%), '사이버 스토킹'(7.7%), '사이버 명예훼손'(6.3%), '사이버 성폭력'(6.1%), '신상정보 유출'(5.1%)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사이버 언어폭력'(8.1%), '사이버 스토킹'(6.3%), '사이버 성폭력'(4.7%), '사이버 명예훼손'(3.6%), '신상정보 유출'(2.9%) 순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별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경험은 20대(13.8%), 30대(13.0%), 40대(10.4%), 50대이상(7.2%) 순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피해경험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대비 20대(▼8.3%p), 30대(▼6.6%p), 40대(▲5.6%p), 50대이상(▼5.4%p)로 모든 연령에 있어서 피해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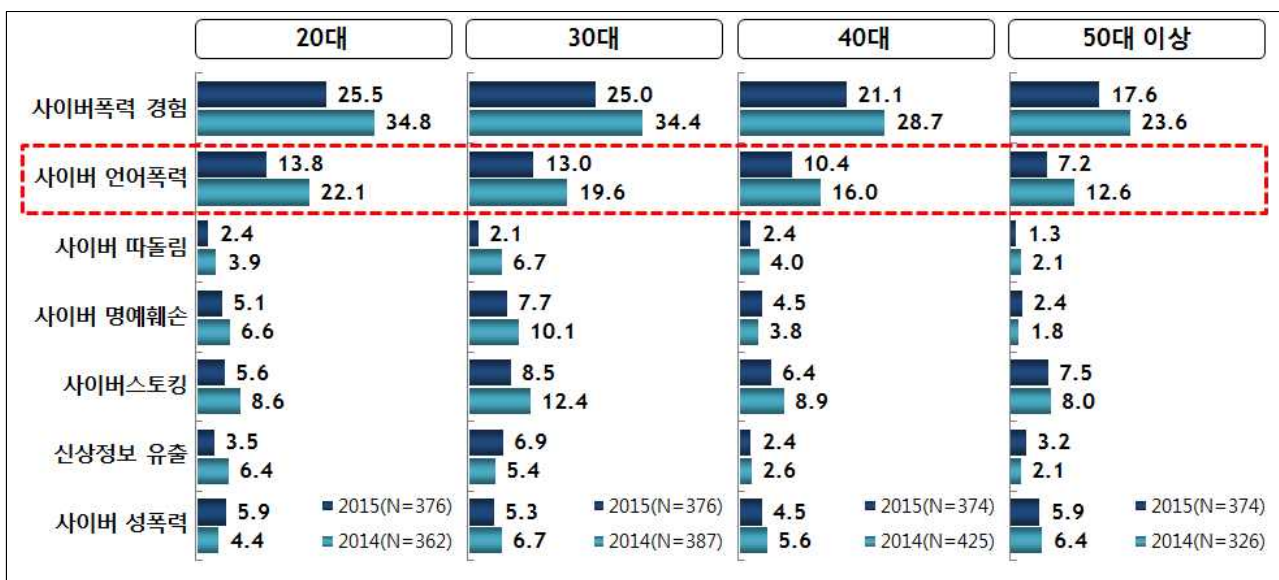
[그림 4-1-5]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및 유형 (복수응답, %)



[그림 4-1-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복수응답, %)



[그림 4-1-7]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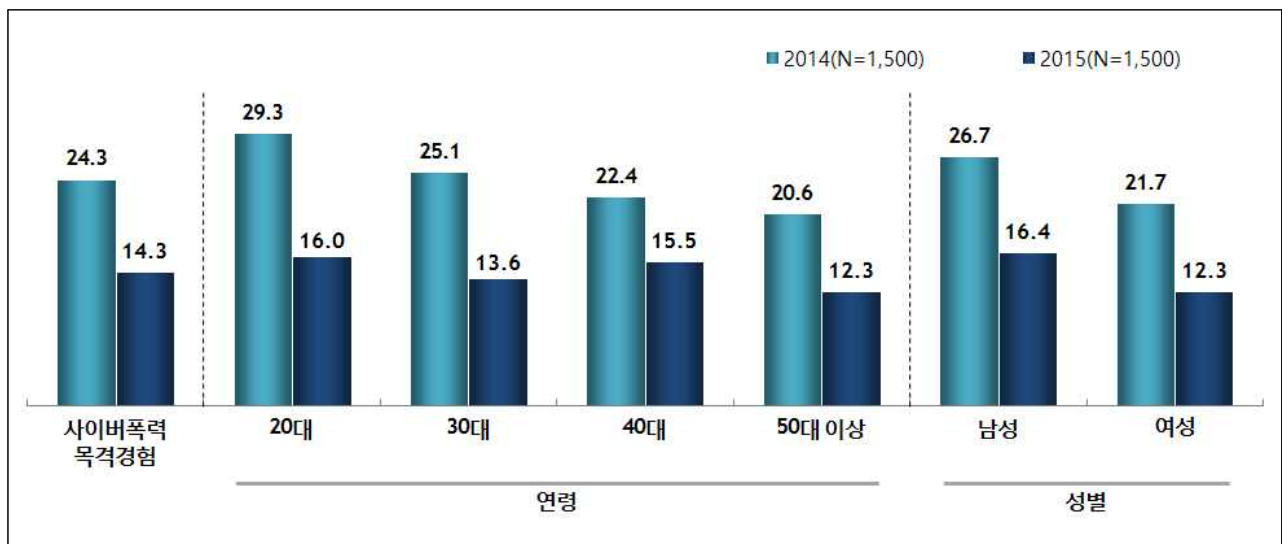


제2절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1. 일반적 현황

- 성인 14.3%가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으며, 2014년 대비 10.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목격경험은 2014년에 대비 20대 13.3%p, 30대 11.5%p, 40대 6.9%p, 50대이상 8.3%p 감소하였고, 남성(▼10.3%p)과 여성(▼9.4%p) 모두 목격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구체적으로 연령별 사이버폭력 목격경험은 20대(16.0%), 40대(15.5%), 30대(13.6%), 50대이상(12.3%)으로 20대와 40대의 목격경험이 30대와 50대이상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사이버폭력 목격경험은 남성(16.4%)의 목격경험이 여성(12.3%)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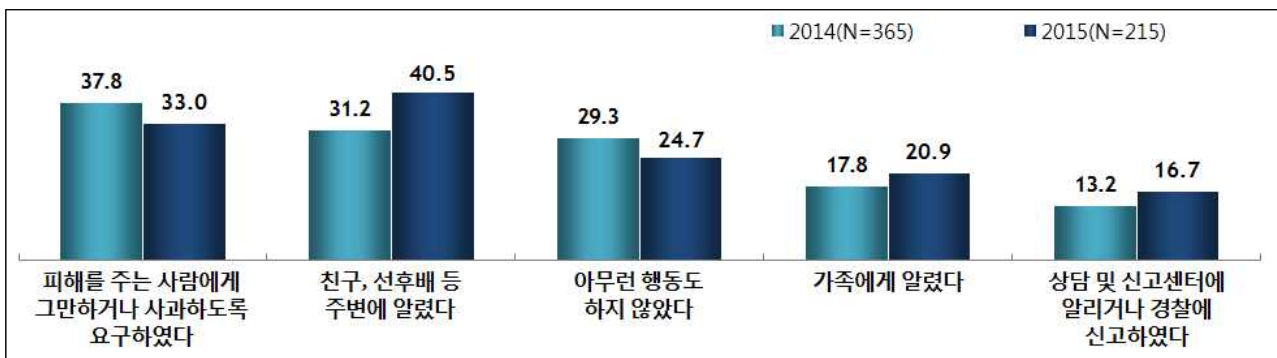
[그림 4-1-8] 성인의 사이버폭력 목격경험 (%)



2. 목격이후 대응

-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친구, 선후배 등 주변에 알렸다'(40.5%),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33.0%), '가족에게 알렸다'(20.9%),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16.7%) 순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24.7%로 전년(29.3%)과 비교할 때 4.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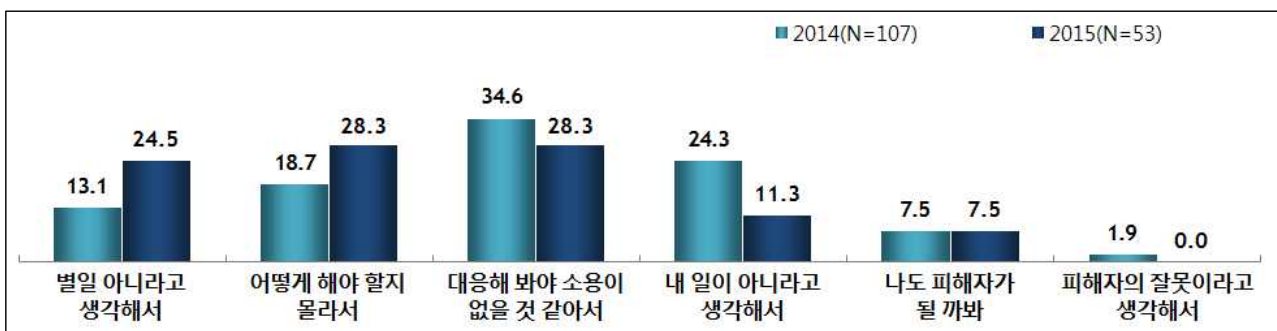
[그림 4-1-9]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대응 (복수응답, %)



3. 목격이후 미대응 이유

- 다른 사람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성인들의 경우 '대응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8.3%),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8.3%)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4.5%)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11.3%),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7.5%)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0]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미대응 이유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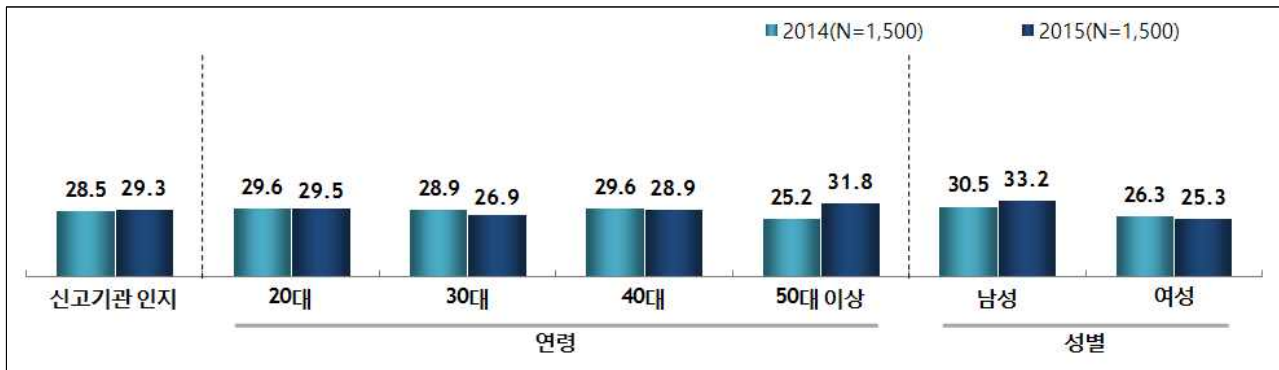


제3절 사이버폭력 신고 및 처벌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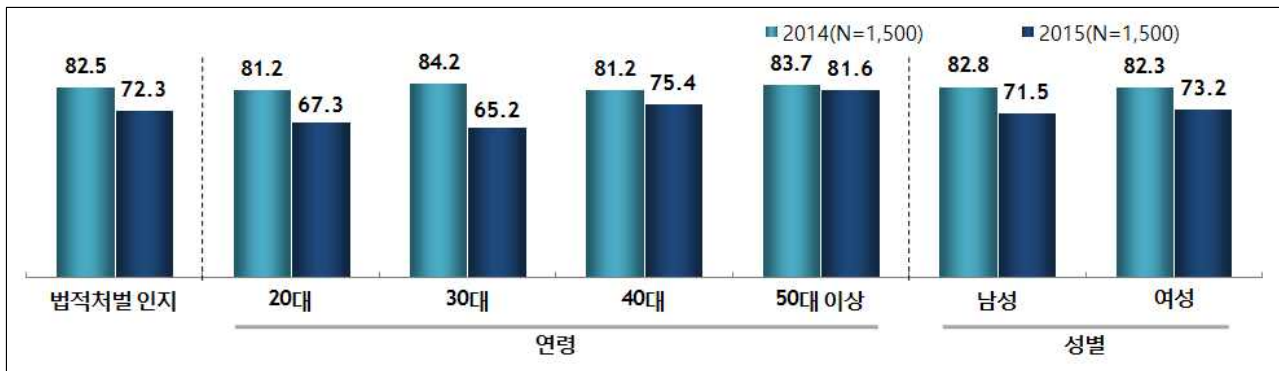
1. 일반적 현황

- 최근 1년간 성인들의 29.3%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경우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사이트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28.5%)과 대비하여 유사하게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신고기관 인지는 50대이상(31.8%), 40대(28.9%), 20대(29.5%), 30대(26.9%) 순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신고기관 인지비율이 높았고, 남성(33.2%)이 여성(25.3%)에 비하여 인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성인들의 72.3%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82.5%)과 대비하여 1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법적처벌 인지는 50대이상(81.6%), 40대(75.4%), 20대(67.3%), 30대(65.2%) 순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법적처벌 인지비율이 높았고, 여성(73.2%)이 남성(71.5%)에 비하여 인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1] 사이버폭력 신고기관 인지여부



[그림 4-1-12] 사이버폭력 법적처벌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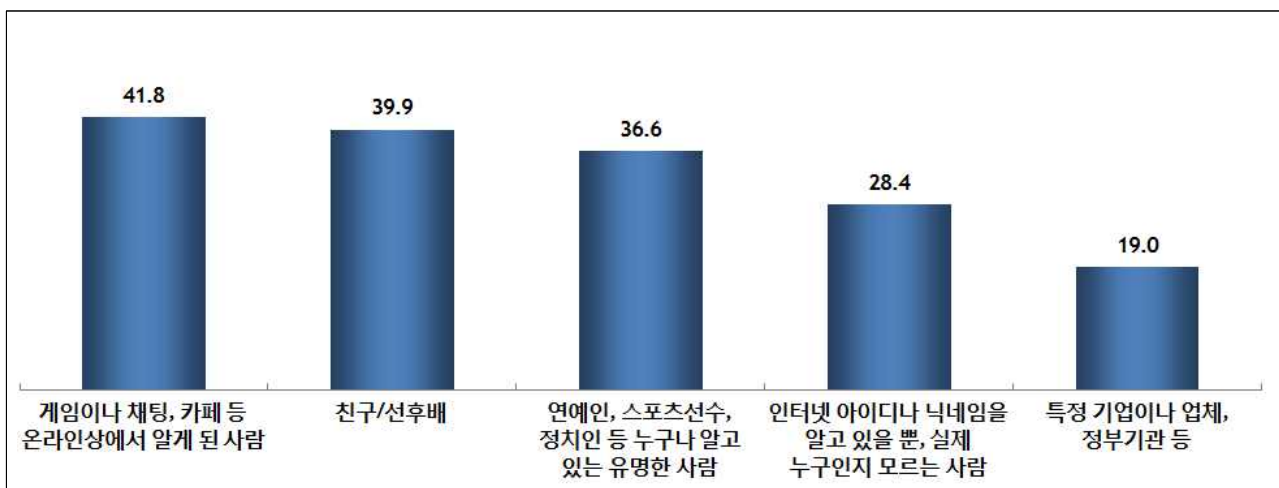
제2장 사이버폭력 특성

제1절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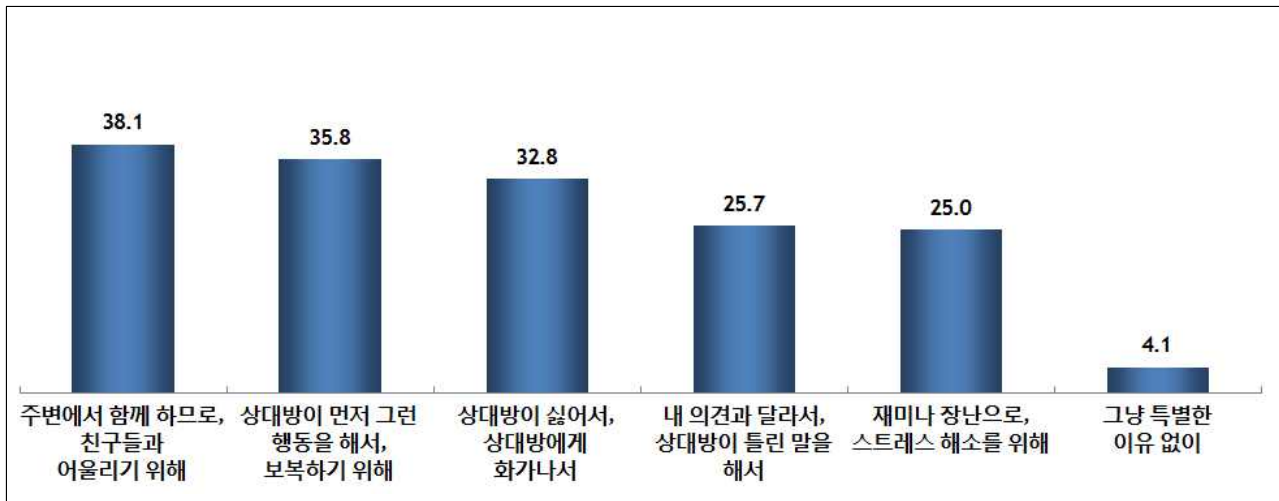
1. 사이버폭력 가해 특성

- 최근 1년간 성인들은 주로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41.8%)과 '친구/선·후배'(39.9%),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36.6%)를 주된 가해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에 대해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38.1%)를 주된 이유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35.8%)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성인들은 사이버 폭력의 가해수단으로 '커뮤니티'(42.2%)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SNS'(41.4%), '채팅/메신저'(40.3%), '개인홈페이지'(22.8%), '이메일/문자메시지'(15.3%), '온라인 게임'(11.6%), '기타'(1.1%)순으로 나타났다.
-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의 가해방식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집단적인 가해방식이 58.8%로 '혼자서 했다'(41.2%)는 개인적인 가해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가해이후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다'(58.2%)와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56.3%)와 같이 주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흥미롭고 재미있었다'(48.2%),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45.5%),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45.5%) 등 자신의 가해행동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50% 가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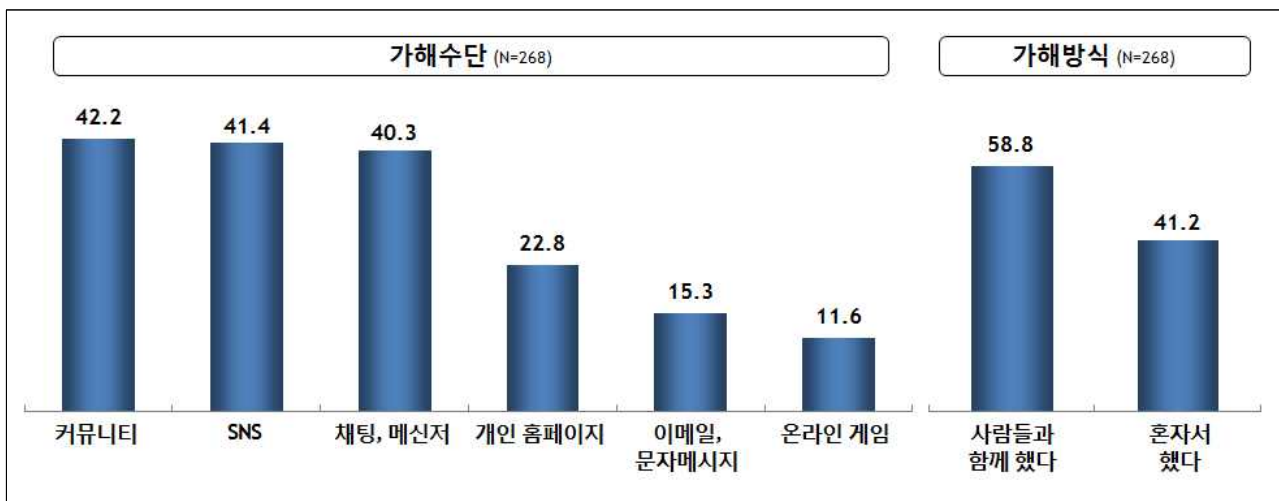
[그림 4-2-1]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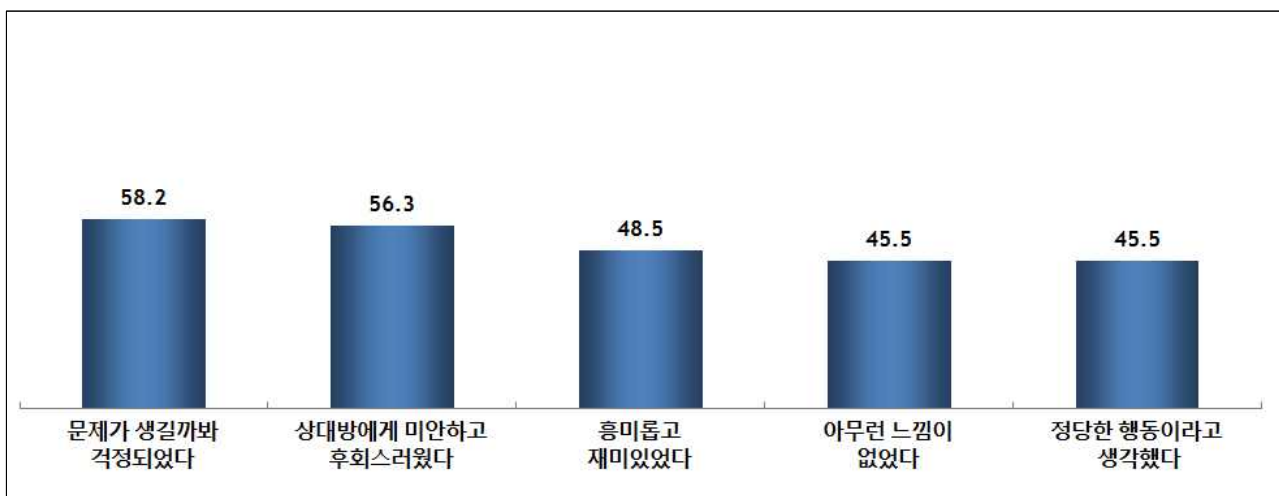
[그림 4-2-2]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그림 4-2-3] 사이버폭력 가해수단과 가해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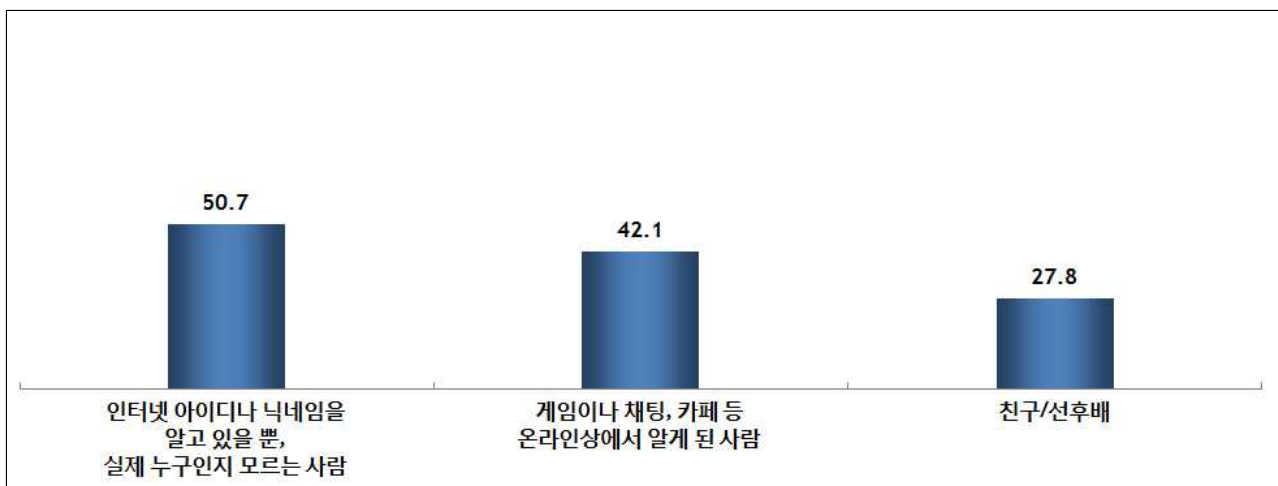
[그림 4-2-4]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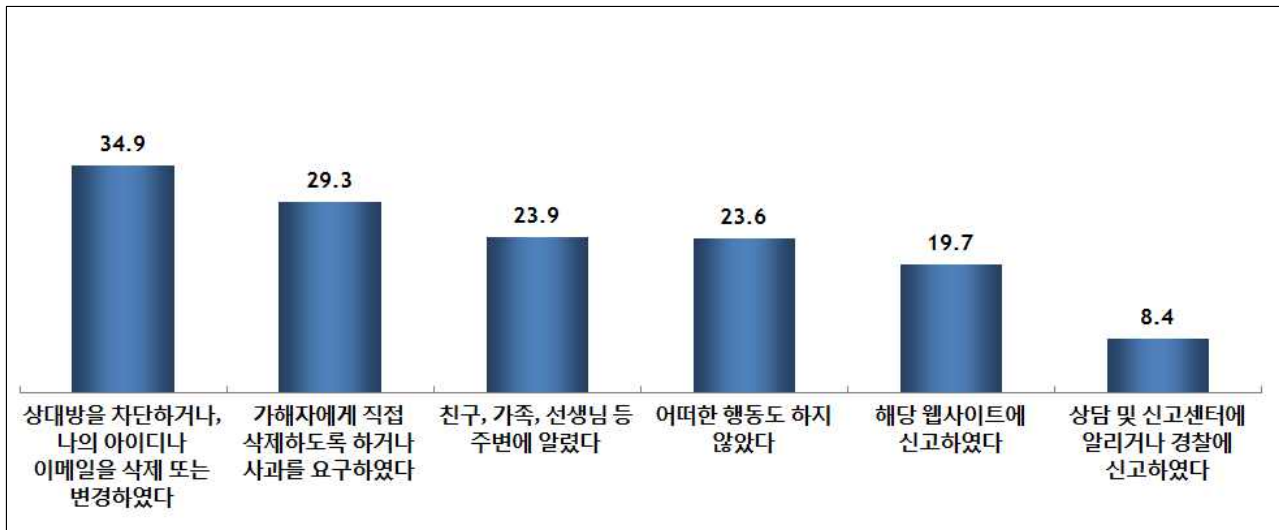
2. 사이버폭력 피해 특성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50.7%)으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으며, 다음으로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42.1%), ‘친구나 선·후배’(2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피해 이후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34.9%)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23.6%) 또한 높게 나타났다.
- 성인들이 사이버폭력 피해수단으로 ‘커뮤니티’(38.8%)가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SNS’(29.9%), ‘채팅/메신저’(26.3%), ‘온라인 게임’(17.9%), ‘개인홈페이지’(17.3%), ‘이메일/문자메시지’(14.9%) 순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를 당한 방식은 ‘한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58.8%)와 같이 개인적인 피해방식이 ‘여러 사람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41.2%)는 집단적인 피해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49.0%),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42.7%), ‘학교·직장·가사 등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31.3%) 등의 심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처럼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의 피해는 주로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이후 ‘보복’, ‘우울·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부정적 감정의 발생이 학생 대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은 ‘웹사이트 또는 경찰 등 신고’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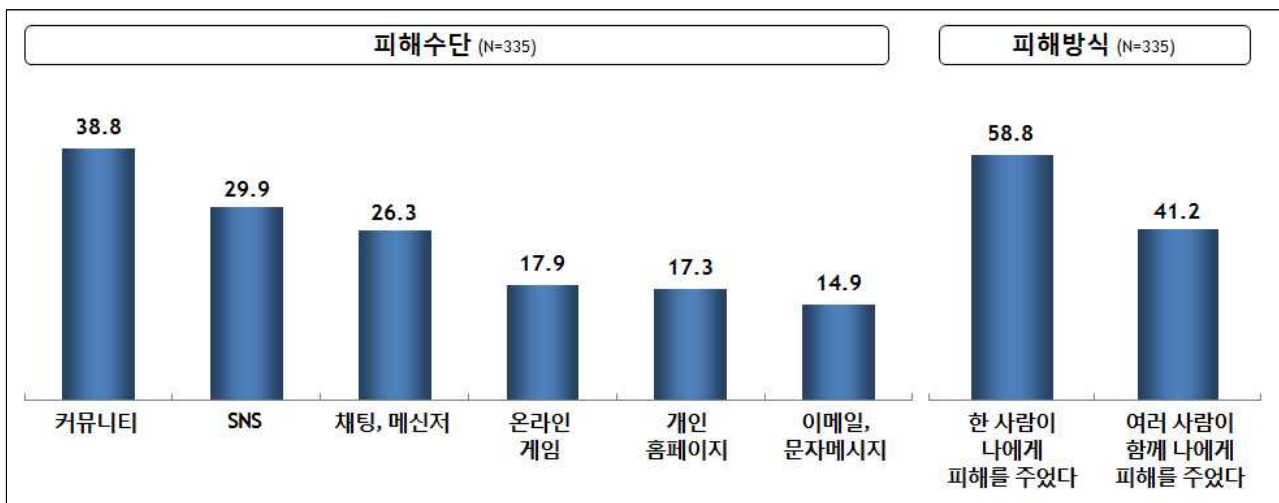
[그림 4-2-5]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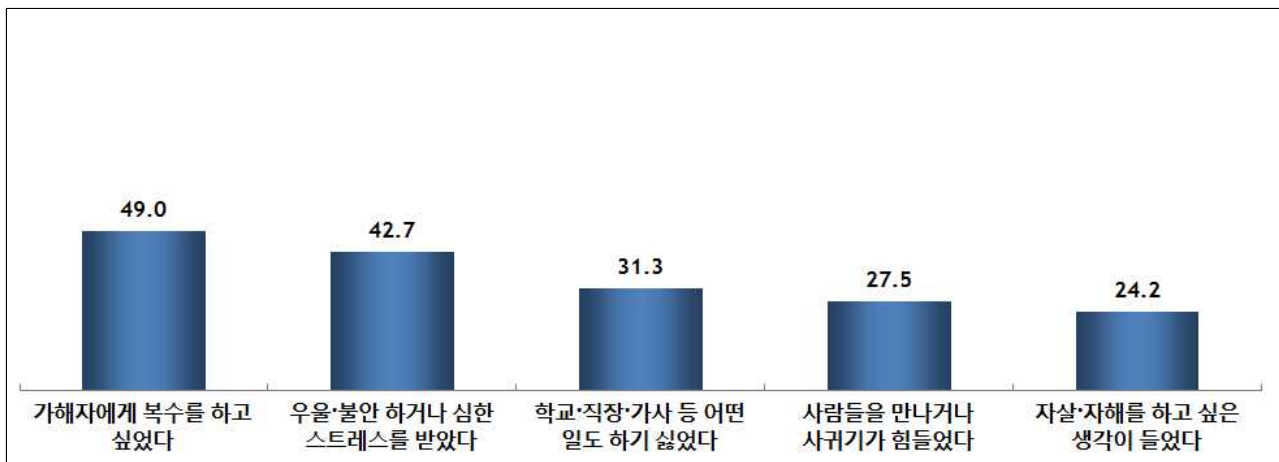
[그림 4-2-6]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그림 4-2-7]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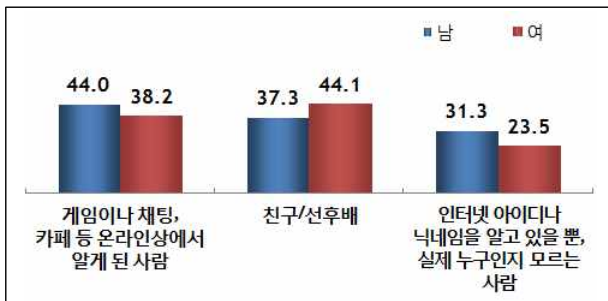
[그림 4-2-8]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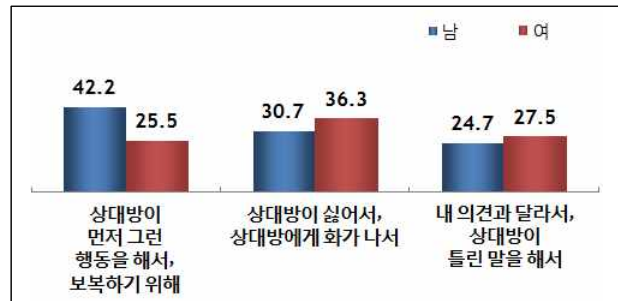
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 사이버폭력의 가해대상으로 남성은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44.0%)과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31.3%)을, 여성은 '친구나 선·후배'(44.1%)를 가해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해수단으로 남성은 'SNS'(45.2%), 여성은 '채팅·메신저'(42.2%)를 주요 가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방식에 대해 '사람들과 함께 했다'의 집단적인 사이버폭력 가해 비율은 남성(53.6%)과 여성(52.0%)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심리로 여성은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남-54.2% < 여-59.8%)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남-57.2% < 여-59.8%) 등 남성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 후 죄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성은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42.2%)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36.3%)와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27.5%) 가해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대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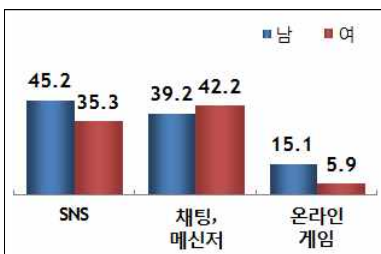
[그림 4-2-9]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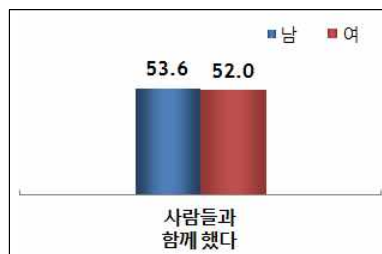
[그림 4-2-10]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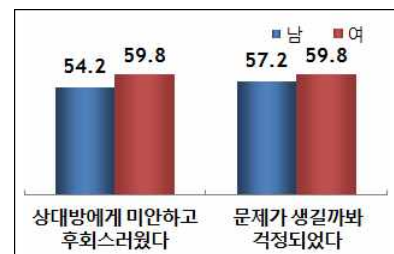
[그림 4-2-11]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



[그림 4-2-12]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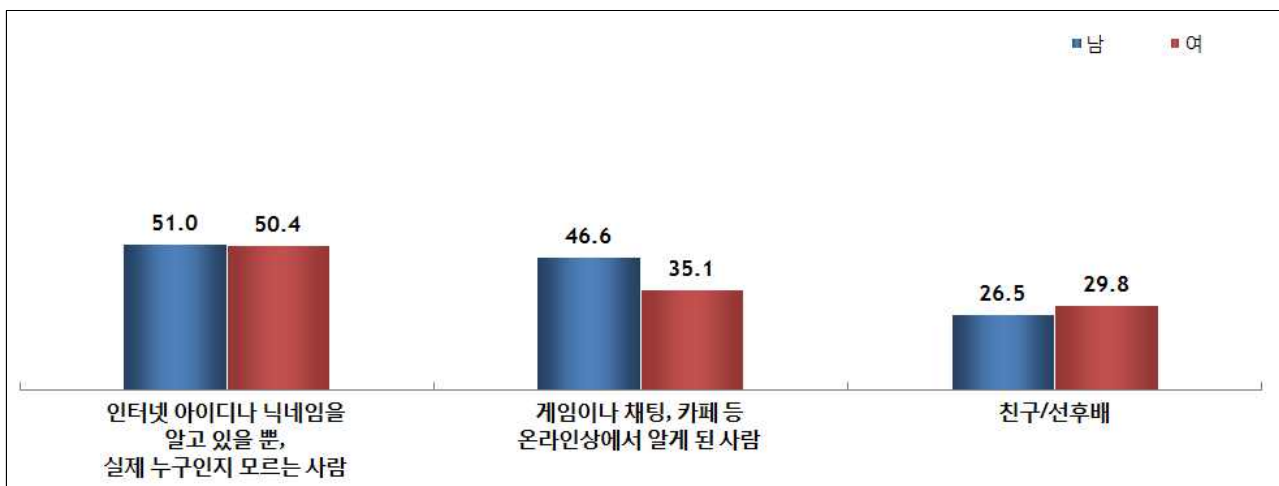
[그림 4-2-13] 성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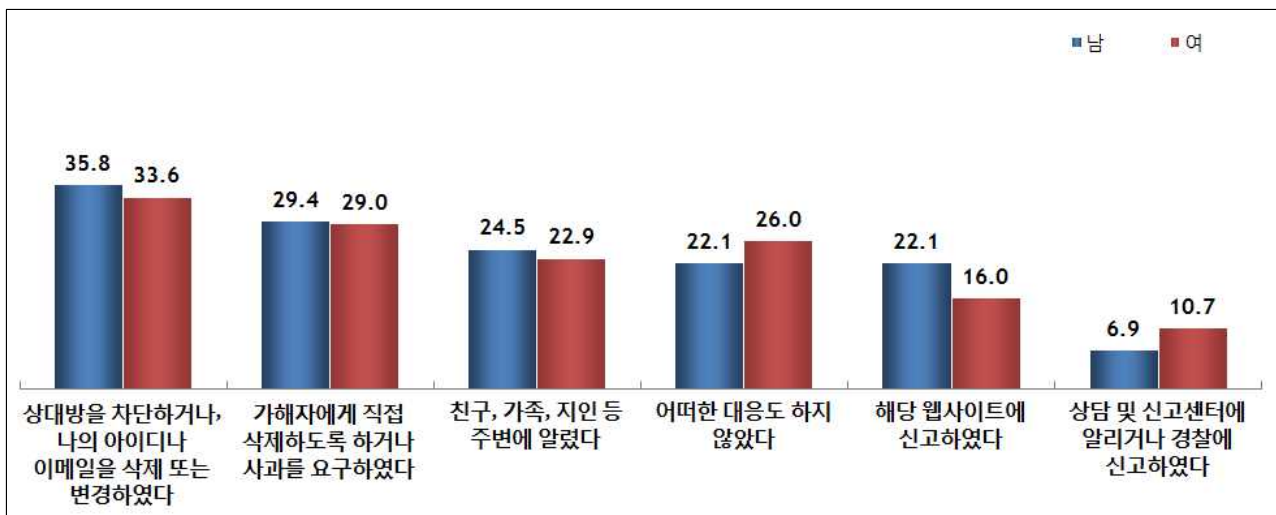
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남성과 여성 모두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남 51.0%, 여 50.4%)에게 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성은 피해이후 대응으로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35.8%)와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22.1%) 등 온라인상 대응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은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10.7%) 등 오프라인을 통한 대응이 남성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여성이 남성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 남성은 'SNS'(31.9%)와 '개인 홈페이지'(25.5%)가 피해수단으로 이용된 점이 두드러졌고, 성인 여성은 '커뮤니티'(42.0%)와 '채팅, 메신저'(29.0%)가 피해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인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남 44.1% > 여 36.6%)와 같이 집단적이 피해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남 55.9% < 여 63.4%)와 같은 개인적인 피해방식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여성은 특히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여 51.1% > 남 47.5%),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여 45.8% > 남 40.7%),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여 29.8% > 남 26.0%) 등 남성 대비 심리적 문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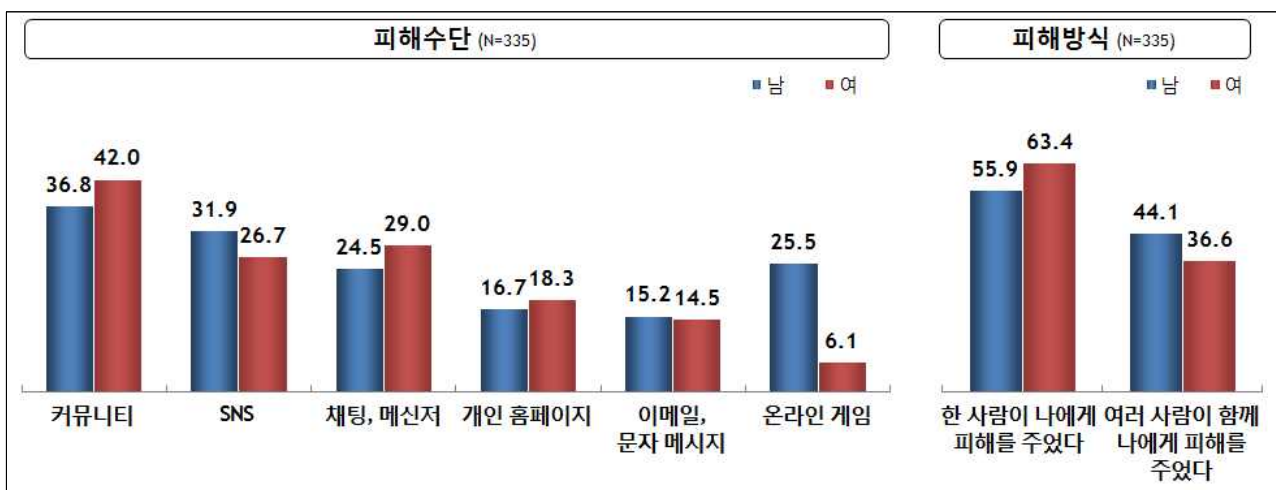
[그림 4-2-14]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 (가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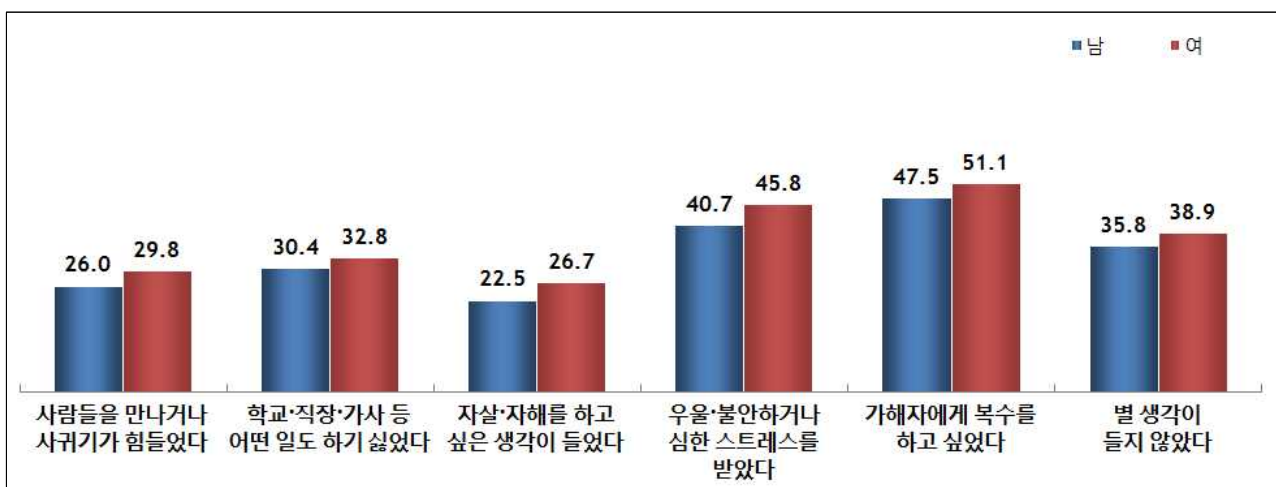
[그림 4-2-15]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



[그림 4-2-16]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과 피해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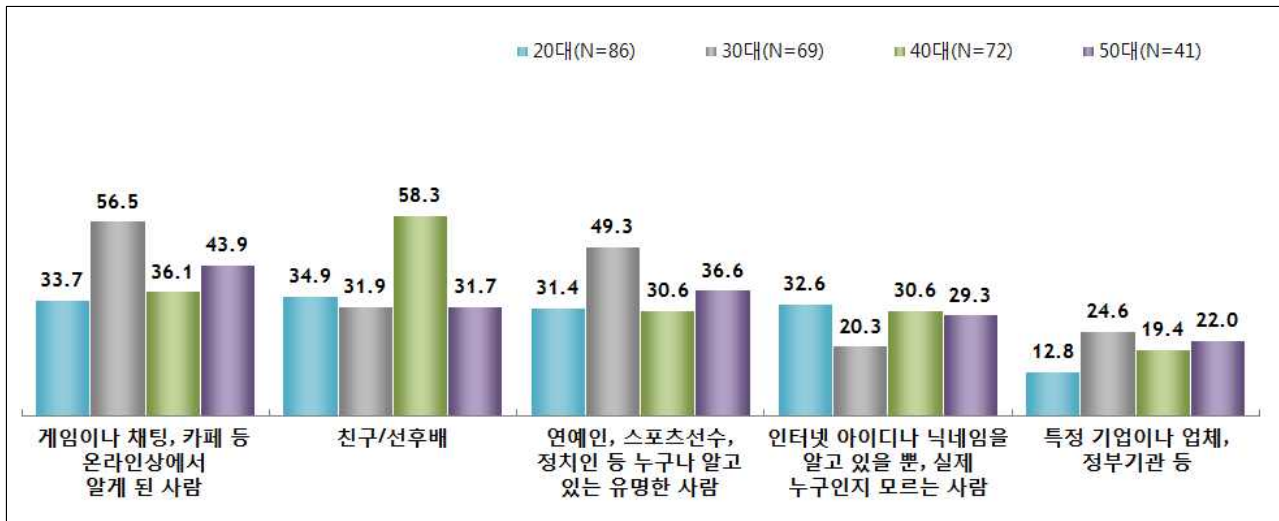
[그림 4-2-17] 성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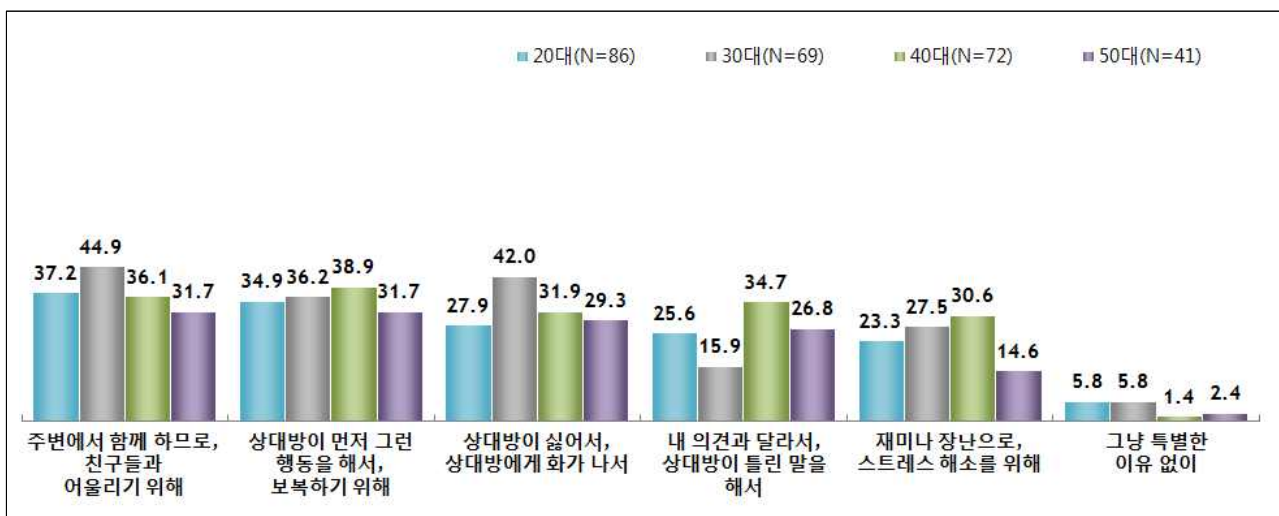
5.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특성

- 20대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대상(친구/선후배 34.9%,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 33.7%,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32.6%,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31.4%)에게 사이버폭력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와 50대 이상은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30대 56.5%, 50대이상 43.9%), 40대는 '친구나 선·후배'(58.3%)를 가해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20대 34.9% < 30대 36.2% < 40대 38.9%),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20대 23.3% < 30대 27.5% < 40대 30.6%)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가해하는 경우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였고, 특히 30대의 경우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44.9%),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42.0%)가 사이버폭력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 30대 이상 성인들은 사이버폭력 가해수단으로 'SNS'(30대 46.4%, 40대 50.0%, 50대이상 43.9%)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40대에서는 'SNS' 외에도 '커뮤니티'(30대 46.4%, 40대 47.2%)와 '채팅, 메신저'(30대 44.9%, 40대 48.6%)를 가해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사람들과 함께 했다'와 같이 집단적인 가해방식 연령이 많아질수록(20대 55.8% > 30대 52.2% > 40대 51.4% > 50대 51.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흥미롭고 재미있었다'(20대 59.3% > 30대 52.2% > 50대 이상 39.0% > 40대 37.5%),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20대 53.5% > 30대 44.9% > 40대 40.3% > 50대 이상 > 39.0%)고 느낀 경우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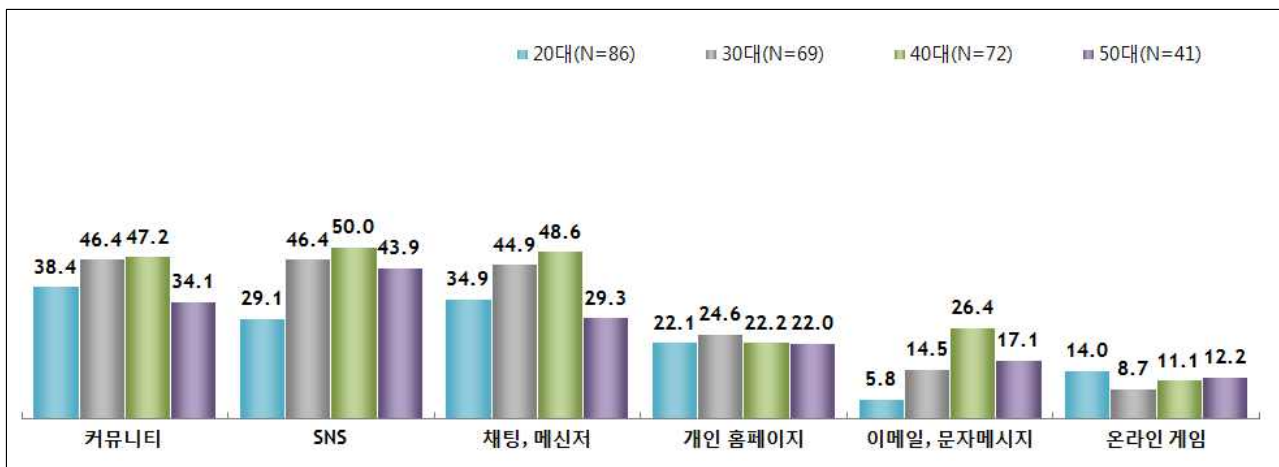
[그림 4-2-18]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대상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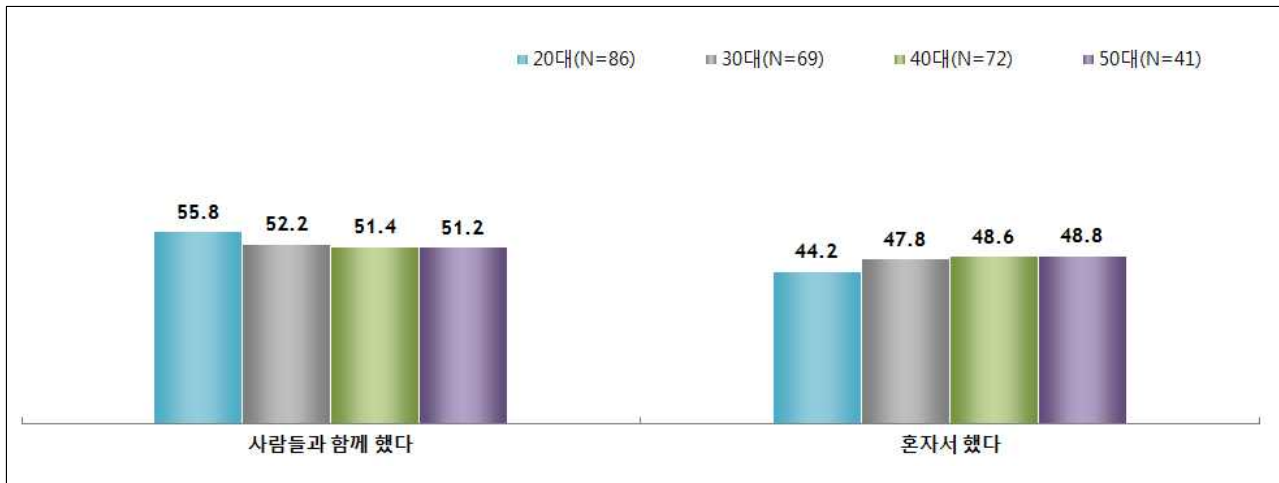
[그림 4-2-19]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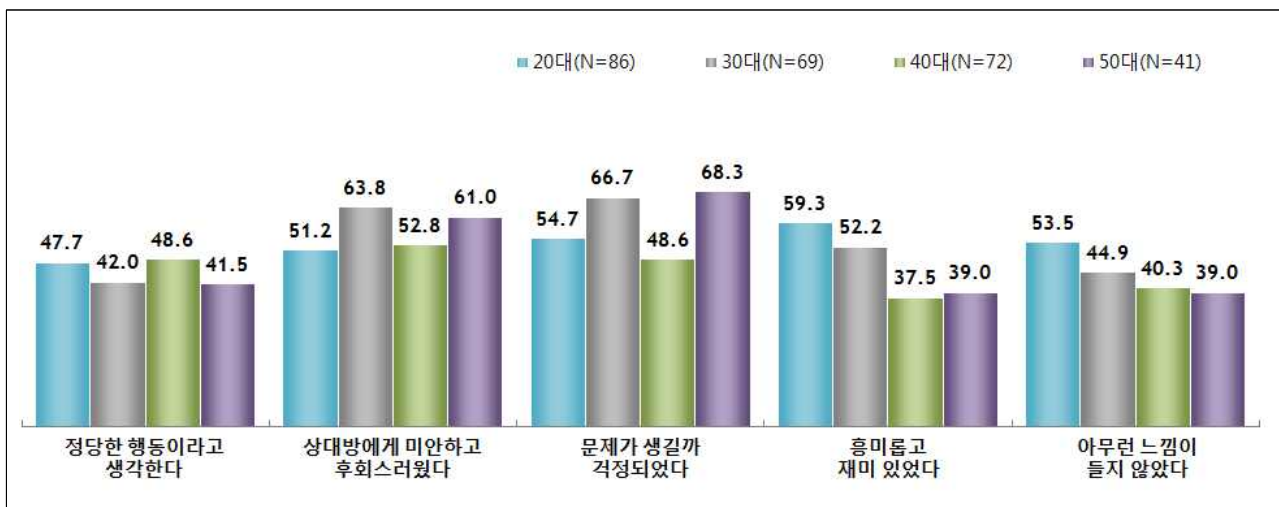
[그림 4-2-20]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수단 (복수응답, %)



[그림 4-2-21]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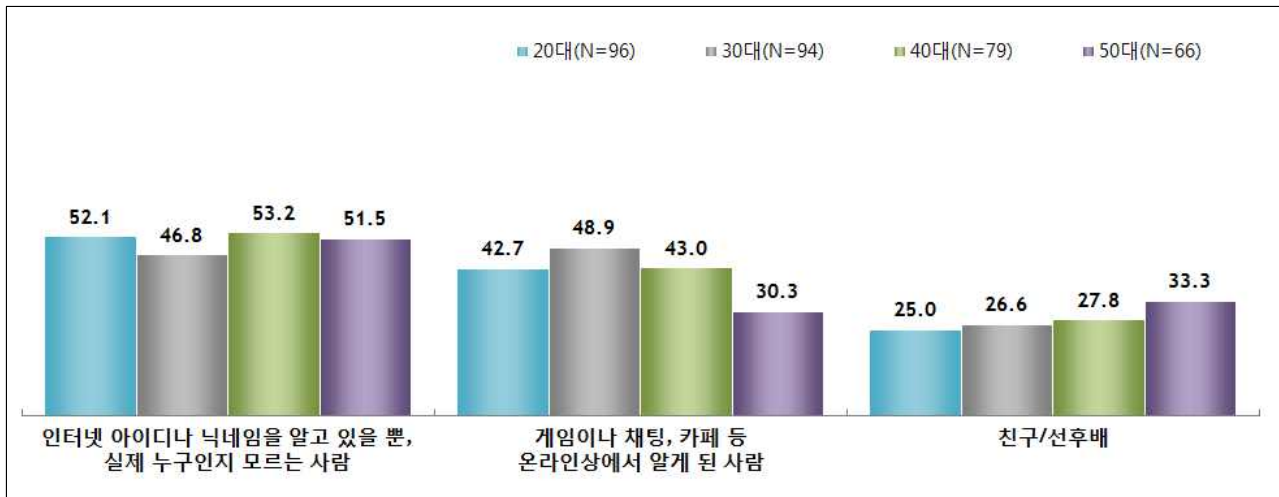
[그림 4-2-22] 연령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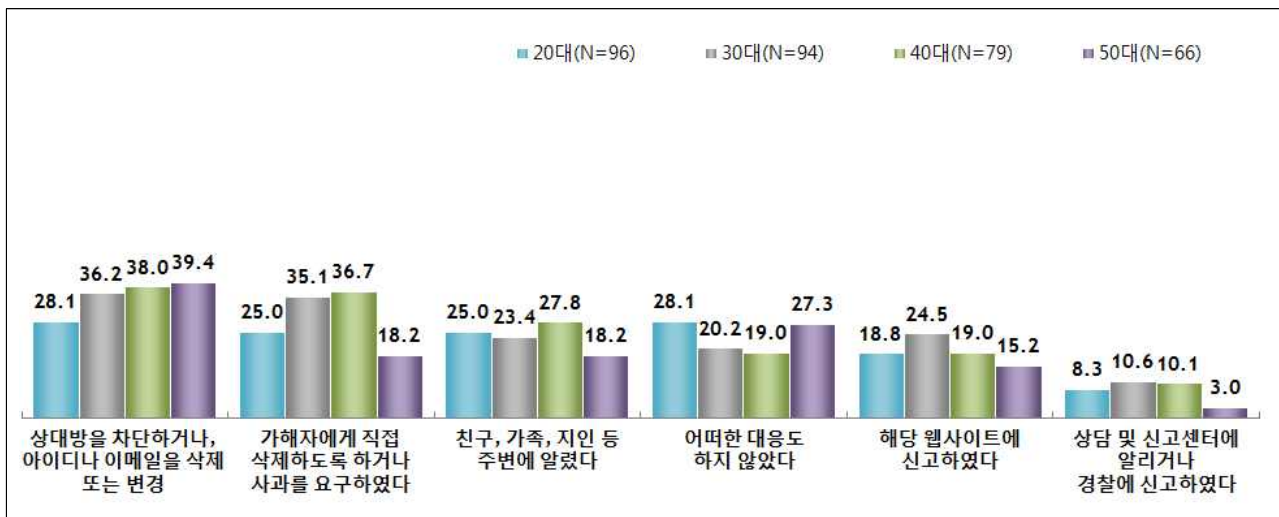
6.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특성

- 대부분의 연령에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0대의 경우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30대 48.9% > 40대 43.0% > 20대 42.7% > 50대 이상 30.3%)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선후배'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비율은 연령이 많아질수록(20대 25.0% < 30대 26.6% < 40대 27.8% < 50대 이상 33.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20대 28.1% < 30대 36.2% < 40대 38.0% < 50대 이상 39.4%)와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20대 25.0% < 30대 35.1% < 40대 36.7%, 50대 이상 18.2%)와 같이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한 비율은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30대 24.5% > 40대 19.0% > 50대 15.2%)와 같이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간접적으로 대응한 비율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의 피해수단으로 '커뮤니티'(30대 46.8% > 40대 40.5% > 50대 이상 30.3%, 20대 35.4%), '채팅, 메신저'(30대 31.9% > 40대 30.4% > 50대 이상 25.8%, 20대 17.7%)가 이용되는 비율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SNS'의 경우 연령이 많아질수록(20대 28.1% < 30대 29.8% < 40대 34.2%, 50대 이상 27.3%)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온라인게임'(28.1%), 50대 이상은 '이메일, 문자메시지'(25.8%)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피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개인적인 피해방식은 연령이 많아질수록(20대 50.0% < 30대 54.3% < 50대 이상 62.1% < 40대 72.2%)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성인들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30대 55.3% < 40대 50.6% < 20대 45.8% < 50대 이상 42.4%)와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30대 46.8% < 40대 45.6% < 50대 이상 39.4% < 20대 38.5%)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보복심리와 스트레스를 피해이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피해이후 심리는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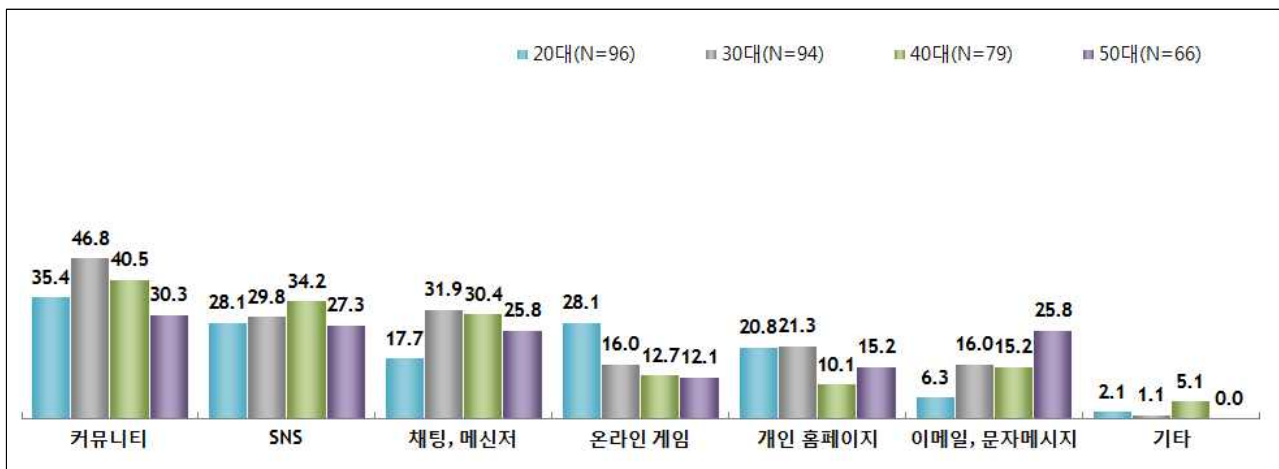
[그림 4-2-23]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가해자)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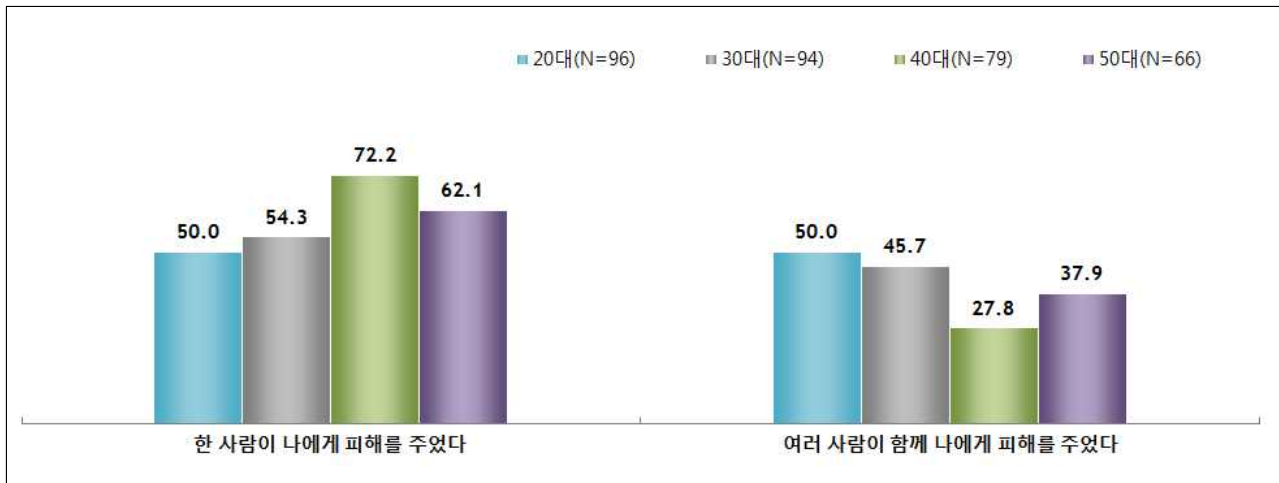
[그림 4-2-24]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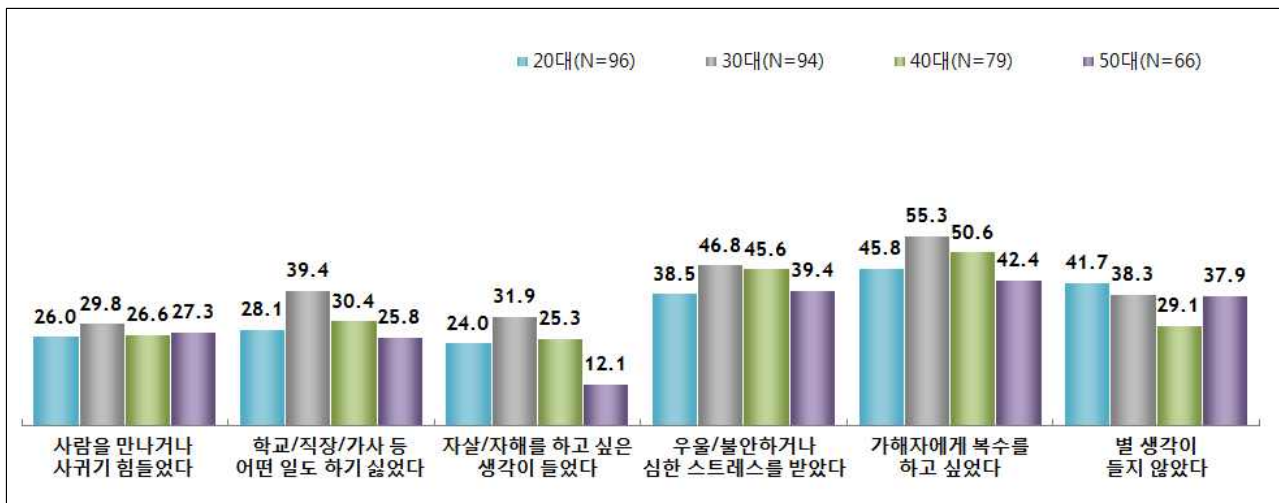
[그림 4-2-25]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수단 (복수응답, %)



[그림 4-2-26]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방식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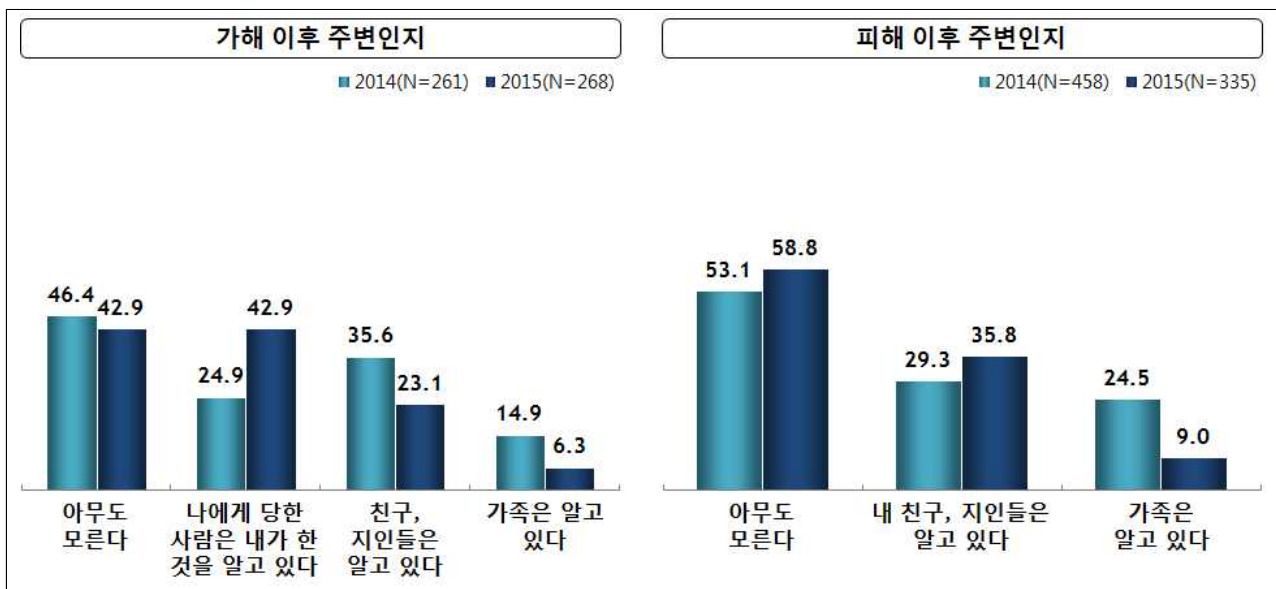
[그림 4-2-27]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7. 사이버폭력 주변인지

-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가해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42.9%)와 '나에게 당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42.9%)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친구, 지인들은 알고 있다'(23.1%), '가족은 알고 있다'(6.3%)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피해사실 주변인지의 경우, '아무도 모른다'(58.8%), '내 친구, 지인들은 알고 있다'(35.8%), '가족은 알고 있다'(9.0%) 순으로 나타났다.
- 2014년과 비교하여 가해사실에 대해 주변에서 모르는 비율은 3.5%p 감소하였고, 피해사실을 주변에서 모르는 비율은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28] 사이버폭력 이후 주변인지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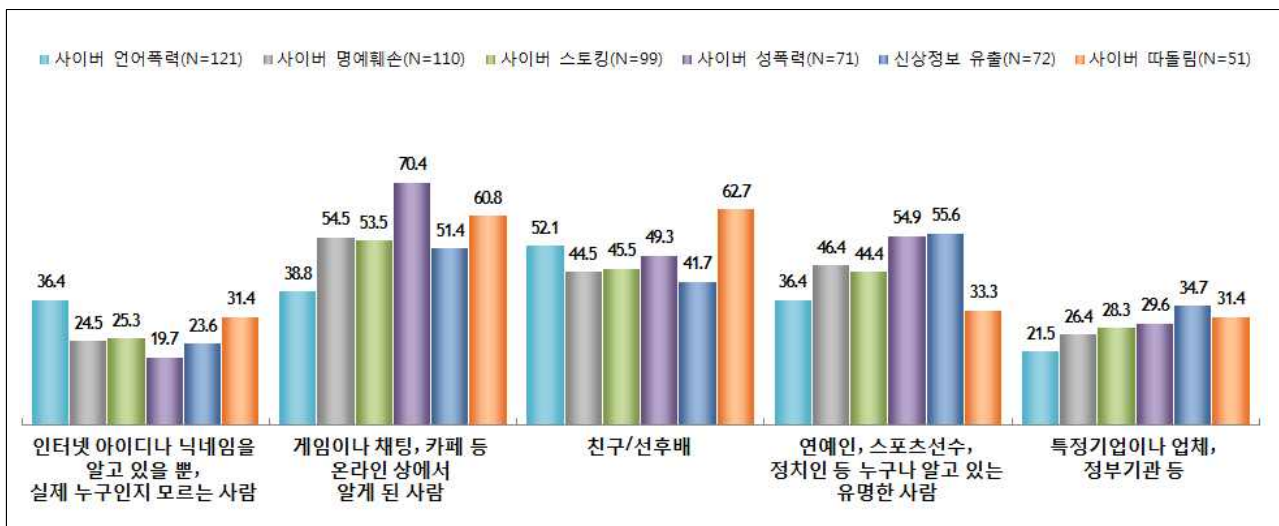


제2절 사이버폭력 유형별 특성

1.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대상

-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중에서 사이버 언어폭력(52.1%), 사이버 따돌림(62.7%)은 '친구/선후배'가 주된 가해대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 명예훼손(54.5%), 사이버 스토킹(53.5%), 사이버 성폭력(70.4%), 사이버 따돌림(60.8%)의 경우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신상정보 유출(55.6%)은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 결과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은 온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보다 오프라인 상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가해유형의 경우에는 주로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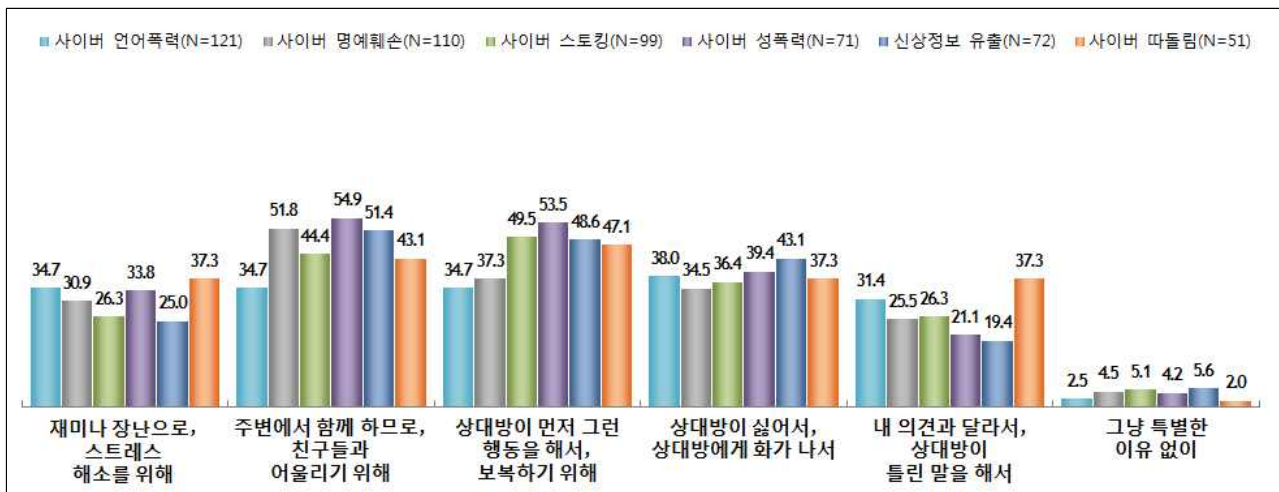
[그림 4-2-29]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대상 (복수응답, %)



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이유

-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사이버폭력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성인들은 사이버 성폭력(54.9%), 사이버 명예훼손(51.8%), 신상정보 유출(51.4%), 사이버 스토킹(44.4%), 사이버 따돌림(43.1%)에서 많았고, 가해이유가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인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49.5%), 사이버 따돌림(47.1%), 사이버 성폭력(53.5%)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가해이유로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38.0%)가 가장 높았고, 사이버 따돌림은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37.3%),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37.3%)가 가해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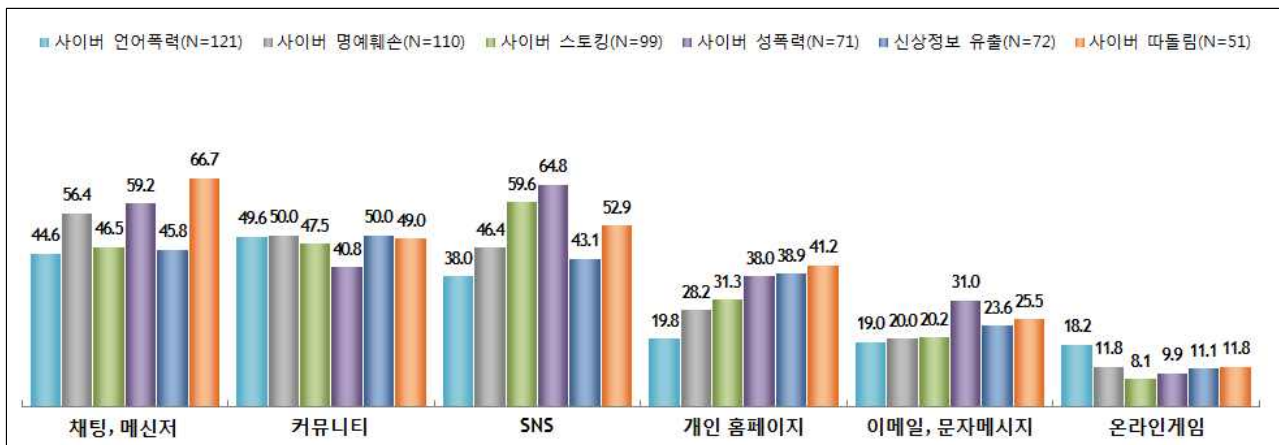
[그림 4-2-30]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이유 (복수응답, %)



3.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수단

- ‘채팅, 메신저’가 가해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된 유형은 사이버 따돌림(66.7%), 사이버 성폭력(59.2%), 사이버 명예훼손(56.4%)이, ‘커뮤니티’가 가해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된 유형은 신상정보 유출(50.0%), 사이버 명예훼손(50.0%), 사이버 언어폭력(49.6%)이, ‘SNS’가 가해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된 유형은 사이버 성폭력(64.8%), 사이버 스토킹(59.6%), 사이버 따돌림(52.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밖에도 ‘개인 홈페이지’가 가해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가해유형은 사이버 따돌림(41.2%)이었고,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가해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가해유형은 사이버 성폭력(3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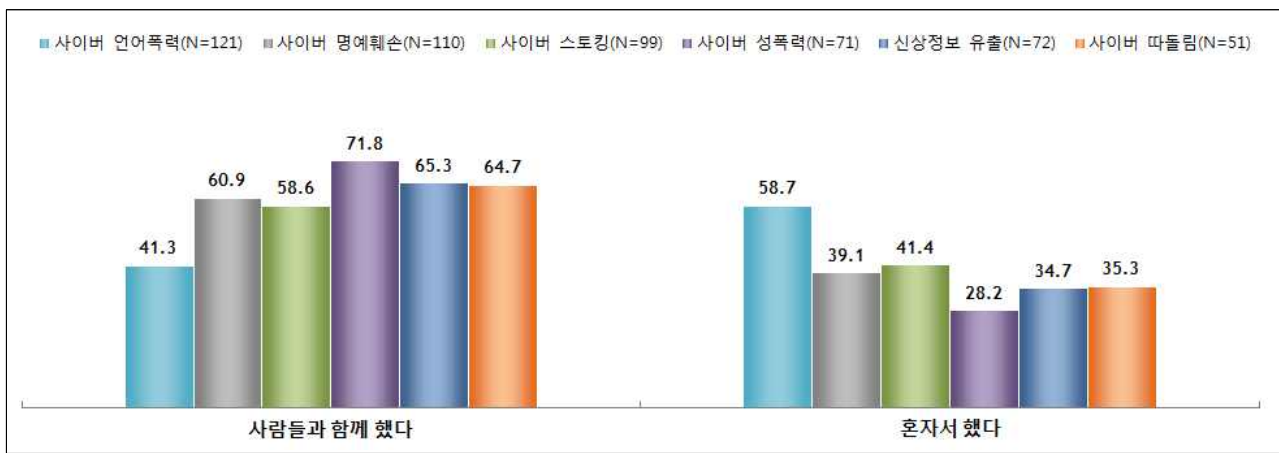
[그림 4-2-31]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수단 (복수응답, %)



4.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가해방식

- 성인들은 사이버폭력 가해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사이버 성폭력(71.8%), 신상정보 유출(65.3%), 사이버 따돌림(64.7%), 사이버 명예훼손(60.9%), 사이버 스토킹(58.6%)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혼자서 했다'가 58.7%로 다른 유형의 사이버폭력보다 혼자서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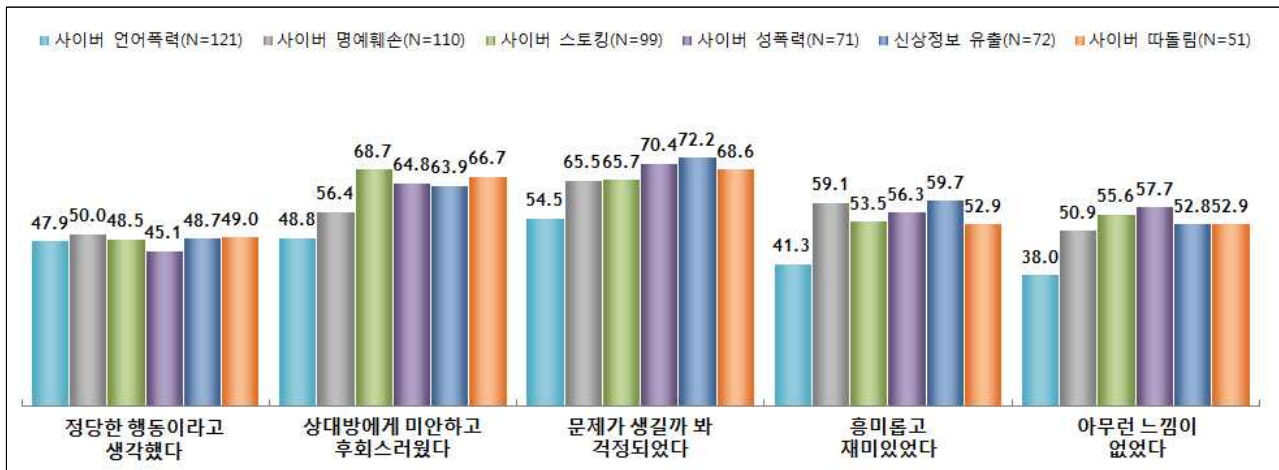
[그림 4-2-32]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방식 (%)



5.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이후 심리

-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의 가해심리는 신상정보 유출(72.2%), 사이버 성폭력(70.4%), 사이버 따돌림(68.6%), 사이버 스토킹(65.7%), 사이버 명예훼손(65.5%), 사이버 언어폭력(54.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의 가해심리는 사이버 스토킹(68.7%), 사이버 따돌림(66.7%), 사이버 성폭력(64.8%), 신상정보 유출(63.9%), 사이버 명예훼손(56.4%), 사이버 언어폭력(48.8%)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사이버 명예훼손(50.0%), 사이버 따돌림(49.0%), 신상정보 유출(48.7%), 사이버 스토킹(48.5%), 사이버 언어폭력(47.9%), 사이버 성폭력(45.1%) 순이었고, '흥미있고 재미있었다' 신상정보 유출(59.7%), 사이버 명예훼손(59.1%), 사이버 성폭력(56.3%), 사이버 스토킹(53.6%), 사이버 따돌림(53.0%), 사이버 언어폭력(41.4%) 순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사이버 성폭력(57.7%), 사이버 스토킹(55.6%), 사이버 따돌림(52.9%), 신상정보 유출(52.8%), 사이버 명예훼손(50.9%), 사이버 언어폭력(38.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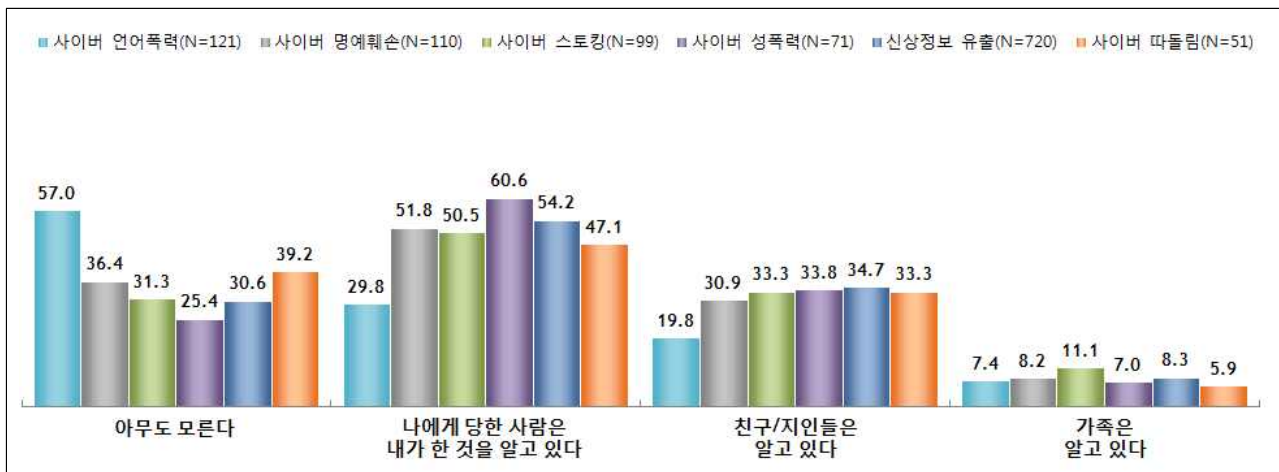
[그림 4-2-33]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6. 사이버폭력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주변인지

-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이후 주변에서 인지하지 하지 못하는 경우('아무도 모른다')는 57.0%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다른 유형의 사이버폭력들은 '나에게 당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성폭력(60.6%), 신상정보 유출(54.2%), 사이버 명예훼손(51.8%), 사이버 스토킹(50.5%), 사이버 따돌림(47.1%) 순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친구/지인들은 알고 있다'는 경우는 신상정보 유출(34.7%), 사이버 성폭력(33.8%), 사이버 스토킹(33.3%), 사이버 따돌림(33.3%), 사이버 명예훼손(30.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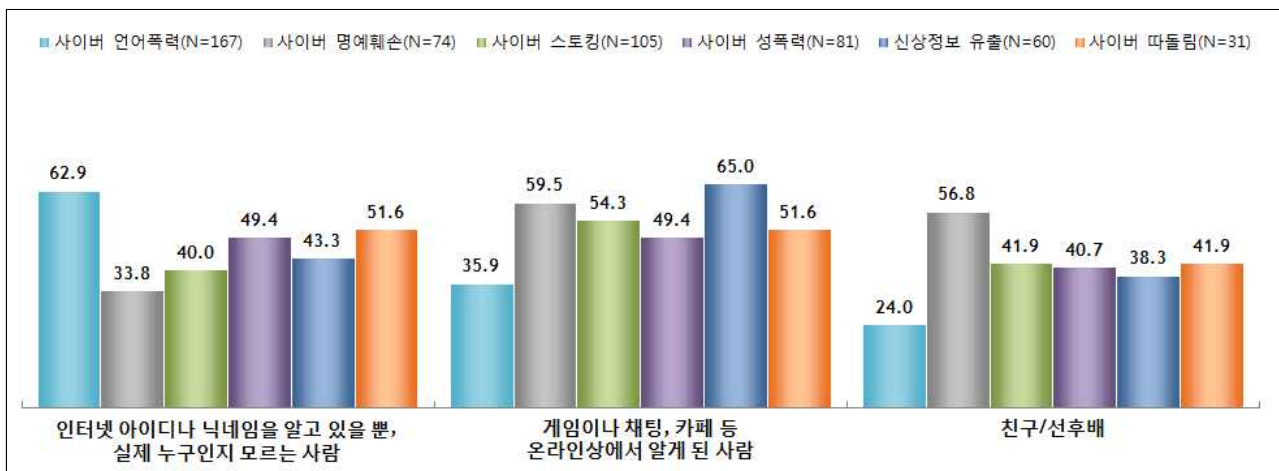
[그림 4-2-34] 가해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사실 주변인지 (복수응답, %)



7.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대상(가해자)

-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사이버 언어폭력(62.9%), 사이버 따돌림(51.6%), 사이버 성폭력(49.4%)에서 높게 나타났고,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는 신상정보 유출(65.0%), 사이버 명예훼손(59.5%), 사이버 스토킹(54.3%), 사이버 따돌림(51.6%), 사이버 성폭력(49.4%), 사이버 언어폭력(35.9%) 순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친구/선후배’인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56.8%), 사이버 따돌림(41.9%), 사이버 스토킹(41.9%), 사이버 성폭력(40.7%), 신상정보 유출(38.3%), 사이버 언어폭력(24.0%) 순으로 나타났다.
- 대체로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대부분의 유형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친구/선후배와 같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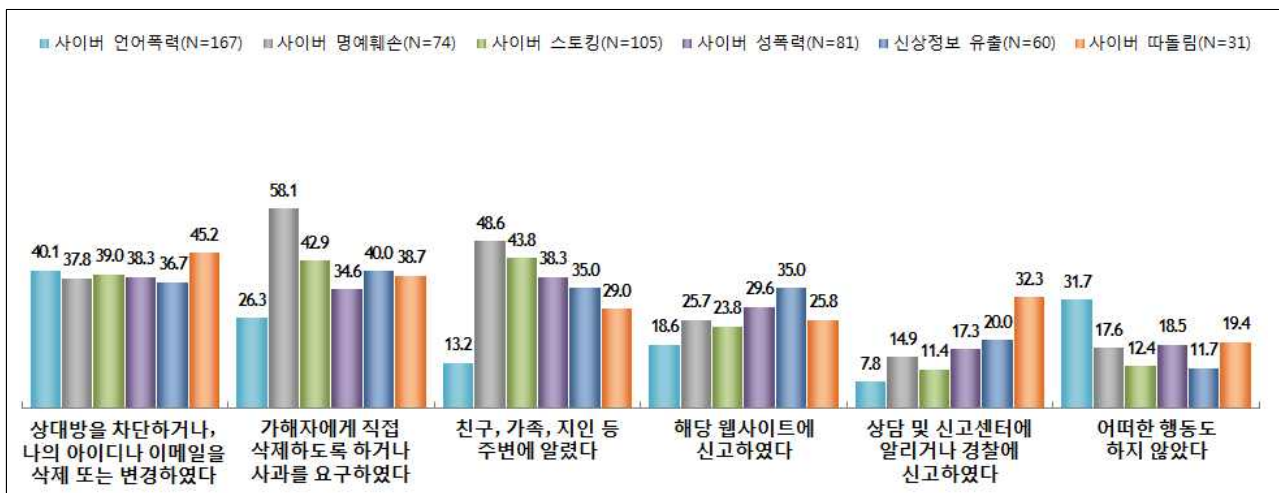
[그림 4-2-35]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대상(가해자) (복수응답, %)



8.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이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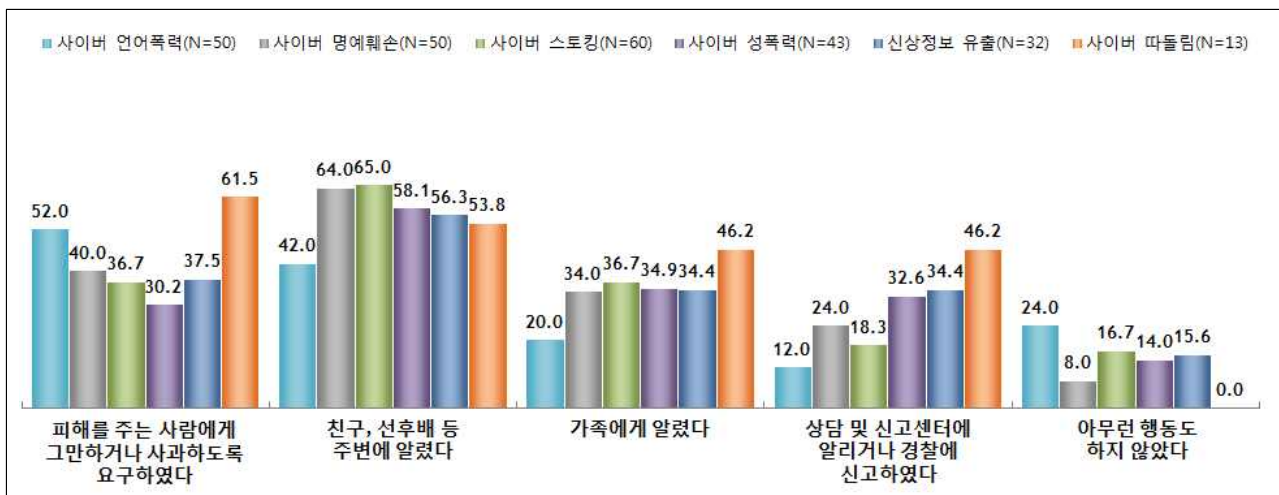
-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나 이메일을 삭제, 변경하였다'의 대응은 사이버 따돌림(45.2%), 사이버 언어폭력(40.1%)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사이버 명예훼손(58.1%), 사이버 스토킹(42.9%)에서, '친구, 가족, 지인 등 주변에 알렸다'는 사이버 명예훼손(48.6%), 사이버 스토킹(43.8%)에서 높게 나타났다.
- 그 외에도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는 신상정보 유출(35.0%)에서,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이버 따돌림(32.3%)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사이버 성폭력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ID나 이메일을 삭제, 변경하였다'(38.3%)와 '친구, 가족, 지인 등 주변에 알렸다'(38.3%)의 대응이 높았으며,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31.7%)와 같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36]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대응 (복수응답, %)



- 목격이후 대응 중에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이버 따돌림(61.5%), 사이버 언어폭력(52.0%)에서 높게 나타났고, '친구, 선후배 등 주변에 알렸다'는 사이버 스토킹(65.0%), 사이버 명예훼손(64.0%), 사이버 성폭력(58.1%), 신상정보 유출(56.3%), 사이버 따돌림(53.8%)에서 높게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가족에게 알렸다'(46.2%)와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46.2%)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24.0%)는 대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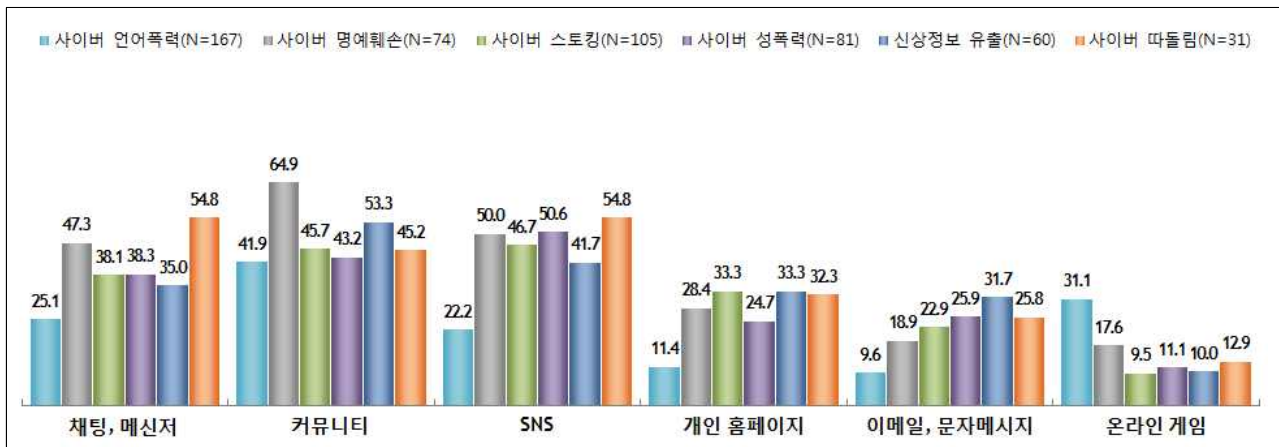
[그림 4-2-37]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목격 이후 대응 (복수응답, %)



9.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수단

- '채팅, 메신저'가 피해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된 유형은 사이버 따돌림(54.8%), 사이버 명예훼손(47.3%)이, '커뮤니티'가 피해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된 유형은 사이버 명예훼손(64.9%), 신상정보 유출(53.3%)이, 'SNS'가 피해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된 유형은 사이버 따돌림(54.8%), 사이버 성폭력(50.6%), 사이버 명예훼손(5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밖에도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커뮤니티'(41.9%)를 통하여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사이버 스토킹은 'SNS'(46.7%)를 통하여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 '개인 홈페이지'가 피해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피해유형은 사이버 스토킹(33.3%)과 사이버 성폭력(33.3%)였고,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피해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피해유형은 사이버 성폭력(31.7%), '온라인게임'이 피해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피해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3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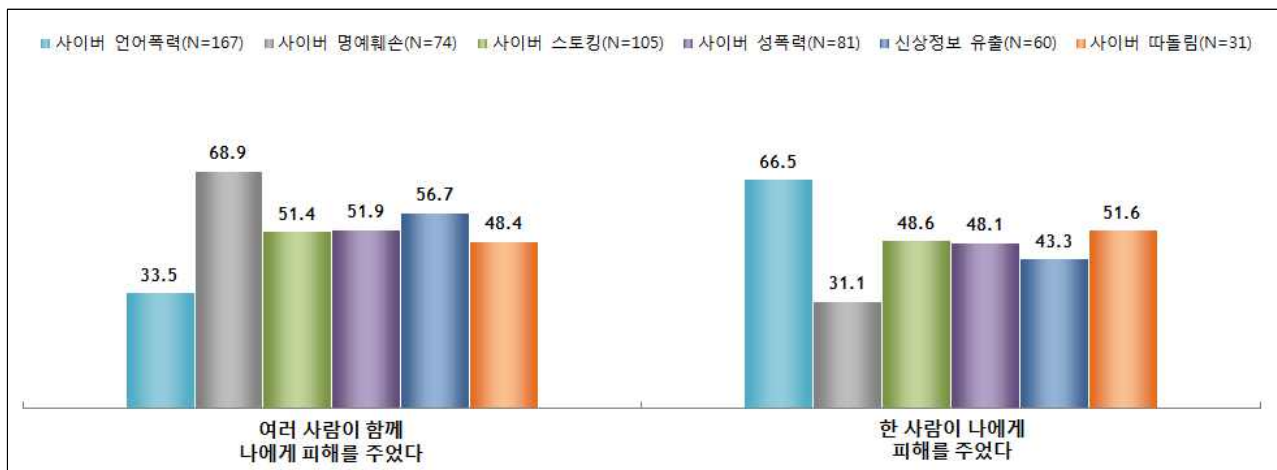
[그림 4-2-38]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수단 (복수응답, %)



10.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피해방식

-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방식은 '한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의 피해방식이 각각 66.5%와 5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다른 유형의 사이버폭력은 '여러 사람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68.9%), 신상정보 유출(56.7%), 사이버 성폭력(51.9%), 사이버 스토킹(51.4%)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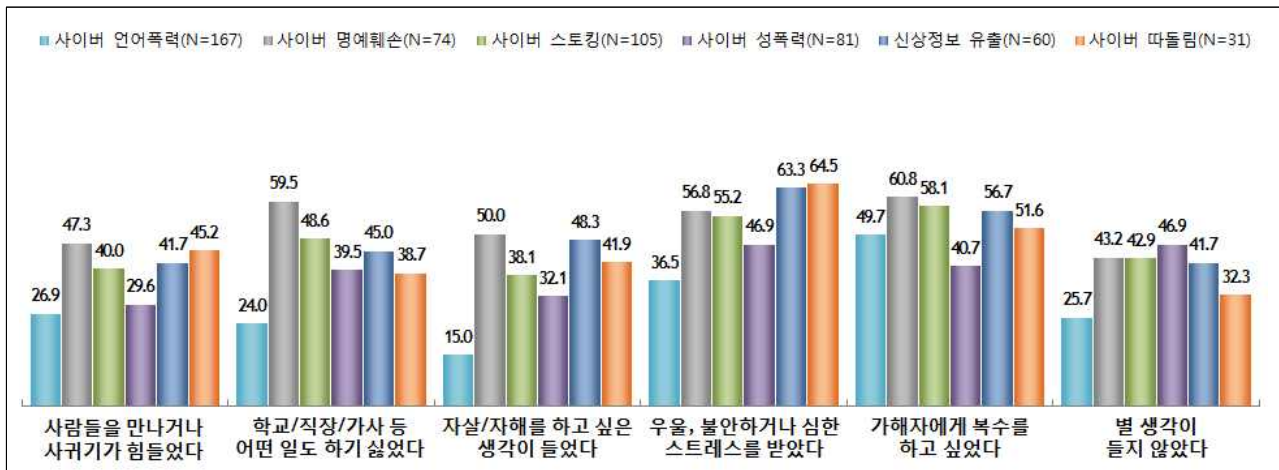
[그림 4-2-39]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방식 (%)



11. 사이버폭력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심리

-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는 피해이후 심리는 사이버 명예훼손(60.8%), 사이버 스토킹(58.1%), 신상정보 유출(56.7%), 사이버 따돌림(51.6%), 사이버 언어폭력(49.7%)에서 높게 나타났다.
- ‘우울, 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피해이후 심리는 사이버 따돌림(64.5%), 신상정보 유출(63.3%), 사이버 명예훼손(56.8%), 사이버 스토킹(55.2%)에서, ‘자살/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피해이후 심리는 사이버 명예훼손(50.0%), 신상정보 유출(48.3%), 사이버 따돌림(41.9%)에서, ‘학교/직장/가사 등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는 피해이후 심리는 사이버 명예훼손(59.5%), 사이버 스토킹(48.6%), 신상정보 유출(45.0%)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는 피해이후 심리는 사이버 명예훼손(47.3%), 사이버 따돌림(45.2%), 신상정보 유출(41.7%), 사이버 스토킹(40.0%)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피해이후 심리는 사이버 성폭력(46.9%), 사이버 명예훼손(43.2%), 사이버 스토킹(42.9%), 신상정보 유출(41.7%)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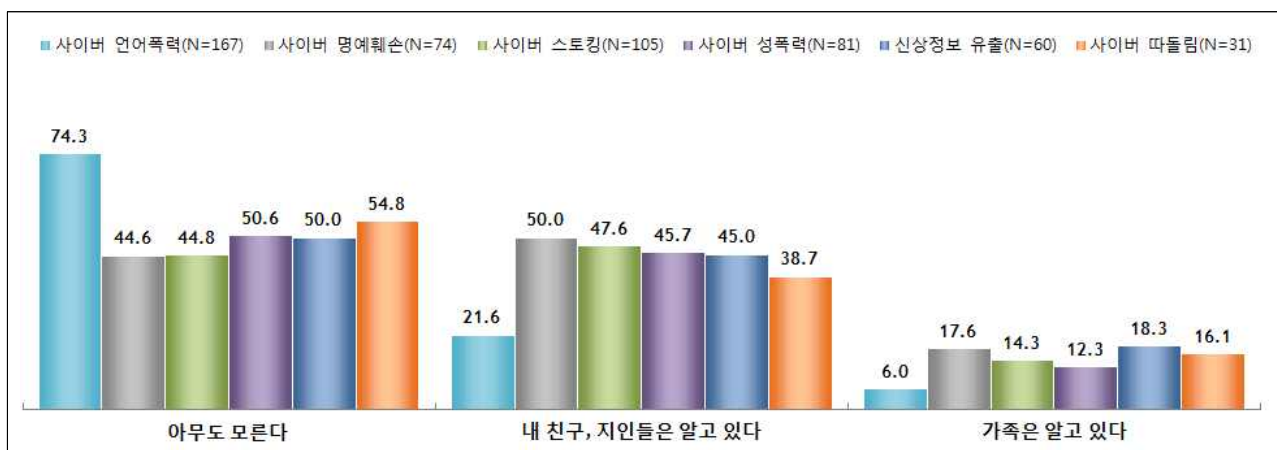
[그림 4-2-40]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이후 심리 (복수응답, %)



12.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사이버폭력 주변인지

- 사이버 폭력 피해이후 주변에서 인지하지 하지 못하는 경우('아무도 모른다')는 사이버 언어폭력(74.3%), 사이버 따돌림(54.8%), 사이버 성폭력(50.6%), 신상정보 유출(50.0%)로 높게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피해행위에 대해 '내 친구/지인들은 알고 있다'는 경우는 사이버 명예훼손(50.0%), 사이버 스토킹(47.6%), 사이버 성폭력(45.7%), 신상정보 유출(45.0%), 사이버 따돌림(38.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1] 사이버폭력 피해유형별 주변인지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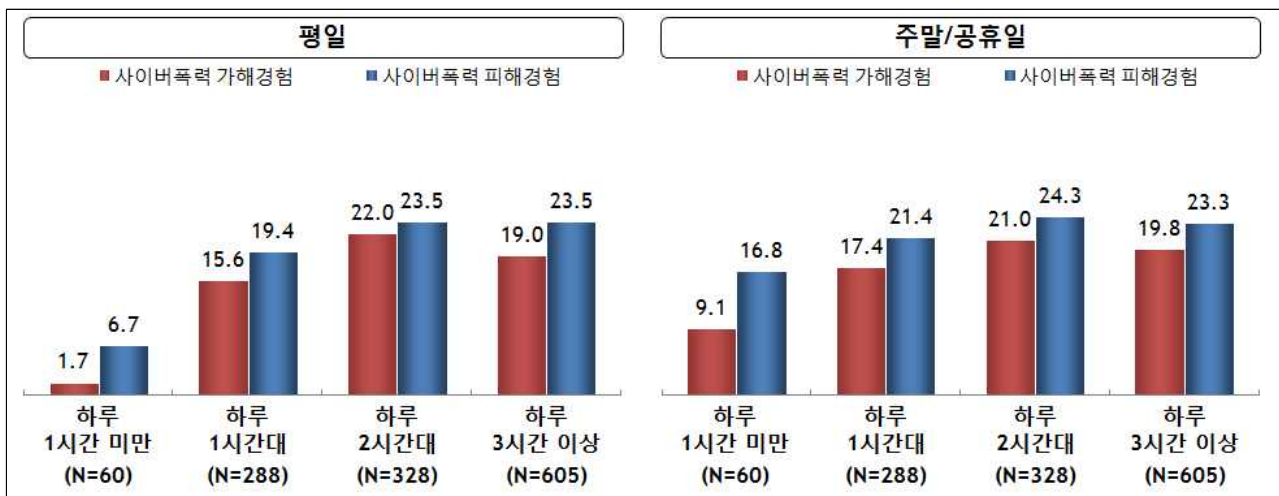
제3장 사이버폭력 원인

제1절 인터넷 이용특성별 사이버폭력 경험

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2015년 조사에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경험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체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일을 기준으로 인터넷을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1.7%)과 피해경험(6.7%)로 가장 낮았던 반면에 '하루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성인의 가해경험(19.0%)와 피해경험(23.5%)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



[표 4-3-1] 인터넷 이용시간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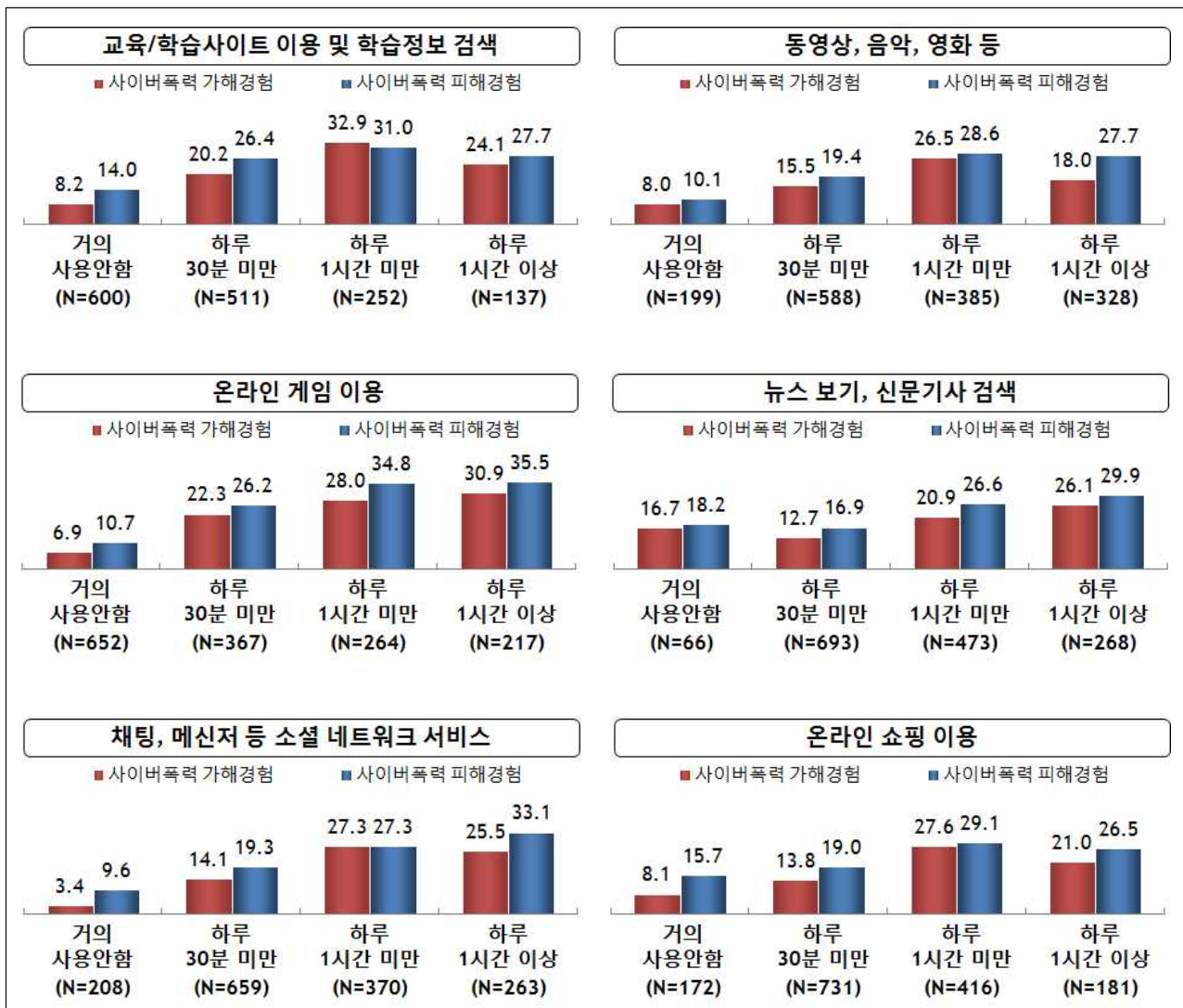
구 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인터넷 이용시간 (평일)	하루 1시간 미만	59(98.3)	1(1.7)	15.67*** (df=3)	56(93.3)	4(6.7)	10.54*** (df=3)
	하루 1시간대	243(84.4)	45(15.6)		232(80.6)	56(19.4)	
	하루 2시간대	256(78.0)	72(22.0)		251(76.5)	77(23.5)	
	하루 3시간 이상	490(81.0)	115(19.0)		463(76.5)	142(23.5)	
전 체		1048(81.8)	233(18.2)		1002(78.2)	279(21.8)	
인터넷 이용시간 (주말/공휴일)	하루 1시간 미만	186(93.6)	12(6.1)	52.78*** (df=3)	178(89.9)	20(10.1)	33.19*** (df=3)
	하루 1시간대	302(87.5)	43(12.5)		283(82.0)	62(18.0)	
	하루 2시간대	271(85.2)	47(14.8)		258(81.1)	60(18.9)	
	하루 3시간 이상	358(73.7)	128(26.3)		348(71.6)	138(28.4)	
전 체		1117(82.9)	230(17.1)		1067(79.2)	280(20.8)	

*** p<.001

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은 '교육/학습 사이트 이용 및 학습정보 검색', '동영상, 음악, 영화 등', '온라인 게임 이용',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쇼핑 등'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목적에서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교육/학습사이트 이용 및 학습정보 검색', '온라인 게임 이용', '채팅, 메신저 등 이용', '동영상, 음악, 영화 등'을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긴 성인일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육/학습사이트 이용 및 학습정보 검색', '온라인 게임 이용', '채팅, 메신저 등 이용'을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긴 성인일수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



[표 4-3-2] 인터넷 이용목적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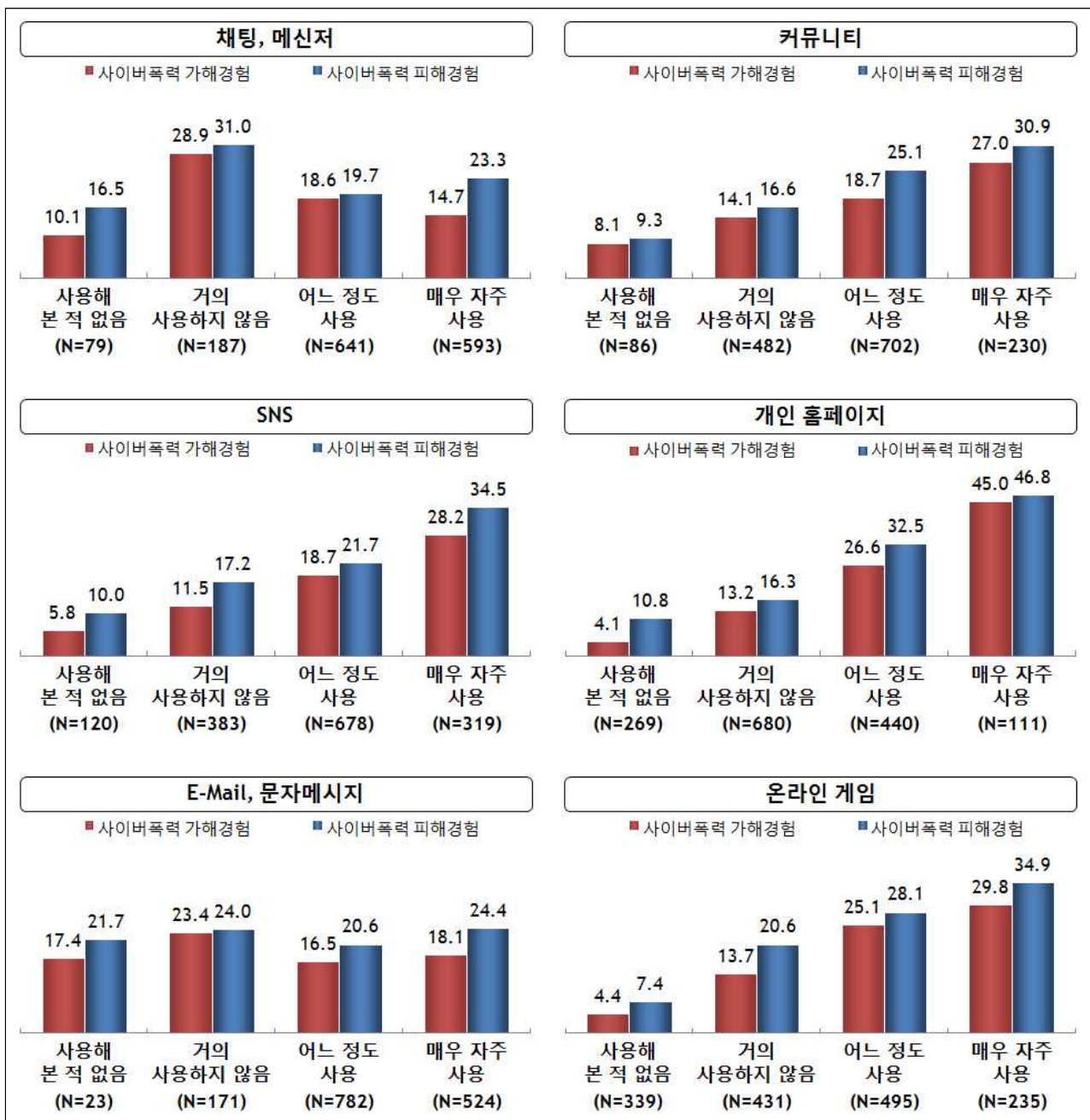
구 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교육/학습 사이트 및 학습정보 검색	거의 사용안함	551(91.8)	49(8.2)	82.91*** (df=3)	516(86.0)	84(14.0)	42.04*** (df=3)
	하루 30분 미만	408(79.8)	103(20.2)		376(73.6)	135(26.4)	
	하루 1시간 미만	169(67.1)	83(32.9)		174(69.0)	78(31.0)	
	하루 1시간 이상	104(75.9)	33(24.1)		99(72.3)	38(27.7)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동영상, 음악, 영화 등	거의 사용안함	183(92.0)	16(8.0)	34.91*** (df=3)	179(89.9)	20(10.1)	34.42*** (df=3)
	하루 30분 미만	497(84.5)	91(15.5)		474(80.6)	114(19.4)	
	하루 1시간 미만	283(73.5)	102(26.5)		275(71.4)	110(28.6)	
	하루 1시간 이상	269(82.0)	59(18.0)		237(72.3)	91(27.7)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온라인 게임 이용	거의 사용안함	607(93.1)	45(6.9)	102.04*** (df=3)	582(89.3)	70(10.7)	99.12*** (df=3)
	하루 30분 미만	285(77.7)	82(22.3)		271(73.8)	96(26.2)	
	하루 1시간 미만	190(72.0)	74(28.0)		172(65.2)	92(34.8)	
	하루 1시간 이상	150(69.1)	67(30.1)		140(64.5)	77(35.5)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거의 사용안함	55(83.3)	11(16.7)	28.14*** (df=3)	54(81.8)	12(18.2)	26.31*** (df=3)
	하루 30분 미만	605(87.3)	88(12.7)		576(83.1)	117(16.9)	
	하루 1시간 미만	374(79.1)	99(20.9)		347(73.4)	126(26.6)	
	하루 1시간 이상	198(73.9)	70(26.1)		188(70.1)	80(29.9)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채팅, 메신저 등	거의 사용안함	201(96.6)	7(3.4)	68.94*** (df=3)	188(90.4)	20(9.6)	45.72*** (df=3)
	하루 30분 미만	566(85.9)	93(14.1)		532(80.7)	127(19.3)	
	하루 1시간 미만	269(72.7)	101(27.3)		269(72.7)	101(27.3)	
	하루 1시간 이상	196(74.5)	67(25.5)		176(66.9)	87(33.1)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온라인 쇼핑 등	거의 사용안함	158(19.9)	14(8.1)	47.57*** (df=3)	145(84.3)	27(15.7)	21.77*** (df=3)
	하루 30분 미만	630(86.2)	101(13.8)		592(81.0)	139(19.0)	
	하루 1시간 미만	301(72.4)	115(27.6)		295(70.9)	121(29.1)	
	하루 1시간 이상	143(79.0)	38(21.0)		133(73.5)	48(26.5)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 p<.01, *** p<.001

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채팅, 메신저', 'E-Mail,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인터넷 이용서비스를 자주 이용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개인 홈페이지', '온라인 게임', 'SNS', '커뮤니티'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



[표 4-3-3] 인터넷 이용서비스별 사이버폭력 경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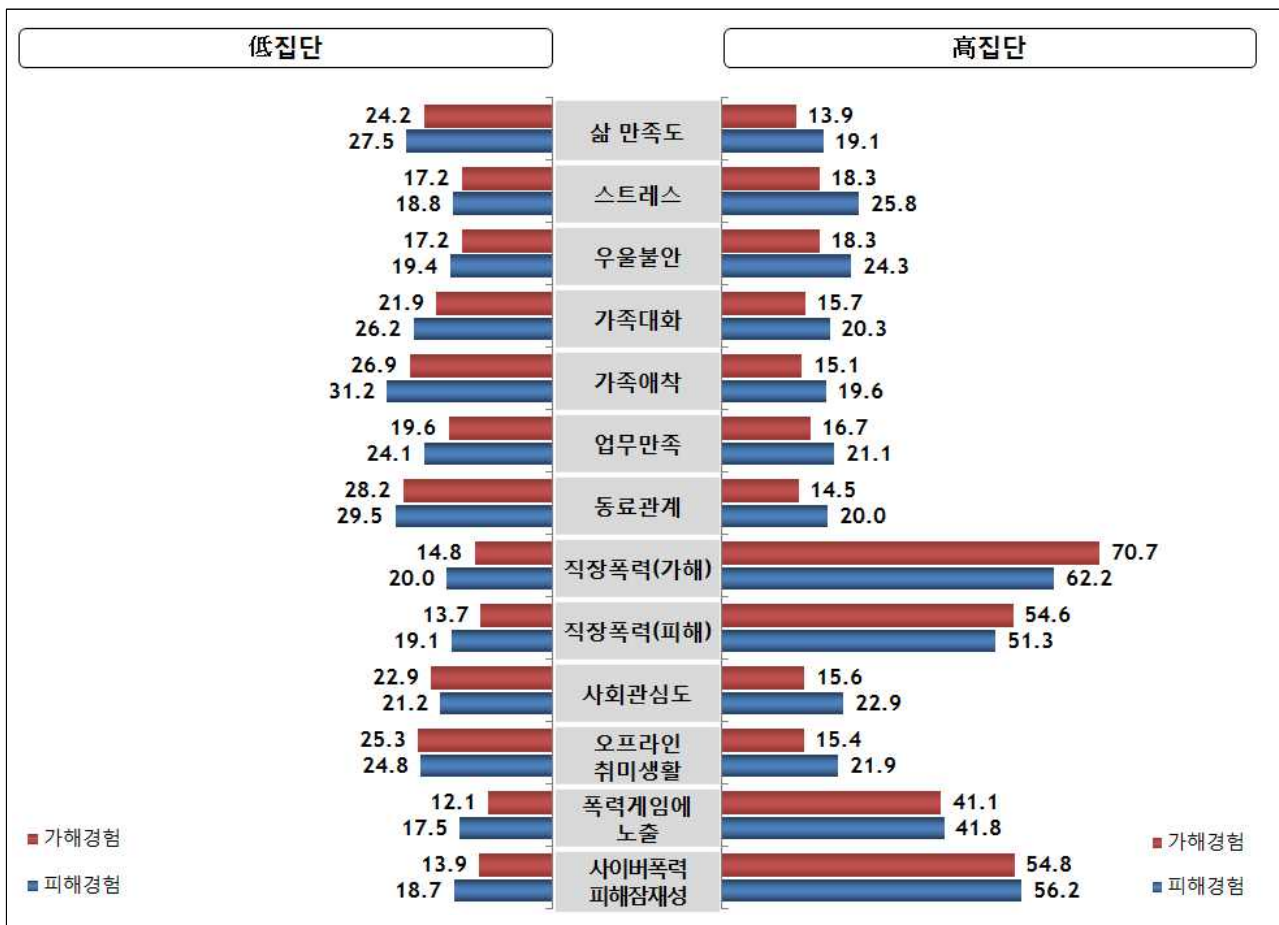
구 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경험없음	경험있음	χ^2
채팅, 메신저	사용해 본 적 없음	71(89.9)	8(10.1)	23.01*** (df=3)	66(83.5)	13(16.5)	12.65***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133(71.1)	54(28.9)		129(69.0)	58(31.0)	
	어느 정도 사용	522(81.4)	119(18.6)		515(80.3)	126(19.7)	
	매우 자주 사용	506(85.3)	87(14.7)		455(76.7)	138(23.3)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사용해 본 적 없음	79(91.9)	7(8.1)	23.49*** (df=3)	78(90.7)	8(9.3)	30.26***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414(85.9)	68(14.1)		402(83.4)	80(16.6)	
	어느 정도 사용	571(81.3)	131(18.7)		526(74.9)	176(25.1)	
	매우 자주 사용	168(73.0)	62(27.0)		159(69.1)	71(30.9)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SNS	사용해 본 적 없음	113(94.2)	7(5.8)	46.08*** (df=3)	108(90.0)	12(10.0)	43.58***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339(88.5)	44(11.5)		317(82.8)	66(17.2)	
	어느 정도 사용	551(81.3)	127(18.7)		531(78.3)	147(21.7)	
	매우 자주 사용	229(71.8)	90(28.2)		209(65.5)	110(34.5)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개인 홈페이지	사용해 본 적 없음	258(95.9)	11(4.1)	123.43** (df=3)	240(89.2)	29(10.8%)	99.53***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590(86.8)	90(13.2)		569(83.7)	111(16.3)	
	어느 정도 사용	323(73.4)	117(26.6)		297(67.5)	143(32.5)	
	매우 자주 사용	61(55.0)	50(45.0%)		59(53.2)	52(46.8)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용해 본 적 없음	19(82.6)	4(17.4)	4.59 (df=3)	18(78.3)	5(21.7)	2.97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131(76.6)	40(23.4)		130(76.0)	41(24.0)	
	어느 정도 사용	653(83.5)	129(16.5)		621(79.4)	161(20.6)	
	매우 자주 사용	429(81.9)	95(18.1)		396(75.6)	128(24.4)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온라인 게임	사용해 본 적 없음	324(95.6)	15(4.4)	87.03*** (df=3)	314(92.6)	25(7.4)	75.24*** (df=3)
	거의 사용하지 않음	372(86.3)	59(13.7)		342(79.4)	89(20.6)	
	어느 정도 사용	371(74.9)	124(25.1)		356(71.9)	139(28.1)	
	매우 자주 사용	165(70.2)	70(29.8)		153(65.1)	82(34.9)	
	전 체	1,232(82.1)	268(17.9)		1,165(77.7)	335(22.3)	

** p<.01, *** p<.001

제2절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

-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은 성인들의 환경요인(개인, 가족, 직장, 사회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 만족도, 가족대화, 가족애착, 업무만족, 동료관계, 사회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우울·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직장폭력의 가해와 피해,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 사이버폭력 피해 잠재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4]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표 4-3-4] 환경요인별 사이버폭력 가해·피해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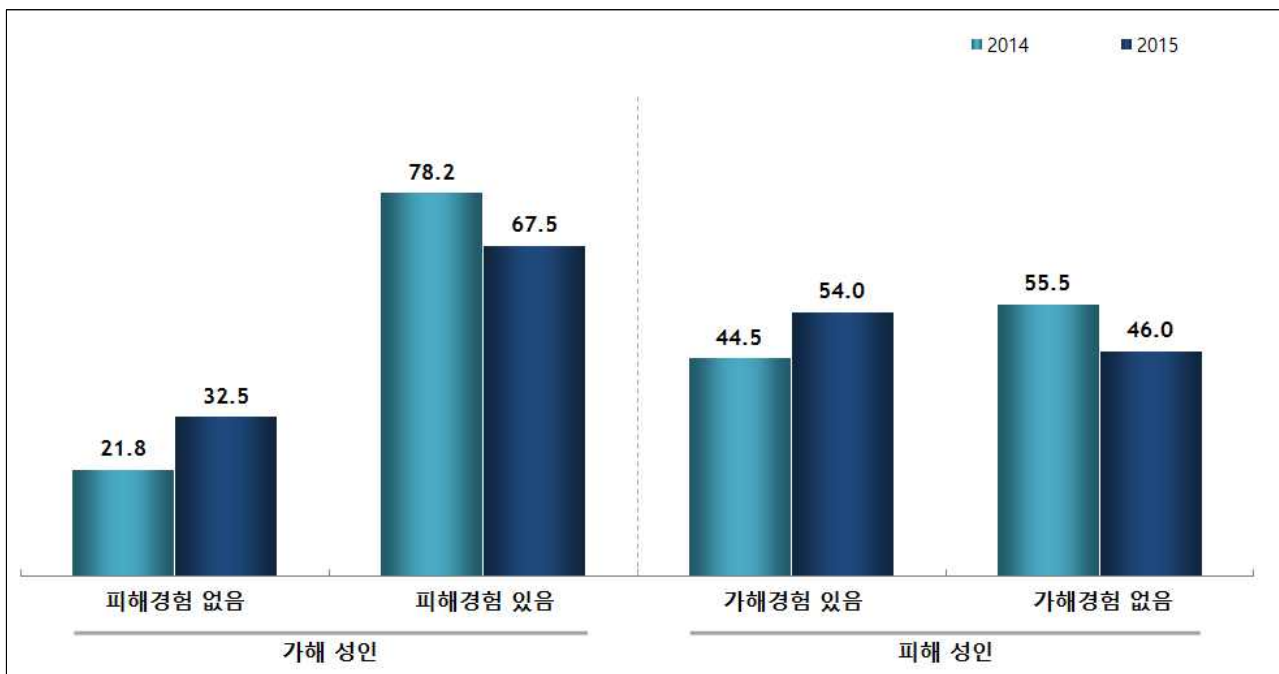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 χ^2	피해 χ^2
삶 만족도	저집단	574	24.22	27.53	25.50*** (df=1)	14.45*** (df=1)
	고집단	926	13.93	19.11		
스트레스	저집단	611	17.18	18.81	5.9** (df=1)	10.43*** (df=1)
	고집단	889	18.34	25.76		
우울불안	저집단	611	17.18	19.48	0.32 (df=1)	4.85** (df=1)
	고집단	889	18.34	24.30		
가족대화	저집단	515	21.94	26.21	8.87*** (df=1)	6.8*** (df=1)
	고집단	985	15.74	20.30		
가족애착	저집단	353	26.91	31.16	25.74*** (df=1)	20.70*** (df=1)
	고집단	1147	15.08	19.62		
업무만족	저집단	606	19.64	24.09	2.17 (df=1)	1.81 (df=1)
	고집단	894	16.67	21.14		
동료관계	저집단	369	28.18	29.54	35.50*** (df=1)	14.65*** (df=1)
	고집단	1131	14.50	19.98		
직장폭력(가해)	저집단	1418	14.81	20.03	165.17*** (df=1)	79.46*** (df=1)
	고집단	82	70.73	62.20		
직장폭력(피해)	저집단	1348	13.72	19.07	155.57*** (df=1)	81.90*** (df=1)
	고집단	152	54.61	51.32		
사회관심도	저집단	472	22.88	21.19	11.8*** (df=1)	0.52 (df=1)
	고집단	1028	15.56	22.86		
오프라인 취미생활	저집단	375	25.33	24.80	18.99*** (df=1)	1.75 (df=1)
	고집단	1125	15.38	21.93		
폭력게임에 노출	저집단	1203	12.14	17.54	135.95*** (df=1)	41.46*** (df=1)
	고집단	297	41.08	41.75		
사이버폭력 피해 잠재성	저집단	1354	13.88	18.69	150.30*** (df=1)	106.72*** (df=1)
	고집단	146	54.79	56.16		

** p<.01, *** p<.001

제3절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순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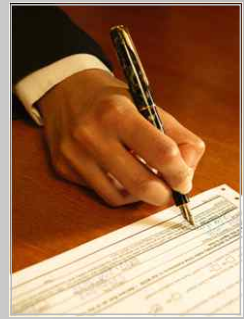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성인들 중 67.5%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성인들 중 54.0%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피해경험은 10.7%p 감소했으나, 피해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9.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5] 사이버폭력 가해·피해의 상관성 (%)



제 5편

교사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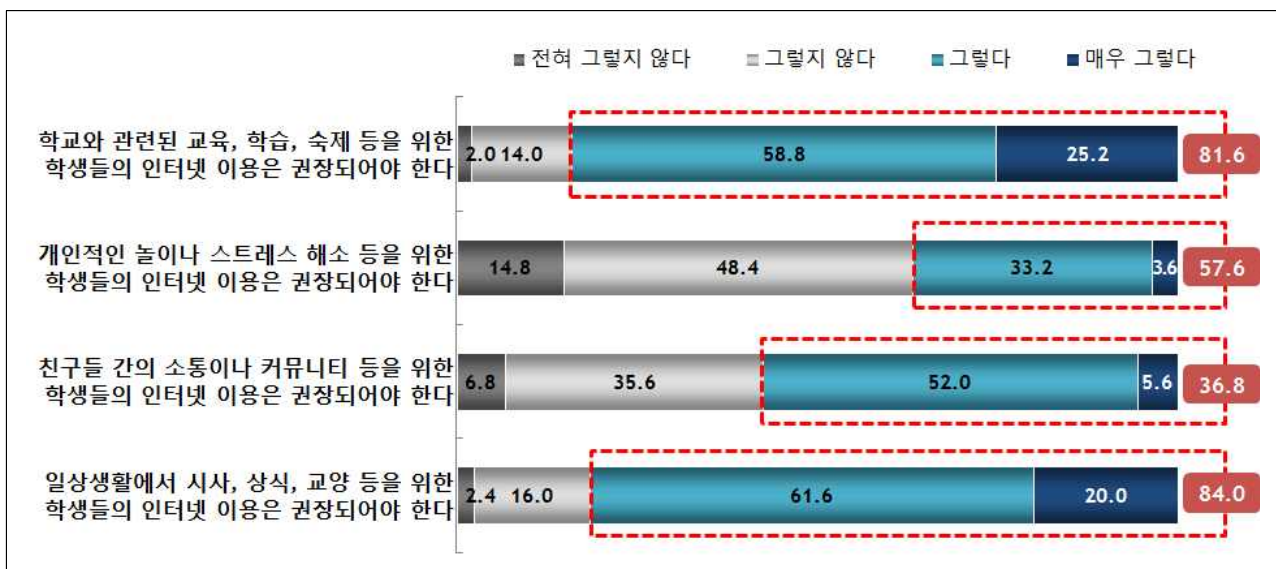
제1장 인터넷 이용 인식과 경험

제1절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1. 일반적 현황

-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육, 학습, 숙제 및 시사, 상식, 교양 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개인적인 놀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인터넷 이용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사의 84.0%(그렇다 58.8%+매우 그렇다 25.2%)가 '학교와 관련된 교육, 학습, 숙제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81.6%는 '일상생활에서 시사, 상식, 교양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반면 '개인적인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36.8%)은 권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63.2%)에 비해 낮아, 개인적인 용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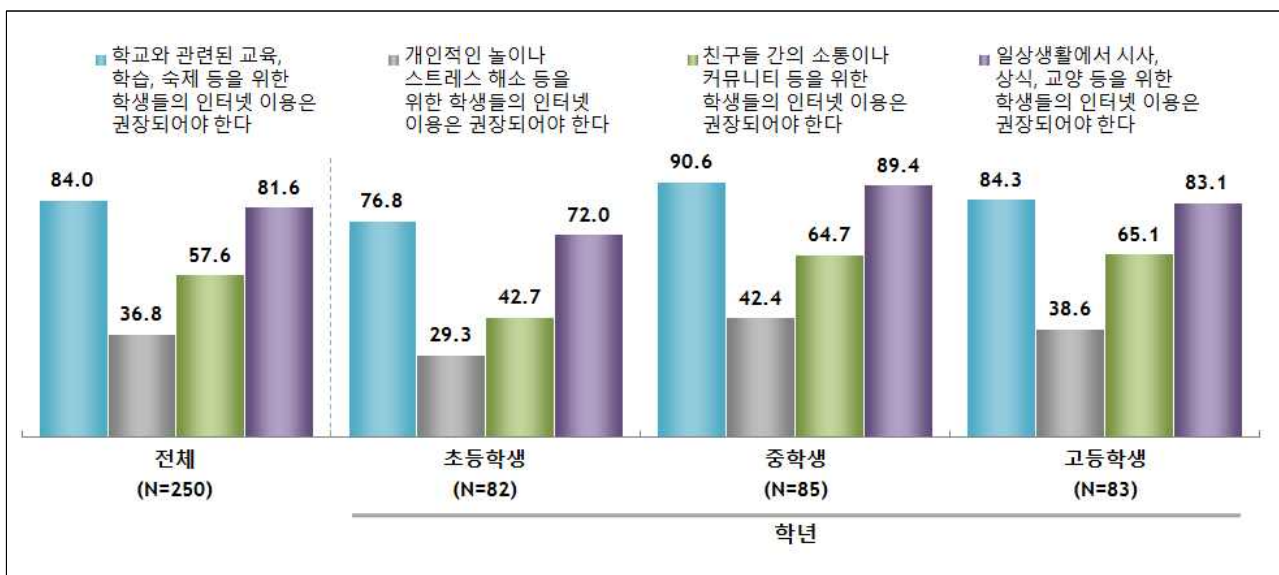
[그림 5-1-1]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n=250, %)



2. 학년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 '학교와 관련된 교육, 학습, 숙제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초등학교(76.8%), 고등학교(84.3%), 중학교(90.6%) 순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에서 시사, 상식, 교양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초등학교(72.0%), 고등학교(83.1%), 중학교(89.4%) 순으로 조사되었다.
- '개인적인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초등학교(29.3%), 고등학교(38.6%), 중학교(42.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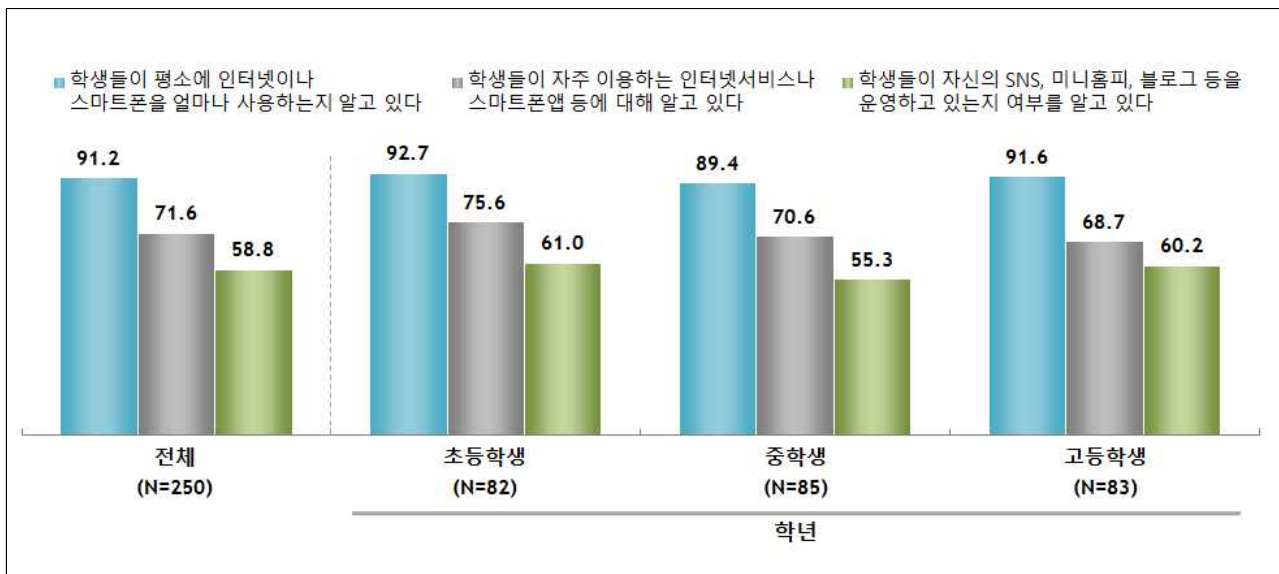
[그림 5-1-2] 학년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



제2절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교사의 91.2%는 '학생들이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1.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이 자신의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58.8%)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체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는 중학교(89.4%), 고등학교(91.6%), 초등학교(92.7%)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는 고등학교(68.7%), 중학교(70.6%), 초등학교(75.6%)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밖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는 중학교(55.3%), 고등학교(60.2%), 초등학교(6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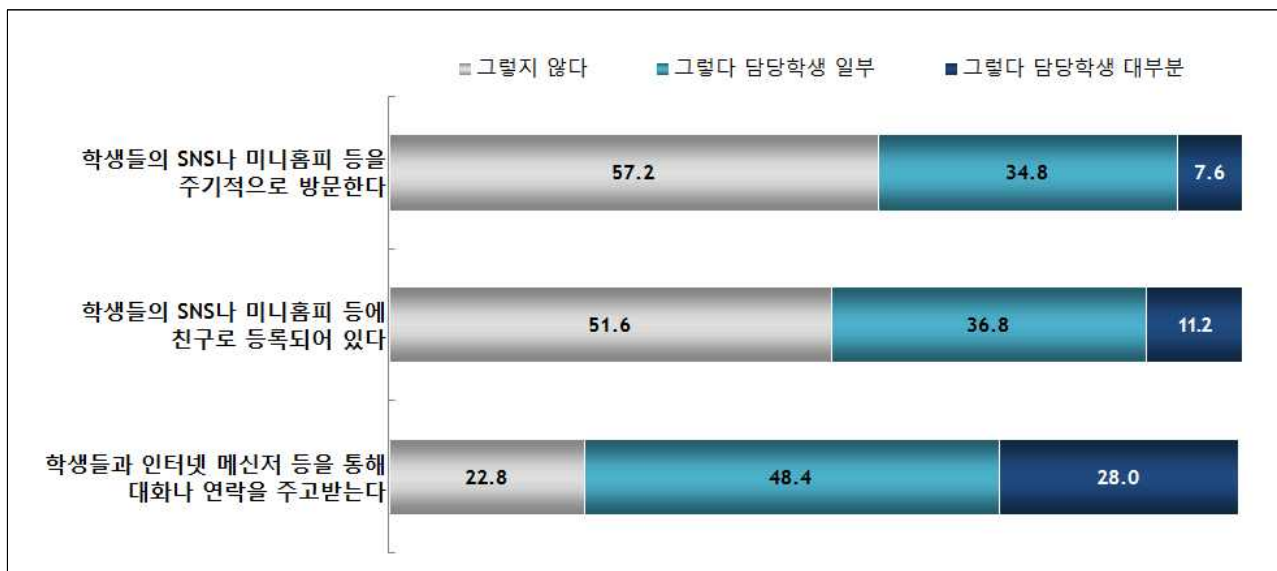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제3절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1. 일반적 현황

-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지에 대하여 교사 57.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담당학생 중 일부만'(34.8%), '담당 학생 대부분'(7.6%) 순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절반 이상인 51.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담당 학생 중 일부만'(36.8%), '담당 학생 대부분'(11.2%) 순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과 인터넷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사 48.4%가 '담당 학생 중 일부만'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담당학생 대부분'(28.0%), '그렇지 않다'(22.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n=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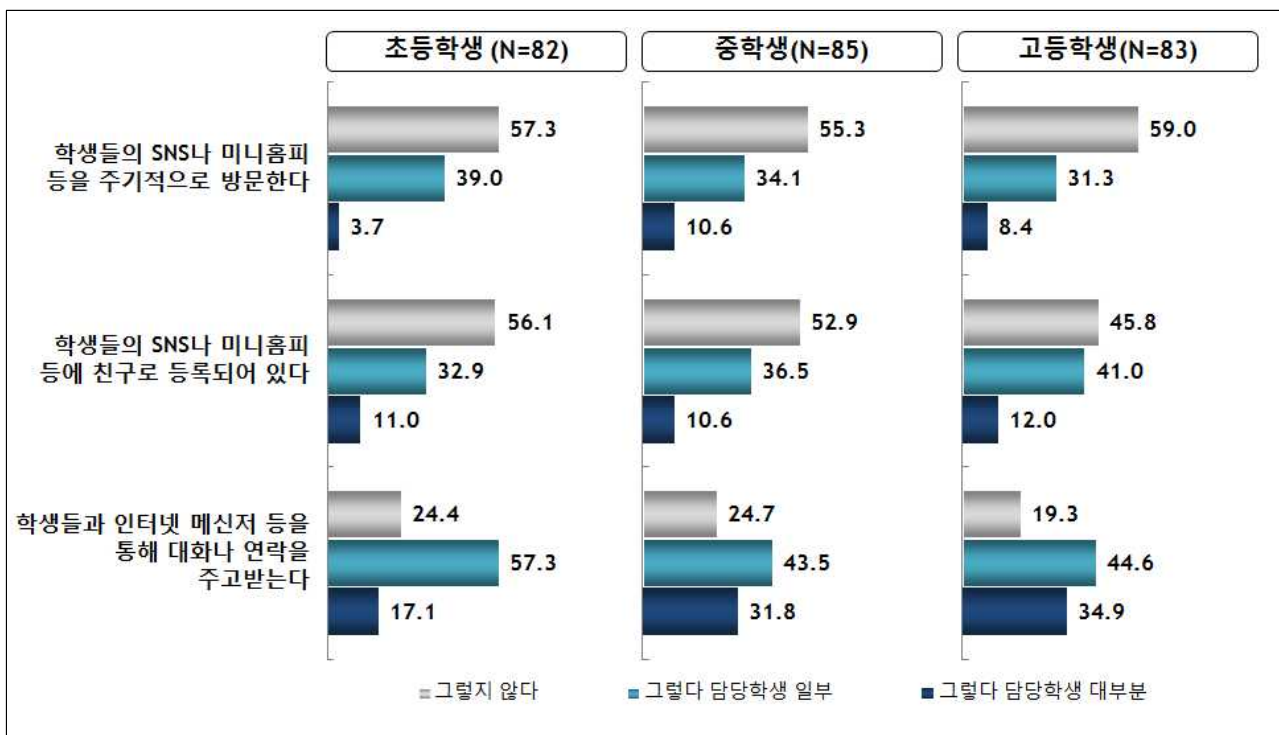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2. 학년별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티)나 미니홈피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은 중학교(44.7%), 초등학교(42.7%), 고등학교(39.7%)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티)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고등학교(53.0%), 중학교(48.1%), 초등학교(43.9%)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학생들과 인터넷 메신저(카카오토티, 마이피플, 라인)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을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고등학교(79.5%), 중학교(75.3%), 초등학교(74.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5] 학년별에 따른 학생과의 온라인 교류 경험 (N=250, %)



※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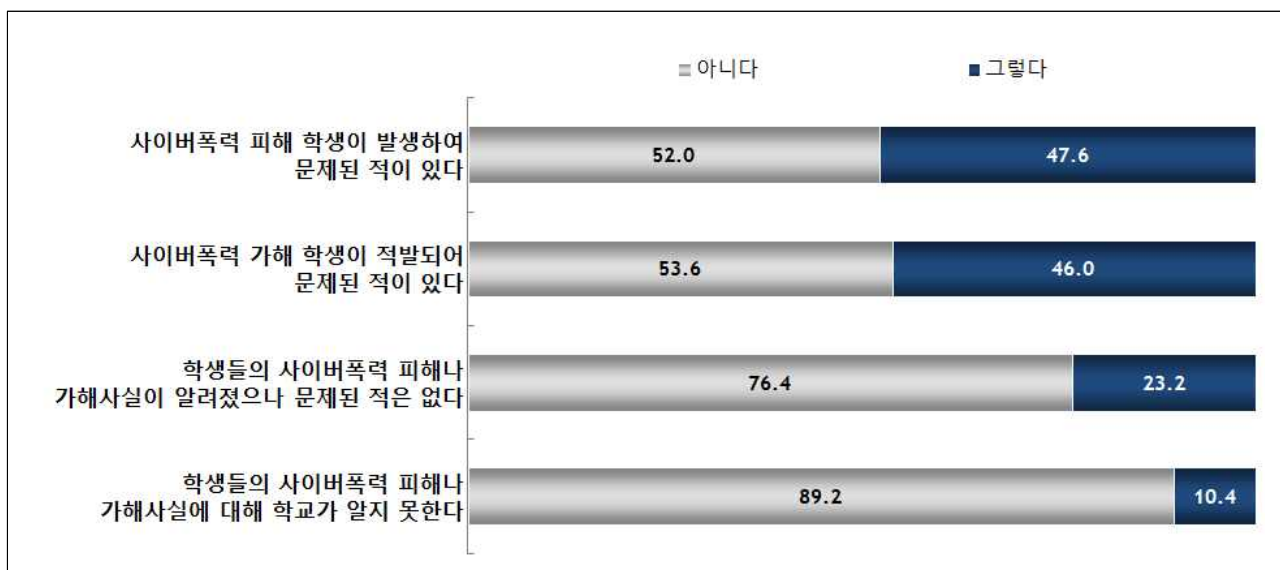
제2장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제1절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현황

1. 일반적 현황

- 교사 47.6%는 학교 내에서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여 문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이 적발되어 문제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6.0%로 나타났다.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이 알려졌으나 문제된 적은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23.2%, 문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76.4%로 나타났다.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에 대해 학교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10.4%로 조사되었다.

[그림 5-2-1]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현황 (N=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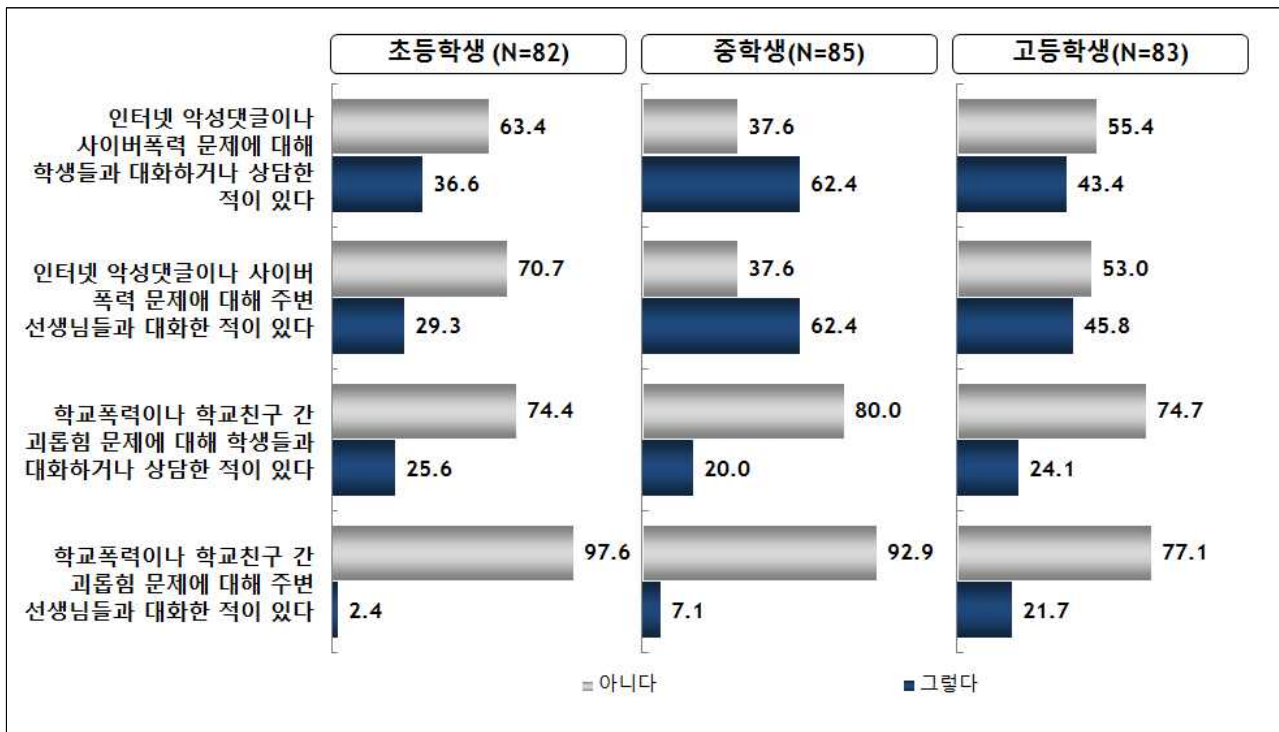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2. 학년별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 학교 내에서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여 문제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중학교(62.4%), 고등학교(43.4%), 초등학교(36.6%) 순으로 나타났고,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이 적발되어 문제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중학교(62.4%), 고등학교(45.8%), 초등학교(29.3%) 순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이 알려졌으나 문제된 적은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25.6%), 고등학교(24.1%), 중학교(20.0%) 순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에 대해 학교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고등학교(21.7%), 중학교(7.1%), 초등학교(2.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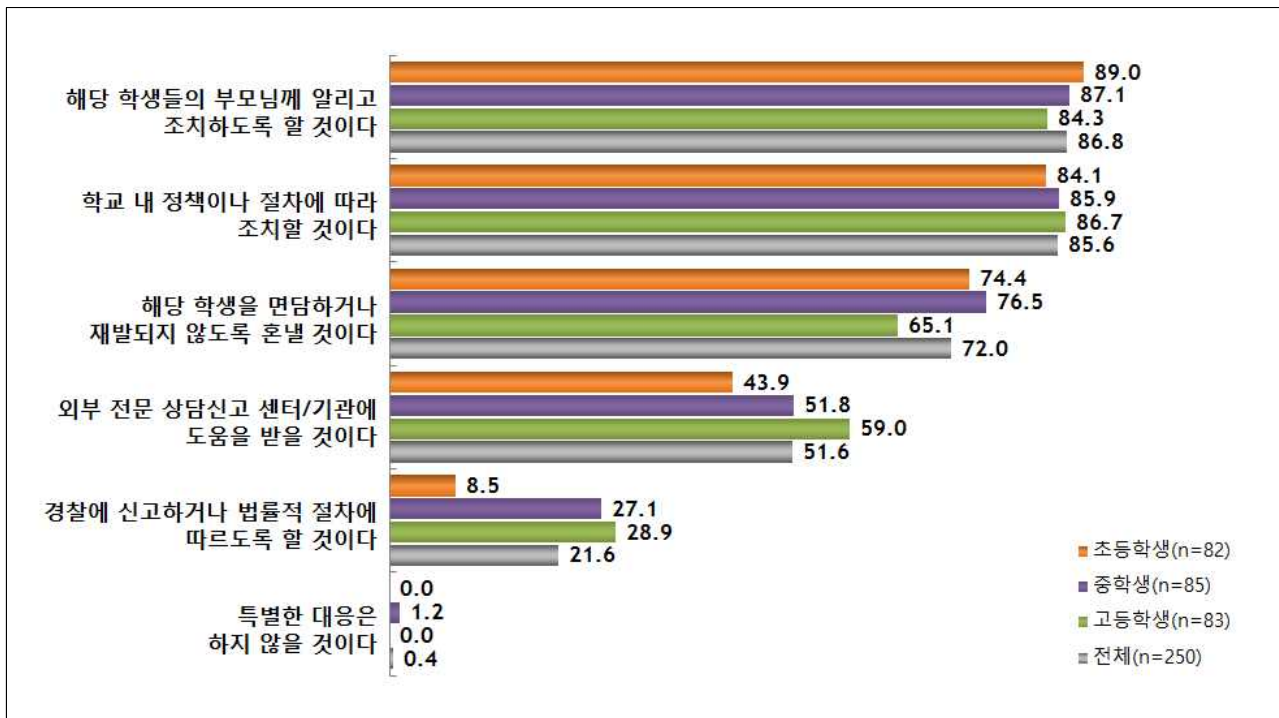
[그림 5-2-2] 학년에 따른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 현황 (N=250, %)



제2절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대응

- 교사들은 담당 학생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대응에 대하여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께 알리고,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86.8%),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85.6%), '해당 학생을 면담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혼낼 것이다'(72.0%)고 응답하였다. 이 밖에 '외부 전문 상담신고 센터/기관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51.6%),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21.6%) 등으로 응답하였다.
- 학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대응으로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께 알리고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는 응답은 초등학교(89.0%)와 중학교(8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응답은 고등학교(86.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밖에도 '외부 전문 상담신고 센터/기관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는 응답은 고등학교(59.0%), 중학교(51.8%), 초등학교(43.9%)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는 응답도 고등학교(28.9%), 중학교(27.1%), 초등학교(8.5%)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부기관의 절차를 받으려는 대응방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2-3] 교내 사이버폭력 발생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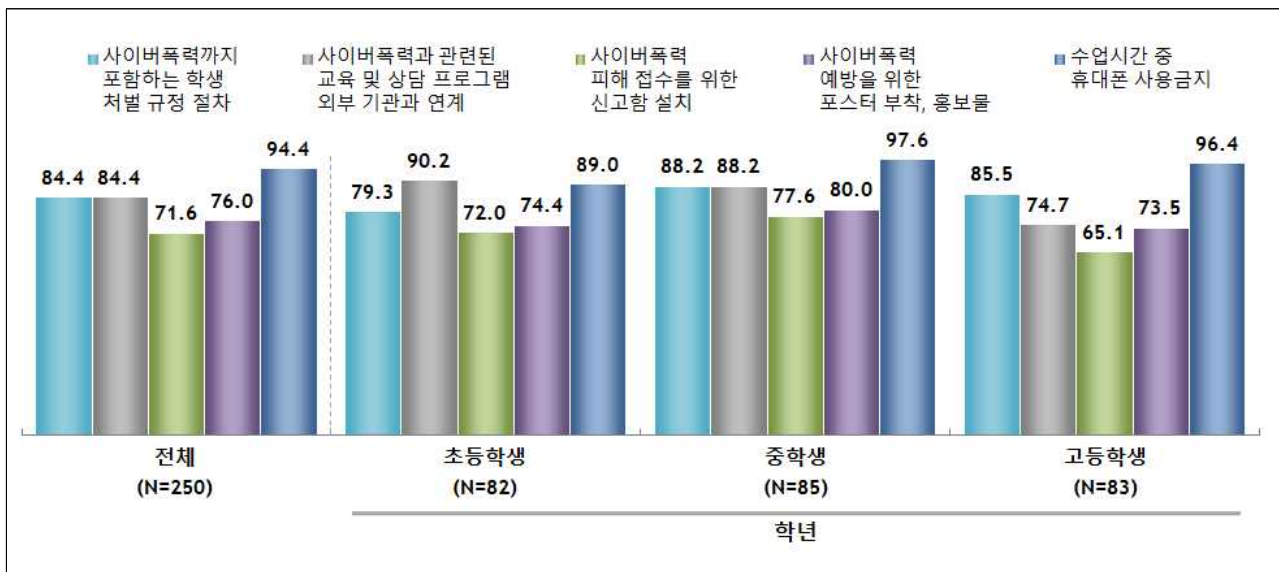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제3절 교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

- 교사들 68.8% 이상이 교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정책이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규정 절차'(84.4%),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 연계'(84.4%),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홍보물'(76.0%), '사이버폭력 피해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71.6%) 순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조사되었다.
- 학년별 교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여부에서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정책은 중학교(97.6%)와 고등학교(96.4%)가 초등학교(89.0%)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 연계'가 90.2%로 중학교(88.2%)와 고등학교(72.7%)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4] 교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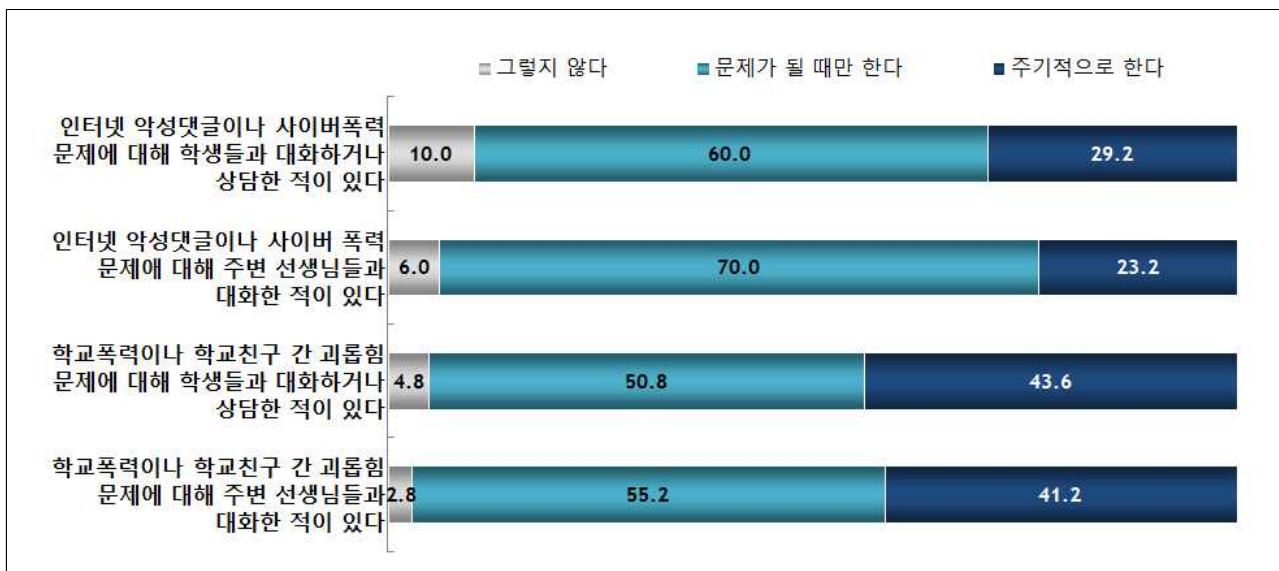


제4절 온·오프라인 폭력 대응경험

1. 일반적 현황

- 온·오프라인 상의 폭력과 관련된 대응경험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문제가 될 때만' 또는 '주기적으로' 학생이나 동료 교사와 대화 또는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프라인 상의 폭력대응경험이 온라인 상의 폭력대응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폭력이나 학교친구 간 괴롭힘 문제 관련하여 학생과 '주기적으로' 대화하거나 상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6%로 나타났으며, 주변 선생님들과 대화 또는 상담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로 나타났다. 이외 인터넷 악성댓글이나 사이버폭력 문제로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대화하거나 상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로 낮게 나타났으며, 주변 선생님들과 대화 또는 상담을 하고 있는 비율 역시 23.2%로 낮게 나타났다.
- 반면 인터넷 악성댓글,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될 때만' 주변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비율은 70.0%로 나타났으며, 학생들과 대화 또는 상담한다고 응답한 비율 60.0%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5] 온·오프라인 폭력 대응경험 (N=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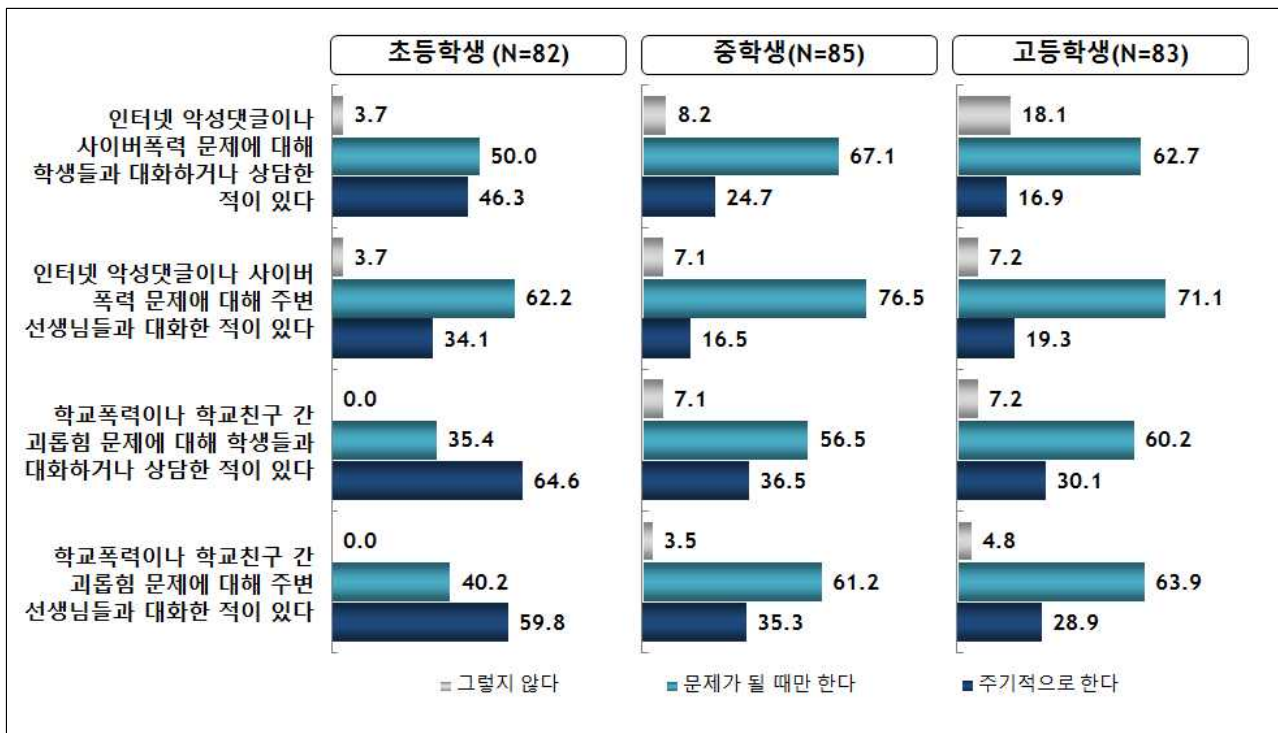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2. 학년별 온·오프라인 폭력 대응경험

-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대화하거나 상담하는 비율은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의 폭력으로 인한 학생들과의 주기적 상담 비율은 초등학생 46.3%, 중학생 24.7%, 고등학생 16.9%순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상의 폭력은 초등학생 64.6%, 중학생 36.5%, 고등학생 30.1% 순으로 조사되었다.
- 대체로 학년이 낮을수록 '주기적으로' 주변 선생님들과 '온라인 상의 폭력'(초 34.1%>고 19.3%>중 16.5%)과 '오프라인 상의 폭력'(초 59.8%>중 35.3%>고 28.9%)에 대하여 대화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6] 학년별 온·오프라인 폭력 대응경험 (N=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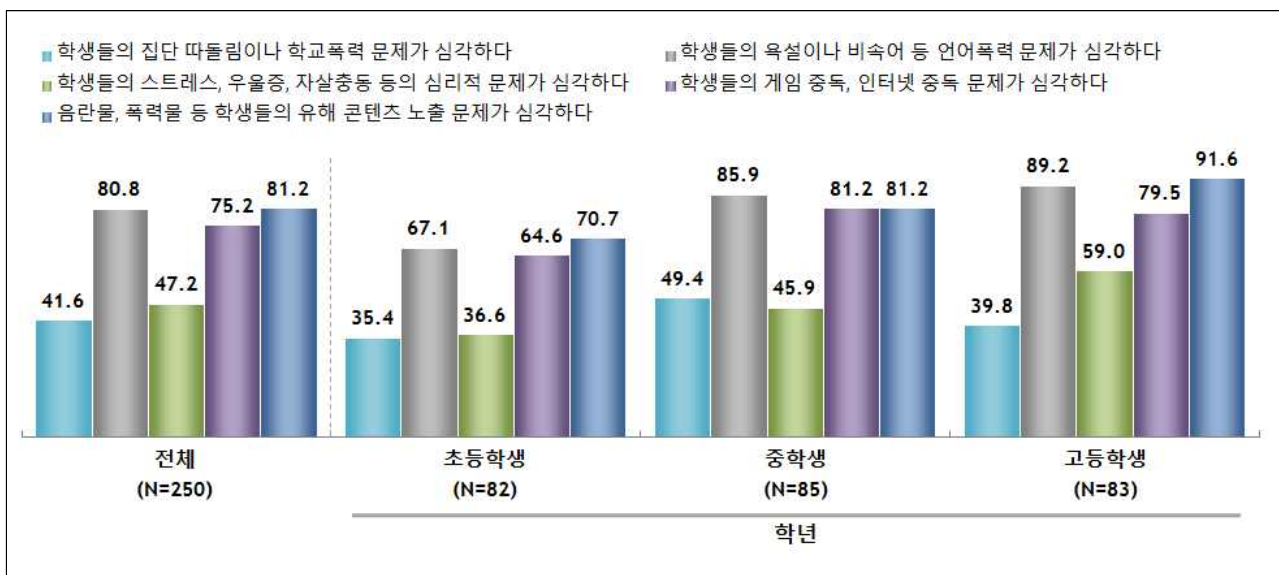


제3장 학생문제 인식 및 대응

제1절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인식

-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에 대하여 교사의 81.2%(그렇다 50.4%+매우 그렇다 30.8%)가 '음란물, 폭력물 등 학생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폭력 문제가 심각하다'(80.8%), '학생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75.2%) 순으로 학생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밖에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의 41.6%(그렇다 35.2%+매우 그렇다 6.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학생문제 대비 교사의 심각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년별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인식에서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들의 학생문제 심각성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란물, 폭력물 등 학생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초 70.7%<중 81.2%<고 91.6%),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폭력 문제가 심각하다'(초 67.1%<중 85.9%<고 89.2%), '학생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초 64.6%<고 79.5%<중 81.2%)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각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1]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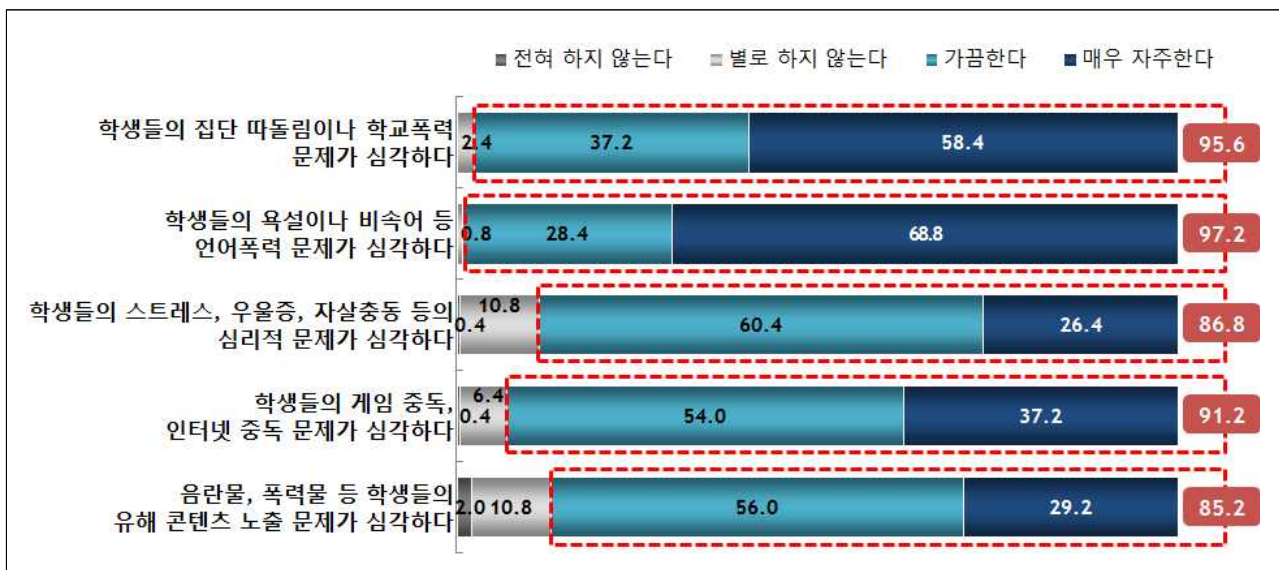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제2절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대응

1. 일반적 현황

-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언어폭력, 심리적 문제, 인터넷 중독문제,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 등 사이버폭력 외의 학생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폭력 문제'에 대해 교사의 66.8%가 매우 자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문제'는 58.4%가 매우 자주 대응 한다고 응답하였다.
-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가끔 한다'가 60.4%, '매우 자주 한다'가 26.4%로 나타났으며,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와 '음란물, 폭력물 등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에 대해서 '가끔 한다' 56.0%, '매우 자주 한다' 29.2%로 조사되었다.

[그림 5-3-2]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대응 (N=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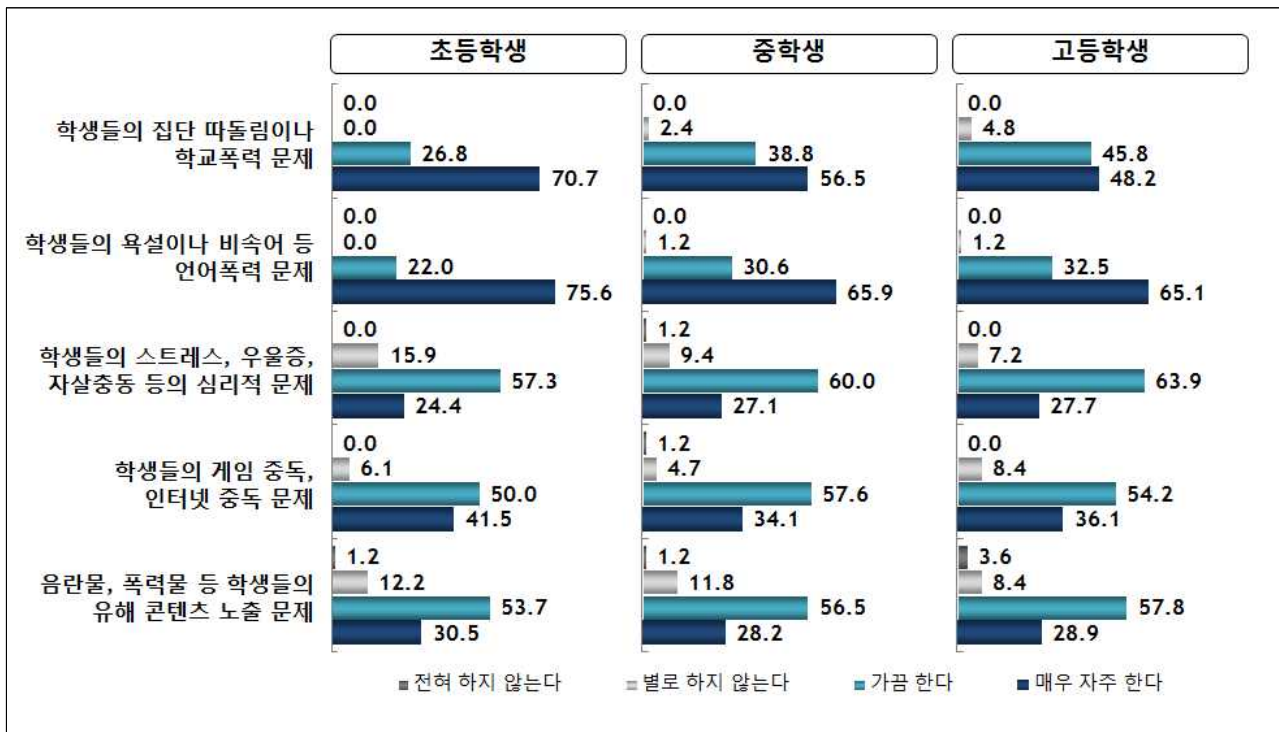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2. 학년별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대응

-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중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사들이 '매우 자주' 대응하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초 70.7% > 중 56.5% > 고 48.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생문제 중에서 '언어폭력 문제'에 대한 교사들이 '매우 자주' 대응하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초 75.6% > 중 65.9% > 고 65.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심리적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가끔' 대응하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초 57.3% < 중 60.0% < 고 6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가끔' 대응하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초 53.7% < 중 56.5% < 고 57.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3-3] 학년에 따른 사이버폭력 외 학생문제 대응 (N=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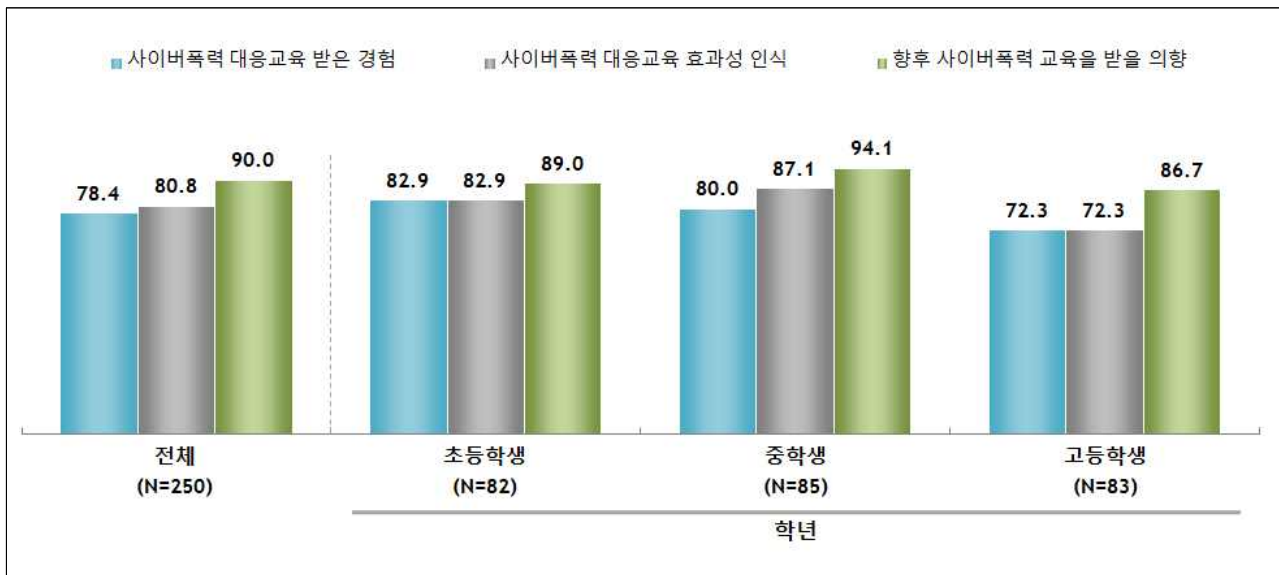


제3절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인식

1. 사이버폭력 대응교육을 받은 경험

- 교사들의 78.4%가 사이버폭력 대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 대응교육을 받은 경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초 82.9% > 중 80.0% > 고 7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들의 80.8%는 사이버폭력 대응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이버폭력 대응교육에 대한 효과성 인식은 중학교(87.1%)가 초등학교(82.9%)와 고등학교(72.3%) 대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들의 90.0%는 향후 사이버폭력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사이버폭력 교육을 받을 의향은 중학교(94.1%)가 초등학교(89.0%)와 고등학교(86.7%) 대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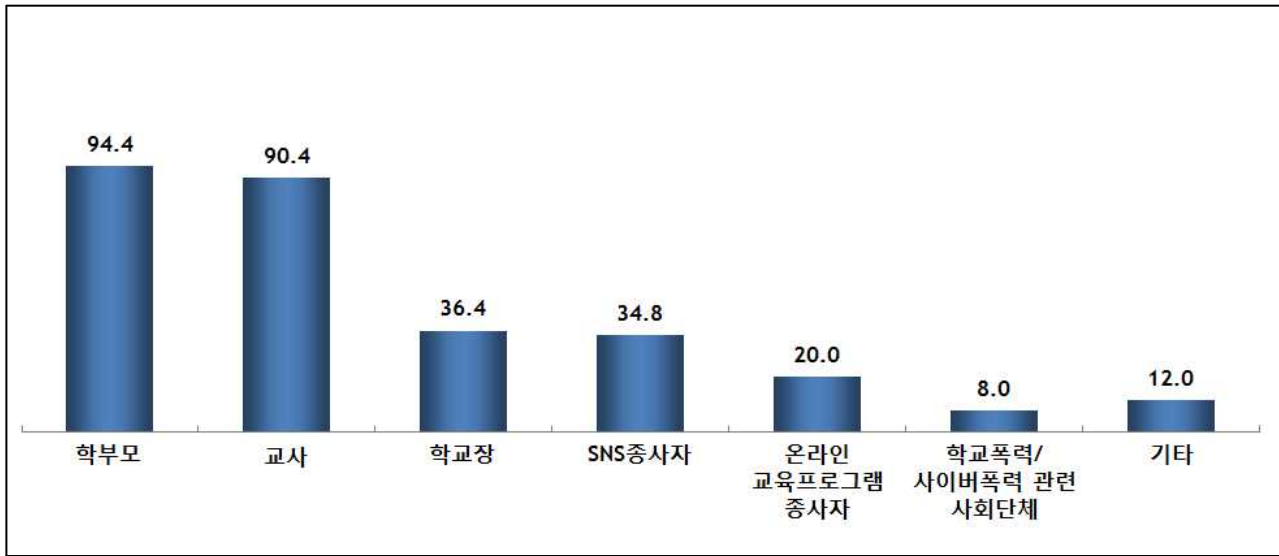
[그림 5-3-4]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경험과 인식 (%)



2.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우선순위

- 교사들은 '학부모'(94.4%), '교사'(90.4%)가 사이버폭력 대응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학교장'(36.4%), 'SNS중사자'(34.8%),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중사자'(20.0%) 순으로 대응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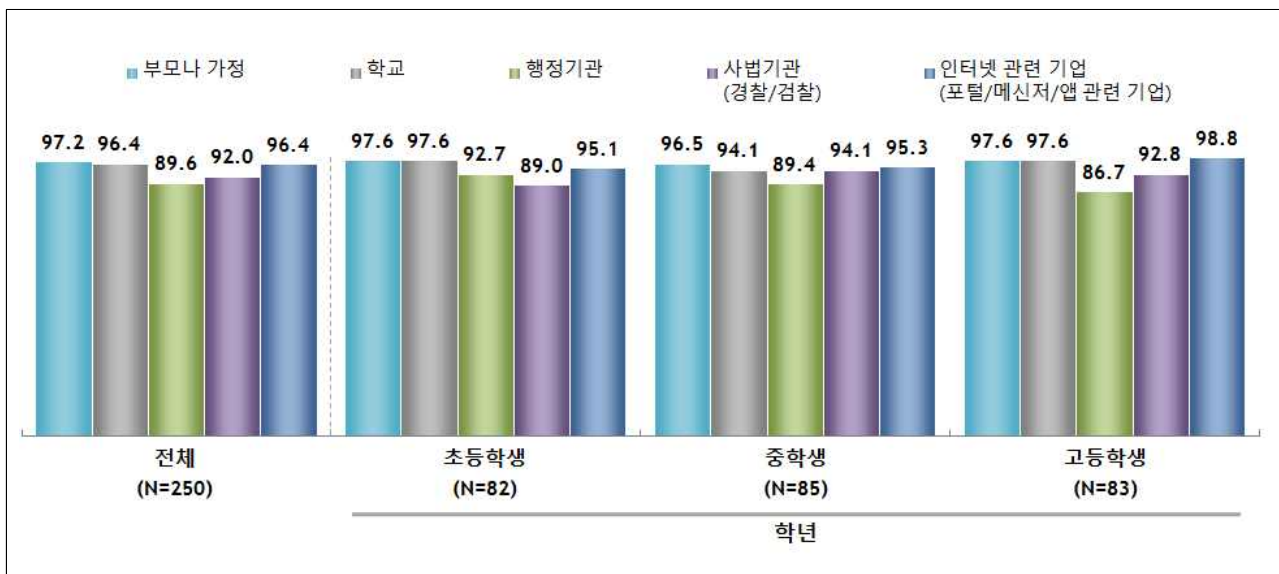
[그림 5-3-5]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우선순위 (1+2+3순위, N=250, %)



3. 사이버폭력 보호기관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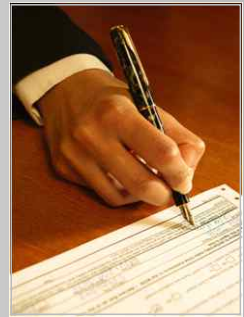
- 교사들은 사이버폭력의 보호기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부모나 가정(97.2%), 학교(96.4%), 인터넷 관련 기업(96.4%), 사법기관(92.0%), 행정기관(89.6%)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교사들은 사이버폭력의 보호기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부모나 가정(97.6%), 학교(97.6%), 인터넷 관련 기업(95.1%), 행정기관(92.7%), 사법기관(89.0%)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학교 교사들은 사이버폭력의 보호기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부모나 가정(96.5%), 인터넷 관련 기업(95.3%), 학교(94.1%), 사법기관(94.1%)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은 사이버폭력의 보호기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인터넷 관련 기업(98.8%), 부모나 가정(97.6%), 학교(97.6%)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6] 사이버폭력 보호기관의 중요성 (%)



제 6편

학부모대상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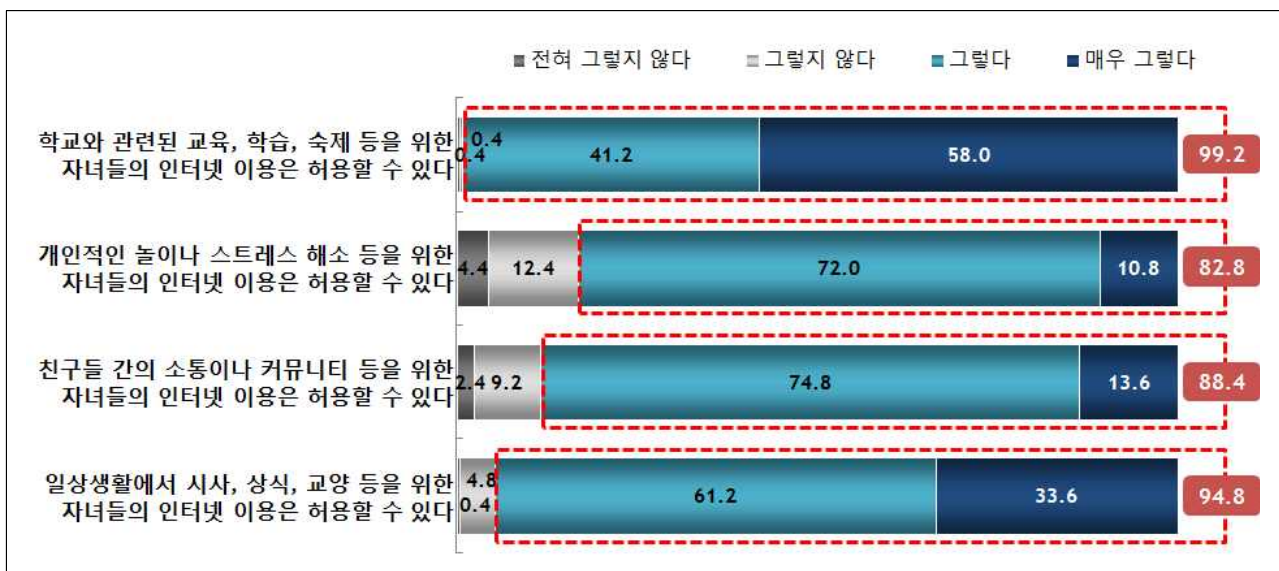
제1장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과 교류 경험

제1절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1. 일반적 현황

-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부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부모 99.2%는 '학교와 관련된 교육, 학습, 숙제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94.8%는 '일상생활에서 시사, 상식, 교양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 밖에 '친구들 간의 소통이나 커뮤니티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88.4%), '개인적인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82.8%)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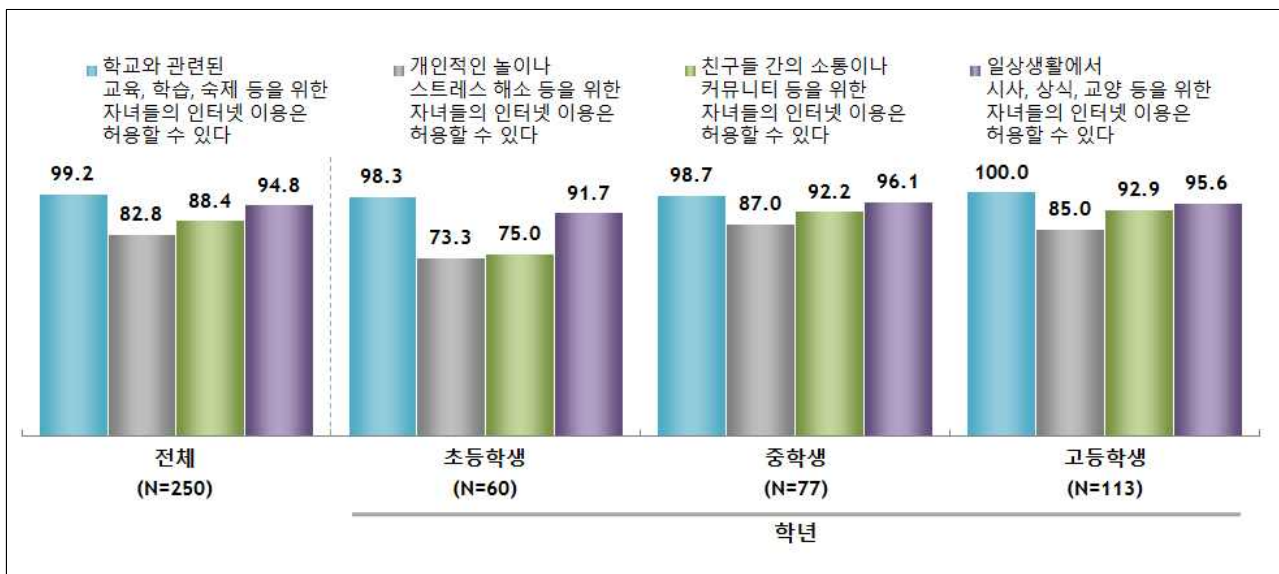
[그림 6-1-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n=250, %)



2. 학년별 자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

- 학년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 인터넷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와 관련된 교육, 학습, 숙제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초 98.3%<중 98.7%<고 100.0%)과 '일상생활에서 시사, 상식, 교양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초 91.7%<중 95.6%<고 96.1%)은 응답은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의 90% 이상이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 밖에 '친구들 간의 소통이나 커뮤니티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초 75.0%<중 92.2%<고 92.9%)과 '개인적인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초 73.3%<중 85.0%<고 87.0%)은 초등학교 학부모 대비 중학교 학부모의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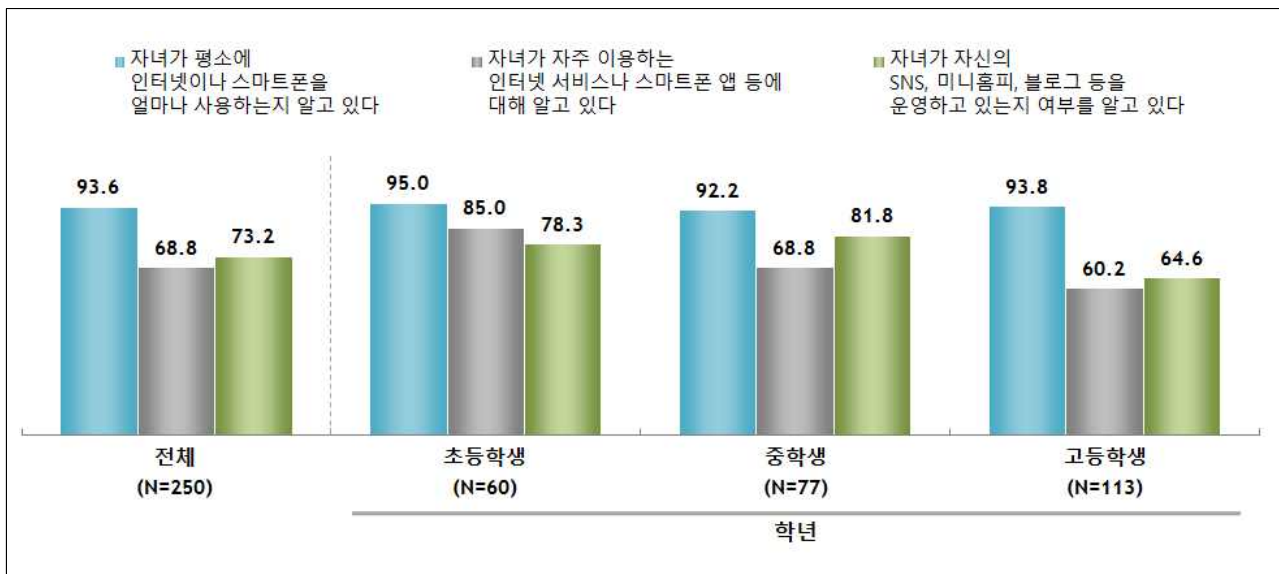
[그림 6-1-2] 학년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



제2절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학부모 93.6%는 '자녀가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밖에 '자녀가 자신의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73.2%), '자녀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68.8%) 순으로 나타났다.
- 학년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는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인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녀가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초 95.0% > 고 93.8% > 중 92.2%)는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모두 90%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초 85.0% > 중 68.8% > 고 60.2%)와 '자녀가 자신의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중 81.8% > 초 78.3% > 고 64.6%)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부모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들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1-3]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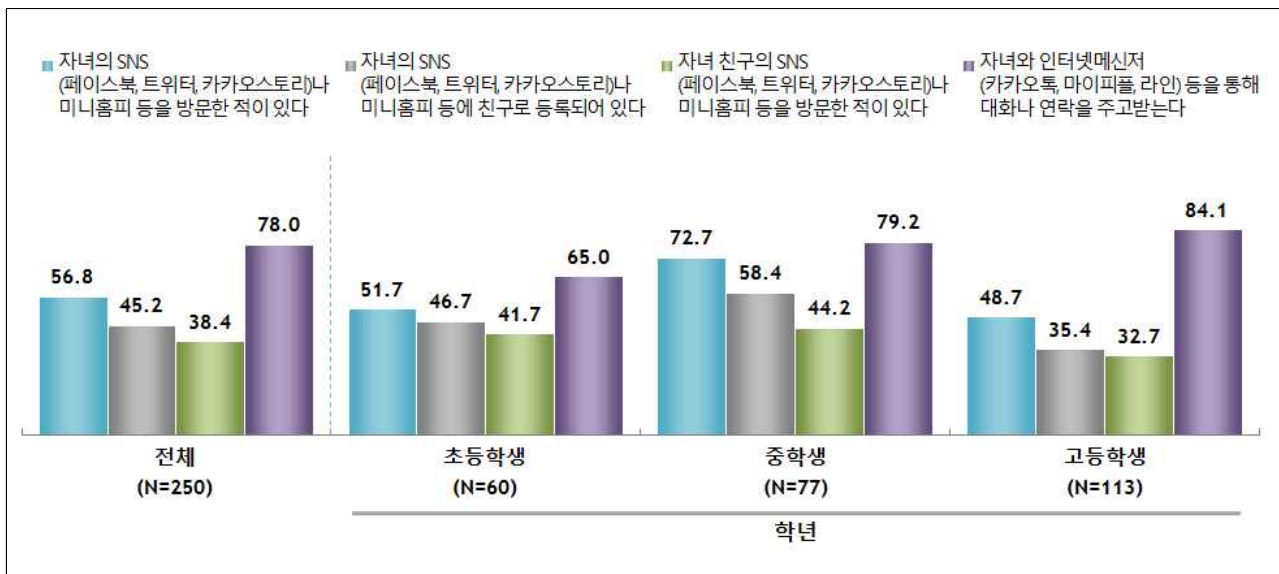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제3절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경험

- 학부모 78.0%는 '자녀와 인터넷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이 밖에도 '자녀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56.8%), '자녀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45.2%), '자녀 친구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38.4%) 순으로 나타났다.
- 학년에 따른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경험과 관련하여 '자녀와 인터넷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 받는' 학부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초 65.0% < 중 79.2% < 고 84.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외 '자녀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와 '자녀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자녀 친구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중학교 학부모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 대비 교류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1-4] 자녀와의 온라인 교류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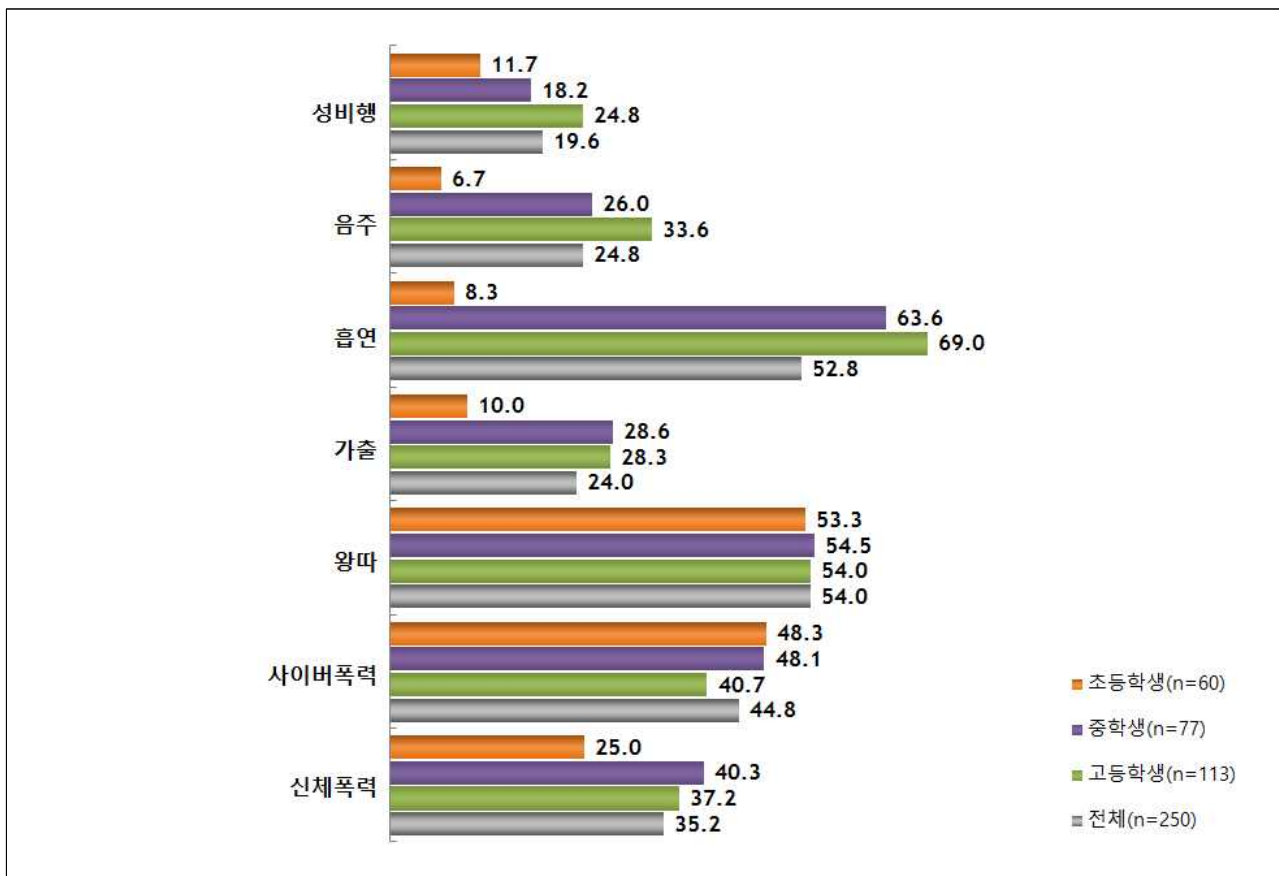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제2장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응

제1절 자녀 학교문제에 대한 관심

-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문제(7종) 중 '왕따(54.0%)'에 대한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52.8%)'에 대한 관심 역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이버폭력'(44.8%), '신체폭력'(35.2%), '음주'(24.8%), '가출'(24.0%), '성비행'(19.6%)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자녀 학교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문제(7종) 중에서 '왕따'(53.3%)와 '사이버폭력'(48.3%)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흡연(중 63.6%, 고 69.0%)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왕따(중 54.5%, 고 54.0%), '사이버폭력'(중 48.1%, 고 40.7%)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 학부모 대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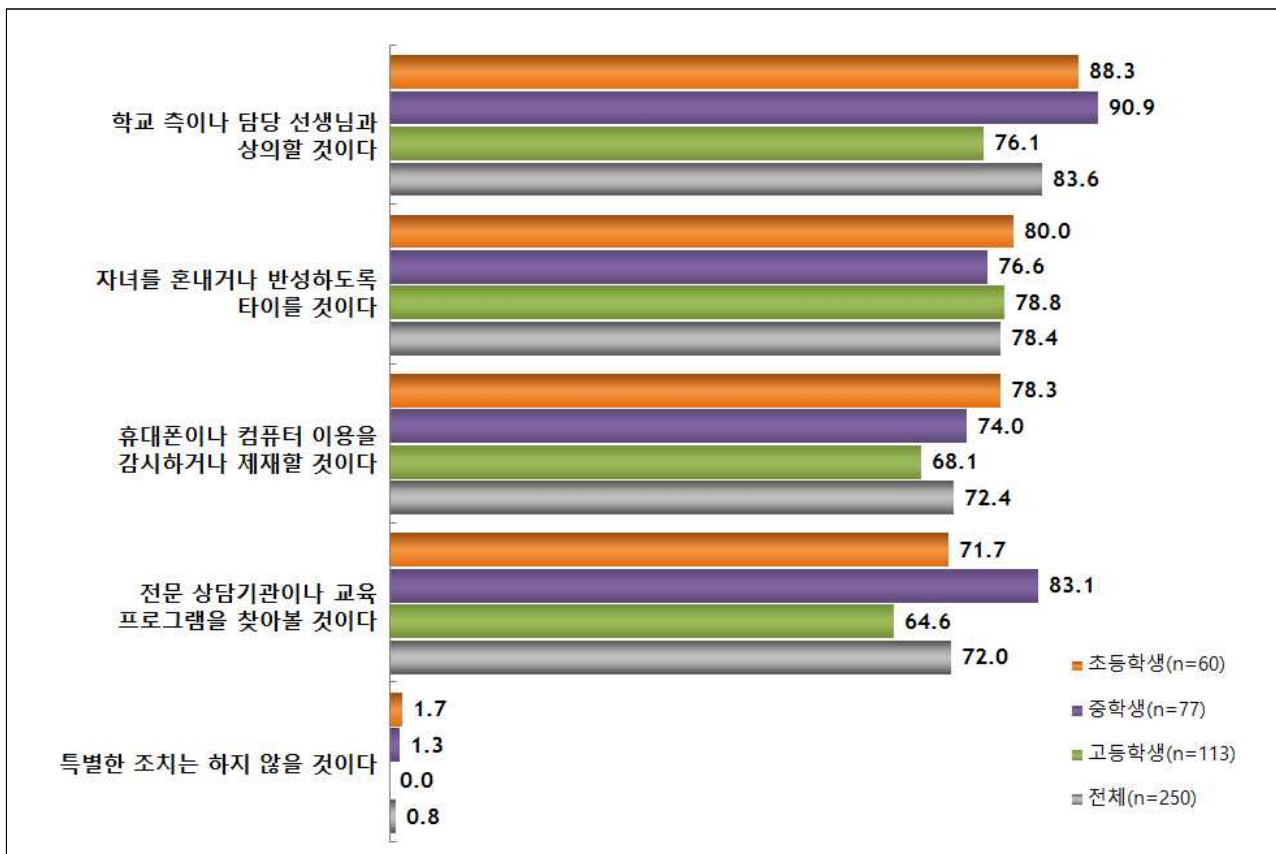
[그림 6-2-1] 자녀 학교문제에 대한 관심 (%)



제2절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

-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시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이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는 방식'(초 88.3%, 중 90.9%)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학부모는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르는 방식'(78.8%)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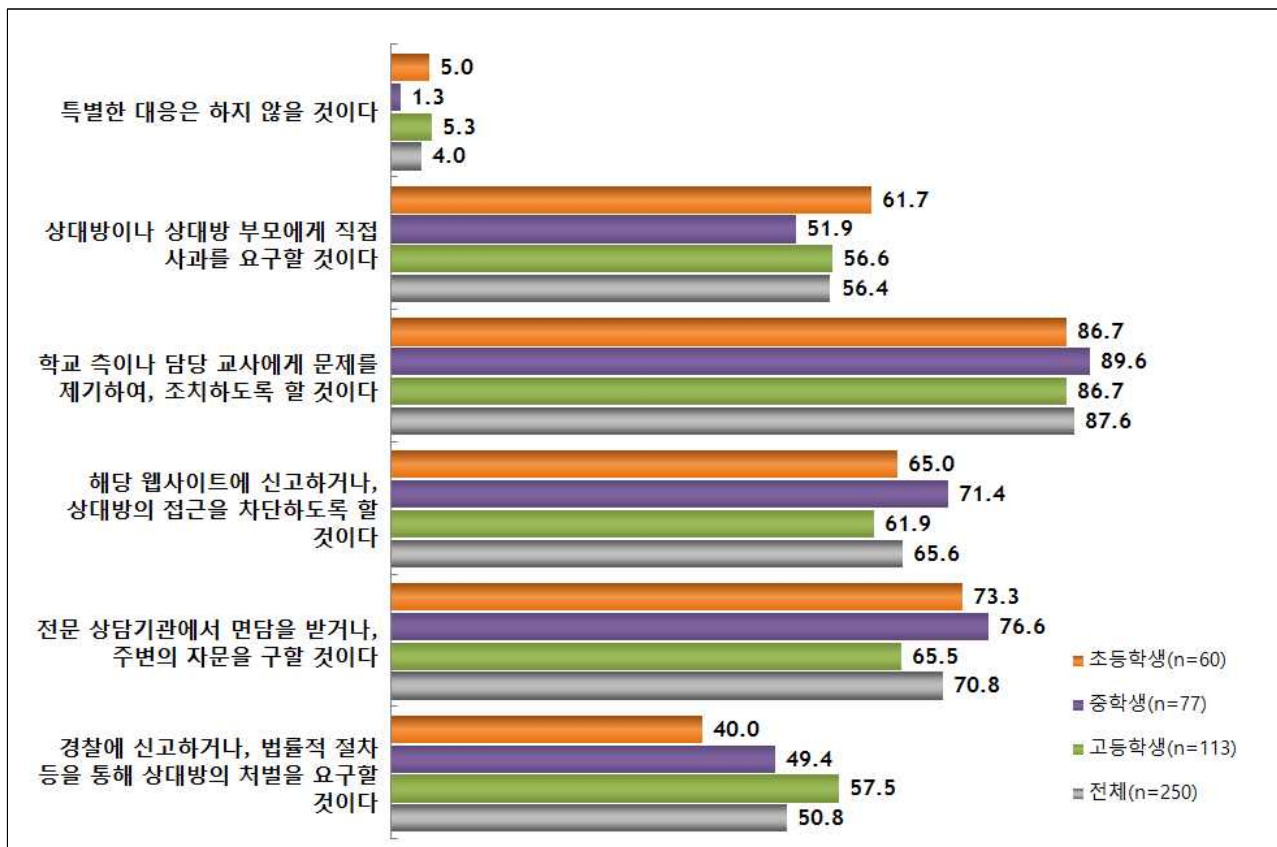
[그림 6-2-2] 자녀 사이버폭력 가해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제3절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 자녀의 사이버폭력 피해시 '학교 측이나 담당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초 86.7%, 중 89.6%, 고 86.7%)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2-3] 자녀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조치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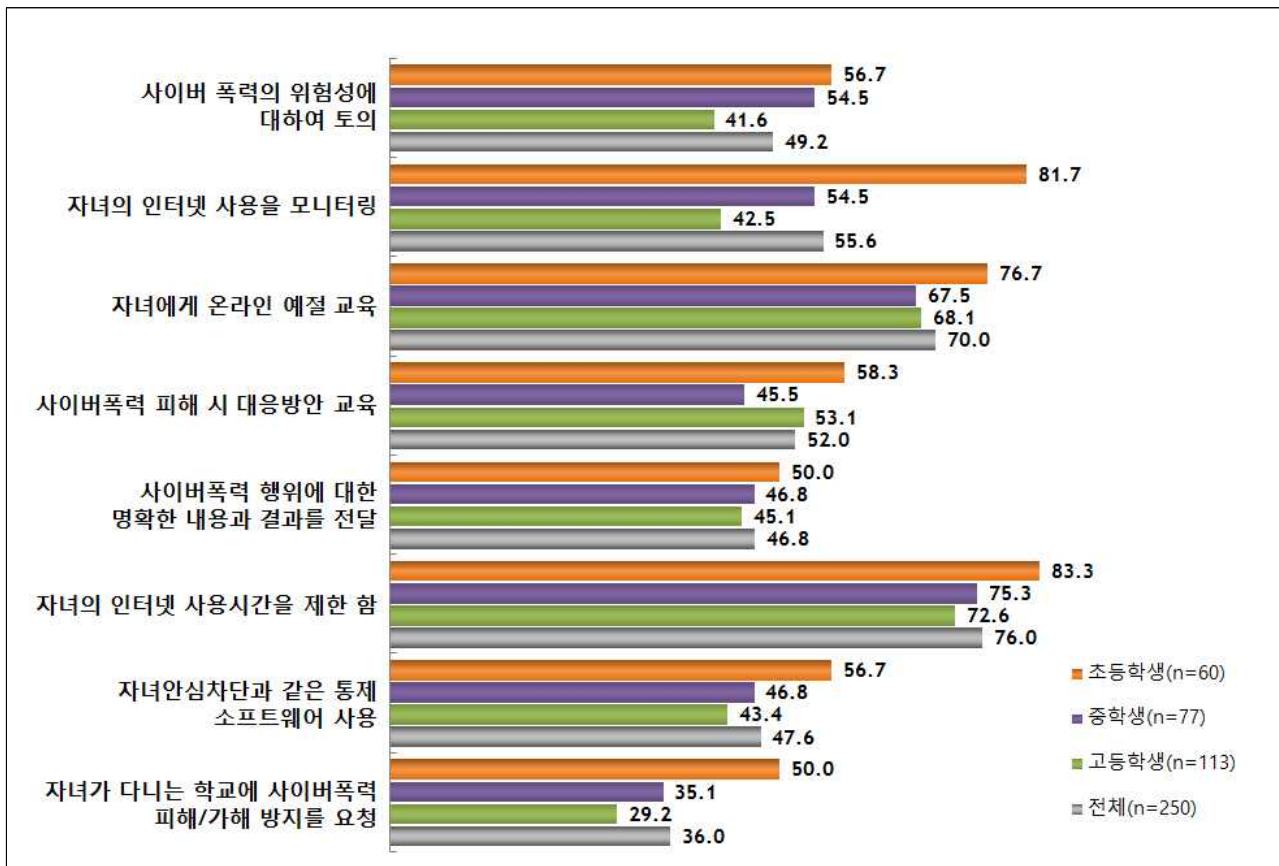


제4절 부모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유형)

1. 예방대책의 유형

- 학부모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을 한다'(70.0%),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55.6%), '사이버폭력 피해시 대응방안 교육'(52.0%),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토의'(49.2%) 등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폭력 유형별로 예방대책에 있어서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의 이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 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학부모(83.3%), 중학교 학부모(75.3%), 고등학교 학부모(72.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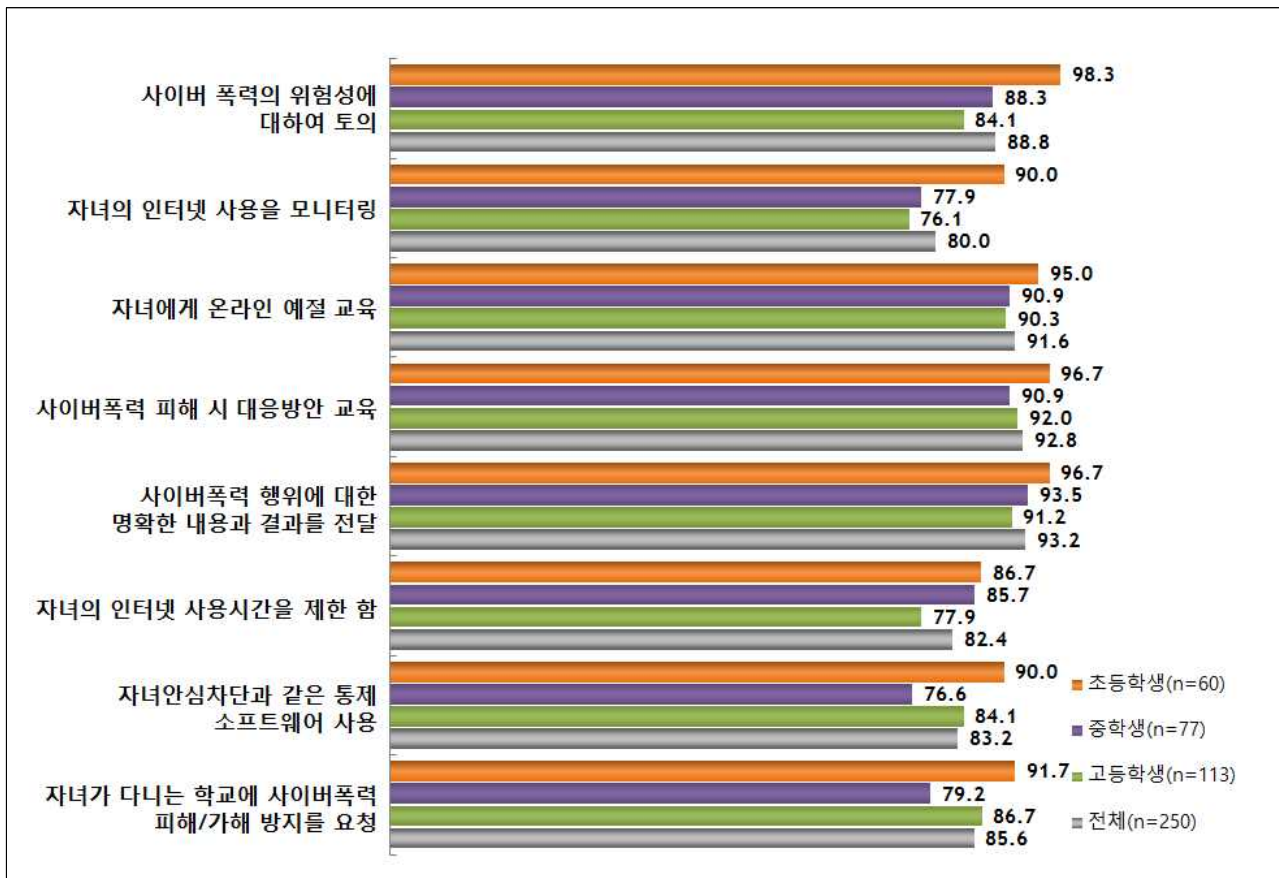
[그림 6-2-4] 부모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책 (%)



2.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의 효과성

- 학부모 93.2%는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결과를 전달'이 자녀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이 밖에도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92.8%),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91.6%),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토의'(88.8%) 등으로 나타났다.
- 모든 유형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에 있어서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의 효과성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토의'(98.3%)를, 중학교 학부모들은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결과를 전달'(93.5%)을,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92.0%)을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6-2-5] 자녀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의 효과성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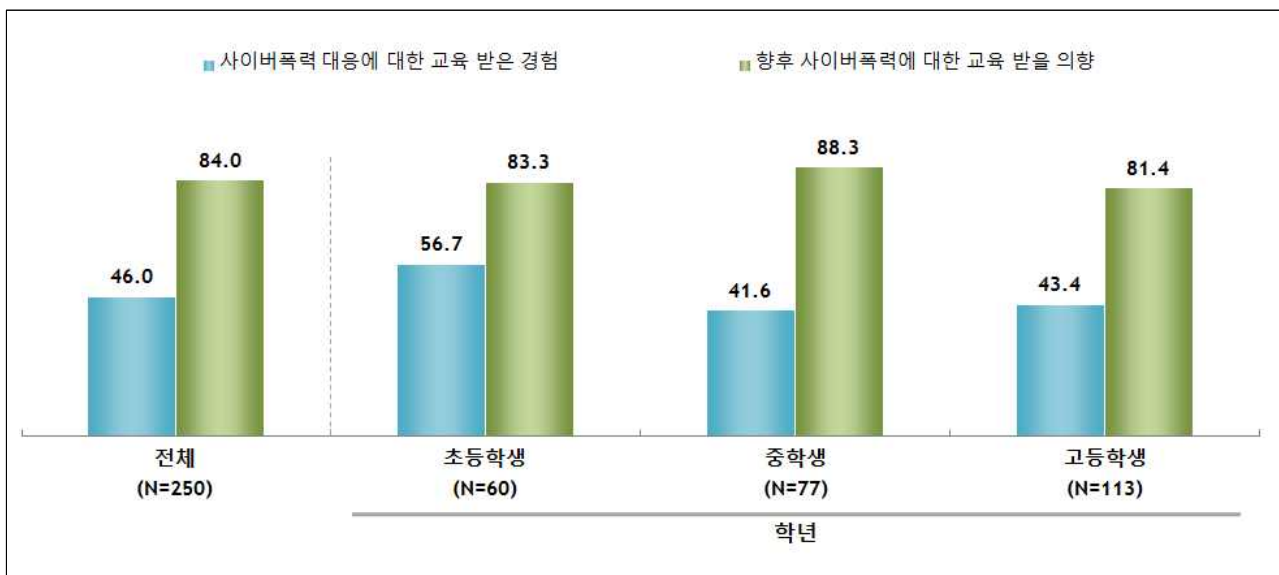


제3장 사이버폭력 대응 교육

제1절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경험 및 필요

- 학부모의 46.0%가 사이버폭력 대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 대응교육을 받은 경험은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학교·고등학교 학부모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부모 84.0%는 향후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학교 학부모(88.3%)가 초등학교 학부모(83.3%)와 고등학교 학부모(81.4%) 대비 향후 사이버폭력 교육을 받을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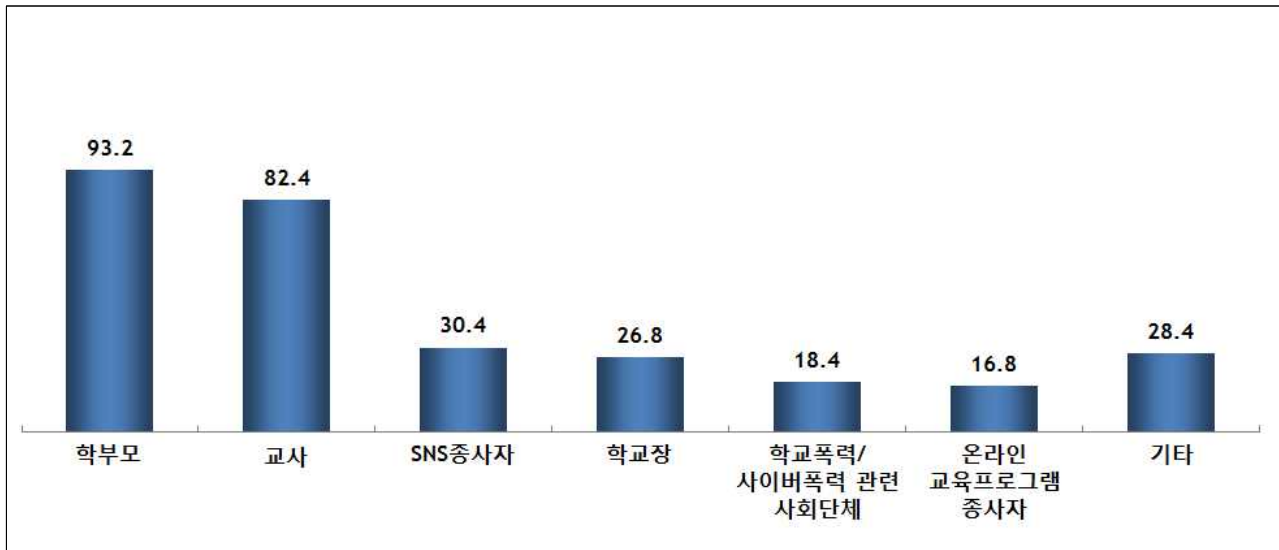
[그림 6-3-1]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경험 및 필요 (%)



제2절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우선(대상)

- 사이버폭력 대응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93.2%), 교사(82.4%)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SNS 종사자(30.4%), 학교장(26.8%),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18.4%),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종사자(16.8%)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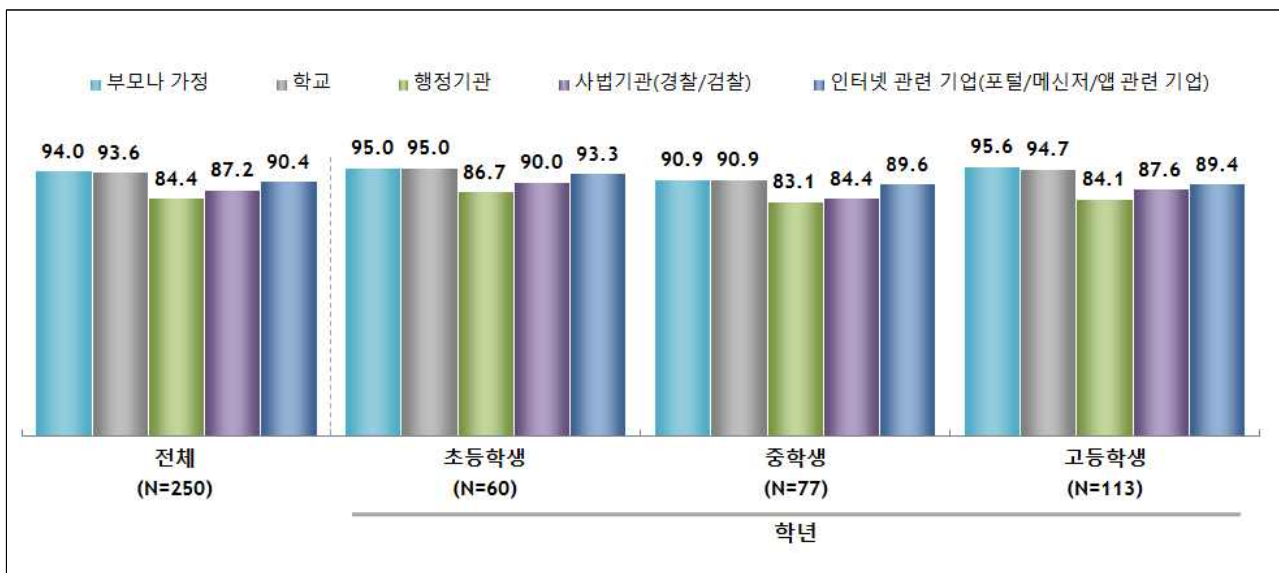
[그림 6-3-2] 사이버폭력 대응교육 우선순위 (1+2+3순위, n=250, %)



제3절 사이버폭력 보호기관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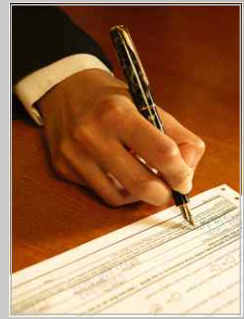
- 학부모들은 사이버폭력의 보호기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부모나 가정(94.0%), 학교(93.6%), 인터넷 관련기업(90.4%), 사법기관(87.2%), 행정기관(84.4%)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학부모는 부모나 가정(95.0%)과 학교(95.0%)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관련 기업(93.3%), 사법기관(90.0%), 행정기관(86.7%) 순으로 나타났다.
- 중학교 학부모는 부모나 가정(90.9%)과 학교(90.9%)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관련 기업(89.6%), 사법기관(84.4%), 행정기관(83.1%) 순으로 조사되었다.
- 고등학교 학부모는 부모나 가정(95.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94.7%)에 대한 중요성 역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터넷 관련 기업(89.4%), 사법기관(87.6%), 행정기관(84.1%)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3] 사이버폭력 보호기관의 중요성 (%)



[부록 1]

설문지



ID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기관 : (주)서울마케팅리서치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생용)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조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폭력을 파악하여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통계처리용으로만 이용됩니다. 또한 답변 내용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문의 : (주)서울마케팅리서치 우경애 과장 (☎ 02-6944-7543)

< 응답방법 >

- ※ 질문을 읽은 후 내 생각이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 또는 □칸에 ✓로 표시해 주세요.
-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세요.

응답자 사항

성별	☐ 1) 남 ☐ 2) 여	
학교지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학년	☐ 1) 초등학생	☐ 1) 4학년 ☐ 2) 5학년 ☐ 3) 6학년
	☐ 2) 중학생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3) 고등학생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다음 페이지로 넘겨, 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인터넷 이용

'인터넷 이용'이란?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의 기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부하기, 기사 검색하기, 카카오톡하기, 동영상보기, TV보기, 음악듣기, 게임하기 등)

문1번. 학생은 평상시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이용하나요?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평일	PC, 노트북 등을 사용한 인터넷 이용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시간
	하루 평균 ()시간 ()분	하루 평균 ()시간 ()분

주말/공휴일	PC, 노트북 등을 사용한 인터넷 이용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시간
	하루 평균 ()시간 ()분	하루 평균 ()시간 ()분

문2번. 학생은 평상시에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해 **PC, 노트북 등을 사용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

아래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거의 사용안함	하루 30분 미만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 이상
1) 교육·학습 사이트 이용 및 학습 정보검색	1□	2□	3□	4□
2) 동영상, 음악, 영화 등의 이용	1□	2□	3□	4□
3) 온라인 게임 이용	1□	2□	3□	4□
4)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1□	2□	3□	4□
5) 채팅,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1□	2□	3□	4□
6)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1□	2□	3□	4□

문3번. 학생은 평상시에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시간이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

아래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거의 사용안함	하루 30분 미만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 이상
1) 교육·학습 사이트 이용 및 학습 정보검색	1□	2□	3□	4□
2) 동영상, 음악, 영화, 쇼핑 등의 이용	1□	2□	3□	4□
3) 스마트폰 게임 이용	1□	2□	3□	4□
4)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1□	2□	3□	4□
5) 채팅,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1□	2□	3□	4□
6)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1□	2□	3□	4□

문4번. 학생은 평상시에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나요?

아래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사용해 본 적 없음	거의 사용하지 않음	어느 정도 사용	매우 자주 사용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1□	2□	3□	4□
2)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1□	2□	3□	4□
3)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리 등)	1□	2□	3□	4□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1□	2□	3□	4□
5) 이메일, 문자메시지	1□	2□	3□	4□
6) 온라인 게임	1□	2□	3□	4□

문5번.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행동이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인터넷에서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거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린 적이 있다.	1□
2)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욕설이나 비난하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	2□
3) 인터넷에서 작성한 글이나 직접 올린 사진, 동영상 등으로 인하여 ID정지, 강제탈퇴 등의 기술적 차단 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3□
4)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칭찬이나 격려, 위로하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	4□
5) 학교에서 올바른 인터넷 댓글 달기,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5□
6)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	6□
7) 위와 같은 행동이나 경험을 한 적이 없다.	7□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문6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나는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	1 ☐	 아래 문7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2 ☐	
3) 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사이버 스토킹)	3 ☐	
4) 나는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	4 ☐	
5) 나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신상정보 유출)	5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 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사이버 따돌림)	6 ☐	 6쪽의 문13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7)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7 ☐	

문7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누구에게 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1 ☐
2)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2 ☐
3)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3 ☐
4)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4 ☐
5)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5 ☐
6) 특정 기업이나 업체, 정부기관 등	6 ☐

문8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했나요, 아니면 혼자 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과 함께 했다.	1 ☐
2) 혼자서 했다.	2 ☐

문9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내가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아무도 모른다.	1 ☐
2) 나에게 당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2 ☐
3) 친구들은 알고 있다.	3 ☐
4) 가족이나 선생님은 알고 있다.	4 ☐

문10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1 ☐
2)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2 ☐
3)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등)	3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4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5 ☐
6) 온라인 게임	6 ☐
7) 기 타	7 ☐

문11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 ☐
2)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2 ☐
3)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3 ☐
4)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4 ☐
5)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5 ☐
6)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6 ☐

문12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한 후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1□	2□	3□	4□
2)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	1□	2□	3□	4□
3)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1□	2□	3□	4□
4)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1□	2□	3□	4□
5)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1□	2□	3□	4□

문13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나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린 적이 있다. (이미지 불링)	1□
2) 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극하여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그 사람이 문제있음을 드러나도록 한 적이 있다. (플레밍)	2□
3) 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킨 적이 있다. (사이버 명령)	3□
4) 나는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한 적이 있다. (안티카페)	4□
5)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5□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문14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	1 ☐	 아래 문15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2 ☐	
3)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사이버 스토킹)	3 ☐	
4)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	4 ☐	
5) 누군가 인터넷 공간에서 나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신상정보 유출)	5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사이버 따돌림)	6 ☐	
7) 위와 같은 행동을 당한 적이 없다.	7 ☐	 9쪽의 문22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15번. 위와 같은 피해를 누구로부터 당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1 ☐
2)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2 ☐
3)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배나 후배	3 ☐
4)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4 ☐

문16번. 위와 같은 피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주었나요, 아니면 한사람이 주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1 ☐
2) 한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2 ☐

문17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아무도 모른다.	1 ☐
2) 내 친구들은 알고 있다.	2 ☐
3) 가족이나 선생님은 알고 있다.	3 ☐

문18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다음 중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당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1 ☐
2)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2 ☐
3)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등)	3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4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5 ☐
6) 온라인 게임	6 ☐
7) 기 타	7 ☐

문19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하였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1 ☐	 9쪽의 문21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2 ☐	
3)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3 ☐	
4)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	4 ☐	
5) 상담 및 신고센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 하였다.	5 ☐	
6)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6 ☐	 9쪽의 문20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20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1 ☐
2)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2 ☐
3)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몰라서	3 ☐
4)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4 ☐
5) 가해학생이나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봐	5 ☐
6) 가해학생이나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6 ☐
7)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7 ☐

문21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아래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를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1 ☐	2 ☐	3 ☐	4 ☐
2)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학교에 가기 싫었다.	1 ☐	2 ☐	3 ☐	4 ☐
3) 자살/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 ☐	2 ☐	3 ☐	4 ☐
4) 우울 · 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1 ☐	2 ☐	3 ☐	4 ☐
5)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1 ☐	2 ☐	3 ☐	4 ☐
6)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	1 ☐	2 ☐	3 ☐	4 ☐

문22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누군가 나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린 적이 있다. (이미지 불링)	1 ☐	
2)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하여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그 사람이 문제있음을 드러나도록 한 적이 있다. (플레밍)	2 ☐	
3) 누군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킨 적이 있다. (사이버 명령)	3 ☐	
4) 누군가 나를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한 적이 있다. (안티카페)	4 ☐	
5)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	5 ☐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

문23번. 최근 1년 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나 주변사람이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본 적이 있다.	1 ☐	 <u>아래 문24번으로</u>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본 적이 없다.	2 ☐	 <u>11쪽의 문26번으로</u>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24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1 ☐	 <u>11쪽의 문26번으로</u>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렸다.	2 ☐	
3) 피해 당한 사람을 위로하였다.	3 ☐	
4) 상담 및 신고센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4 ☐	
5)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5 ☐	 <u>아래 문25번으로</u>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25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나도 피해자가 될까 봐	1 ☐
2)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 ☐
3)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몰라서	3 ☐
4)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4 ☐
5)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5 ☐
6)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6 ☐
7)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7 ☐

문26번.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래 2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안다 (☒)	모른다 (☒)
1)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사이트를 알고 있다.	1 ☐	2 ☐
2)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 ☐	2 ☐

문27번.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한다.	1 ☐	2 ☐	3 ☐	4 ☐
2) 나는 학교 공부 때문에 힘들 때가 많다.	1 ☐	2 ☐	3 ☐	4 ☐
3) 나는 가끔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가 있다.	1 ☐	2 ☐	3 ☐	4 ☐
4)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하는 편이다.	1 ☐	2 ☐	3 ☐	4 ☐
5) 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을 받는 편이다.	1 ☐	2 ☐	3 ☐	4 ☐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나는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7) 나는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는 편이다.	1□	2□	3□	4□
9) 나는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편이다.	1□	2□	3□	4□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주변 일들(사회문제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1□	2□	3□	4□
11) 나는 인터넷이나 TV시청 외에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	1□	2□	3□	4□
12) 나는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즐기는 편이다.	1□	2□	3□	4□
13) 나는 평상시 사이버폭력을 당할지 몰라 고민하는 편이다.	1□	2□	3□	4□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기관 : (주)서울마케팅리서치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일반성인용)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응답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질문에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문의 : (주)서울마케팅리서치 우경애 과장 (☎ 02-6944-7543)

응답자 사항

성별	☐ 1) 남 ☐ 2) 여
연령	만_____세
거주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학력	☐ 1) 중졸이하 ☐ 2) 고졸 ☐ 3) 대학 재학/졸업 ☐ 4) 대학원 재학/졸업
직업	☐ 1) 전문/관리직 ☐ 2) 사무직 ☐ 3) 서비스/판매직 ☐ 4) 생산관리직 ☐ 5) 학생 ☐ 6) 전업주부 ☐ 7) 무직 ☐ 8) 기타(_____))
월평균 가구 소득	☐ 1) 100만원 미만 ☐ 2) 100~200만원 미만 ☐ 3) 200~300만원 미만 ☐ 4) 300~400만원 미만 ☐ 5) 400~500만원 미만 ☐ 6) 500~600만원 미만 ☐ 7) 600~700만원 미만 ☐ 8) 700~800만원 미만 ☐ 9) 800~900만원 미만 ☐ 10) 900~1,000만원 미만 ☐ 11) 1,000만원 이상

인터넷 이용

여기서 '인터넷 이용'은 개인용 컴퓨터(PC)뿐만 아니라,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인터넷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1번.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평일	인터넷	스마트폰
	하루 평균 ()시간 ()분	하루 평균 ()시간 ()분
주말/공휴일	인터넷	스마트폰
	하루 평균 ()시간 ()분	하루 평균 ()시간 ()분

문2번.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다음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아래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거의 사용안함	하루 30분 미만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 이상
1) 교육·학습 사이트 이용 및 학습 정보검색	1□	2□	3□	4□
2) 동영상, 음악, 영화 등의 이용	1□	2□	3□	4□
3) 온라인 게임 이용	1□	2□	3□	4□
4)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1□	2□	3□	4□
5) 채팅,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1□	2□	3□	4□
6)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1□	2□	3□	4□

문3번.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

아래 6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거의 사용안함	하루 30분 미만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 이상
1) 교육·학습 사이트 이용 및 학습 정보검색	1□	2□	3□	4□
2) 동영상, 음악, 영화 등의 이용	1□	2□	3□	4□
3) 스마트폰 게임 이용	1□	2□	3□	4□
4) 뉴스 보기, 신문기사 검색	1□	2□	3□	4□
5) 채팅, 메신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1□	2□	3□	4□
6) 온라인 쇼핑, 물품거래 등 이용	1□	2□	3□	4□

문4번.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다음 각각의 인터넷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내 용	사용해 본 적 없음	거의 사용하지 않음	어느 정도 사용	매우 자주 사용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	☐	☐
2)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	☐	☐	☐
3)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등)	☐	☐	☐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	☐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	☐	☐	☐
6) 온라인 게임	☐	☐	☐	☐

문5번. 최근 1년간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인터넷에서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거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린 적이 있다.	1 ☐
2)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욕설이나 비난하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	2 ☐
3) 인터넷에서 작성한 글이나 직접 올린 사진, 동영상 등으로 인하여 ID정지, 강제탈퇴 등의 기술적 차단 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3 ☐
4)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칭찬이나 격려, 위로하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	4 ☐
5) 학교에서 올바른 인터넷 댓글 달기,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5 ☐
6)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악성댓글과 같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	6 ☐
7) 위와 같은 행동이나 경험을 한 적이 없다.	7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문6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나는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	1 ☐	 아래 문7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나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2 ☐	
3) 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사이버 스토킹)	3 ☐	
4) 나는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	4 ☐	
5) 나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신상정보 유출)	5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 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사이버 따돌림)	6 ☐	
7)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7 ☐	 6쪽의 문13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7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친구/선후배(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
2)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
3)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	☐
4) 특정 기업이나 업체, 정부기관 등	☐
5)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문8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혼자 했습니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사람들과 함께 했다.	☐
2) 혼자서 했다.	☐

문9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내가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아무도 모른다.	☐
2) 나에게 당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을 알고 있다.	☐
3) 친구/지인들은 알고 있다.	☐
4) 가족은 알고 있다.	☐

문10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2)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
3)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등)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
6) 온라인 게임	☐
7) 기 타	☐

문11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
2) 주변에서 함께 하므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
3)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	☐
4) 상대방이 싫어서,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
5)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	☐
6)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

문12번. 위에서 응답한 행동을 한 후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	☐	☐	☐
2)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	☐	☐	☐	☐
3)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	☐	☐	☐
4)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	☐	☐	☐
5)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	☐	☐	☐

문13-1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나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린 적이 있다. (이미지 불링)	1 ☐
2) 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극하여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그 사람이 문제있음을 드러나도록 한 적이 있다. (플레밍)	2 ☐
3) 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킨 적이 있다. (사이버 명령)	3 ☐
4) 나는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한 적이 있다. (안티카페)	4 ☐
5)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5 ☐

문13-2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어느 정도 하였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그런 적 없음	한두번	여러번
1) 나는 소셜 미디어에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1 ☐	2 ☐	3 ☐
2)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올린 것을 보고 나도 '공감'을 누르거나 우스운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다.	1 ☐	2 ☐	3 ☐
3) 나는 다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동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한 적이 있다.	1 ☐	2 ☐	3 ☐
4) 나는 다른 사람을 놀릴 목적으로 온라인 프로필을 허위로 만든 적이 있다.	1 ☐	2 ☐	3 ☐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하여 문자로 위협한 적이 있다.	1 ☐	2 ☐	3 ☐
6)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 ☐	2 ☐	3 ☐
7) 나는 잔인하고 거부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1 ☐	2 ☐	3 ☐
8) 나는 나의 주변 사람이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멈추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 ☐	2 ☐	3 ☐
9) 나는 지인을 꼬드겨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잔인한 말을 하도록 한 적이 있다.	1 ☐	2 ☐	3 ☐
10) 나는 사이버폭력 때문에 생활에 곤경에 처하거나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1 ☐	2 ☐	3 ☐
1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문자같은 것을 보낸 적이 있다.	1 ☐	2 ☐	3 ☐
12) 나는 다른 사람을 놀리는 웹페이지에 가담한 적이 있다.	1 ☐	2 ☐	3 ☐
13) 나는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올린 적이 있다.	1 ☐	2 ☐	3 ☐
14)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화를 낸 적이 있다.	1 ☐	2 ☐	3 ☐
15) 소셜 미디어 글에 잔인하고, 비열하고, 모욕적인 해시태그를 단 적이 있다.	1 ☐	2 ☐	3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문14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	1 ☐	 아래 문15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나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 적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2 ☐	
3)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 (사이버 스토킹)	3 ☐	
4)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	4 ☐	
5) 누군가 인터넷 공간에서 나의 신상 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린 적이 있다. (신상정보 유출)	5 ☐	
6)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사이버 따돌림)	6 ☐	 9쪽의 문22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7) 위와 같은 행동을 당한 적이 없다.	7 ☐	

문15번. 위와 같은 피해를 누구로부터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친구/선후배(학교, 학원, 직장, 동호회 등)	☐
2) 게임이나 채팅,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	☐
3)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고 있을 뿐,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

문16번. 위와 같은 피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주었습니까? 한사람이 주었습니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여러 사람이 함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
2) 한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

문17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아무도 모른다.	☐
2) 내 친구/지인들은 알고 있다.	☐
3) 가족은 알고 있다.	☐
4) 기타()	☐

문18번. 위와 같은 피해를 어떤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채팅, 메신저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	☐
2) 커뮤니티 (카페·클럽 등)	☐
3)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등)	☐
4)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	☐
5) 이메일, 문자메시지	☐
6) 온라인 게임	☐
7) 기 타	☐

문19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하였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1 ☐	 9쪽의 문21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였다.	2 ☐	
3) 친구, 가족, 지인 등 주변에 알렸다.	3 ☐	
4)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였다.	4 ☐	
5) 상담 및 신고센터(117, Wee센터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5 ☐	
6)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6 ☐	 9쪽의 문20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20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주위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 봐	☐
2)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
3)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
4) 가해자나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봐	☐
5) 가해자나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게 미안해서	☐
6)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문21번.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힘들었다.	☐	☐	☐	☐
2) 학교·직장·가사 등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	☐	☐	☐	☐
3) 자살·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	☐	☐
4) 우울·불안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	☐	☐
5)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	☐	☐	☐
6)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	☐	☐	☐	☐

문22-1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누군가 나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린 적이 있다. (이미지 불링)	1 ☐	
9)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하여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그 사람이 문제있음을 드러나도록 한 적이 있다. (플레밍)	2 ☐	
10) 누군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킨 적이 있다. (사이버 명령)	3 ☐	
11) 누군가 나를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한 적이 있다. (안티카페)	4 ☐	

문22-2번. 최근 1년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어느 정도 당하였나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그런 적 없음	한두번	여러번
1) 나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보안 설정은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나의 사진이나 프로필의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	2 ☐	3 ☐
2) 나는 나의 가족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1 ☐	2 ☐	3 ☐
3) 나의 주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본인만 접속할 수 있게 설정하지 않는다.	1 ☐	2 ☐	3 ☐
4) 나의 지인들 중 일부가 나의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혹은 다른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1 ☐	2 ☐	3 ☐
5) 구글에서 나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이 결과에 나왔다.	1 ☐	2 ☐	3 ☐
6) 나는 나의 휴대전화번호를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게시한 적이 있다.	1 ☐	2 ☐	3 ☐
7) 내가 함께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 무언가를 게시한 적이 있다.	1 ☐	2 ☐	3 ☐
8) 다른 사람이나 지인이 내가 온라인에 게시한 무언가에 대해서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1 ☐	2 ☐	3 ☐
9) 나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과 페이스북 친구이다.	1 ☐	2 ☐	3 ☐
10) 나는 나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 나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적이 있다.	1 ☐	2 ☐	3 ☐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

문23번. **최근 1년 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본 적이 있다.	1 ☐	 아래 문24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본 적이 없다.	2 ☐	 11쪽의 문26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24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비 고
1)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그만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였다.	1 ☐	 11쪽의 문26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2) 친구, 선후배 등 주변에 알렸다.	2 ☐	
3) 가족에게 알렸다.	3 ☐	
4) 상담 및 신고센터(117, Wee센터 등)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4 ☐	
5)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5 ☐	 아래 문25번으로 가서 계속 응답해 주세요.

문25번.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나도 피해자가 될까봐	☐
2)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3)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4)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
5) 대응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6)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문26번.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용	안다 (☒)	모른다 (☒)
1)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사이트를 알고 있다.	☐	☐
2) 사이버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

문27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개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한다.	☐	☐	☐	☐
2) 나는 평소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다.	☐	☐	☐	☐
3) 나는 가끔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가 있다.	☐	☐	☐	☐
4) 나는 가족과 대화를 자주하는 편이다.	☐	☐	☐	☐
5) 나는 가족의 사랑과 애정을 받는 편이다.	☐	☐	☐	☐
6) 나는 학교·직장·가사 등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편이다.	☐	☐	☐	☐
7) 나는 친구, 동료 등 주변인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	☐	☐	☐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주변인들을 괴롭히는 편이다.	☐	☐	☐	☐
9) 나는 주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편이다.	☐	☐	☐	☐
10) 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	☐	☐	☐
11) 나는 인터넷이나 TV시청 외에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	☐	☐	☐	☐
12) 나는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즐기는 편이다.	☐	☐	☐	☐
13) 나는 평상시 사이버폭력을 당할지 몰라 고민하는 편이다.	☐	☐	☐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응답방법 >

※ 모든 응답은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이버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미니홈피,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 정보(이름, 거주지, 재학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안티활동을 하는 행위

문1번.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학교와 관련된 교육, 학습, 숙제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	1 ☐	2 ☐	3 ☐	4 ☐
2) 개인적인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	1 ☐	2 ☐	3 ☐	4 ☐
3) 친구들 간의 소통이나 커뮤니티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	1 ☐	2 ☐	3 ☐	4 ☐
4) 일상생활에서 시사, 상식, 교양 등을 위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은 허용할 수 있다.	1 ☐	2 ☐	3 ☐	4 ☐

문2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1) 자녀가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1 ☐	2 ☐
2) 자녀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 ☐	2 ☐
3) 자녀가 자신의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	1 ☐	2 ☐

문3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1) 자녀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	1 ☐	2 ☐
2) 자녀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1 ☐	2 ☐
3) 자녀 친구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	1 ☐	2 ☐
4) 자녀와 인터넷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는다.	1 ☐	2 ☐

문4번. 귀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	알지 못함 (☒)	알고 있음 (☒)	잘 알고 있음 (☒)
1□	2□	3□	4□

문5번. 귀하께서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2□	3□	4□

문6번.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문제 되는 청소년 비행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예 선택 (☒)	아니요 선택 (☒)
1) 성비행(성희롱, 성관계, 신체적 성폭력)	1□	2□
2) 음주	1□	2□
3) 흡연	1□	2□
4) 가출	1□	2□
5) 왕따	1□	2□
6) 사이버폭력	1□	2□
7) 신체폭력	1□	2□

문7번. 귀하의 자녀가 사이버폭력에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까?

모르겠음	없음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자녀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 경우	자녀가 목격자인 경우
1□	2□	3□	4□	5□	6□

문8번. 귀하께서는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해당되는 사항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예 선택 (☒)	아니요 선택 (☒)
1)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1□	2□
2) 상대방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1□	2□
3) 학교 측이나 담당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	1□	2□
4)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다.	1□	2□
5) 전문 상담기관에서 면담을 받거나, 주변의 자문을 구할 것이다.	1□	2□
6)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 등을 통해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1□	2□

문9번. 귀하께서는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행한 사실(가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
입니까?

해당되는 사항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예 선택 (☒)	아니요 선택 (☒)
1)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1□	2□
2) 자녀를 혼내거나 반성하도록 타이를 것이다.	1□	2□
3) 학교 측이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할 것이다.	1□	2□
4)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용을 감시하거나 제재할 것이다.	1□	2□
5) 전문 상담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볼 것이다.	1□	2□

문10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

해당되는 사항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예 선택 (☒)	아니요 선택 (☒)
1)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토의	1 ☐	2 ☐
2)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	1 ☐	2 ☐
3)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	1 ☐	2 ☐
4)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1 ☐	2 ☐
5)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결과를 전달	1 ☐	2 ☐
6)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 함	1 ☐	2 ☐
7) 자녀안심차단과 같은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1 ☐	2 ☐
8)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를 요청	1 ☐	2 ☐

문11번. 귀하께서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가해/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각각의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아래 8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하여 토의	1 ☐	2 ☐	3 ☐	4 ☐
2)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	1 ☐	2 ☐	3 ☐	4 ☐
3) 자녀에게 온라인 예절 교육	1 ☐	2 ☐	3 ☐	4 ☐
4) 사이버폭력 피해 시 대응방안 교육	1 ☐	2 ☐	3 ☐	4 ☐
5)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결과를 전달	1 ☐	2 ☐	3 ☐	4 ☐
6)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 함	1 ☐	2 ☐	3 ☐	4 ☐
7) 자녀안심차단과 같은 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1 ☐	2 ☐	3 ☐	4 ☐
8)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방지를 요청	1 ☐	2 ☐	3 ☐	4 ☐

문17번.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들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다음 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1) 부모나 가정	1 ☐	2 ☐	3 ☐	4 ☐
2) 학교	1 ☐	2 ☐	3 ☐	4 ☐
3) 행정기관	1 ☐	2 ☐	3 ☐	4 ☐
4) 사법기관(경찰/검찰)	1 ☐	2 ☐	3 ☐	4 ☐
5) 인터넷 관련 기업(포털/메신저/앱 관련 기업)	1 ☐	2 ☐	3 ☐	4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ID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기관 : 서울마케팅리서치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선생님의 응답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문의 : (주)서울마케팅리서치 우경애 과장 (☎ 02-6944-7543)

< 응답방법 >

- ※ 질문을 읽은 후 ☐ 칸에 ☒ 로 표시해 주십시오.
- ※ 주관식 문항의 경우 해당란에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사항

성별	☐ 1) 남 ☐ 2) 여	
연령	만_____세	
학교지역(광역)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학교지역(기초)	() 시/군/구	
재직 교급 및 담당 학년	☐ 1) 초등학교	☐ 1) 4학년 ☐ 2) 5학년 ☐ 3) 6학년
	☐ 2) 중학교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 3) 고등학교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사이버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인터넷, 휴대전화 등)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2.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미니홈피,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 정보(이름, 거주지, 재학중인 학교 등)를 유포시키는 행위
6.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안티활동을 하는 행위

문1번.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학교와 관련된 교육, 학습, 숙제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	1 ☐	2 ☐	3 ☐	4 ☐
2) 개인적인 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	1 ☐	2 ☐	3 ☐	4 ☐
3) 친구들 간의 소통이나 커뮤니티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	1 ☐	2 ☐	3 ☐	4 ☐
4) 일상 생활에서 시사, 상식, 교양 등을 위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은 권장되어야 한다.	1 ☐	2 ☐	3 ☐	4 ☐

문2번.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1) 학생들이 평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있다.	1 ☐	2 ☐
2)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1 ☐	2 ☐
3) 학생들이 자신의 SNS,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	1 ☐	2 ☐

문3번. 선생님께서는 평상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그렇지 않다 (☒)	그렇다	
		담당 학생 중 일부만 (☒)	담당 학생 대부분 (☒)
1)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1 ☐	2 ☐	3 ☐
2) 학생들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나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	1 ☐	2 ☐	3 ☐
3) 학생들과 인터넷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 등을 통해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는다.	1 ☐	2 ☐	3 ☐

문4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	알지 못함 (☒)	알고 있음 (☒)	잘 알고 있음 (☒)
1 ☐	2 ☐	3 ☐	4 ☐

문5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2□	3□	4□

문6번. 선생님께서는 아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그렇지 않다 (☒)	문제가 될 때만 한다 (☒)	주기적으 로 한다 (☒)
1) 인터넷 악성댓글이나,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하 거나 상담한 적이 있다.	1□	2□	3□
2) 인터넷 악성댓글이나,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주변 선생님들과 대화한 적이 있다.	1□	2□	3□
3) 학교폭력이나, 학교친구 간 괴롭힘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하 거나 상담한 적이 있다.	1□	2□	3□
4) 학교폭력이나, 학교친구 간 괴롭힘 문제에 대해 주변 선생님들과 대화한 적이 있다.	1□	2□	3□

문7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아니다 (☒)	그렇다 (☒)
1)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 발생하여 문제된 적이 있다.	1□	2□
2)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이 적발되어 문제된 적이 있다.	1□	2□
3)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이 알려졌으나, 문제된 적은 없다.	1□	2□
4)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 사실에 대해 학교가 알지 못한다.	1□	2□

문8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2□	3□	4□

문9번 .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 사이버 폭력 관련된 공식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모르겠음 (☒)	없음 (☒)	있음 (☒)
1□	2□	3□

문10번.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에 아래와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없다 (☒)	있다 (☒)
1)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하는 학생 처벌 규정 절차	1□	2□
2)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부 기관과 연계	1□	2□
3) 사이버폭력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함 설치	1□	2□
4)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부착, 홍보물	1□	2□
5) 수업시간 중 휴대폰(스마트폰) 사용금지(압수 등)	1□	2□

문11번 .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에 사이버 폭력 관련된 공식적 규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2□	3□	4□

문12번. 선생님께서는 담당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해당되는 사항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선택 (☒)
1)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1□
2) 해당 학생을 면담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혼낼 것이다.	2□
3)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께 알리고,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	3□
4) 학교 내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4□
5) 외부 전문 상담신고 센터/기관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5□
6)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적 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6□

문13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문제 외에 아래와 같은 학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1)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1□	2□	3□	4□
2)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1□	2□	3□	4□
3)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다.	1□	2□	3□	4□
4) 학생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1□	2□	3□	4□
5) 음란물, 폭력물 등 학생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	1□	2□	3□	4□

문14번. 선생님께서는 학교 밖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학교의 공식적 규정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	(☒)
1□	2□

문15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	(☒)
1□	2□

문16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대응에 관한 교육을 누가 우선하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대상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내 용	(순위)
1) 교사	1□
2) 학교장	2□
3) 학부모	3□
4)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종사자	4□
5) SNS종사자	5□
6)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관련 사회단체	6□
7) 기타	()

문17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1□	2□	3□	4□

문18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	(☒)
1□	2□

문19번. 선생님께서는 사이버폭력 외에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상담, 권고, 조언 등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	별로 하지 않는다 (☒)	가끔 한다 (☒)	매우 자주 한다 (☒)
1)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문제	1 ☐	2 ☐	3 ☐	4 ☐
2) 학생들의 욕설이나 비속어 등 언어폭력 문제	1 ☐	2 ☐	3 ☐	4 ☐
3)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 문제	1 ☐	2 ☐	3 ☐	4 ☐
4) 학생들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	1 ☐	2 ☐	3 ☐	4 ☐
5) 음란물, 폭력물 등 학생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	1 ☐	2 ☐	3 ☐	4 ☐

문20번.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보기에 제시된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5개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1) 부모나 가정	1 ☐	2 ☐	3 ☐	4 ☐
2) 학교	1 ☐	2 ☐	3 ☐	4 ☐
3) 행정기관	1 ☐	2 ☐	3 ☐	4 ☐
4) 사법기관(경찰/검찰)	1 ☐	2 ☐	3 ☐	4 ☐
5) 인터넷 관련 기업(포털/메신저/앱 관련 기업)	1 ☐	2 ☐	3 ☐	4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